

成載德

성재덕 생애

김례오 수녀 LSHF

서울 성가소비녀회 설립자 **피에르 생제** (Pierre N. Singer)

성재덕 베드로 신부 [1910年~1992年]

성가소비녀회
2015



서울 성가소비녀회 설립자 **피에르 생제** (Pierre N. Singer)
성재덕 베드로 신부 [1910年~1992年]

성재덕 피에르 생제 신부는 1910년 프랑스 태생이다. 그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 공화국시대의 시민교육과 파리외방성교회의 선교사제 양성을 받고 한국으로 파견되었다. 당시의 선교사는 청빈과 노동, 투쟁,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는 사도의 역할로 충만하였다. 35년간(1936~1969) 함덕에서부터 담동, 백동, 논산 그리고 홍산에서 7성사를 집행하며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배출하고 방인사제 양성에 기여하였다. 1943년 33세의 청년시절, 시대의 징표를 읽은 그는 서울 성가소비녀회라는 여성 수도회를 설립하였다. 선교사제로서의 본당 사목과 카리스마적인 수도회 설립! 평생에 걸친 이 두 가지 일을 그는 성공적으로 이룩해 내었다. 그는 가톨릭교회의 신앙으로 권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실천하였다.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가난하기만 했던 선교지의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도왔다. 교리교육만 아니라 공교육과 경제자립을 위한 일에도 손길을 주었다. 공소를 찾아 방문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나환자들의 집을 세우고 양로원을 개설하고 중고등 학교 시설을 확충 설립하고 마을 사람들에게서 시약의료 봉사와 구호물자를 제공하는 일 등등... 그러한 일들은 끝이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혼란 속에서 한국의 선교사 성재덕 신부는 마치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한국을 품어 안았다. 한국인 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1992년 타계한 그는 소비녀(小婢女)들의 아버지, 영적동반자로 기억된다.

서울 성가소비녀회 설립자 피에르 생제(Pierre N. Singer)
성재덕 베드로 신부

성재덕 생애

김례오 수녀 LSHF

성가소비녀회
2015



서울 성가소비녀회 설립자 피에르 생제(Pierre N. Singer)
성재덕 베드로 신부

성재덕 생애

김례오 수녀 LSHF

“우리의 설립자 성 신부는 남아메리카 교회가 박해를 받는 상황에 대하여 언급할 때, 그 시대에 교회가 하느님에 대해 가르치고 성사를 집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정의와 평화,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 등에 대해 관여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런 것들이 교회의 고유 업무이며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소비녀는 손님을 초대할 때 사심 없이 극빈자, 불구자와 같이 예외로 답례를 할 수 없는 사람들,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초대하자! 끊임없이 사람들을 사랑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며 연대하고 연민하는 사람들이 되자!
이것이 하느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정의이며 소비녀들의 정의이다.

수도자는 ... 찰나적인 행복에 빠져서 남의 사정에 무감각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느님과 삶에 관하여 말하되 그들이 권위를 부여해주기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본문 102쪽, 174쪽〉

성가소비녀회
2015

성재덕 신부가 신자들에게 한 강론과 소비녀들에게 준 가르침은 의심 없이 복음정신에 입각한 예수의 가르침 그것이었다. 참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대하여 그리고 인간의 내외적인 해방에 대하여.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강생이며 그것은 가난하고 고통 받고 억눌리고 소외되며 생명권에서 제외당하는 모든 이들의 해방과 자유와 평화를 위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선포하였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탐욕과 정치사회적인 불의의 세력에 저항하고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어서는 안된다고, 그들과 나누고 연대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였다. 청빈과 노동, 투쟁,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는 사도의 삶을 살아달라고 당부하였다.

“성탄에 예수 하늘에서 땅에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소비녀들도 앞으로 더욱 예수님과 같이 지극히 가난한 사람 중에 내리시기를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부잣집에까지 올라가는 것보다 공로가 더 많습니다.”

〈소비녀들에게 34쪽〉

서울 성가소비녀회 설립자 피에르 생제(Pierre N. Singer)

성재덕 베드로 신부

성재덕 생애

김레오 수녀 LSHF



2015

성가소비녀회

책 머리에

설립자 성재덕 베드로 신부님이 작고하신지 23년이 지났다. 그 해 1992년부터 우리는 설립자가 남긴 말씀과 글들을 책자화 또는 비디오로 엮어내는 작업을 지속하여 왔다. 본회의 간행물, 강론, 강의, 인터뷰, 심포지움, 연구논문들, 영상물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초창기 소비녀들의 이야기'와 2011년에 발행된 '피에르 뺑제의 설립 카리스마에 따른 강생의 신학적 관점'에 이르기까지 손꼽아 열 권 넘는 자료집들이 생겨났다. 설립자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부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었다. 나는 그 조각난 설립자의 빛들을 한데 모아 대해를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고 싶었다.

2009년 4월 18일 제6차 확대총평의회에서 설립자 탄생 100주년을 기해 여러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설립자 생애를 쓰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그리고 단행본 출간 계획서를 제출(12. 10)한지 만 4년 3개월이 지났다.

제15차 총회가 폐막되고 의정부 관구 본원으로 이동된 후 나는 이 책을 썼다. 역사자료실의 원본들을 바탕으로 그 여러 권의 기록들을 자료삼아 집필하였다. 그동안 우리 수녀님들이 성 신부님의 고향 프랑스 에탕 지역과 파리외방성교회 본부를 드나들며 인터뷰하고 수집하고 찍어온 덕분에 풍부한 시청각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나는 그 모든 것들 안에 산재되어 있는 설립자에 관한 이야기들을 설립자의 생애라는 관점에서 취사선택하고 요약정리하여 행간을 숙고 묵상 기도하며 편저하였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진자료들을 필요한 만큼 꺼내어 햇빛을 보게 하였다.

생애는 생명이 태동하는 발자취이며 구체적인 일상사의 집대성이다. 삶의 날줄과 씨줄이 얽히고 설켜 우주적인 어떤 이미지를 결성한다. 설립자의 서한문이 이 생애 기록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역사자료실의 실증서들은 그 서한문에 확신과 권위를 부여하였다. 설립자는 강생하신 예수와 같이 인성과 신성을 지닌 사람이었다. 나는 이 책을 읽는 이들이 우리의 설립자 성재덕 베드로 신부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설립자에 대한 나의 관심은 서울 성가소비녀회가 25주년을 맞은 그 때부터였다.

그 날 본원에서는 축제행사가 열렸다. 지원자였던 우리는 수도회 설립 카리스마를 사명으로 실천하는 짙은 드라마를 연출하였다. 나는 그 때 나환우를 모셔다가 돌보아드리는 초대 소비녀들과 대화를 나누는 검은 수단 차림의 설립자 성 신부 역을 맡았다. 그 때 받은 인상과 감동이 진화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고 한들 누가 아니라 할 수 있을까?

'성재덕 신부 1집 2집' 그리고 '서한집'을 읽고 또 읽으면서 나는 20세기를 살다 간 우리의 설립자 인간 성재덕 신부의 진솔한 면모를 마주하게 되었다.

돈독한 신앙을 지닌 부모로부터 그리스도교 교육을 받으며 백만장자를 그려보던 장난꾸러기 소년의 꿈은 점차 하늘나라에 대한 동경으로 바뀌어갔다. 본당의 젊은 보좌신부를 자신의 이상 상으로 삼고 따르면서부터 그는 본당신부나 선교사제가 되는 소망을 품게 되었다. 집안 식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절불굴의 의지로 관철하여 끝내 그 꿈을 이루어내고야 말았다. 멀고도 먼 한국이라는 이국에 와서 그는 정말 사도 베드로처럼 많은 이들의 영혼을 예수의 그물로 낚고 또 낚아 들였다.

보좌신부 경력을 합하여 본당사목 35년(1936~1969)동안 진행된 그의 선교활동은 괄목할만하다. 그리고 백동에서 첫 본당 주임으로 사목하던 젊디젊은 성 신부가 서울 성가소비녀회를 설립한 일 또한 더욱 괄목할만한 일이다.

조건이 좋든지 열악하든지 그는 불철주야 그 사명을 수행하였다. 미사를 비롯하여 본당 신자들을 위한 일은 물론 공소를 방문하고 성사를 주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하고 기도하며 매일을 하루같이 하느님과 함께하였다. 그리하기 56년의 시간! 그의 항시적인 행동반경은 언제나 성당과 신자, 수도자들 사이에 있었다.

그는 사목자로서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좋아하였다. 사제관은 늘 아이들로 붐볐고 성당 마당에서는 그들과 함께 놀아주었다. 그런 분위기에서 신학생을 배출하고 사제를 길러내었다. 자신의 생활은 검소하고 식생활도 가난하였다. 성당 텃밭에 손수 채소를 심어 먹기도 하고 홍산에 처음 와서는 살림도구 하나 없는 가운데 감자만 삶아 먹고 지내기도 하였다. 겉옷을 별로 세탁하는 일이 없이 물수건으로 닦아 입었다. 논산 성당을 지을 때는 추운 겨울에도 연탄을 때지 않고 절약한 금액으로 벽돌 한 장을 더 구입하였다. 정해진 본국 휴가 외에는 여행 한 번 가는 일이 없었다.

사목생활의 중심축이 되는 대상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아이들을 통해서나 방문을 통해서 가난한 이의 집 사정을 자세히 알아보고 대화하며 그 필요에 따라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다. 아무리 멀어도 환자를 방문하고 대세를 주고 연도와 장례에 참석하였다. 나환우 집, 양로원을 마련해주고 대건 학교 일에도 성심을 다하였다.

그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받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으나 그들 장례미사에 달려가지 못했다. 당시 한국 선교사의 열악한 경제상황이 그랬고 성 신부의 영적상황도 그러했으리라. 이후 남은 친족들과 특히 네 명의 여동생들과는 서신으로 친교 하는 삶을 통하여 가난함 속에서의 풍요로움을 현양하였다. 그는 자기 자신을 떠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오직 예수를 향한 일념으로 한 길만을 달려갔다. 홍산 신자들은 성 신부를 성인 신부님이라고들 한다. 화를 내거나 꾸짖는 일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항상 좋으신 모습으로 남아있다.

성 신부의 가족들은 그가 열린 신앙을 가진 현대인이라고 한다. 당시 유럽인들에게 독특한 신앙을 증거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조카 의사 장 피에르(66세)는 성 신부와 하는 일은 서로 달랐어도 인류를 위해 일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에 공감하며 서신을 주고받았다. 개인적으로 피에르(성 신부)를 흠모하고 그의 무덤에 가서 참배하고 싶다고 하였다.

성 신부는 서신을 통하여 조카들과 교리 교수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한국에서 어떻게 교리를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기도 하였다. 조카사위 조르주는 성 신부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봉헌하는 선교사제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오로지 열정을 다 바치는 사제였다고 한다.

여 조카 폴레뜨는 성 신부를 일컬어 마음이 즐거운 성인이라 칭한다. 단순 소박한 위대함으로 아이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 명량한 선교사. 그는 마음에 있는 것을 한국에 쏟아주는 예수그리스도의 사람이었다고 한다. 막냇동생 폴의 눈에 성 신부는 모범적인 그리스도교인 이어서 매우 자랑스러운 형님이며 자기는 사랑받는 남동생이라고 하였다.

조카 손자 다미엔의 말대로 성 신부는 자기 고향 프랑스에서는 이국적인 분위기를, 먼 나라 한국에서는 친정집의 분위기를 살았던 축복받은 선교사제였다.

본당 사목자로서의 선교사 소임을 다 하고 온전히 한 수도회의 설립자로 돌아온 성 신부는 회갑과 금경, 투병과 죽음의 과정을 성가소비녀들과 함께 치러냈다. 그 일련의 과정은 마치 하느님과 소비녀들에 대한 설립자의 사랑과 애정행각의 대 파노라마를 보여주는 듯하다. 회갑과 금경축 잔치 때 여동생들과 함께 한복 차림으로 즐거워하던 모습 또한 우리네 할아버지들처럼 편안하고 흡족한 여느 영감님과 다름 없었다.

투병과 죽음을 준비하는 기간, 3년 반이라면 꽤 오랜 시간이었다. 몸속에 들어있는 모든 악과 부정적인 것들을 다 쏟아내고 그는 떠나갔다. 최후의 고통 앞에서 저항과 투항을 반복하며 벌거벗은 인간의 투

명함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하느님과 소비녀들과 자신의 삼위일체적 공동체 삶 속에서 여러 가지의 고통이라는 가시에 찢려가면서 그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받아안았다. 강생 정점의 산길을 그렇게도 선명하게 누워서 넘어갔다.

선교 파견지 한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은 우리의 설립자 성 신부는 강생의 영성과 사명에 따른 해방신학적인 복음의 기쁨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 그것은 소비녀가 받은 유산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이자 보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설립자 “성재덕 생애”를 쓰는 동안 나는 여러분의 도움을 받았다.

설립자 성 신부를 모셨던(1971. 5~1992. 2. 26) 김 베아트릭스 수녀는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다고, 그것은 매 순간 주님의 현존 속에서 영성과 사명, 기도와 사도직을 하나의 삶으로 일구어내는 일임을 깨우쳤다고 하였다. 그 말씀으로부터 나는 성 신부가 아직도 살아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최 벨라도 수녀는 역사자료실에서 발췌한 문서 등의 불어 문장 해독을 도와주었고, 김 미리암 수녀는 한 달 동안 공동연구 기초 작업을 나와 함께 해주었다. 강 디모테오 수녀는 양성담당 총평의원으로서 꼭 필요한 의견을 주고 격려하고 지지해 주었다. 바쁜 중에도 틈틈이 교정을 보아준 안 마리벨라뎃다 수녀에게 감사한다.

사진 작업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정호기 마티아 형제는 성 신부님이 논산 본당에 계실 때 찍어 둔 기백장의 사진에 설명을 달아주었다. 아울러 이 책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감과 호의를 표명해준 우리 수녀님들과 인천교구의 오경환 신부님께도 감사한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파리외방선교회의 몇 분이 계시다 : 전해광 Dénè Jacques 신부님은 성 신부님의 신학교육과정에 관한 조언을 주셨다. 서봉세 Gilbert Poncet 신부님(1992년 당시 MEP 한국 지부장)은 여러 차례에 걸친 나의 질문에 상세하고도 정확한 해명을 주시고 필요한 불어 원문을 번역해 주셨다. 또한 현재 MEP 한국 지부장 임경명 Kermaal Immanuel 신부님은 파리 본부에 요청하시어 긴요한 사진들을 얻어 제공해 주셨다.

그 누구보다도 이 책을 내도록 배려해주신 총장 차 클레멘스 수녀님과 관구장 고 프란치스코 수녀님에게 감사한다.

“가난함과 가난한 자 미소한 자들을 사랑하시오. 그것이 소비녀 본 생활이며 또 특히 우리 사랑하는 예수의 본 모범과 원의입니다.” <유언서에서>

세기를 초월하여 가난한 이들 편에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랐던 우리의 설립자 성재덕 베드로 신부. 기쁨과 열정으로 생애를 가득 채운 우리의 설립자! 그는 평범 속의 비범을 즐기며 사회적 모성의 리더십을 여지없이 발휘한 쓸모 있는 봉사자였다.

창립 71주년을 넘기며 설립자 부재기간을 살아가는 오늘 서울 성가소비녀회는 성가소비녀회로 불리 운다. 축성봉헌생활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세세대대로 설립자의 영감과 함께 신비체 가족들을 위한 마음의 프로그램을 지니고 살아가는 하느님의 딸이며 성가의소비녀이기를 더욱 소망한다.

2015. 3. 6. 의정부 관구본원에서
김 레오 수녀

발간을 축하하며...

“하느님께 영원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설립자 성재덕 베드로 신부님의 생애에 관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재덕 신부님의 이야기이지만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냄으로써 설립자의 삶의 여정에서 일어난 많은 내용들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무언가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고, 이 책을 통해 다시 설립자의 생애를 읽어갈 많은 회원들과 공유한다는 것은 자기를 벗는 겸손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강생의 영성, 케노시스(Kenosis)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출간된 이 책은 바로 설립자에 대한 애정과 수도회와 후배들을 위한 사랑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설립자에 관한 자료들을 찾고 사진을 선별하는 작업 등은 고단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설립자가 살아온 삶 등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는 이 책은 우리로 하여금 설립자에 대한 많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할 것입니다.

이 책은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립자의 탄생에서 시작하여 어린 시절, 학교 시절, 부르심, 파리 외방선교회 입회, 사제 수품과 선교지 한국을 향해 파견을 받고 배에 오르면서 부산항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 성가소비녀회 설립, 활발한 사목 여정, 특별히 4부에서는 우리 수도회 설립자 성재덕 신부가 여생을 마감하기까지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수많은 사진들을 수록 정리하여 엮은 이 생애집은 수고가 묻어나는 작업이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배 수녀들이 더 깊은 설립자 연구를 하는 데에 좋은 초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새롭게 설립자의 삶이 큰 울림으로 다가옴을 느끼면서 다시 한 번 우리 수도회의 설립자 성재덕 베드로 신부님에 대한 감사와 그분의 선교사로서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이 책은 설립자의 생애에 관한 것이지만 성가소비녀회의 생애이기도 합니다.

수도회 72주년을 맞는 해, 이 은총의 사순시기에 이 책을 발간하게 되기까지는 오직 목표를 향해 열정을 다하신 김 레오 수녀님의 인내로운 연구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과 헌신에 감탄하면서 이러한 과정이 수녀님 개인의 삶에서도 소중한 결실로 마무리되었으리라 믿으며 소비녀들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리고 발간하게 됨을 축하합니다.

2015. 3. 5
총장 차 클레멘스 수녀

성재덕(PIERRE N. SINGER 베드로) 신부

약력

1910	9. 13	프랑스 북부 에댕(Hedin)에서 탄생
1915		생 조셉 초등학교 입학
1919		생 베르탱(Saint Bertin) 중·고등학교 입학
1928		파리외방선교회 입회
1935	7. 7	사제 수품
1935	11. 1	한국 진출
1936	4. 30	대전교구 합덕본당 보좌
1938	6. 1	인천교구 답동본당 보좌
1939	7. 7	서울교구 혜화동본당 주임
1943	12. 25	성가소비녀회 창설
1944		미아리(현 길음동)본당 신설
1946		성체거동 실시
1948	6	휴가 귀국
1949	5. 2	대전교구 논산본당 주임
1951	8. 31	논산 대건고등학교 설립인가
1953	1. 3	샌뵈양로원 설립
1956		양생원(현재 성광원) 설립
1956	10. 15	대건중고등학교 신축교사로 이전
1958		대전교구에 레지오마리아에 도입
1960	7. 7	사제 수품 25주년 은경축
1961	7. 10	충남도지사 감사장(양로원 설립, 극빈자 구호사업 공헌)
	10. 13	논산군 교육회장감사장(교육사업 공헌)
1962	2	병고로 귀국
	3	샌뵈여중고 설립인가
1964	7. 1	대전교구 홍산본당 주임
1969		홍산 신용협동조합 창설
	12. 29	성가소비녀회 지도신부
1973		휴가 귀국
1978		병고로 귀국(신장으로 결석 수술)
1979	12. 19	프랑스 공로훈장
1985	9. 13	사제 수품 한국진출 50주년 기념
1987		투병생활
1992	2. 26	선종(향년 82세)

서울 성가소비녀회 설립자 피에르 생제(Pierre N. Singer)

성재덕 베드로 신부

성재덕 생애

김레오 수녀 LSHF







목차 Contents

제 I 부	피에르 N. 썩제의 탄생과 하느님의 부르심	19
제1장	피에르 썩제의 탄생	20
1.	탄생과 가문	20
2.	피에르의 어린 시절	25
3.	영적자아의 눈을 뜨다	27
제2장	하느님이 피에르 썩제를 부르시다	29
1.	썩 베르땡 학교에서	29
2.	부르심에 응답하다	34
3.	피에르의 지도자들	36
제3장	사제 수품과 한국 파견	39
1.	피에르 썩제 사제가 되다	39
2.	부모님과의 작별	41
3.	피에르 썩제 신부 선교사가 되다	42
제4장	피에르 신부 선교파견 장도(長途)에 오르다	49
1.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49
2.	인도양으로 접어들다	55
3.	사이공 기항지에서	57
4.	일본해협으로 들어오다	61
5.	부산항에 내리다	62
6.	11월 1일 금요일 서울 도착	63
제 II 부	한국 파견 선교사 피에르 썩제 신부 서울 성가소비녀회를 설립하다	65
제1장	보좌 신부 시절	66
1.	주교관에서	67
2.	대전교구 합덕 본당 보좌신부로 부임하다	68
3.	인천교구 답동성당 보좌신부로 가다	69
제2장	선교사 피에르 신부 백동 본당 주임 사제가 되다	72

Contents 목차

1.	백동 성당	72
2.	본당 운영 방침을 세우다	73
3.	본당의 단체들을 지도하다	75
4.	전쟁의 와중에서	78
5.	공소 신설과 본당 분립	79
6.	성체거동과 성모의 밤을 처음으로 실시하다	80
7.	자문 기구와 봉사회를 구성하다	81
8.	구원하고자 하는 성 신부의 한국 사랑	81
제3장	성재덕 베드로 신부 서울 성가소비녀회를 설립하다	84
1.	수도회 설립 동기	85
2.	서울 성가소비녀회(聖家小婢女會) 탄생 Little Servants of the Holy Family of Seoul. LSHF	87
3.	서울 성가소비녀회의 영성과 사명	92
4.	설립자 성재덕 베드로 신부의 예언자적 시각	96
5.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	100
6.	설립자 성재덕 신부 첫 번째 휴가를 가다	102
제 III 부	착한 목자 성재덕 베드로 신부	107
제1장	성 신부 논산본당 주임으로 가다	108
1.	첫 번째로 부딪친 문제	108
2.	성 신부 논산 대건 중고등학교를 탄생시키다	111
제2장	성 신부 논산 본당을 운영하다	113
1.	사목자 성 신부 본당 수녀와 함께 일하다	113
2.	신자 사목과 선교	114
3.	삶과 말씀의 양치기 성재덕 베드로 신부	117
제3장	6·25 수복 후의 성무 집행	121
1.	부활 시기	121
2.	공소 방문 4월 2~22일	123
3.	4월 23일~5월 14일	125

목차 Contents

4. 성체거동. 썬벨 양로원	127
5. 사람 낚는 어부 성재덕 베드로 신부	129
제4장 _ 성전을 건립하고 봉헌하는 성재덕 베드로 신부	135
1. 마산 성전 1959년	135
2. 성 신부 은경축	137
3. 성 신부 논산 부창동성당을 건립하다	139
제5장 _ 논산의 선교사 성재덕 베드로 신부	141
1. 성 신부 강경 경찰서에서 종교 강의를 하다	141
2. 가난해도 이웃을 사랑하는 한국인들이 있다	141
3. 기쁘고 행복한 사목자 성재덕 베드로 신부	142
4. 신병 치료차 휴가를 가다. 1962년 2월 6일~1964년 6월 13일	144
제6장 _ 성 신부 홍산 본당 주임으로 가다	147
1. 홍산 본당의 상황	147
2. 성 신부 본당의 일을 시작하다	148
3. 홍산의 성 신부 서울 성가소비녀회 수녀를 초청하다 1966년	150
4. 신앙의 힘으로 버텨나가다 1967년	152
5. 병고의 시련을 뚫고 나가다 1968년	153
6. 성 신부 주님의 섭리에 순응하다 1969년	155
제Ⅳ부 서울 성가소비녀회 설립자 성재덕 베드로 신부	159
제1장 _ 성 신부 서울 성가소비녀회 설립자로 돌아오다 1969년 12월 29일~1992년 2월 26일	160
1. 설립 수도회로 귀환하기까지	160
2. 성 신부의 뜻과 주님의 응답	163
제2장 _ 성 신부 서울 성가소비녀회의 지도사제가 되다 영성 강의, 미사 강론, 기타 훈화 가르침	166
1. 수도공동체로 돌아온 성 신부의 감회	166
2. 소비녀 양성을 위하여	168
3. 설립자 성 신부의 가르침	172
4. 설립자 성 신부의 영성 강의	174

Contents 목차

5. 설립자 성 신부의 기고문	175
6. 수련소 강의와 방문 일지. 훈화	176
7. 성 마리아와 성 요셉에 관한 말씀 1953년, 1965~68년, 1971~79년, 1981년	177
8. 성 신부의 피정 지도	179
9. 서한문을 통한 소비녀 영성 지도	181
제3장 _ 설립자 성 신부 결실의 시기를 맞이하다	184
1. 탄생 60주년	184
2. 수녀들의 시위 참여를 묵인하는 설립자 성 신부 1975~1977년	188
3. 교회의 권위 안에서 호응적인 성 신부	190
4. 일상의 성 신부	193
5. 칠순의 원로 사제가 되어 1980~1984년	195
6. 고혈압으로 신음하는 설립자 성 신부	200
제4장 _ 설립자 성 신부 금경축을 맞이하다 1985년	202
1. 성 신부 눈물과 설렘의 시간을 만끽하다	202
2. 성 신부 사제 수품 50주년 축일을 지내다. 1985년 9월 13일	204
3. 성 신부 초조해지다 1986년 2~4월	209
제5장 _ 성 신부 투병에 빠지다	213
1. 생의 마지막 시기에	213
2. 성 신부 집에서 쓰러지다 1987년 6월 8일	214
3. 성 신부 존재부동(存在不動)의 사도직을 체험하다	216
4. 가족에게 보내는 유언	218
제6장 _ 성 신부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다	220
1. 1987년 6월 8일부터 육신을 떠나기까지	220
2. 故 성재덕 피에르 생제 신부를 영결하다	222
3. 성재덕 베드로 신부님을 보내드리고	226

주요참고 문헌 232

제 I 부

피에르 N. 뽕제의 탄생과
하느님의 부르심



피에르 N. 뽕제 생가

제1장 _ 피에르 썩제의 탄생

서울 성가소비녀회 설립자 성재덕 베드로 신부는 프랑스 사람이다. 그가 태어날 무렵 프랑스는 제3공화정 시기(1870~1940년)를 지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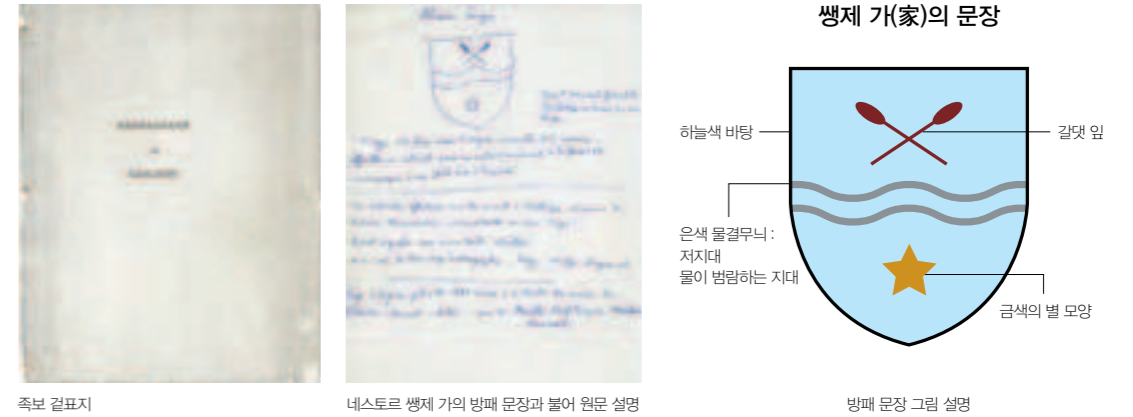
나폴레옹 3세의 몰락 후 왕당파와 공화파의 대립이 지속되었지만 1875년 베르사이유에 있던 과도체제 정부는 파리로 옮겨졌으며 대통령제가 수립되었다. 바야흐로 대혁명(1789~1799년)의 정신을 본격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때가 되었다. 그러나 그 공화국의 헌법은 아직 단일 법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제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은 불안하였다. 그런 가운데 제3공화국의 헌법은 1945년 10월까지 존속하였고 사실상 1946년 공화국의 붕괴를 가져왔으며 역사의 장은 제4공화국으로 넘어갔다.



프랑스 대혁명 (1789)



프랑스 혁명 당시 시민들이 삼색기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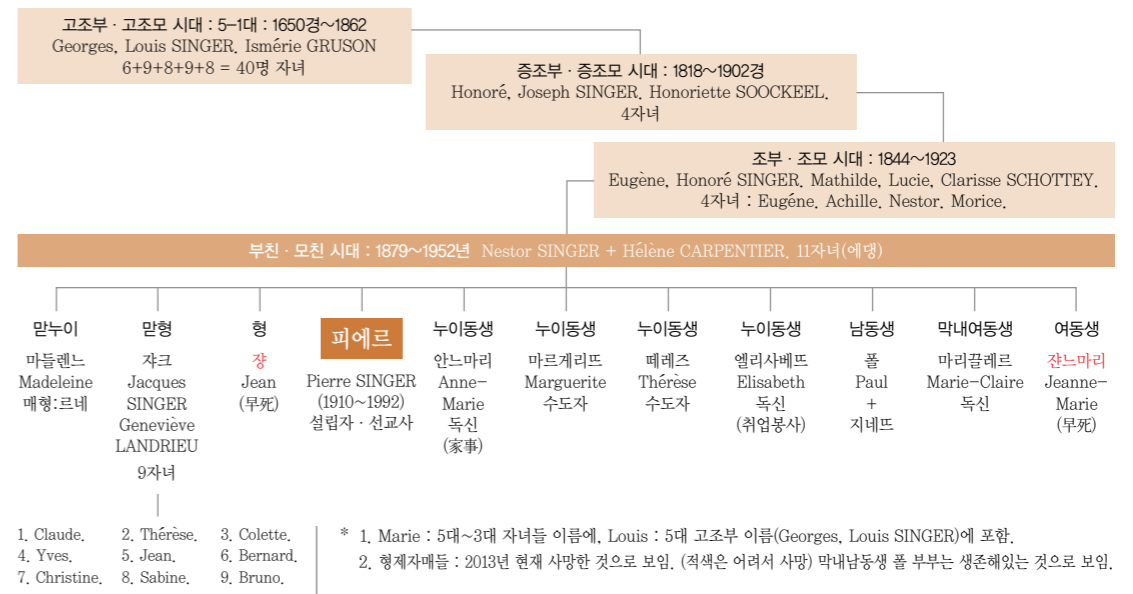


죽보 결표지

네스토르 썩제 가의 방패 문장과 불어 원문 설명

방패 문장 그림 설명

성재덕 베드로 신부 가계도 (Pierre Marie Louis Nestor Singer)



1. 탄생과 가문

피에르 마리 루이 네스토르 썩제가 태어난 고장은 벨기에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프랑스 북동부 빠 드 깔레 도(道)의 에명 마을이다.

1910년 경술년(庚戌年) 9월 13일 오후 여섯시 그는 태어났다. Pierre Marie Louis Nestor SINGER. Singer라는 단어는 영어와 옛날 독일어로 의심 없이 가수(불어 : Chanteur)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고조부 증조부 되시는 조상들(1650~1902년)은 플랑드르(Flandre : 벨기에 서부와 네덜란드 남서부를 포함하는 지역)에서 현재의 프랑스 빠 드 깔레 도로 이주해 온 귀족 가문이었다. 썩제 가의 문장은 갈대 잎과 물결무늬와 별 모양의 문양으로 되어있다.

8세기에 처음 나타난 플랑드르라는 단어는 '저지대' 또는 '물이 범람하는 땅'이라는 뜻이다. 농업 시기를 지나 직물 생산과 국제 교역이 활발해지자 모든 나라의 상인들이 플랑드르로 모여들게 된다. 플랑드르는 봉건체제 이후 왕권이 확립되었고 건축양식과 문학, 미술 그리고 16세기에는 인문 과학과 법학, 수학도 발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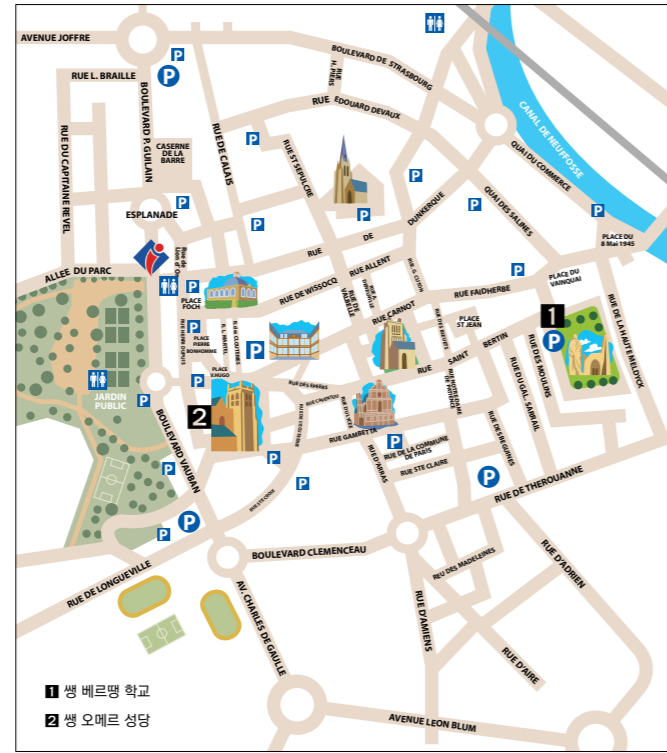
빠 드 깔레 도는 아라스를 도청소재지로 하며 깔레는 그 도에 속하는 공업항구로서 기후는 온화하여 농업을 주로 하기도 하였다.

썩제 집안 조상들(1684~1850년)은 플랑드르에서 빠 드 깔레 도의 메르빌(Merville)을 중심으로 너프 베르갱(Neuf Berquin), 썩 버낭(Saint Venant), 모르벡(Morbecque) 등지로 왔다.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썩제 가문의 조상들이 어떻게 지냈는지에 관하여서는 전



프랑스 지도와 플랑드르 지역



생 오메르 악도

해져 있지 않다. 가문의 아들들은 생 오메르 지역에 있던 당시의 명문교 생 베르맹 학교 출신들이었다. 귀족 가문의 명문교 출신의 위상을 지닌 그들이지만 아마 그때부터 그리스도교로 회개하였을 것 같기도 하다.

조부모(Eugène, Honoré SINGER, Mathilde, Clarisse SCHOTTEY) 시대(1844~1923년)부터는 우리에게 친숙한 생 오메르(Saint Omer)로 와서 살게 된다. 조부는 오노레 요셉 썩제와 앙리엠프 썩젤의 아들이

며 4명의 아들(1. Eugène, 2. Achille, 3. Nestor, 4. Maurice.)을 두었다. 이후 피에르의 부친은 에맹마을로 와서 살게 된다.

피에르는 아버지 네스토르 썩제(Nestor SINGER)와 어머니 엘렌느 가르팡피에(Hélène CARPENTIER)에게서 난 열한 명의 자녀들 중 네 번째 아이였다.

그가 태어난 집은 에맹의 자끄몽 가에 있었다. 아버지가 경영하시는 피혁공장에 이어져있는 가옥이었다. 그리고 1918년 이후 피에르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아



시청 건물과 프랑스 국기 (자유·평등·박애 상징)



피혁공장에서 보는 피에르 생가

다리에서 본 피혁공장

피혁공장 정면

홉 살 이후에는 이사 간 집(제네랄 레글레르 길 : Avenue du Général Leclerc)에서 살게 되었다. 오랫동안 스페인의 지배를 받은 국경지대 에맹의 주민들은 타지방인 아쟁쿠르, 크레시, 온슈트, 아라스, 바폼 등등의 지역으로부터 잦은 침략과 전쟁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다. 군인 거주 시설이 여러 개 있는 군사 주둔 도시이기도 하였다. 아라스에 광산이 있었고 이태리, 폴란드인들이 와서 탄광 일을 하다가 그 일이 끝난 다음에는 농부가 되어 눌러앉아 살곤 하였다.

이미 산업화된 이 지역에서 에맹은 소도시화 되어가고 있었다. 가톨릭 신자는 많지 않았다.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운 만큼 그 모든 난관을 이겨내는 굳건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함으로써 노동의 가치를 살려나갔다. 그들의 깨끗한 재건의지는 세세대대 전달되는 연대감으로 발전하였다. 교육정도를 불문하고 이웃의 어려움에 함께 할 줄 아는 피에르의 고향 사람들이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개울물과 길가에 나무들, 시간마다 울려주는 성당의 종소리. 이 모든 것들은 맞은편 산의 울창한 대자연의 숲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해주는 또 하나의 층만함이었다.

아직은 시골스러운 평온함과 친환경적인 고장 에맹에서 엘렌느 가르팡피에(1884~1952년)와 네스토르 썩제(1879~1950)는 만났다. 그들은 결혼하면서 엘렌느 가문이 소유하고 있던 집과 작은 피혁업체 공장을 이어받아 살게 되었다. 피에르가 세상의 빛을 보기 위한 준비는 그렇게 차곡차곡 이루어졌다.

두 사람은 혼인성사(1904년 4월 25일)를 통하여 열심히 충실한 그리스도인 가정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였다.

피에르는 태어난 지 9일 만에 에맹의 노트담 성당에서 유아세례를 받았다.

세례 문서에 피에르의 대모는 마리-루이즈 가르팡피에, 대부는 자크 썩제로 되어있다. 이모와 큰형님이 대모·대부를 서준 것 같다.

네스토르 썩제 가에 네 번째인 그의 탄생은 부모들에게 이미 신기한 상자,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를 보물 상자와 같았다. 세 살 때 형들과 누이와 나란히 앉아



피에르가 유아세례를 받은 성세 대

루드르 성모 동굴



피에르 세 살 때 (피에르: 왼쪽 끝)

서 찍은 사진을 보면 동그랗고 통통한 얼굴의 곱슬머리 아이. 그 눈동자는 하늘을 향해 치켜뜬 채 무엇을 주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금발에 맑은 목소리를 지닌 응석받이이기도 했다. 그는 어려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이끄는 끈끈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두 살 차이인 바로 윗형장(Jean)은 피에르가 7세 때 병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때까지 가장 친한 사이였던 그의 죽음은 충격적이었으나 그로 인해 피에르는 일곱 살의 어린 나이에 형제자매들의 서열에서 한층 상승하여 셋째의 지위를 담당하게 되었다.

큰누님 마들렌(Madeleine)과 형님 자크(Jacques), 그리고 피에르(Pierre), 그 뒤로는 네 명의 여동생 안느 마리(Anne Marie), 마르그리트(Marguerite), 테레즈(Thérèse), 엘리사벳(Elisabeth)이 태어났고, 그 다음은 남동생 폴(Paul), 마지막으로 막내 여동생 마리 끌레르(Marie Claire)의 순으로 이어졌다.

잔느 마리(Jeanne Marie)라고 이름 부쳐진 열한 번째 아이가 태어나기는 했으나 에댕에서 낳았다는 기록 외에는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낳자마자 유명을 달리했으리라 생각된다.

살아남은 9남매 중 셋째 피에르는 성직자 피에르 쌍제 신부가 되었고 두 명의 여동생 마르그리트와 테레즈는 뽕 모르(Dames de St. Maur) 수도회의 수녀가 되었다.

안느 마리는 주로 어머니를 도와 집안 살림을 이어갔고 엘리사벳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직업을 가지고 몸이 불편한 막내 여동생 마리클레르를 돌보며 이들은 평생 동정으로 살았다.



피에르네 9남매 (세 번째: 피에르)



이사 간 집

Headline: - Recensement de population : liste nominative. 1911 (N 2646)

1	Pierre	1911	1911	1911	1911	1911	1911	1911	1911
2	Jean	1911	1911	1911	1911	1911	1911	1911	1911
3	Madeleine	1911	1911	1911	1911	1911	1911	1911	1911
4	Jacques	1911	1911	1911	1911	1911	1911	1911	1911
5	Anne Marie	1911	1911	1911	1911	1911	1911	1911	1911
6	Marguerite	1911	1911	1911	1911	1911	1911	1911	1911
7	Thérèse	1911	1911	1911	1911	1911	1911	1911	1911
8	Elisabeth	1911	1911	1911	1911	1911	1911	1911	1911
9	Paul	1911	1911	1911	1911	1911	1911	1911	1911
10	Marie Claire	1911	1911	1911	1911	1911	1911	1911	1911

1911년 인구조사표 6: Singer Pierre(쌍제 피에르), 자그몽 가.

2. 피에르의 어린 시절

빠 드 깔레 도(道)의 작은 마을 에댕에서 피에르는 부모님과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는 삶을 통해 하느님을 만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충만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피에르가 아마도 예닐곱 살 이나 되었을 때 어머니는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워 아이들이 성당에 가지 못한 날이면 언제나 미사에서 돌아와 성체를 받아 모시고 온 그 따뜻한 당신의 가슴에 아이들이 친구하게 해주었다. 그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머니의 가슴으로부터 피에르는 성체성사의 감미로움을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순간으로 맞이하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기회가 닿기만 하면 새벽 7시 미사를 드리러 갔고 성장하면서는 네다섯 살의 어린 여동생들을 데리고 미사 놀이를 즐겨 하였다. 그들이 점점 더 성장하면서는 제의까지 만들어놓고 복



미사 복사 피에르

사를 세우고 헌금까지 받아내면서 섬김의 리더십을 여지없이 발휘하였다. 인형들에게 세례 주기를 좋아했고 기상천외한 본명을 붙여주기도 하였다. 그래서 여동생들이 그 본명을 바꾸어 달라고 해도 한 번 한 결정은 바꾸지 않았다.



에댕 마을 위성사진 부분 (에댕마을 약도의 번호와 같음)

에댕 마을의 노틀담 성당



에댕 마을의 노틀담 성당 정문



에댕 마을의 노틀담 성당 제대



에댕 마을 약도

그에게는 모험심도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께서 눈을 떠보니 옆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다. “아메리카로 떠납니다. 백만장자가 되어 돌아올게요.” 부모님께서서는 당연히 걱정도 않으셨다. 그리고 그날 저녁 피에르는 어깨 위에 장대 하나를 메고는 그 장대 끝에는 괴나리봇짐을 해서 손수건으로 동여 묶은 채 돌아왔다.

“저런, 벌써 돌아왔니?”

“네, 비는 많이 쏟아지는데 비를 피할 곳도 없고 우비도 없어서요.”

모험은 결국 그렇게 끝이 났다.

독창적인 그의 발상은 싱거운 해프닝으로 이해되었고, 순진무구한 그 자체로 용서되었으며 진지한 감동으로 보상받는 장난일 뿐, 오히려 주위에 따스한 미소와 다정한 일상을 일깨워 주는 추억으로 남아 있다.

어머니는 자녀교육을 위하여 아이들을 기숙사에 보내고, 대학에 보내고 하면서 물질적으로도 힘들어 했고 집안일로 늘 바빴다. 피에르는 여동생 엘리사벳과 끌레르 그리고 남동생 폴을 봐주는 일에 기꺼이 동참했다. 그들을 유모차에 태워 잘 끌어주고 흔들며 주면서 ‘달라라 예루살렘’이라는 노래를 흥겹게 부르곤 했다.

아버지는 자녀들 종교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10남매의 출산 때마다 유아세례를 빠짐없이 받게 하였음은 물론, 견진성사, 주일학교 등 교리 공부를 철저히 시켰다. 에댕 성당에서 세례 갱신식을 하기 위하여 일주일에 두세 번 교리를 받는데 그 달콤한 어린 자녀들의 아침잠을 깨워 보냈다. 추운 날도 인정사정없이 매 번 일찍 깨웠다. 그는 또한 아이들의 이름이 나오게 하는 기계장치를 만들어서 매일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묵주기도를 하도록 해주었다.

그때는 각 가정에서 만과(저녁기도)를 할 때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동으로 하는 시대였는데 아빠가 썩 오메르로 출장을 갔을 때 저녁기도 시간이 되면 당신은 썩 오메르 대성당의 기적의 성모님 상 앞에서 기도하고 자녀들은 집에서 같은 시간에 기도하면서 기적의 성모님을 생각하도록 하곤 했다. 하루를 잘 살지 못한 아이들은 이 만과 시간에 함께 만과를 읊을 수가 없었다. 그것이 별점이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동네 아이들의 대부가 되어주었으므로 그 아이들하고도 자연스럽게 잘 어울려 지냈다. 집 뒤에 큰 정원이 있어서 형제들과 사촌들과 축구도 하고 자전거도 타면서 즐겁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3. 영적자아의 눈을 뜨다

썩 죠셉 초등학교(1915~1919년)에서 피에르는 공화국의 미덕과 시민의 임무, 애국사상을 접하며 모국어인 불어와 산수, 시민 생활을 배우고 익혔다. 피에르의 관심사는 이제 더 이상 가정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다. 아동기에 그의 사고방식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여갔다. 집을 떠나 학교라는 집단생활에서 협동심과 경쟁심이 융합하여 규율을 지켜나가는 사회성을 길러내었다. 교환이나 분배에 있어서 양적으로 동등해

야 한다는 도덕적 정의에 입각한 미사 놓이는 그에게 상호작용을 위한 이상적인 게임놀이가 되었다.

피에르는 아주 어려서부터 사제나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말해왔다. 그가 열 살쯤 되었을까? 어머니가 정육점에 갔을 때 그 고깃간 아저씨에게 “이 아이가 커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말하니 피에르가 대답하기를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본당 신부나 선교사제가 되면 되지 않겠어요?” 했다. 그 자리엔 이웃집 친구 테레즈도 함께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런 대답을 드린 이후로 피에르는 아마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 의식하면서 불편한 자신의 감정 다스리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제 2장 _ 하느님이 피에르 썽제를 부르시다

프랑스 북부 빠 드 칼레 도(道)의 에맹에서 태어난 피에르는 고향마을의 노틀담 성당에서 유아세례를 받고 신앙 깊은 부모님의 지도를 받으며 성장하였다. 교리와 내외적인 삶의 교육과정은 그에게 오롯한 하느님 사랑이 스며들게 하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여러 명의 형제자매들 중에서도 피에르는 특별히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기에 자유분방하면서도 빛나가지 않고 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같다.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깊은 양심의 소리를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발자취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저 높은 곳으로의 부름을 감지한 피에르는 성소의 싹을 틔우고 싱싱한 나무로 자라났다.

1. 썽 베르땡 학교에서

썽 오메르 시에 있는 썽 베르땡 중고등학교(1919~1928년)에서는 라틴어를 비롯한 영어, 희랍어, 그 밖의 외국어, 수학과 작문 등 다양한 과목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다. 그 학교는 아라스 교구 학교로서 많은 신앙인과 지식인을 배출한 명문교였다. 피에르 집안의 8대에 이르는 남자들이 모두 이 학교 출신이었던 만큼 피에르에 대한 기대 또한 남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썽 베르땡 학교 정면도



썽 베르땡 학교 정문



썽 베르땡 학교 상공 촬영



생 베르땡 학교 운동장



생 베르땡 학교 내 성모자상



생 베르땡 학교 친구들 (피에르 : 앞줄 왼쪽 끝)



생 베르땡 학교 벽화



생 베르땡 학교 밴드부 (피에르 : 앞줄 큰북 오른쪽)

9세기경 수도승 베르땡이 배를 타고 가던 중 하늘의 싸인을 목격하고 바로 그 장소 생 오메르 근교에 수도원을 지은 후, 1561년 베르땡 수도회의 한 수사가 생 오메르의 빈민 아동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숙학교를 세운 것이 생 베르땡 학교의 유래이다.



생 베르땡 학교 야외에서 (앞줄 왼쪽 끝 : 피에르 생제)



생 베르땡 학교 급우들과 (가운데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생 오메르 대성당 (아래 왼쪽 : 기적의 성모자 상)



생 오메르 대성당 성모 거동 상

생 오메르 성당은 640년 경 오메르라는 성인이 동정 성모님을 기리기 위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려는 의도로 지은 성당이다. 13세기에 고딕 양식의 대 성당으로 건립되어 중세기에 영성의 핵심 성당으로 두각을 나타내었다. 당시 신심이 두텁고 믿음이 깊은 이곳 주민들이 성모님께 기적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부여할 정도로 마리아의 거룩한 모성애를 구가하는 장소로 그 이름이 빛났다.

생 베르땡 학교에서 쓴 편지

수도생활과 다른 기숙학교 생 베르땡에서 피에르는 9년의 세월을 보내며 자신의 성소를 확인하게 된다.

입학 3년이 경과한 시기에 그가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1922년 1월)가 있다. 학과목과 라틴어 시험 성적이 B+ 투성이라는 보고를 드린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우수한 성적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수업시간에 떠들어서 벌을 서고, 종이 닭을 점으며 판짓을 해서 '꾸무럭거리다', '놀다', '헛되이 시간을 보내다', '종이 닭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동사들을 수십 번 쓰게 됐다고 한다.

수업시간에 늦었을 경우 선생님께서 "지금 몇 시냐?"라고 피에르에게 물었을 때 피에르의 대답은 "시



퐁텐느블로 궁전

을 기억하며 끝까지 다했다는 이야기도 잊지 않았다.

피에르는 시나 소설과 같은 문학방면에 흥미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퐁텐느블로의 꿀벌’이라는 잡지에 게재된 로베르 썩제의 시를 읽고 그에 대한 소감을 말하고 있다. “‘퐁텐느블로, 퐁텐느블로! 영원한 이별, 영원한 회한’ 그것이 바로 그분의 독특한 표현법입니다. 하여튼 무한히 사랑합니다”라고 썼다.

퐁텐느블로 국유림은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에 속한다. 센 강 좌안에 떨어져 위치한 숲 속에는 궁전이 있고 정원이 성을 둘러싸고 운하가 그 정원을 가로지른다. 낭트칙령 철회, 로마와의 협약, 나폴레옹 페위 조치 등의 역사적인 문서가 작성되곤 하던 그 성이 지금은 파리 사람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가 되었다.

한편 이 국유림의 이름을 딴 여객선 ‘퐁텐느블로호’가 침몰(1927년) 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사건을 두고 쓴 시인 지도 모른다.

철저한 규율 수칙과 학구열을 추구하던 명문교 생 베르맹 학교에서 독서로 허락된 그런 잡지가 있었다면 우선적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니면 그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런 잡지를 구해서 볼 수 있었는지 의문이 일기도 한다.

피에르는 그 외에도 이 편지에서 누님 마리 마드렌에게서 선물 받은 수첩을 잘 사용하고 있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후에 수도자가 된 여동생 마르그리트를 통하여 안느 마리에게 소식을 전하는 자상함도 보인다.

성소의 싹

건축가가 집을 지으려 할 때 맨 처음에는 바닥에 기초를 놓고 그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공간을 만들고 하듯이 피에르가 성소를 결정하기까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밟아 나가는 보이지 않는 금이 그어져 있었다.

피에르의 바로 위의 형님 장의 죽음으로 인한 슬픈 그들은 어머니의 가슴으로부터 각인된 성체 안의 예수님 사랑으로 치유되었고 부모님의 열심한 신앙과 신심의 덕분으로 주님과 끈은 단단해져 갔다. 본당

간은 다 같은데...”라고 할 만큼 유머 감각이 발달한 것 같다고 피에르의 큰 형수는 말해준다.

그런 일들은 그 기숙학교에서 틀에 박힌 규칙 생활에 어울리지 않았던 피에르의 기질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기회였다. 자유분방하고 생기발랄한 12세 소년의 기백이 통하지 않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다른 한 편 그는 이번 주간에 하기 싫었던 산수 숙제를 어머니와의 약속

의 보좌 신부님과 친구처럼 함께 하면서 사제나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그를 움직이게 했다.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의 구체적인 해답을 얻는 것 같았다. 그는 생 오메르 성당의 기적의 성모님 거동에 참석할 때마다 성모님께 특별히 자신을 봉헌하였다. 그리고 생 베르맹 학교의 성모님 앞에서 자주 기도하곤 했다.

어느 날, 그날도 늘 하던 대로 피에르는 학교 성당 안에 계신 성모상 앞으로 갔다. 성당은 마침 아무도 없이 조용하기만 하였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가며 가족들에게 먹혀들지 않는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불만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문자답하였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본당 사제나 전교 사제가 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어머니에게 한 대답도 있고 약속도 있지 않은가?”

한 번 내뱉은 그 말은 자나 깨나 잊히지 않고 늘 피에르의 귓가에서 맴돌았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와 기적의 성모님은 한 어머니이실 것이다. 틀림없이 나를 도와주시는 같은 분”이라고, 현실의 어머니와 천상의 어머니를 동

일시하게 되었다. 살아계신 어머니 엘렌느와 성모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은 피에르의 무의식 속에 한 덩어리로 뭉쳐있었다. 성모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성모님이 계시다.

세 분의 현존 속에 자기 자신이 간혀있는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이기도 하고 웬지 모를 자신감에 도취되기도 하였다. 주위 사람들의 어떤 반대를 받는다 해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다. 성체 안에 계신 성모님을 생각하면 힘이 생겼다. 엄마와 성모님은 성체 안에서 서로 두 손을 마주 잡고 들어계셨고 그것은 당연한 현실로 여겨졌다. 피에르는 이렇게 영적 모성과 육적 모성을 통합하고 있었다.



생 베르맹 학교 성당



생 베르맹 학교 성당 제대 위(성모자상)

이러한 직관으로 피에르 마리 루이 네스토르 썩제는 이제 썩 베르땡 학교에서 홀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그는 썩 베르땡 성당에서 성소를 얻었다고 큰 조카 장 피에르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2. 부르심에 응답하다

썩 베르땡 학교를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자 교장 르앙브르 신부는 피에르가 파리외방선교회에 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서(1928년 7월 25일)를 써 주었다. 피에르는 학업상의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성실히 노력했고 정규 고등 과정을 모두 이수했다는 것과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그의 확고한 의지와 소명이 부합하는지에 대한 시험의 기회를 주시라고 청하였다.

한편 피에르는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낸 후, 총장 신부님에게 오랫동안 원해온 신학교 입학을 허락해 달라는 청원서를 절실한 마음으로 써 보냈다(1928년 8월 31일).

“총장 신부님의 매우 겸손 되고 지극히 순명하는 자녀로 불리기를 고대하는 저의 존경하는 마음을 받아주시시오.”라고 썼다. 매우 겸손하고 지극히 순명하는 자녀로 불리기를 고대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만이 사제와 선교사의 소명에 부합하는 것임을 이제 그는 이미 깨닫고 있었다.

파리외방선교회는 교황청령 선교단체로서 종교개혁에 대응하여 개최되었던 트레نت 공의회 취지를 따라 방인 선교사제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들 사제는 그리스도교를 위해 봉사한다. 죽음을 불사하고 아시아로 파견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

파리외방선교회 신학교의 선교사 양성은 토마스 철학을 기반으로 신학과정과 신심적인 영성생활을 주도하였다. 삼위일체 신심, 예수성심 신심과 성모성심 그리고 순교정신으로 무장하는 교육적 삶의 과정이 되었다.

아시아에서는 때를 맞추어 천주교를 박해하는 시기여서 파리외방 선교사들이 순교하는 일이 자주 발생

하였다. 1600년대에 시작된 선교사제들의 순교는 3세기 동안 이어졌다. 4200여 명이 파견되었다면 그 중 172명이 순교하였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24명의 순교자가 탄생하였다. 그 이름들은 지금까지 파리외방선교회 순교자 방에 기록되어 있다.

그와 때를 같이 하여 많은 젊은이들은 이러한 순교 사실에 감동하여 파리외방선교회를 택했다. 예수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의 고통에 동참하여 성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확산되었다. 본당신부를 하다가도 순교 신심으로 불타오르게 되면 외방선교회에 입회하여 파견을 받고 떠나는 상황이었다. 피에르도 그러한 열성을 지닌 이들 중 하나였다고 하겠다. 후배들은 외방으로 떠나는 선배들을 향한 부러운 시선으로 자기들이 순교하려 떠날 그날을 고대하기 마련이다.

파리외방선교회 신학교에 입학(1928년 9월 21일 ~1935년 9월 20일)한 피에르는 먼저 비에브르(Bièvres : 파리에서 12Km 떨어진 곳)에서 2년간 철학 수업을 받았다. 그리고 덩케르크에서 1년간의 군 복무(1931년 10월~1932년 10월)를 마치고 뒤편 박 가(街)에 있는 파리외방선교회 신학교에 다시 들어간 것은 그가 22세가 되어서였다.

그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군 복무는 사실상 그를 잘 단련되고 건강한 정신으로 무장시켰으며 교인이라는 자기 신분을 감추지 않고 친구들을 만드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병영 생활을 오래 하지 않고 하사로 제대했다. 썩 베르땡 학교에서도 그는 우등생이라기보다는 즐겁고 좋은 친구로서의 추억을 남겨주었던 것처럼.



파리외방선교회 총장 (문시눌 게브리앙 대주교)



파리외방선교회 옛 건물



파리외방선교회 신학교



파리외방선교회



파리외방선교회 성당



수단을 입은 성 신부

부모님은 피에르가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승낙하기는 했으나,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금령을 내렸던 상황이다. 여름 방학이 되어 피에르가 수단 차림으로 나타나자 당연히 모두들 놀랐다. 아버지는 피에르에게 평복 차림으로 오라고 일러두었지만 그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신학생 복장을 하고 왔다. 아버지와는 토론을 벌였어야 했고 어머니는 관대하게 대해주었다.

가족들의 생각에는 소년 시절에 그렇게 산만하고 장난꾸러기인 아이가 어떻게 사제가 되려고 했는지 너무 빨리 성소를 받은 것 같기도 하여 의아하기만 하였다.

어려서는 개구쟁이였고 학교에서는 골칫덩어리라는 평까지 받았던 피에르가 청년 신학생이 되고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겉으로는 그저 평범하고 예의 바른 학생으로 보였지만 그의 속마음은 하느님께 대한 불타는 열정으로 자기가 하는 것에 최선을 다 했으며 그

모든 난관은 극복되었다.

육 년이 넘는 신학교 과정을 통하여 피에르는 어엿한 사제요 선교사로 육성되었다.

3. 피에르의 지도자들

피에르에게는 늘 좋은 지도자가 함께 해주었다. 부모님, 본당의 보좌 신부님, 학교 교장 신부님들이었다.

아버지는 에멩 마을에서 인부 열 명의 작은 피혁공장을 경영하였다. 세계적인 산업화의 영향으로 이농 현상이 일어나고 도시빈민 인구는 폭증하여 노동운동이 확산되고 중소기업이 경쟁의 희생자로 전락하는 시기에 피에르의 아버지 네스토르 썩제는 ‘금과 같은 고용주’로 칭송을 받는 기업주로 등장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며, 소신 있고 근면한 사람의 모습으로 에멩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다.

교회에서는 성체행렬 때 가마를 들고 늘 선두에 섰고 빈첸시오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이웃을 돕는 봉사자이며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가정의 가장이었다. 서로 돕고 사랑하고 일치하라고, 그것이 가족의 기쁨이며 행복이라고, 선행을 쌓고 교회를 위해 심신을 바치라고,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일이라고 가르쳤다.

교회는 새 생명의 모체가 된다는 것을 터득한 사람으로서 그는 매우 끈고 정직하고 자녀들 교육에 매우 엄격하였다.

피에르가 신학생 때 수단을 입고 집에 오면 “네가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하면서 그를 엄중하게 다루었다. 그는 아들들에게 자만심보다는 신앙심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 말씀은 프랑스인 남자들의 혁명 기질에서 배어 나오는 그 독특한 자존감보다는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참된 겸손함이 더 고결하다는 뜻이리라.

어머니는 관대하고 너그러웠다. 무엇보다 먼저 모든 것 위에 주님을 생각하라 하였고 자녀들의 마음을 섬세하게 헤아리며 지극한 애정을 쏟았다. 피에르의 여동생 리제트가 몸이 불편한 막내 여동생 마리끌레르를 위해 스스로 간호사 직을 선택하고 동정녀로 살기를 결심했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리제트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자상한 마음 씀씀이를 감추지 못했다.

피에르가 신학교에 갔을 때는 속으로 불안해하면서도 쾌히 허락해 주었고 여동생 테레즈가 수녀원에 갈 때에도 그랬다.

어머니 엘렌느 까르팡띠에는 빈첸시오회 여회장직을 맡아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봉사활동에 열심 하였음은 물론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을 식사에 초대해 주고 성탄 후 첫 번째로 태어나는 아이에



아버지



어머니



본당 보좌 신부님 (뒷줄 중앙, 그 오른쪽 피에르)



교장 알렉산드르 르앙브르 신부 (앞줄 중앙: 다시 태어난 날개)

게는 손수 옷을 지어 입혀주곤 하였다. 이러한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은 피에르의 마음을 움직였다.

에댕 마을에 한 젊은 보좌 신부가 있었다.

그는 헌신적이고 과감하며 지칠 줄 모르는, 선도자의 각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상상력이 풍부했고 젊은이들을 이해하며 훈련시키고 이끌어 줄 줄 알았다. 피에르는 신앙인이며 실천적인 그 젊은 사제를 열심히 따라다니며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이때의 체험은 피에르 신부가 한국에서 청년 사목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신학교 시절 방학 때 에댕 본당에 오면 그 보좌신부님과 함께 아이들을 만나 에댕 숲에서 놀다가 거기 참나무에 기적의 성모님 상을 매달아 놓고 기도를 하고 부모님과 함께 가서 기도 하곤 하였다.

‘다시 태어난 날개’라는 별명을 가진 알렉산드르 르앙브르.

그는 박식과 겸손, 관대와 분별이 조화를 이룬 사람으로서 썩 베르땡의 잊을 수 없는 교장 가운데 한 분 이시다. 그는 학생들에게 썩 베르땡 학교의 유서 깊은 역사에 대한 신념을 넣어주었다. 피에르의 아버지 네스토르 썩제의 친구였으며 그 신부님의 지도가 피에르의 성소에 큰 도움을 주었다.

교구 기숙학교에서 우등생이기보다는 언제나 명랑하고 착한 학생. 끊임없는 장난과 성격의 예민함으로 학업부진이기도 했던 학생 피에르를 지도하여 그로 하여금 총장 신부님에게 신학교에 받아주기를 원하는 탄원서를 쓰게 하였고 추천서를 써주기까지 한 고마운 분이시다.

제 3 장 _ 사제 수품과 한국 파견

어머니를 통해 받았던 성체께 대한 신심과 아울러 백만장자가 되겠다고 가출했던 경험으로부터 어린 피에르는 세상의 출세 길을 포기하고 나름 하느님 사랑의 길을 선택하는 동기를 형성하지 않았을까 생각 된다.

수업시간에 장난을 쳐서 벌점을 받거나 지각을 했을 때에도 시간은 다 같으며 선생님의 질책에도 태연하게 여유로운 자세로 답변하곤 하던 그였다.

창의적인 잠재력으로 가득했던 피에르는 전통적 신앙으로 엄격하기만 했을 썩 베르땡 학교와 파리외방 선교회 신학교의 분위기 속에서 겪어야 했던 적잖은 난관들을 마다않고 극복해 냄으로써 그에 따른 학습 효과들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었다. 사도의 역할로 충만하게 될 청빈과 노동, 투쟁과 죽음을 각오하는 군센 정신세계를 구축한 것이다.

초등학교부터 대신학교에 이르기까지 가톨릭교회학교 교육으로 일관했던 그의 길은 교회 안에서부터 뻗어나가고 있었다. 군대 생활도 그에게는 세상적인 어떤 이상이나 성공의 매력을 주는 길이 되지 못했다. 교회 없는 그의 삶은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마침내 초동의 꿈을 성취하고 한국 파견 선교사로서의 새로운 꿈을 펼치기 시작한다.

1. 피에르 썩제 사제가 되다

신학교 시절 방학 때 본당신부가 기록하여 신학교 장상에게 보내는 품행 설문지에는 17개 항목의 질문이 있었다. 개인의 영적 생활과 신심 활동의 열심 정도, 상하좌우의 대인관계, 이성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교회 활동, 자기 정체성 의식과 그 밖의 윤리적인 행위에 관한 설문 답지에서 그는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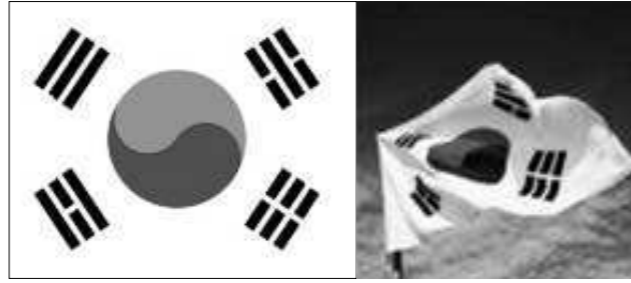
신학교 입학은 가족들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결정이었다. 일편단심으로 수단을 입고 다녔고 윤리적으로 의심받을 만한 행습도 없었다. 그는 자기 성소에 적합한 모습으로 변모하여가고 있었다. 썩 베르땡 학교에서의 피에르 썩제는 외방선교회 대신학교에서 그에 걸맞은 신학생답게 무럭무럭 성장하여 갔음을 보여준다.

그는 언제나 마음속에 교회를 품고 언제나 성모님께 봉헌기도를 드리며 선교사제가 되어 순교하러 떠날 수 있는 용기와 인내를 주시라는 청원을 기도하였다.

1935년 7월 7일, 사제 수품을 받음으로써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열정을 다해 자기의 삶을 사는 사제,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봉헌하는 선교사제가 되었다.



첫 미사 후



한국 국기 (태극문양: 음·양의 조화 - 우주만물의 상호작용)



한국 파견 전 가족사진 (앞줄 중앙, 조끼를 입고 있는 피에르 신부)

사제 수품과 동시에 그는 한국 선교사로 파견 발령도 받았다.

파견지로 떠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다. 조금은 흥분된 가슴으로 그는 에맹 집으로 향했다. 사제 수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선교지로 파견 임명을 받아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부모님께 알려드려야 할 순간을 생각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집에 들어서자 아버지가 먼저 피에르에게 말을 건넸다.

“네가 한국에 간다”

아버지는 친구인 교장 신부님에게서 벌써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음을 보란 듯이 내비치시는 것이다. 이때 피에르는 김이 팍 샀다고 여동생 리제뜨는 말한다. 늘 그렇긴 했지만 피에르에게 아빠는 단 한 번도 이겨볼 수 없는 전지전능의 하느님 같은 분으로 여겨졌다.

피에르는 에맹 본당에서 첫 미사를 드리고 나서 옆집에 동갑내기 친구 테레즈와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파리로 돌아갈 때는 피에르의 아버지와 테레즈 아버지와 의 동행 길이 되었다. 피에르는 집을 떠나기 전 여동생 리제뜨에게 한국 국기를 꺼내어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스스로 다짐했다. “이제는 말하리라 ‘보세요 어머니, 제가 선교사제가 되었잖아요! 9월 15일에 한국으로 떠난답니다’” 라고.

2. 부모님과 작별

있을 수 없는 만 25세 생일 1935년 9월 13일 금요일.

그날, 피에르 쌍제 신부는 파리외방선교회 신학교 지하성당의 성모 제단에서 미사를 드렸다. 부모님과 여동생 마르그리트, 데드리 사촌 부부도 왔다. 성작의 포도주를 축성하면서 피에르 신부는 부모님과 자기 자신의 희생을 그리스도의 성혈로 확인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집과 부모, 형제자매, 토지 등을 다 버린 자신은 지금 백배의 상을 받고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임을 고백하는 축제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 그것은 그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고 늘 위로가 될 생일 선물이 되었다.

파리 시내 라 그랑드 아르메 가에 쌍제 가족이 사용하던 집이 있었다. 거기서 부모님을 모시고 마지막 점심 식사를 함께 하였다. 참으로 즐겁고 끝내기 아쉬운 시간이었지만 피에르 신부는 작별을 고해야 했다. “이젠 가야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하느님께서 네가 25년간을 우리와 살게 해 주셨으니 우리는 불평할 권리조차 없지”라고, 헤어지기엔 아직 너무 이른 것만 같은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였다. 그리고는 하직 인사를 드릴 때 이제는 사제의 몸이 된 아들 피에르를 안아주고 축복을 주었다.

아버지는 사제의 축복을 청하시고 두 분은 피에르 신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피에르 신부는 전율을 느끼며 사제의 강복을 드렸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이 임하시고 영원히 머무르소서!”

마지막이라 생각하면 할수록 하느님의 현존 의식만이 조용히 감돌던 그 아르메 가의 집을 나오며 피에르 쌍제 신부는 ‘보세요 어머니, 제가 선교사제가 되었잖아요! 9월 15일에 한국으로 떠난답니다’ 하고 스스로 다짐했던 말을 침묵 속에서 전달하였다. 발코니에 기대어 점점 사라져 가는 아들 피에르 신부를 바라보며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은 피에르의 그 말을



파리외방선교회 지하성당



파리외방선교회 성모상



부모님



신부 당시의 사진 1935년 7월 7일

알아들었다는 듯, 언제까지나 손을 흔들어주고 계셨다.

3. 피에르 썬제 신부 선교사가 되다

9월 15일 주일, 피에르 신부가 파견 선교사의 예식을 끝으로 신학교를 떠나는 날이다. 그날도 지하성당 제대에서 미사를 드렸다. 누님 마들렌과 여동생 마르그리트 그리고 친구들이 미사에 참석했다.

미사 후에 원장신부님으로부터 파견 선교사의 권한을 부여하는 임명장을 받았다. 성교회의 규칙을 준수할 것을 선서하고 마지막 조인과 함께 뒤발 신부를 파견자들의 반장으로 정했다. 그리고 신학교 지도 신부님들께 하직 인사를 드렸다.

그분들이야말로 신학생들을 사제로 키우기 위해 큰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생활과 성무로써 꾸준히 도움을 주신 분들이었다.

재학생들이 출발자들에게 와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선후배 간에 온정을 나누며 강복을 받기도 하

는 신학교의 오랜 전통이었다. 가족적 분위기와 즐거운 우정의 빛이 여기저기를 밝혀주었다.

“빨리 떠나시오. 그래야 우리 차례가 곧 돌아올 테니까요” 하는가 하면 까마득하게 더 기다려야 하는 후배들은 감탄과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그토록 젊은 나이에 영예로운 순교에 다가선 것처럼 보이는 선배들이기에 말이다.

종이 울리고 양심 성찰을 위한 15분간의 기도 후, 오찬에 따른 후식 시간에는 포도주 잔을 들고 건배하였다. 모든 신부님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가서 잔을 부딪치며 석별의 정을 다시 한 번 즐겨 보는 시간이었다.

응접실에서 마지막 가족 모임을 가졌다. 아실르 삼촌과 큰 형 자크와 여동생들 안느마리, 마르그리트, 리제트 그리고 누님이신 마들렌느가 왔다.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애명 본당 보좌 신부님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다. 아마도 파견 예식이 시작된 이후에 왔을 것이다.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퍼붓고 있었다.

오후 2시 45분 종소리가 울렸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으므로 파견자들은 정원의 성모 경당으로 나가 지 않고 양심 성찰실에서 성모님께 간단한 봉헌식을 가졌다. 즐겨 꽃으로 꾸며 드리던 그 성모님 앞에서 선교사들의 이름과 목적지가 기록되어 있는 각자의 초에 불을 댕겨 꽃았다. 다음번 파견자들의 초가 꽃히는 그날까지 이들의 촛불과 피에르 썬제 신부의 촛불은 함께 타오를 것이다.

바크 가에서 성모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 '바다의 별이신 성 마리아여'와 '마니피깁'을 노래하였다.



1935년 9월 15일 가족 친지 친구 (앞줄 중앙: 피에르 신부)



타종



순교자 방 성모

파견식

이제는 정말 파견예식이 시작될 시간이 왔다. 성당은 초만원에 이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선채로 참석을 해야 했다. 성가 베니 크레아포르가 힘 있게 울려 퍼지자 장내는 조용해졌다.

성 방지거 사베리오 성당의 슈브로 본당 신부님이 훈화를 해 주셨다.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피에르 신부는 그 말씀에 공감하며 기도를 드렸다. 신앙 없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떠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지 않게 해주시라고 마음속으로 성모님을 부르는 기도였다.

성가대의 노래가 들려왔다.

“떠나시오 벗이여 이생에서 우리는 다시는 못 보리니

이름을 멀리 전파하여

먼 훗날 우리는 고향에서 다시 만나리니

잘 가시오 형제여, 잘 가시오.

사도의 역할로 충만케 하시오

청빈과 노동 그리고 투쟁

죽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병사들에게 약속하신 찬란한 미래.”

순교정신으로 점철된 성가대의 노래를 들으며 그 뜻을 새겨듣는 모든 이의 마음은 너무도 진지해지고 침통하기까지 했다. 강한 인간이어야 하고 성교회의 제단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일하며 고통받고, 기도하며 그 누구도 두려워해선 안 되는 매우 강력한 사람들. 선교사들, 휴식도 없이 그리스도께 봉헌을 계속해야 하는 사람들. 사랑이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는 항상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다.

파견 선교사들은 긴 행렬을 이루어 사제들과 스승들과 부모와 친구들에게 한 분 한 분 작별을 고하였다. 참석객들은 선교사들의 발에 입맞춤으로써 “평화를 전파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자들의 발걸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라는 말씀을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그 순간 피에르 신부는 신앙의 진실을 외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은총이 아니라면 선교사의 소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포옹의 작별 인사를 하는 동안 가족석에 있던 여동생 리제프의 눈물은 그칠 줄 몰랐다.

성체강복이 이어지고 파견 선교사들은 무릎을 꿇었다. 언제 어디서나 외방선교회 회원들과 하나 되어 생활하며 생의 끝 날까지 참다운 투쟁을 하기로 다짐하는 기도를 드렸다.

저녁식사에 감자튀김과 홍차가 나왔다. 후배들은 그것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조만간 그들도 이와 같은 식사 대접을 받게 되리라 기대하면서.

피에르 신부는 슝 외투와 모자, 가방을 들고 파견 선교사들과 함께 모원 앞에 모여 길 떠나는 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살베레지나를 불렀다.



선교사의 발에 친구하는 그림

15명의 파견 선교사 (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피에르 생제 신부)

출발

마지막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짐 가방을 다 실은 버스가 마당에 대기하고 있었다.

모든 사제들과 신학생들, 교우들, 그리고 열심히 여교우들, 사방에서 이름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내민 손들이 뒤엉키는 그 속에서 피에르 생제 신부는 원장 신부님과 다른 사제들에게 정중하게 하직 인사를 드렸다.

“멈춰요! 7년이면 족하잖아요.” 누군가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것은 비명에 그쳤을 뿐! 파리외방선교회 신학교에서 지금 이 순간을 위하여 온전히 바쳐진 그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었다.

파견 선교사 일행을 태운 버스는 신학교를 떠났다. 피에르는 차창 밖으로 손수건을 흔들며 동료들의 인사에 답했다.

파리의 주일 밤, 버스는 세느 강변을 지나 노틀담 대성당이 보이는 길로 미끄러지듯 달려갔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파리 시내의 리용역에서

그들은 리용역에서 기차를 타고 마르세이유 항구까지 가려고 플랫폼 홈에 섰다.

그곳까지 배웅 나온 지도신부님들과 동료들, 친지들, 친구들을 다시 만나 악수와 포옹을 나누고 강복을 주었다.

기차가 리용역을 출발하는 순간 그들 중 누군가가 “이번엔 진짜 떠나는가 보군” 하고 말하자 또 다른 누군가가 “내 부관이 하던 말이 있지. 장담은 금물이라고!” 하여 그들 모두는 웃음을 터뜨렸다.

혹시? 떠나지 않을 수도 있을까? 하는 최후의 아쉬움이 스쳐 지나간 순간이었다.

부관은 지휘관의 뜻에 복종해야 하고 신학생은 지도사제의 뜻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마저 떠나야 한다. 이제는 직접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는 그 당위성과 엄연한 현실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그들은 어쩌면 유머와 웃음으로 이겨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기적소리가 울리고 기차는 천천히 출발했다.

피에르는 “주여! 저는 당신께 모든 것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되었다.

프랑와 신부는 문간에 서 있다가 기차 길목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친지 한 분에게 갑자기 손수건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외쳐댔다. 또 한 번의 애뜻한 만남이며 이별이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보내는 한 평생 또한 그렇게 순간처럼 지나가는 것이리라는 생각이 스쳐갔다.

누가 먼저인지 모르게 소리 내어 묵주기도를 시작했다. 이제는 더 이상 신학생 신분이 아닌 진정한 사제의 신분으로 파견의 긴 여행을 시작하는 순간, 그 순간에 묵주기도는 절실하게 필요했다. 각자 자기의 파견 선교지를 향한 생각으로 바빴을지라도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 성모송을 외었다.

기차는 그냥 달리고 있었다. 성직자 전용 칸에서 그들은 온갖 종류의 노래를 부르며 기분전환을 시도했다. ‘파이프 담배’, ‘목마’, ‘말가리다는 감자튀김을 잘 한다네’ 등의 노래가 나왔다.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그들은 매우 정겨운 저녁 한때를 보냈다. 그리고 각자 성무일도를 바치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 몇 시간 사이에 그들은 분별력이 확실하게 작용하는 어른이 된 것 같았다. 그들만의 전용 칸 기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합법적인 첫 행위를 수행하고 마치 성인식을 치르는 듯한 기분전환의 한때를 보냈다. 이제부터 그들은 모든 것을 각자가 알아서 해야 하는 순간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것은 앞날을 점쳐주는 예언 행동과도 같았다. 피에르 쌍제는 이미 패기만만한 선교사제가 되어있었다.

아침 6시 19분 발랑스역을 지나고 8시경 아비뇽을 지나서 기차는 남쪽으로 계속 달렸다. 산과 론 강의 계곡을 지나고 저 유명한 마리우스(1832년 6월 항쟁 투사)의 고향 타라스콩을 지나 아름다운 종탑의 도시 아를르가 보였다. 미스트랄 남풍으로 인해 북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들, 질푸른 빛깔로 시선을 끄는 베르호수 연안을 지나고 미로와 같은 굴과 고가교를 지나 드디어 마르세이유 항에 도착했다.

대표부 신부가 새 선교사제들을 마중 나와 있었다. 두 대의 버스로 그들은 외방선교회 마르세이유 대표부에 도착하였다. 대표부에서는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한다. 물질적인 도움을 준다거나 지친 선교사, 여행 중인 선교사를 쉬게 하거나 선박을 타는 일과 함께 세관 문제에 관련된 정보도 제공해준다. 점심 식사 후 그들은 고향집으로 긴 편지를 썼다.

마르세이유 대표부에서

파견지로 향할 선박 스프링크스호에 오르기 전 3일간 새 파견 선교사들은 대표부에 머물면서 자유로운 시간을 가졌다.

첫날은 스프링크스호를 구경하러 갔다. 배 안에서 사진을 찍고 한 바퀴 둘러보았다. 오후에는 쇼핑을 하고 시내 구경을 했다. 그 여행선은 매우 멋졌고 그 도시는 오후 세시가 넘도록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았다는 것이 기억에 남았다.

그 이튿날 피에르 신부는 노틀담 드 라 가르드 대성당에 가서 친구 야곱과 형수 즈느비에브를 위해 미



마르세이유 항구

사를 드렸다.

오후에 토크비프 신부의 사촌이 차를 태워 드라이브를 시켜주었다. 바다를 끼고 펼쳐진 코르니슈 도로를 따라가며 수많은 돌섬들과 나무와 높은 산들을 보았다.

저녁에는 사랑하는 하느님 현존에 머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 9월 19일. 출발자 모두는 두 항구를 굽어보고 있는 어제의 그 아름다운 노틀담 성당으로 갔다. ‘자비하신 어머니’ 성모께 기도를 드리고 미사 후에는 성체강복이 있었다. 피에르 신부는 오는 길에 모자와 긴 의자, 그 외에 필요한 몇 가지 물건을 샀다.



스프링크스 호

오후에 방문한 곳은 예수 승천 후 라자로와 마르타, 막달레나가 은둔생활을 했다고 전해지는 동굴. 높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그 한가운데 동굴이 있었다.

파견 선교사들은 거기서 기도를 드리고 아름다운 전망을 내려다보며 경탄했다. 그들은 그림 같은 프랑스의 경치를 마지막으로 감상했음을 감사했다.



스핑크스호 구경 (아래 오른쪽 끝 : 피에르 신부)



선실에 꾸민 제대

프랑스를 떠나는 날

9월 20일 금요일. 드디어 프랑스를 떠나는 날이 왔다. 하나님께서 영원으로부터 피에르 신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날!

유조선박업자들이 파업을 할지도 모른다는 위협 속에서도 파견 선교사들의 일정은 진행되었다. 짐 가방들을 나르고 배에 싣고, 피에르 신부는 11시에 마르세이유 한 본당의 보좌 구앵 신부를 방문했다.

프랑스에서의 마지막 오찬은 노 가에 있는 수녀원 수녀님들이 차려준 진수성찬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식사 후에 파이프 담배를 피웠다. 이어서 뒤발 신부가 성체강복을 주례했고 파견자 모두 성가를 불렀다. 교황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부두를 향한 버스에 올랐다.

버스 안에 있던 파견 선교사들 중 몇몇이 차창으로 손을 내밀어 흔들었을 때 행인들은 짐 가방을 실은 버스와 턱수염의 젊은이들을 보고는 금세 그들의 작별 인사에 답을 보내 주었다.

부두에 도착하여 짐을 선실로 옮긴 다음 대표부 신부에게 감사의 작별 인사를 드리고 배웅 나온 동료들의 친지, 친구들과도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오후 세시 경, 갑판 위로 올라가 파견 선교사 모두는 부두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피에르 신부는 거기 마지막 배웅 나온 부모님들의 눈물을 보았다. 떨어지지 않는 모정의 눈길을 보며 자신의 어머니 엘렌느 까르팡피에를 생각했다.

제 4 장 _ 피에르 신부 선교파견 장도(長途)에 오르다

새 파견 선교사 피에르 쌍제 신부는 이제 모든 것을 떠나 오직 사도이신 예수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 위하여 한국이라는 선교 파견지로 향하게 되었다. 순교를 열망하고 죽음도 불사하려는 선교사의 강한 의지 하나로 고국을 떠나고 정든 고향 에맹 마을을 떠나고 신학교를 떠나고 그리운 모든 사람들을 떠났다. 언제 다시 만나볼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함께 한 배를 타는 동료 선교사들이 있기에 설레는 마음들을 서로 기대며 그들은 희망찬 여행객들이 되어 여객선 스프링크스호에 올랐다.

새 파견 선교사의 여행은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1개월 넘어 계속될 것이었다. 그 길목 길목마다에서 피에르 신부는 흥미롭고 다채로운 순간순간의 사건들을 하나님 현존의 시간으로 맞이하며 그리스도 제자로서의 발걸음을 다져나갔다. 서울 도착은 11월 1일이었다.

1.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스핑크스호 출항

16시에 출항하기로 되어있는 선박은 17시 15분이 되어서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여덟 명 정도의 사람이 타고 있는 작은 배가 그들 곁으로 지나갔다. 그 배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나칠 때 배 안의 사람들은 젊은 사제들을 보자 드러내놓고 비웃음을 보냈다.

그 순간 피에르 신부는 “가련한 사람들! 저들이 무엇을 알겠는가...”라는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었다.

부모님이 늘 입버릇처럼 가르쳐 말씀하시던 그 뜻이 떠올랐다. 남자의 자존심보다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된 사람의 자존심이라는 것. 무엇을 하든지 우선적으로 주님 안에서 다시 생각하라는 그 말씀. 그것이 진정한 신앙행위였음을 자각하며 피에르 신부의 자존감은 그들을 그렇게 이해하도록 부추겼다.

“가련한 사람들! 저들이 무엇을 알겠는가...”

피에르 신부가 마지막으로 본 그 프랑스 사람들은 아마도 가톨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들은 아직도 프랑스 시민 혁명으로부터 이어오는 군주와 귀족과 성직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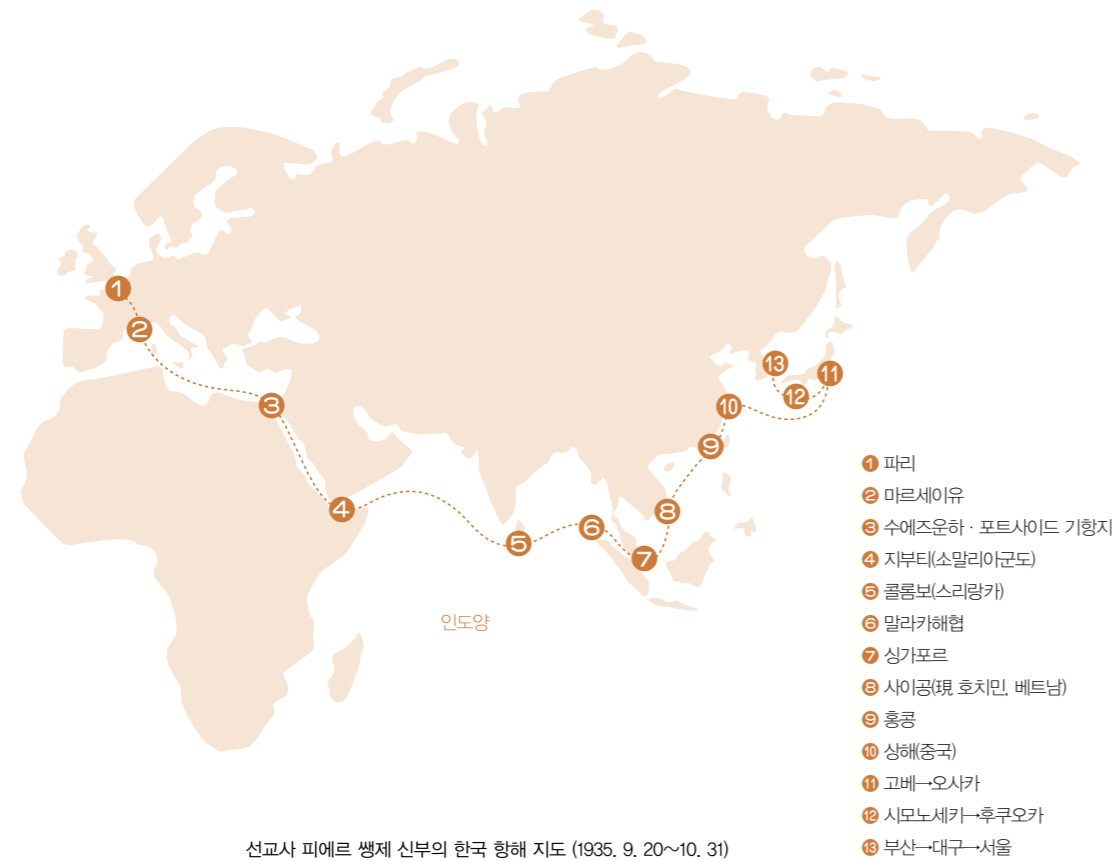
자유 평등 박애에 대한 갈망이 곧 프랑스 인의 자존감의 근간이었으며 대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영혼들의 부르짖음이었으며 투쟁과 죽음을 불사하는 공화국의 국가(國歌)로 표출되었음을 그는 생각했다.

“프랑스인이여, 고결한 전사여 주먹을 날리고 또 참아라!
거룩한 조국애여 복수를 위한 우리의 팔을 이끌고 들어 올려라
자유여 귀중한 자유여 너의 수호자와 함께 싸워라!” (프랑스 국가 6절)
무장하라 시민들이여 무리를 지어라 행진하자, 행진하자!
불순한 피가 우리의 발을 적실 때까지! (후렴)

그리고 불과 며칠 전 파견식 때 불렀던 ‘사도의 역할은 청빈과 노동 투쟁 죽음, 바로 이것이 하느님께서 그분의 병사들에게 약속하신 찬란한 미래’라고 했던 노랫말도 기억하였다.

애석한 마음으로 여덟 명의 그 작은 배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이, 고국 땅과 연결되어있던 사다리리는 끊어지고 스프링크스호는 사이렌을 두 번 울린 다음 아주 천천히 부두로부터 멀어져 갔다. 전송객들이 손을 흔들고 부모님들과 친구들에게 강복을 주고 아베 마리스 스텔라를 부르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리고 다시 외방선교회 노래를 부르는 소리.



“보소서, 성모 마리아여!
명량한 이 아들이 어머니를 섬기려
당신 발아래 모였습니다.
부모와 친구, 조국을 떠나와
마지막 숨까지 어머니께 바치리니”

파견 선교사들은 언제까지나 배 난간에 그대로 붙어 서서 멀어져 가는 마르세이유의 노틀담 들 라 가르드 사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프로방스 지방의 해안 저 멀리로 성모 마리아 상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다.

18시 30분 저녁식사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고 파견 선교사들은 서둘러 식사를 끝내고 갑판 위로 올라갔다. 수호자이신 노틀담 성모 어머니가 여전히 두 개의 암초 사이로 보였지만 고국의 해안들은 점점 더 밤의 어두움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들은 거기 승선한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회 파견 수녀들과 함께 저녁시간의 고요함 속에서 여객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으며 프랑스의 성모께 찬송을 드렸다.

“항해자를 축복하시는 별 이여,
나의 배를 인도하소서
폭풍우 속에서 나의 배를 지켜 주소서
아침에 뜨는 흰 별 이여!”

피에르 신부는 그날 밤, 마음은 흥분되어 있었고 선실 안의 숨 막힐듯한 더위와 엔진 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배 안에서 첫 미사를 봉헌하다

9월 21일 토요일, 승선하여 첫 밤을 지낸 피에르 신부는 새벽 4시 50분 잠을 깨었다. 날이 밝자 갑판에 올라가서 눈앞에 펼쳐지는 섬들과 내륙의 가파른 산들을 보며 주님을 찬미하였다.

선실로 돌아온 피에르 신부는 토크비프 신부와 휴대용 제대를 펼쳐 두 세면대 위에 마련하고 미사를 봉헌하였다. 망망대해의 일엽편주와도 같은 배 안에서 그는 이 세상을 받치고



스프링크스 호에서

게시는 주님의 현존을 감미로움과 강함으로 느낄 수 있었다.

코르시카 섬과 사르디니아 섬을 바라보며 공상에 잠기다가 아침 겸 점심 식사를 11시에 받았다. 수많은 현창들이 둘러쳐진 커다란 식당에서 배의 흔들림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바다를 내다보며, 멋진 차림의 보이들의 복사를 받으며, 참으로 맛있는 식사를 했다. 오후에는 긴 의자 위에서 졸다가 긴 사이렌 소리에 깨어 비상훈련을 받았다. 갑판 위에서 먼지에 덮인 구명대를 착용하고 한 장교의 훈시를 듣는 것으로 끝났다.

저녁식사 후에 성모께 기도를 드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파이프 담배를 피우면서 마르세이유로부터 260마일을 왔다는 게시판의 공지사항을 보았다.

포트사이드까지 남은 거리는 1,280 마일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만 3일 동안 선실에서도 음악 홀에서도 미사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파견 선교사제들을 반겼다. 미사 책과 묵주를 갖고 와 다 같이 성가를 불렀다.

리파리 군도를 지나 아드리아 해협에 들어서자 강풍이 불어닥쳤다.

선박은 요동치고 여행객들이 불안해하였다. 물고기들이 어수선하게 튀어 오르고, 바다 갈매기 몇 마리가 선박의 뒤를 쫓는데 망망대해 위로 밤은 다시 찾아왔다. 포트사이드 항까지는 903마일이 남았다.

멀리 우측으로 크레타 섬의 높은 정상이 보일 때쯤 피에르 신부는 피로를 느끼기 시작하였다. 긴 의자에 누워 단잠에 빠져버렸다.

9월 24일 화요일 원기를 회복한 피에르 신부는 아침부터 사진도 찍고 편지도 쓰고 하였다. 그 날 오후, 어제의 뱃멀미는 말끔히 가시고 스프링크스호는 포트사이드 기항지를 향하여 아드리아 해협을 지나고 있었다.

갑판 위에서 바로 옆에 한 프랑스 여행객이 앉아있었다. 그와 그의 가족은 지난주일 미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게 떠올랐다. 피에르 신부는 얼마 전부터 그에게 말을 붙일 기회를 찾고 있었던 터. 선교사제 옆으로 가까이 다가온 한 영혼을 어찌 모른척할 수 있으랴?

그는 이집트의 모 고등학교 교사라며 자기가 먼저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에 관한 말을 늘어놓다가 조심스럽게 물어 온 질문 :

“본질적으로 영적 존재이며 동시에 초이성적 존재이신 하느님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각기 다른 기후, 풍속, 교육 등이 여러 가지의 다른 종교들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피에르 신부는 성의껏 답하였다고 생각했다.

다만 오류가 없었기를 그리고 그에게 착용하고 있었을 그 은총에 방해가 되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었다.

저녁식사 후 갑판에 올라 다미에트 섬을 바라보고 있을 때 기품 있는 한 신사가 피에르 신부에게 다가왔다. 그는 자진하여 여행, 사업, 선교사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들을 시작했다. 난간 위에 팔을 괴고 두 사

랍은 마치 오래된 친구들처럼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에르 신부는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충만한 마음이 되어 그날 밤엔 더욱 깊은 잠을 잤다고 한다.

25일 새벽 4시경 항구도시 포트사이드에 기항하게 되었다. 아침 식사 후, 갑판 위에서 보는 풍경은 사람들과 선박들과 보트들, 기중기들의 움직이는 소음과 소란함이 뒤엉킨 대 혼잡과 무질서의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항구를 구경하려고 배를 내려오는 초계정에서 아랍 아이들을 보았다. 여행객이 던져주는 몇 푼의 돈을 잡으려고 서로 덮치고 다투며 소리를 질러대는 가냘픈 아이들은 그러다가 맞아 죽거나 바다에 빠져 죽을 지경이었다.

전형적인 동양적 색채를 띤 성당에서 기도를 드리고 착한 목자 수녀회 수도원으로 갔다. 수녀원 사업장인 고아원의 어린 소녀들은 자수품을 만들거나 벼를 탈곡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 경탄과 함께 그들을 축복해주었다.

이곳 원주민들의 상술은 정가보다 8배나 더 비싸게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흥정을 위해서는 능숙한 배짱과 제스처, 비상식적인 심한 언사도 필요했다. 피에르 신부는 프랑스에서 800프랑 하는 카메라를 260프랑을 주고 사는데 성공했다. 배 안에서도 갑판 위의 여행객과 아래층 바닥에 있는 상인의 줄다리기 매매 상황이 주의를 끌었다. 줄을 당기면 물건을 담은 바구니가 오르내리게 되어있고 그 바구니에 돈을 담아 당겨 내리면 되는 것이다.



포트사이드 기항지에서

수에즈 운하로 들어가다

사이렌 소리에 스프링크스호는 닻을 올렸다. 길이 160km에 일방통행의 긴 수에즈 운하 입구로 들어섰다. 밤 새 아메르호를 통과하여 아직 어두움이 다 걷히지 않은 시간에 항구에 정박하였다.

9월 26일 밤중, 소형 선박들이 화물을 옮겨 신는 동안 수에즈 항구의 바다에 배가 정박해 있을 때였다. 피에르 신부는 “나는 이러한 광경을 뒤로하고 선실로 돌아와 다시금 내 안의 예수님을



수에즈 운하



휴식 : 수에즈 운하에서



홍해 입구



지부티에서

견 선교사들은 한 무리를 지어 선창가를 걷기 시작했는데 걸인들과 상인들이 수없이 따라붙었기에 가는 곳마다 금세 더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새까만 피부의 아이들이 수백 미터를 끈질기게 따라오며 애원하는 눈초리로 손을 내밀었지만 선교사들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상황을 상상하며 그냥 걸을 수밖에 없었다.

느끼는 기쁨을 맛보았다.”라고 썼다.

선박이 닻을 올리고 운하의 길고 좁은 만 속으로 들어왔을 때 경사가 심한 붉은 색깔의 해안을 볼 수 있었다. 피에르 신부는 ‘홍해’라는 이름을 떠올렸다.

“야훼는 바다를 멈추게 하고 백성들을 지나가게 했다... 홍해 안에서 건조한 대지와 끈게 뻗은 길이 드러났다”

멀리 왼편으로 높은 시나이 산이 보이자 파견 선교사들은 하느님 종 모세를 보는 듯하였다.

그 이튿날 더위는 심해지고 바다는 잔잔해졌다. 이마의 땀을 닦기 위해서 간신히 움직일 수 있을 뿐이었다. 그래도 약간의 바람이 있을 때마다 위로를 받았다.

9월 28일 토요일 아침 9시경에 북풍이 일기 시작했으나 이쪽저쪽으로 뛰어오르는 돌고래를 보았을 뿐 땀에 흠뻑 젖어 선실로 돌아왔다.

점심에는 지중해 상공을 날다가 선박에 부딪혀 떨어진 메추라기 새 요리를 먹었다. 저녁때가 되어 에리트리아 항구를 통과하였다.

주일 8시 30분 미사에 약 50여 명의 여행객들이 참석하였다.

‘말하시오, 명령하시오, 군림하시오’라는 찬송가를 부르고 기타 신부의 강론을 들었다.

스핑크스호가 지부티에 도착한 것은 9월의 마지막 날 새벽 여섯시 경이었다. 파

프랑스령 소말리 군도의 해안 도시 지부티는 대부분이 회교도이며 가톨릭 신자는 2천 명에 불과했다.

그 도시를 방문하던 중, 파견 선교사제 라페 신부와 어느 원주민 소년의 대화를 목격한 피에르 신부는 새 사제의 자부심과 동정심으로 가득 찼다.

“난 소말리 사람이란다. 난 지부티에서 태어났지” : 라페 신부

“당신이 소말리인이려면 왜 모자를 썼고 흰 피부를 가졌으며 왜 당신은 기독교도인가. 그리고 착한 기독교인이란 없다” : 회교도 소년

쌍제 신부는 속으로 “이 가련한 아이야...”라고 반응했다.

라페 신부 자신이 지부티에서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그 소년은 매우 놀라는 표정이었다. 회교도인 그 아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단죄하고 있다. 무서워하고 놀랄 사람은 피에르 신부 쪽이다. 피에르 신부는 마음이 찢려 “이 가련한 아이야...”를 되풀이하고 있었다.

우체국은 그림엽서와 레몬 담배를 팔러 온 노파 상인들과 용무를 보러 온 사람들로 그 좁은 공간이 꽉 차서 숨이 막히고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피에르 신부는 몇 장의 엽서를 무릎 위에 놓고 썼다.

원주민 구역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걸인 여자가 자기 얼굴의 끔찍한 종기를 보여주려고 피에르 신부 옆으로 다가왔다. 피에르 신부는 무서워서 “저리 가!”라고 외쳤다. 그리고 즉시 선교사들의 주보이신 사베리오 성인께 용서를 청하였다.

낙타 물이꾼을 사진 찍으려다가 돌을 집어 드는 바람에 그만 돌 수밖에 없었던 일이 끝내 안타까웠다. 홍해만을 벗어나면서부터는 훨씬 시원해졌다.

그들은 이튿날부터 시작되는 로사리오 성월을 생각하며 저녁에 찬송 미사를 드렸다.



지부티 교회 앞에서

2. 인도양으로 접어들다

뱃멀미를 불사하며

스핑크스호가 인도양으로 접어들면서 거센 바람이 불고 선박은 조금씩 요동했다. 피에르 신부는 심한 뱃멀미를 앓았다. 다른 신부 두 명과 프란치스코회 수녀 한 명도 점심 식사를 하지 못했다.

피에르 신부는 가실 줄 모르는 멀미를 극복하려고 오직 누운 자세로 항해를 계속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불행이나 울적함을 느끼지는커녕 오히려 감미로운 일이라고 적었다.



콜롬보에서

인도양으로 접어들지 5일 만인 10월 7일 월요일 콜롬보에 닿았다. 이 도시는 녹색정원 속에 파묻혀 있는 천연 종려 재배용 온실이라고 소개되는 곳이다.

마이쭈의 선교사인 콜랭 신부가 마중을 나왔다. 모두 함께 버스를 빌려 타고 시내 관광을 돌았다. 보텔라 광장 대주교관으로 가서 주교와 부주교를 방문한 다음 식물원과 사원, 박물관 등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원주민 구역의 외교인 사원에 들어갔다. 그 사원에 있는 넓고 둥근 경당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불상이 놓여 있었는데 머리가 천정에 닿을 정도로 컸다. 안내자가 테이블에 놓인 꽃들을 한 송이씩 집어주며 “행복을 가져다주는 상징”이라고 말해주었다. 가톨릭 사제들은 물론 그것을 받지 않았다.

대웅전 주위의 화랑에 그려진 부처님 일생의 색채는 선명하고 뛰어나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새 파견 선교사들 중 한 사람이 그 그림 속에 부처의 뺨을 때리는 행위가 발생했다. 천만 다행히도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만일 누군가 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며 선교사 피에르 신부는 상이한 종교 상징적 대상이라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상식을 잊지 않았다.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도시였다. 매 순간 동양적 순박함이 문명국가의 메커니즘과 어울려 숨 쉬고 있는 곳이라고 평가하면서 피에르 신부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벗들과 함께 여행한다면 좋겠다는 소원을 품게 되었다.

거리에는 까마귀들이 유유자적 놀고 있어서 마치 인간과 동물이 서로 사이좋게 공존하며 살고 있는 지상 천국을 방불케 하였다. 그러한 가운데서 검은 수단을 입은 새 파견 선교사들이 “까마귀”로 놀림을 당했으나 애교로 받아들이 수 있는 정도였다. 마르세이유 항구에서처럼 그렇게 심한 정도의 무시당함은 아니었다.

첫 번째 파견동료 블롱도 신부와 작별하다

콜롬보의 선교사로 파견된 블롱도 신부는 그곳에 남아야 했다.

첫 이별은 뗏목 플랫폼 위에서 이루어졌다. 전 날 저녁 외방선교회 가족 모임을 송별식으로 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지만, 한 가족을 떼어놓고 가야 한다는 아쉬움이 컸다.

말레카 해협에서 배의 요동은 멈추었다. 피에르 신부는 뱃멀미를 떨어버리고 쌍안경으로 수마트라 곳의 등대와 그 근접한 마을을 내다보았다.

내일이면 싱가포르 기항지에서 3명의 선교사가 또 임지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뒤발 신부의 제안으로 편지 돌려쓰기를 한 다음 저녁에 가족 모임을 가졌다. 아르베 신부의 연설은 폭소를 자아냈고 기타 신부는 감사와 충고의 일침으로 우정의 말을 남겼다. 영육으로 일치한 사람들의 헤어짐은 생각보다 힘겨운 일이라 느끼며 성모께 찬송을 드리고는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각자 선실로 갔다.

10월 12일 토요일. 메소니에, 기타, 그리고 매니에 신부들이 하선하였다. 수단 차림의 말레이시아 신부들이 마중해 주었다.

남은 이들은 택시를 타고 우선 성 베드로 바오로 성당으로 갔다. 잠시 조배를 드리고 살베 레지나를 찬송한 다음 사제관으로 들어갔다. 주임신부의 환대로 맥주와 굶은 엽결련을 받았다.

중국인 거리는 마치 파리의 리볼리 거리처럼 가옥마다 회랑이 있었다.

유럽인 구역을 지나 주교관에 도착하였다. 새 선교사 기타 신부를 방금 맞이한 드발 주교는 들이닥친 파견 선교사제들을 반갑게 맞으며 손수 아페리티프(전주 : 前酒)를 권하였다. 대표부에서는 맛있는 식사와 그 나라의 다양한 과일 후식으로 접대 받았다.

부두로 돌아와서 포트사이드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저렴한 가격에 몇 가지 물품을 구입하였다.

출항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파견 선교사들은 갑판 위에서 이곳 임지에 떨어져야 할 세 신부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3. 사이공 기항지에서

10월 14일 월요일. 11시에 스프링크스호는 동타이 강을 무려 4시간 동안이나 타고 올라갔다. 동타이 강은 사이공의 작은 하천이라 하지만 하구 쪽으로 입항을 해서인지 세느 강보다 몇 배나 더 큰 것처럼 여겨졌다.

다음 출항을 위해 해안 초소의 만에 뱃머리를 돌려놓고 정박하였을 때 사이공의 대성당 종소리가 들려왔다.

인력거를 타고 대표부까지 8km의 거리를 질주하는 동안 인력거꾼의 온몸에서 굶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인력거는 그들에게 생계수단이 되는 돈벌이였다. 피에르 신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부모님의 첫 편지를 읽는 기쁨으로 그 더위를 잊었다. 저녁은 독일의 프란치스코회 주교가 베푼 만찬이었다. 매트, 베게, 돛자리를 가지고 모기장 속 침대에서 잤다.

네 명의 동료들과 작별하다

이튿날 새벽, 르갈, 오디구, 기동, 가리키리 신부들은 하이퐁과 투라노로 가기 위하여 5시 30분에 출항하는 클로드 샤프 호를 타고 떠나갔다.

고티에 신부를 보좌신부로 맞은 킨혼 본당 신부는 기뻐하며 택시와 버스를 전세 내어 시내 관광을 시켜 주었다. 여기서는 다섯 군데의 성당을 돌아보고 수녀원, 성영회, 방인 사제, 성주 귀족, 마지막으로 묘지를 방문하였다.

첫 번째로 방문한 베트남 성당은 두 사람의 대부호에 의해 건축되었다는 성당인데 그 대부호들의 와상이 대리석 관에 안치되어 있었다.

십자가의 딸들 수녀원에서는 수련수녀들이 모두 강당에 나와서 안남어로 마니피카트를 노래하였다. 피에르 신부는 누이동생 마르그리트를 기억하며 서로 다른 하늘 밑에서도 하나의 성교회 안에서 같은 소명을 실현하는 일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영광되게 하는 일이며 참으로 이상적인 인간의 할 일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중국인 구역과 사이공 근교의 성당들도 방문했다. 이 두 성당 가까이에는 성영회라 불리는 보육원이 있었다. 아이들은 매우 깔끔했고 불어로 '일곱 살'이라고 말하는 아이도 있었다. 최초의 안남 주교 통주교가 주임으로 있던 탐딘 성당은 아름다웠다.

오후에 한 방인 사제를 만나 안남의 어느 대부호에 의해 건축되었다고 하는 대단히 웅장한 성당을 보았다. 중앙과 양측에 제대가 있었는데 모두 대리석으로 되어있으며 카라라 산 흰 대리석으로 된 두 개의 무덤이 있었다. 두 남자가 서로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그림이 새겨져 있는 무덤들은 참으로 묘한 인상을 주었다.

그런 다음 그 성전을 지은 귀족을 만나러 그의 성으로 가는 도중에 삼림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선교사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가 운영하는 학교의 어린이들은 매우 귀여워서 사진에 담아가지고 왔다.

호화스러운 응접실에서 그 성주를 만나보고 끝으로 아드란 주교의 묘지와 선교사 묘지에 들려 저녁 무렵 사이공으로 돌아왔다.

인도차이나는 무더위와 습기로 매력을 끄는 나라인 것 같다. 갑판위에서 대표부 신부와 또 한 번의 작별 인사를 나누어야 했다.

홍콩 기항지에서

배 안에는 파견 선교사 6명만 남았다. 프란치스코회 수녀들이 몇 명 더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배 안은 텅 비어 있는 듯했다. 인도차이나 해안을 따라 3일을 항해하다가 홍콩 기항지에 닿았다. 10월 19일 토요일 아침, 라페 신부와 토크비프 신부를 깨워 5시 30분 미사를 드렸다.

세계 제4위의 도시 홍콩. 스팅크스호는 부두에서 25km 떨어진 곳에 닿을 내렸다. 일찍이 드 게브리앙 주교님은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라고 하신 적이 있었다.

사방으로 높이 솟은 바위섬들은 실로 동화 속의 풍경 같았다. 넓은 도로와 잘 정돈된 도로의 질서, 반

바지 차림의 영국 경찰들, 이 모든 것들은 유럽의 어느 도시를 방불케 했다.

홍콩의 총 대표부는 선교사들에게 최고의 환대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시설과 배려를 갖추고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파견 선교사들은 오후 2시에 떠나야 했으므로 점심 식전에 택시로 섬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산과 바다와 숲, 호숫가로, 초목 지대와 구름다리, 터널과 어촌의 나룻배들과 널려있는 건어물들...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베다니에 잠시 들렀다. 원로 사제들과 요양 중인 선교사들은 새 파견 선교사제들을 보고 젊음을 되찾은 듯 명랑해졌다.

선교사들의 나자렛 피정집 성당은 마치 수도원 성당과 다를 바 없었다.

뒤발 신부는 궁전과 같은 이 대표부의 당가로 발령을 받았다. 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여기 왔나' 하고 의아해하는 것도 당연한 것 같았다.

라페 신부는 총 대표부에 보름간 더 머물러 있기로 하였고 뒤발, 프랑와, 나르바이츠 신부들이 더 내렸다. 그들과 헤어질 때 파견 선교사들은 두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중국 해협을 따라 항해하는 바다는 거칠어졌고 배 안의 사람 수는 매우 적었다. 2등 칸 선실에는 프랑스 하사관 몇 명과 8명의 수녀와 3명의 신부가 있을 뿐이었다.

피에르 신부는 아시아 선교를 위해 항해를 하던 중 그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하고 눈을 감으신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성인을 생각하며 바다 저쪽에 하느님을 모르고 사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음을 또한 상상해 보았다.

스핑크스호 주변 가까이에서 맴도는 많은 어선들을 지나칠 때 그 배들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피에르 신부는 흡족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 나이엔 동정이란 없는 것이다."라고.

동정심은 아무 때나 발출되지 않는다. 25세의 청년사제 피에르. 무죄한 그 동안(童顔)의 에너지가 가볍게 폭발해 버렸다 해도 좋을 것이었다.

상해 도착

10월 22일 화요일. 10시 30분경 배는 상해의 어느 부두에 멈추었다.

중국 경찰들이 탄 소형 배가 스팅크스호 주위를 맴돌며 수색 작업을 하였다. 상해 대표부 투르니에 신부가 파견 선교사들을 차에 태워 데리고 갔다. 매우 훌륭하게 지어진 대표부 건물에 들려 인사를 나눈 후 한국에서 온 텔랑드 신부와 베르트랑 신부를 만나 기쁘게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상해의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러 왔다고 했다.



상해의 차커웨에서



상해의 대표부

오후에는 프랑스 조계지로 산책을 나갔다. 주민들 대부분이 러시아인들이었다. 현대적인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여러 성당을 둘러보고 찬탄하였다.

피에르 신부는 거기서 에맹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웃에 살던 비비에 부부를 만나 고향 얘기를 나누었다. 다음날 점심 식사를 약속하고 헤어졌다. 세상은 참으로 넓고도 좁다는 게 실감이 났다.

이튿날 오전에는 휴식을 취하였다. 늦잠을 자고 아침 식후에 또 잠을 잤다. 비비에씨 부부 댁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에맹 소식을 들려주는 바람에 시간가는 줄을 몰랐다.

오후 4시부터는 승용차로 시내 구경을 갔다. 프랑스 조계지에는 '로베르 신부 거리'도 있었다. 도로변에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둘러싸인 빌라들과 백화점들이 있었다. 중국인 경찰들이 감시하고 있는 초소를 거쳐서 그 구역에 들어섰다. 좁은 거리에 수많은 인파가 북적거리고 있어 자동차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자 파견 선교사들은 차에서 내려 걸었다.

다양한 업종의 물건들이 조그만 상점 안에 산적해 있었는데 자세히 보면 그 모두가 걸작 품들이었다. 인력거꾼들은 무슨 소리를 외치며 비좁은 거리를 뚫고 달렸다.

중국건축 양식의 성당을 두 군데 찾아 보고나서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를 찾아 갔다. 수녀들은 밥을 얻어다가 380명의 노인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다.

대표부로 돌아올 때는 날이 어두워졌다. 거리는 네온싸인의 불빛으로 불야성을 이루었다. 지나친 전기 낭비라고 생각하였다.

10월 24일 목요일에 치카웨의 고아원을 방문했다. 유리 제조술, 주조술, 조각술, 목공술 등을 가르치는 곳을 견학했다. 중국인들의 기술은 매우 훌륭했다.

피에르 신부는 삼륜 인력거를 타고 비비에씨 댁으로 갔다. 차를 타고 다니며 그의 근무지와 동물원을 보았다. 저녁에는 대표부로 돌아와 편지를 썼다.

금요일 아침 비비에씨 부인은 딸 두 명과 함께 피에르 신부 미사에 참석했다. 오전 내내 대표부에서 휴식을 취하느라 움직이지 않았다.

오후 3시에 배는 출항하였고 친절하게도 비비에씨 부부가 나와서 배웅해 주었다. 파견 선교사들도 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인사하였다.

상해에서의 3박 4일 일정을 마친 셈이다.

배는 양자강을 따라 항해를 시작하였으나 대양 한가운데로 나오면서부터 심하게 흔들렸다. 피에르 신부는 선실로 들어가 누웠다. 26일 토요일은 가장 힘든 항해일 이었다. 8m 높이의 파도가 일었고 온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열 번 넘게 토하기만 하였다. 다행히도 토크뵈프 신부는 흔들림이 오히려 흥미진진하다면서 피에르 신부 곁을 지켜주었다.

4. 일본해협으로 들어오다

10월 27일 예수그리스도 왕 대축일.

2등 칸 선실에 토크뵈프 신부와 피에르 신부 두 명만 남아 있게 되자 그들은 1등 칸 갑판으로 올라갔다. 시모노세키 해안은 소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목조 건물이 산등성이에 층을 이루고 있었다.

10월 28일 새벽 3시. 고베에 상륙하였다. 검열 후, 입항하여 부두에 정박하였다.

파즈, 뒤센느, 메르시에, 운테르발트 등 4명의 신부가 마중을 나와 있었다.

대표부 사제 파즈 신부는 짐 내리는 일과 세관의 일을 도와주었다. 정오가 되어 파즈 신부 댁에서 즐거운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사카에 있는 카스타니에 주교께 인사를 드리러 갔으나 부재중이었다.

시내 구경을 나가서 오사카의 성으로 가다가 도개교를 통과했다. 성벽은 직경 5~6m 되는 자연석들로 쌓여져 있었다. 고대 일본식 건축 양식의 지붕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상가는 온통 조명으로 밝혀져 있었다.

주교관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뒤르 신부 댁에 가서 잤다. 그는 혼자 사는 선교사였다. 외교인의 나라에서 의심을 받아 가며 진정한 선을 일깨워 주려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소리를 듣는 듯했다. 선교사의 소명은 참으로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토크뵈프 신부와 피에르 신부는 파즈신부 댁에서 다시 만났다. 그리고 함께 고베역으로 가고 거기서 다시 시모노세키역으로 갔다. 이번에는 그 작은 섬들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다.

6개월 전에 파견되어 온 롤리에 신부 안내로 후쿠오카로 가서 교구 사업을 구경하고 아라스 교구 출신인 브르통 주교를 만났다. 저녁에는 주교관에서 브느와라는 젊은 사제의 쾌활함으로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였다.

후쿠오카에서 가이후루호를 타다

10월 30일 수요일. 피에르 신부는 그 날 담므 드 썬모르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여학교 건물 안에서 미사를 집전하며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오후에는 소박한 작은 성당을 방문하고 시내 상점들을 구경하고 나서 신도 사원을 둘러봄으로써 일본에서의 관광을 끝마쳤다.

저녁 6시. 드디어 한국행 배로 갈아탈 시간이 왔다. 1등 칸 표를 가진 피에르 신부 일행은 배 위에 올랐다. 매우 친절할 경관이 와서 몇 가지 조사를 해 갔다. 가이후루호는 연착함 없이 빠르게 질주했다. 밤이 깊었고 뱃멀미도 염려되었으므로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5. 부산항에 내리다

아침 6시 30분 가이후루호는 부산항에 닿았다. 10월 31일 목요일, 한국에 도착한 것이다. 피에르 신부는 그 옛날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체포될 위험을 무릅쓰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을, 더구나 다블뤼 주교께서는 어선을 타고 썰물 때를 틈타서 몰래 숨어서 입국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자신은 1등 칸 선실의 안락한 침대에 누워 하룻밤 새에 한국에 상륙하다니 너무나도 비교가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부산항에 내리자마자 마중 나온 프르와드보 신부와 함께 선박 맞은편에 대기하고 있는 기차를 타고 대구까지 갔다.

기차를 타고 대구역까지

피에르 신부는 대구로 가는 기차 안에서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경치를 눈여겨보게 되었다. 산악지대의 산림은 우거져있지 않았고 소나무들은 작고 볼품이 없는 것이 아마도 땀감으로 쓰러고 나무들을 모두 베어낸 것 같았다.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은 산과 산 사이의 논에는 많은 이삭을 달고 깊숙이 고개를 숙인 벼들이 고향의 밀밭을 연상하게 했다. 깊으로 덮인 단층의 초가집들은 야트막해서 실용적인 난방장치를 하기에 안성맞춤이란다. 쾌적하고 청결하게 불을 때고 요리도 그 자리에서 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방바닥은 돌로 되었고 그 위에 종이를 발라서 실내가 뜨겁게 덥혀지므로 추운 날에도 그것으로 충분할 정도이

다. 동행하여 준 대구교구의 프르와드보 신부의 이 모든 설명을 들으며 피에르 신부는 자신의 선교과견지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

드망즈 주교께서 임지에 도착한 파견 선교사 토크뵈프 신부를 맞아주었다. 그 날 하루는 대구 신학 대학교, 대성당,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의 사업 등등의 대구교구의 사목활동을 둘러보았다.

모든 성인의 대축일에 피에르 신부는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의 파견 선교사가 되었다. 마르세이유를 떠날 때 함께 했던 동료들은 제각각 자기 임지에서 내렸다.

이제 마지막으로 파견될 피에르 신부는 한국 대구의 파이에 신부 본당에서 첫 미사를 드렸다. 그는 한국 신자들이 무릎을 꿇거나 혹은 바닥에 앉아서 미사를 봉헌하는 모습을 보며 이 나라의 예법을 따라 매우 경건하게 기도한다고 생각하였다.

그 신자들 중에 외교인 여자와 혼인했기 때문에 파문



조선의 교구

당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성당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 보고 있었다. 그는 신앙을 고수하기를 원했고 앞으로 자기 문제가 잘 풀릴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파이에 신부가 말해주었다.

6. 11월 1일 금요일 서울 도착

서울행 기차는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한다. 토크뵈프 신부가 배웅하러 나왔다. 긴 여행 동안 줄곧 단짝이었던 동료와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피에르 신부는 최종 목적지를 바로 눈앞에 바라보는 설렘으로 그 마지막 헤어짐을 견뎌내었다.

대구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부산에서 대구를 갈 때와 대동소이하였다. 우기가 끝난 것 같은 강은 바닥이 드러나도록 말라있었고 산과 논들도 햇빛은 암벽 투성이로 보였다. 서울에 가까이 갈수록 평원이 보다 넓게 펼쳐짐을 볼 수 있었다.

부산에서 대구까지, 대구에서 서울까지 그것은 피에르 신부가 처음으로 본 제2의 조국이 될 한국의 산하(山河)였다.

오후 3시 30분, 특급열차는 예정 시간에 서울역에 도착하였다.

세 분의 신부님들이 마중을 나왔는데 한 분은 기차 앞쪽에서 또 한 분은 중앙에 또 다른 한 분은 기차 뒤 쪽에서 새로 파견되어 오는 서양 신부를 놓칠세라 대기하고 있었다. 피에르 신부는 애정 어린 기쁨에 흠뻑 젖었다.

서울역에서 주교관은 택시로 10분 거리였다. 서울의 도로는 대구보다 훨씬 넓고 포장되어 있으며 버스와 전차도 다니고 있다. 초가지붕이 보이지 않는다. 주교관에 도착했을 때 코요스 신부가 처음으로 피에르 신부를 맞아 주



서울 주교관



서울 주교좌 성당



파리외방선교회 분포도

었다. 라리보 주교께 무릎을 꿇고 반지 친구를 하였다. 그분은 아버지처럼 피에르 신부를 포옹해 주시고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하시며 강복을 주셨다.

피에르 신부는 파리에서 외방선교회 신학교를 떠나기 전에 기도를 드린 대로 여행길을 순조롭게 인도해 주신 구세주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새 파견 선교사제 피에르 썩제 신부의 한국 파견 여행 기록은 여기서 끝난다.

한 배를 탔던 열 명 넘는 동료들을 피에르 신부가 하나둘씩 기항지마다 자기 임지로 떨어놓은 셈이 되었다. 피에르 신부는 대구에서 혼자 남아 서울로 왔다.

피에르 신부는 스프링스호를 타고 프랑스를 떠나는 순간 마지막으로 본 그 작은 배 안의 사람들의 비웃음이 떠올랐다. 미지의 세계를 향한 항해는 끝났으나 더욱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은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펼쳐질 것이다. 그의 시간은 이제 아시아 한국 서울의 주교관이라는 작은 공간 안에서부터 그 위력을 떨치기 시작할 것이었다.

제Ⅱ부

한국 파견 선교사 피에르 썩제 신부 서울 성가소비녀회를 설립하다



선교사 피에르 썩제 신부

제1부에서 우리는 피에르 썩제 신부의 탄생과 하느님의 부르심을 보았다.

25세의 약관으로 서양에서 동양으로 파견된 선교사 성재덕 베드로 신부는 이제 한국 성당에서 전격적인 사목자의 첫 발을 내어 디뎠다. 두 곳의 보좌신부를 거쳐 백동 성당의 주임신부로 일하면서 그는 성령과 시대적 요청에 따라 사도적 여성 수도회를 설립하기까지 한다. 여기서는 성재덕 피에르 신부의 함덕과 답동의 보좌신부 시기와 백동에서의 활약상 그리고 서울 성가소비녀회의 설립을 보게 될 것이다.

제1장 _ 보좌 신부 시절

파리외방선교회 신학교를 떠난 지 1개월여 만에 서울에 도착한 피에르 생제 신부는 대교구 주교관에 머물게 되었다. 그는 외국인 선교사로서 사목활동을 준비하기 위하여 곧바로 한글 기초 단계를 익히는 과정으로 들어갔다. 당시 한국은 일제 강점 시기였으므로 일어에 대한 기본 지식도 어느 정도 갖추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에르 신부는 그 겨우내 주교님을 모시고 교구청의 모든 사제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갖 입소한 이의 예모를 차려가며 온갖 봉사를 다 하여야 했을 것이다. 주교좌 대성당의 미사 집전에 참여하는 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중에 하나였다. 그는 그렇게 초보자의 시간을 채운 다음 보좌 신부로 파견되었다.



서울대교구 명동 성당과 주교관

1. 주교관에서

피에르 신부는 주일 대미사 때 창미사는 물론 1936년 부활성야 예식 때에는 엑설테(부활찬송 Exultet : 기뻐하고 용약하라)를 장엄하게 노래하였다. 이로써 그는 파리 튀 드 박 가 외방선교회의 요한 드 뷔드 드 게브리앙 주교, 알렉산드르 르앙브르 신부 등 기라성 같은 스승들의 명성을 충분히 기리는 셈이 되었다.

파리외방선교회 신학교 신학생들은 흰칠한 키에 고귀한 성품을 지닌 게브리앙 주교에게 매력을 느꼈다. 그분은 행복한 미소와 함께 뜨거운 목소리로 선교사제의 삶에 관하여 이야기하곤 하였다. 그 길은 진정으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삶의 길이라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신학생들을 고무시켜 주던 분이였다. 또한 르앙브르 신부님은 생 베르땡 중고등학교에서 피에르의 진로를 결정적으로 인도해 준 은인이 아니던가?

피에르 신부는 신학교의 모든 지도자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식구들에게 편지를 쓰다

그 해 12월 23일, 그는 편지를 썼다.

높은 곳에 위치한 자기 방의 창문을 통해서 보는 남산의 도시 풍경은 거대하였다. 여기까지 오기 위한 달포간의 여행 기간의 그것만큼이나 거창하게 보인다. 산이 보이는 한 쪽으로는 성황당이나 절들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피에르 신부는 그곳에 마귀가 군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식구들의 협조를 구하였다.

“우리는 그것을 몰아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나와 함께 그 일을 합시다.”

피에르 생제 신부는 그 순간 자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다.

한국 천주교회의 작은 언덕이 마귀가 군림하고 있는 저 거대한 남산을 정복하도록, 하느님과 영혼들을 위하여 전진하자고 25세의 청년 사제 피에르 신부는 제안한다.

구령(救靈)!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은 성제덕 피에르 신부가 파견되어 온 목적 중에 하나이며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다. 어려서부터 인정받지 못 했던 피에르 신부의 마음은 이제 어엿한 선교사제의 마음이 되어 떠나온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놀랍게도 당당하게 고향 마을에 남아있는 식구들을 복음 선포의 동반자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다.

“평화를 전파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자들의 발걸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피에르 신부는 선교사 파견식 때 슈브로 본당 신부님이 들려준 말씀을 기억했다. 선교사는 강한 인간이어야 하고 성교회의 제단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일하며 고통받고 기도하며 그 누구도 두려워해선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지금 자기가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일은 신앙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임을

실감하였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여기까지 그를 인도하시고 데려오셨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뒤따르다 해도, 언어와 관습으로부터 어떤 몰이해와 박해와 고독이 있다 해도 하느님을 향한 신앙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 다짐하였다. 그는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려는 파견 선교사이기에 충분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몸으로 겪어안으며 앞으로 전개될 일을 꿈꾸는 선교사 피에르 신부, 젊음으로 약동하는 그의 이마에 땀이 서렸다.

2. 대전교구 합덕 본당 보좌신부로 부임하다

1936년 4월 30일~1938년 5월 31일

겨우 6개월 정도의 학습을 마친 피에르 신부는 이듬해 4월 말 방인 선교지의 언어 한글을 배우는 기간을 끝냈다. 마침내 대전교구 합덕 본당 제7대 백 필립 페랭(1885~1950년) 주임신부의 보좌신부로 파견되었다. 그 본당은 서울에서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중부지방의 매우 전원적인 지역에 있었다.

첫 번으로 주어진 소임은 파리외방선교회의 선배와 함께 하는 선교였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서울에서 쌓은 한국어 기본 실력을 연마하는 기회도 되었다. 충청도 신자들과 만남으로써 양반의 말솜씨를 익히는 시기였다고 하겠다.

피에르 신부는 본당 주임 페랭 신부의 사목 생활로부터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페랭 신부는 판공성사를 주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20개나 되는 공소를 순회하며 신자들의 성별, 연령별로 일정표를 작성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사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예수성심을 특히 공경하면서 기도생활과 극빈의 생활을 하였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지방의 부모 잃은 고아들을 거두어 각 가정에 맡기어 양육비를 주어가며 기르게 하였다.

이와 같이 교회 내외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긴 페랭 신부는 향촌 사회에서 신뢰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는 1950년 공산당들에 의해 순교한다. 구인덕(Coyos) 신부는 그를 성(聖) 페랭(Perrin)이라고 했다.

당시 합덕 본당은 꽤 많은 교우 수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매우 가난하였다. 피에르 신부는 주임 페랭 신부님의 사목활동을 도우며 열성으로 배워 나갔다. 이듬해 1월에는 명동 대성당의 성가대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의 청년 성가대를 결성하였다. 그는 본당의 주임 페랭 신부님을 보좌하는 자신감에 차 있었



합덕 성가정 성당



합덕 첫영성체 페랭 신부와 어린이들과 (첫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 피에르 신부)



합덕 가톨릭청년회 악대 (앞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 피에르 신부)

고 그 큰 교우촌의 온갖 일들을 시중들며 선교사제의 사도직을 수행하였다.

피에르 신부는 주님이신 하느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었다. 가난함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삶을 습득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고 감실 안에 계시는 분의 손길을 감내하였다. 그의 구원관은 현실적으로 전개되고 있었으며 앞으로 전개될 사도직 생애에 두둑한 밑거름이 되어주었다.

3. 인천교구 답동 성당 보좌신부로 가다

1938년 6월 1일~1939년 7월 6일

합덕에서 2년여 보좌신부로 재직한 피에르 신부는 두 번째로 제물포 답동 성당의 보좌로 가게 되었다. 그곳의 주임 사제는 파리외방선교회 드뇌(Deneux) 전 에우제니오 신부였다. 그 성당은 서울에서 서쪽으로 40킬로 정도 떨어진 항구도시지역에 하나 밖에 없는 성당이였다. 주임신부는 본당 신자들 사목을 담당하면서 새 성당 건축에 몰두하고 있었다. 피에르 신부에게는 10여 개의 공소 관리와 학교일이 맡겨졌다.

성당은 높은 언덕 위에 있었고 그 밑에 인천 박문 보통학교가 있었다.

외국인 창설자 신부가 교장을 역임할 수 없다는 일제(일제 강점 시기 : 1910~1945년)의 지시를 따라



답동 성당



담동 성당 제대

부득이 황해도에 계시는 임종국 신부를 보좌 신부로 모셔다가 교장 직을 겸임하게 함과 동시에 전 신부가 은퇴하고 임신부가 본당 주임이 되었다.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주임 사제가 바뀔으로써 피에르 신부에게 맡겨졌던 학교관리에 관한 직무는 자연스럽게 해소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리하여 피에르 신부는 담동 성당에 재직하는 시기에 두 분의 주임신부를 거치게 된 셈이다.

그 해 성탄 판공 때, 피에르 신부는 성탄 전에 11개 공소를 방문하였다. 하루에 한 공소를 방문한다 해도 꼬박 11일이 걸리는 일이었다. 그리고 19일부터는 성탄 전날까지 혼자서 쉬지 않고 판공성사를 주었다.

1박 2일 일정으로 용유도공소를 다녀왔고 며칠 후에는 영종도로 떠났다. 다음은 주안공소, 고잔리공소, 그리고 신천공소, 대야리공소, 소래공소, 방아다

리공소, 도창공소들은 교우 수가 30~50명 되는 작은 공소들이다.

마지막으로 강화도의 두 개 공소를 방문하였다. 공소 방문에 이어 판공성사를 집행하다 보니 피에르 신부는 더 많은 일꾼(보좌신부)들이 와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탄성이 터져 나오는 안타까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다. 담동 성당은 매우 큰 성당이었는데도 자정미사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던지 어린아이 하나가 질식할 정도였다고 한다.

조용한 시골을 떠나와 제물포라는 도시 속에 들어온 선교사 피에르 신부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사도 바오로처럼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외로운 섬에 살고 있는 그들을 찾아갔다. 작은 증기선을 타고, 뚝단배를 타고 험한 길을 걸어서, 자전거를 타고, 찾아가면 거기에는 옹기장이 촌이 있고 농가 마을이 있고, 개신 교도의 예배당(성공회)이 마주 닿아 있는 곳도 있었다.

강화도는 개신교 예배당이 여럿 있어서 각 종파마다 그리스도를 설파하고 있다고 한다. 교회사를 모르는 교우들은 심지어 피에르 신부에게 와서 성공회 영국인들에게 종부성사를 청할 수 있도록 허락을 달라고도 한다.

그래도 예비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중 한 사람은 35년 만에 피에르 신부 앞에 와서 기도문과 교리문답을 전부 익히고 외웠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과 처에게도 교리를 가르치면 다음번에 세례를 줄 수 있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공소 어디를 가나 미사는 물론 봉성체, 고해성사, 종부성사, 교리 찰고와 대화, 강의, 냉담자 면담 등으로 시간은 바쁘게 지나갔다.

혼인문제, 자녀들의 교리교육문제, 냉담자 문제, 호교론적인 갈등, 공소 위치상의 난관 등, 갖 파견된

젊은 선교사 앞에 밀려드는 양들의 고통은 목자로서의 연민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이 되고도 남았다. 피에르 신부는 최대한 교리 찰고와 고해성사, 세례, 강의, 공소 미사 등의 사목 업무를 휴식시간도 없이 강행했다. 낯선 한국 음식과 불편한 잠자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잠시도 쉬지 않고 헌신했던 선교사 피에르 신부의 모습은 예수님의 33년간 지상 선교활동을 방불케 한다.

다섯 군데의 작은 공소들을 연달아 방문한 끝에 피에르 신부는 “나중에는 어지간히 힘이 들었던 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봉사처럼 벽에 기대고 마루판에 앉아서 지내야 했으니까요. 드디어 마지막으로 강화도에 있는 공소 두 곳을 방문했지요.”

“선교사에게는 거리가 시간이 사랑을 줄게 하지는 않지요. 오히려 그 반대인걸요! 가끔 증오를 품기도 하는 이국민(異國民) 가운데에 있다 보니 가족들과의 옛정이 생생히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 모든 사랑이 추억 속에 고스란히,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언제나 늘 함께 하며 위안이 되고 있지요.”라고 썼다.

피에르 신부는 식구 모두에게 1938년 12월 31일 자 편지로 이와 같은 자신의 사목활동상황을 전했다. 그는 식구들이 이 편지를 흥미롭게 읽어주고 자신의 선교활동을 더욱 잘 평가해 주기를 바라 마지않았다.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일이 담동 성당 보좌 소임이 끝나갈 무렵에 일어났다. 여러 공소 방문이 건강상 무리가 되었는지 피에르 생제 신부는 맹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다. 그때는 왜정 때였다. 지금의 서울대학교인 경성제국대학 의과대학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피에르 신부는 의사들에게 마취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였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였다.

수술은 성공했다.

유영도와 몇몇 청소년들은 그 당시 이 일에 매우 감화를 받아 신학교에 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사제 수품을 받아 서울교구와 수원교구에서 각기 활동하게 된다.

인천 담동 성당 보좌 시기에 피에르 신부는 공소사목, 고아사목, 학교사목 등 고된 사목 실습을 온몸으로 확실하게 치러 냄으로써 본당 주임 사제가 될 자격과 실력을 쌓았다고 하겠다.

제 2 장 _ 선교사 피에르 신부 백동 본당 주임 사제가 되다

1939년 7월 7일~1948년 5월 30일

성 신부가 한국에 도착하여 혜화동 성당에 부임한 시기는 일제의 조선 탄압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성당에서 하는 공식기도를 일어로 하게 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거나 국민정신 총연맹 지부 결성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성명을 일본식으로 개칭하고 사립학교를 국유화하며 용산 신학교를 폐쇄하는가 하면 신부 신학생들을 노무자로 징용하기도 하고 외국인 선교사들을 구금 추방하거나 일본인으로 대치하는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만용을 저지르고 있었다.

합덕과 답동에서 4년여의 보좌 생활을 거쳐 온 피에르 신부는 고국을 떠난 지 벌써 4년을 맞고 있었다. 맹장수술을 할 때 의도적으로 마취제를 쓰지 않고 생살을 찢는 아픔을 견뎌내면서 사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동참하는 선교사의 용맹한 이미지를 보여준 만큼 한국이라는 외방선교지에서 쌓은 그의 실력은 든든하고 이제는 참으로 본당의 주임 사제로 부임하기에 충분한 마음가짐과 담대함을 지니게 되었다.

앞으로의 사목 방향은 성사 집행과 소외된 이들을 위한 구빈 활동과 청빈 생활, 어린이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생각하며 피에르 신부는 담담히 소임지에 임하였다. 백동 본당 주임신부의 사목과 수도회 설립이라는 과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1. 백동 성당

백동 성당은 1909년 한국에 진출해 있던 베네딕도 수도회가 그 터전을 닦아놓은 후 1927년 본당으로 창설되었고 파리외방선교회 소속 지(Chizallet) 베드로 신부를 초대 주임으로 하여 시작되었다. 서울교구장 윌헬름 라리보 주교는 성재덕(成載德) 베드로 신부를 백동 본당 4대 주임으로 파견하였다. 그가 부임할 당시에는 신자 수가 3천 명에 14개의 관할 공소가 있었다. 성가대, 청년회, 연령회, 성 프란치스코 재속회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백동 성당은 서울교구에 속한 동성학교와 신학교의 입구에 자리하였는데 도심에 벗어난 위치에서 맑은 공기와 한적함이 있었다. 교육기관이 밀집하여 있고 부유층과 지식인들이 많았다. 성 신부는 수도 서울의 북쪽 교외 전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다.

그는 백동 성당에 부임하면서 1940년대 한국 사회를 일컬어 이 나라는 문명화된 나라이므로 사람들에게

게 물질문명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소개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자선사업은 외교인들이나 타 종교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지적인 대화를 통하여 정신적으로 다가가는 편이 훨씬 낫다고 판단한 그는 백동의 지성인들을 교회 일꾼으로 기용하여 복음 선포의 차원을 고양시켜 나갔다.



백동 성당

피에르 신부 환영

2. 본당 운영 방침을 세우다

원칙을 세워놓고 일하기

성 신부는 보좌 장금구 신부와 의논하여 우선 본당 운영 방침을 세웠다. 필요한 원칙을 세워놓고 함께 일을 하기로 합의한 그들은 먼저 여성 신자들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신자들의 개입에 대한 세 가지 행동 규범을 정했다.

첫째, 사제관에 여자 혼자 출입하는 것을 금한다.

둘째, 여성 단체와 야회활동을 나갈 때는 아주머니나 할머니 한 분을 꼭 함께 모시고 나가기로 한다.

셋째, 성 신부와 장 신부는 항상 형제와 같이 지내면서 신자들의 불필요한 개입을 제어한다. 라는 대책이었다.

본당의 여자 청년회는 물론 성가대 또한 여성들이 합석하는 여성 단체였다.

당시 교우들은 주임 신부와 보좌 신부의 관계를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로 보기 일쑤였다. 어느 주일 공지사항 시간에 성 신부는 “우리 두 신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아닙니다. 형제 사이입니다.”라고 할 정도였다. 신자들은 웃어넘겨 버릴 수 있었지만 성 신부는 심각한 상태였던 것 같다. 더구나 보좌 신부는 성 신부와 국적이 다른 한국인이었으므로 그와 다르게 행동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작전은 통쾌하게 들어맞았다. 여성 단체에 끼어들어간 아주머니나 할머니 한 분은 반드시 산중인이 되어주었다. 여자 청년회 활동을 나갔을 때 그 여자들과 함께 아무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곤 했어도 두 신부들이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일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재미있었다는 뒷이야기가 들려왔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사목을 해가며 오직 천주께 감사를 드리기만 하면 되었다.

장 신부는 성 신부보다 3년이나 늦게 수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갑내기였으므로 그 둘의 관계는 항상 친구요 형제처럼 지내기가 무난하였다. 힘든 일은 서로 내가 먼저 하려 하고 좋은 것은 서로 미루어 항상 화기에애한 가운데서 생활하였다. 멀고 힘든 공소 길을 순회하러 갈 때면 제각기 자기가 가겠다고 싸움 아닌 말다툼을 가끔씩 하기도 하였다. 장 신부는 자신의 사목 반세기 회고록에서 고백한다.

교적 공부

성 신부는 교우들의 신앙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일 교적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였다. 길을 가다가도 본당 어린이 하나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집안 식구들의 신앙 정도를 알게 되었다. 집에 돌아와서는 새로 알아낸 것을 교적에 적어 두고 자주 빠지는 교우들에게는 더욱 관심을 보여주면서 지도하였다. 보좌 신부에게도 이러한 방법을 알려주었다. 장금구 보좌 신부는 이 방법을 사용하기를 즐겨 하였다. 안양에서 본당 주임 신부로 일할 때, 착한 목자의 사목 방편으로 삼아 실천하였다. 그는 당시를 회고하여 백동 성당의 보좌 직에 있으면서 사목자에게 필요한 많은 것을 배웠기에 그 2년이란 시간이 참으로 짧았던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였다.

주일 강론

주일에 강론을 하는 것도 둘이 사이좋게 서로 방식을 정해놓고 교대해 가며 하였다. 주일 미사가 몇 차례 있든지 그날의 강론은 같은 신부가 하며 꼭 기록해서 하도록 하였다. 시간은 15분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에 신자들을 지루하게 하거나 짜증스럽게 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주일날 그 어느 미사에 가든지 전 신자가 같은 내용의 강론을 듣게 되었고 반복되는 강론을 하지 않아서 또한 좋았다.

본당의 주임 성 신부는 모든 일에 있어 형제처럼 보좌 장 신부를 보살피 주었고 선배목자로서 사목하는데 많은 교훈을 주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실효성이 있다고 확신한 장 신부는 어느 본당에 서든지 그런 식으로 해 왔다고 자랑삼아 이야기 하였다.

주일 헌금제도를 시작하다

본당이 통틀어 4개밖에 없었던 그 당시 서울에서는 4대축일에만 헌금을 하는 실정이었다. 헌금의 총액은 연간 이십 원(헌금 약 20만 원) 정도였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신자들이 많이 산다는 백동 본당에서마저 그러하였다니 당시 한국교회의 봉헌금에 대한 인식 수준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당시 백동 성당 신자였던 장발 교수는 신자들로 하여금 주일 헌금을 잊지 않고 제대로 봉헌하게 하는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4대축일에만 헌금을 할 것이 아니라 매주일 헌금이 있다고 하면 매주 성당에 올 때 옷 갈아입을 때마다 손수건을 잊지 않는 것처럼 헌금도 잊지 않게 된다는 것이었다.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시험해 볼 겸 실시한 결과는 매우 좋았다. 먼저 한 두 주일 공지하고 주일 헌금의

목적은 설명한 다음 주부터 시행하였는데 매주일 5원 이상이 나왔다고 한다. 그것은 대축일 헌금의 열배 이상 되는 액수가 되었다. 그리고 그 제안은 서울의 각 본당에서 매주일 헌금을 시작하게 된 효시가 되었다.

교무금 납부 방식을 새롭게 하다

백동 본당의 경제적 운영은 파리외방선교회의 원조로 꾸려나가는 실정이었다.

성탄 전 교무금 한 번으로 일 년 예산을 세우는데 그것도 공소에서는 대부분 곡식으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그 교무금 또한 4대 축일 헌금 못지않게 너무도 턱없이 미미한 것이었다.

1939년 성 신부와 장 신부는 우선 회장단을 소집하여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교무금 봉투를 각 교우 가정에 돌리고 주일 강론을 통하여 교무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준 다음 직접 본당 사무실에 갖다 내는 방식으로 하였다. 그것은 회장이나 반장이 직접 금전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염려해서였다.

그 결과 그 해 연말 교무금 납부 총액은 2,500여 원이나 되었다. 그 당시 황소 한 마리 값이 50원 정도였다면 전에 비해 다섯 배가 넘는 액수였다. 이 획기적인 일은 본당 창설 초유의 일이었다. 회장들은 매우 놀랐다. 이 일은 또한 본당 자립의 밝은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올바른 교육을 시키지 못한 교회의 책임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된다.

3. 본당의 단체들을 지도하다

어린이 교육, 세례 허원 갱신식

성 신부는 어린이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가르쳤다. 성당 마당과 그의 사제관은 완전히 어린이 놀이터였다. 그는 어린이들에게 각종 놀이기구를 장만하여 주었고 그들과 같이 뛰놀기까지 했다. 예수께서 어린이를 사랑하고 존중하셨던 만큼 어린이들을 위한 성 신부의 사목적 비중도 컸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어린이 미사 책’을 엮어서 보급하였다.

어린이 미사 노래 “네 앞에 죄를 범하였으니 착하신 주여, 용서하소서.”

어린 시절 성 신부를 무척 따랐던 최승룡 신부는 성 신부의 고별 강론에서 이 노래를 소개하며 주일학교 시절의 ‘세례 허원 갱신식’ 체험을 이야기하였다.

이 책은 1949년 11월 1일 초판 발행하여 전국에 보급되었고 1960년 중반까지 9판이 인쇄되어 어린이 선교에 많은 공헌을 한 ‘어린이 합송 미사 책’이 되었다.

1943년경부터 성 신부는 본당에서 유아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에게 교리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주일학교 상급학년을 대상으로 세례 허원 갱신식을 실시하였다. 주일학교를 담당한 보좌 신부가 봄부터 가을까



어린이 합송 미사



세례 허원 갱신식 (왼쪽에서 네 번째: 성 신부)

지 매주일 한 시간씩 교리를 가르쳤고 그리스도 왕 축일에 갱신식을 거행하였다.

경향잡지 1947년 11월 1일 자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알려 준다.

“어려서 세례할 때 대부·대모의 입을 통하여 천주를 믿고 마귀를 끊어 버리겠다고 한 약속을 당사자가 철난 다음 제정신 제 입으로 말하게 하는 당연한 예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구라파와 아메리카 각지에 널리 보급, 실시되어 왔다. 우리 조선에서는 4년 전부터 백동에서 시작되어 해마다 계속되어 오는데, 금년에는 지난 10월 19일 주일에 아동들의 세례 허원 갱신식을 거행하였다.”

10월 19일 갱신식에 선발된 남녀 아동은 24명이었다.

시험 과목은 십이단, 문답, 도리, 성교감략(聖教鑑略: 성경 해설서) 등이었고 시험관은 대거 초빙된 원 주교, 부감목 이 신부, 약현 이 바오로 신부, 경향잡지 본사 윤 마두 신부, 미

아리 오마지아 신부들이었다. 선발된 학생들은 며칠간의 피정기도를 마친 다음 노 주교님 이하, 신부님, 부형 자모, 기타 많은 교우들 앞에서 갱신식을 거행하였다.

갱신식 때 그들은 씩씩하고 낭랑한 목소리로 모든 이들을 감격시켰다고 한다. 이 의식은 1948년까지 계속 거행되었다.

잡지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처럼 필요한 세례 허원 갱신식을 행하고자 하는 교회는 서울 혜화동 본당으로 그 절차와 방식을 문의할 것이다.”라고 광고까지 해주었다.

용심단(勇心團)

성 신부는 어른들을 교육하면 30% 정도의 효과를 가져오지만 어린이를 교육하면 80% 이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3백여 명 되는 주일학교를 운영하면서 그는 용심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단원들은 본당의 복사단과 함께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주일학교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단원들은 빨간색 한자로 勇心(용심)이라 새긴 베레모를 썼다.

그 목적은 성소 계발이었다. 성 신부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비용을 아끼지 않고 장만해 주었다. 그들은 매 주일 미사 후, 교리 공부를 마치면 정서적이고 교육적인 게임과 놀이를 벌였고 오후에는

신학교 운동장에 가서 신학생들과 함께 축구, 야구 등의 놀이를 했다. 이런 시간은 어린이들의 신앙과 성소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아직 세례 받지 않은 동네 아이들도 성당으로 데리고 와서 놀다가 마침내는 성당에 나오게 되고 그들의 부모들도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용심단을 2년간 지도하면서 신학교에 보낸 사람이 7~8명이 되었다.

그들 중에 사제가 된 사람들은 분도회의 장베다 신부와 이석충 신부, 장익 신부들이다. 덕원 신학교에 가서 병사한 김봉건도 용심 단원이었다. 그밖에 평신도로서 교회에 봉사한 이들도 많이 배출되었다.

여성교육, 백동 본당 여자 청년회 교리경시대회에서 우승기를 획득하다

1939년 11월 19일, 경성 가톨릭 여자 청년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3회 교리경시대회가 열렸다. 개인 선발, 지방 대항 모두에서 백동 성당 여자 청년들이 1등을 수상하게 되었다. 종현 교회(명동 성당) 대강당에서 성적 발표, 상품 수여, 우승기 수여식을 거행하였다. 특히 단체상은 3년 연속 우승한 우승기였다. 대강당을 꽉 메운 방청인들 앞에서 진동하는 박수소리와 함께 우승기는 영구히 백동으로 넘어왔다. 이 날 백동 성당은 의기충천하였다.

연극 공연 활동

성 신부는 백동 본당에 재직할 시기에 신자들로 하여금 연극 각본을 쓰게 하고 그것을 공연하게 하였다.

‘어린 딸은 어떻게 되었나?’라고 하는 각본은 1947년 9월 2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동성중학교 강당에서 공연되었다. 이혼의 비극을 그린 이 연극은 대호평을 받아 대본 주문이 쇄도하였다고 한다.

그 밖에도 이해남 작 ‘영지국 수부계(靈之國受付係)’는 인간이 사후에 심판관 앞에 나가 전생의 죄의 따라 천국, 연옥, 지옥행이 결정된다는 이야기로서 권당 3백 원이라는 고가에도 불구하고 각 본당으로 팔려 나갔다고 한다.

그리고 성 신부가 백동 성당을 떠나있을 때에도 연극 활동은 지속되었었다.

1949년 9월 25일, 최요안 작 ‘복사꽃 지는 날’을 공연하였는데 그 내용은 성녀(당시에는 복녀) 김 아네스와 김 골롬바의 순교 실화를 소재로 한 것이었으며 호평을 받은 성극으로 성공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성 신부는 본당의 여자 청년회 활동을 활성화함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보좌 장 신부와 함께 야외활동을 통한 여성들의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흥미롭게 이끌어주었고 기회가 닿는 대로 여청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였다.

세례 허원 갱신식, 여청년회 여성들의 교리경시대회 참가, 연극 공연 등. 이 모든 것들은 여성들의 영성생활을 추구하고 고양시키는 학습과정이며 양성이었다.

다양하고 복합성을 지닌 그 자리자리마다에서 한국의 서울 여청년들의 초성적인 기백을 살려주는 역할을 톡톡히 감당해 낸 성재덕 베드로 백동 본당 신부는 참으로 시대의 스승! 그 열린 마음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4. 전쟁의 와중에서

1939년 9월, 성 신부가 자기의 본당에서 무얼 좀 막 알아가려는 즈음이었다. 유럽에서는 전쟁(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과 이틀 후 영국과 프랑스의 선전 포고)이 발발하여 프랑스 군대 동원 소집령을 받게 되었다.

그는 1939년과 1940년 두 차례에 걸쳐 입영통지서를 받고 중국의 목덴(심양)과 상해로 소집되어 갔다가 오는 해프닝을 겪게 된다. 한 번은 중국 체류 프랑스인들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또 다른 한 번은 건강상 불합격 통지를 받고 돌아오는 것으로 끝이 났다. 성 신부는 스프루 라는 병을 얻었다.

“이곳(백동)에 돌아와서는 갖가지 향수를 몰아내느라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제 건강은 아직 말씀드리기에는 이르지만 그럭저럭 버틸 만합니다. 위가 고장이 나서 더 이상 고기는 먹을 수 없어요. 먹더라도 아주 조금밖에 못 먹죠.”

어디 그뿐이라!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이 터진 이후, 1942년 11월부터 일제는 선교사들을 총독부 감시 하에 두고 사제관 내에서 한국인들과의 접촉을 금지시켰다. 거주지 구속령으로 공소 방문이 중지되었다.

다른 한 편 고국 프랑스의 독일 점령과 휴전 소식을 접하는 가운데서도 성 신부는 1941년 6월 초에 53명의 성인 영세자를 얻었고 그와 같은 수만큼의 교우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백여 명에 달하는 임종 대세자도 있었고 성령강림 축일 전날에는 순교자 후손이며 개신교 목사였던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으며 부활 축일 전 날에는 그의 처와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한 가족을 그것도 개신교의 목사 가족을 단 번에 가톨릭교회의 하느님 백성으로 입적시켰다는 것은 파견 선교사 성 신부에게 특별히 기쁜 일이었다.

1945년에 와서는 일본 관헌에 의해 혜화동 성당 구역 내에 연금 당한 상태로 외부 출입과 일반인들과의 접촉을 일체 금지 당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해 7월 7일 성 신부는 경성여자 의학전문학교 학생들에게 세례식을 베푸는 놀라운 일을 성사 시켰다. 공교롭게도 그 해 7월 7일은 피에르 신부의 사제 수품 1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보니 본국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고 중국을 왕래하는 해프닝을 겪느라 2년이



경성의전 학생들과

라는 시간을 소비하였다. 이제는 확실하게 본당 신부로 자리를 잡고 일제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비롯한 성사 집전을 하게 되었다. 성재덕 베드로 신부는 이것을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했다. 그는 편지에서 프랑스에 그냥 있었다라면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자기 자신이 고향에서보다 100배나 더 유용한 존재로 느껴진다고 표현하였다.

한국의 서울 교우들은 자신의 뿌리나 목적지 영혼 구원과 같은 중대한 문제들을 그들 마음에 제일 첫 자리로 간직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에댕 사람들은 물질적이고 무디어진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한국에서 느끼는 위안의 1/4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프랑스에서 참사제가 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게 아닌지 역설적인 반문을 할 정도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성 신부가 어렸을 때 고향마을 에댕에서 겪은 전쟁(제1차 세계대전 : 1914~1918년 중 마르느 전투 : 영국이 프랑스와 연합국으로서 독일에 선전포고를 한 상태 : 1914년 8월 4일)의 경험은 일상의 테두리를 깬 흥미진진한 다른 하나의 생활이었으며 동시에 어른들의 근심 어린 세계 속으로 합류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한국의 백동 성당에서 겪는 전쟁의 여파는 외국의 파견 선교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고생으로 간주되었다. 육신의 지병이 될 만성 열대병까지 얻게 되었어도 아니 그로 인해 죽음을 피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파리외방선교회의 파견 선교사로서의 기쁨과 보람을 배가하고 그 가치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었다. 이제 성 신부는 한국의 백동 성당에서 신학교를 떠나기 전 마지막 파견식 때 불렀던 노래를 생각한다. 하느님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기 위한 사도의 역할은 청빈과 노동 그리고 투쟁, 죽음, 바로 그것이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찬란한 미래였다! 라고 할 만큼 성 신부를 단련시켰고 구원받아야 할 고통스러움을 자신의 사도직으로 각인시켰다.

5. 공소 신설과 본당 분립

제기동 본당 신설

백동 본당 성 신부의 관할 구역이던 사대문 밖 변두리 지역 미아리와 제기동 일대는 급증하는 이농자들로 인하여 도시빈민촌을 이루었다. 그들은 대부분 도시계획에 따른 무허가 건물 철거 방침으로 1970년대 사회문제의 대상이 되었던 지역이다.

1942년 일본 정권의 탄압은 더욱 고조되어 용산 신학교를 무인가 학교라는 이유로 폐쇄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신부는 의기소침하지 않았다. 그는 백동 본당 신자들을 분가시켜 내보내는 일을 단행하였다. 사전 준비는 교구에서 2백 평의 부지를 확보해 준 것으로 만족하였다. 이로써 동대문 밖 제기동에 본당을 신설하고 그 일대의 교우 6~7백 명을 소속시킴으로써 최초의 분립 본당을 이룩하였다. 초대 주임 사제는 대신학교 교수직에 있던 파리외방선교회 고요한(Colin) 신부였다.

미아리공소의 본당 승격

성당이라고는 모두 4개밖에 없었던 그 당시 서울에서 백동 성당은 세 번째 가는 성당이었다. 성 신부는 장차 신자들이 성당들을 순례하며 자기 신심을 봉헌할 수 있는 순례 성당으로 육성 발전시킬 터를 만들고자 하였다. 큰집을 짓기 위한 첫 단계 작업은 공소를 운영하는 일이었다.

구 미아리 성당 마당 아래에 있던 교우 소유의 큰 기와집 한 채를 얻어 그 이름을 '성모칠고공소'라 하였다. 베네딕도회 소속 김영근 베다 신부의 모친 김명환 마리아를 공소 전교회장으로 세우고 매주 토요일마다 미사를 봉헌하였다. 교우는 대개 60명가량 되었다.

공소 설치 2년 후, 1944년 11월 성모칠고공소는 미아리 본당으로 승격하였고 그 후 길음동 본당으로 발전하였다. 1946년 해방 이듬해 김대건 신부 순교 100주년을 기하여 '한국 천주교 순교자 현양회'가 창설되었다. 길음동 성당은 이제 성 신부의 숙원대로 한국순교자 현양 신심을 비롯한 예수성심, 성모성심 등 개인 신심 순례 성당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성소로 전환되어 있다.



청담리공소에서 건진 기념 (둘째 줄 왼쪽에서 네 번째: 성 신부)

6. 성체거동과 성모의 밤을 처음으로 실시하다

성체거동

성 신부는 해방 후, 3년간을 더 백동 본당에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어 까타콤 바에서 나왔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성체거동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나름 의미심장한 일이다. 어릴 때 미사를 드리고 돌아온 어머니의 가슴에 친구하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신다고 느끼고 믿어왔던 그 성체에 대한 추억과 함께 선교 파견지에서의 해방 사건을 성모승천 대축일의 현실로 기념현양 하는 성체거동이었기에 말이다.

성체거동은 1946년 6월 최초의 본당 자체 행사로 거행되었다. 해마다 교우들은 동성학교 교정에 모여 미사를 드린 후 행렬을 지어 혜화동 로터리를 돌아 대신학교 교정으로 가서 성체강복식을 올리고 해산하였다.

동년 9월에는 신학교 교정에서 성(당시에는 복자)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순교 1백주년 시복 현양미사를 드린 후 유해를 모시고 성체거동 행렬을 하면서 종현(명동) 성당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에 유해를 안치하였다.

1947년 6월에는 본당 자체로 또 한차례의 성체거동을 하였다.

해방 후 혜화동 일대의 주민들은 일제 치하에서 보지 못하던 이런 일이 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거동 행렬을 지켜보았다. 이 성체거동은 서울교구 연합 성체거동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구원사적 의의가 있다.

성모의 밤

1942년 5월 백동 성당에서 성 신부는 한국 최초로 성모의 밤을 열었다. 파리외방성교회에서 길러온 파견선교사제 성 신부의 어머니 사랑, 성모신심이 한국에서도 여지없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7. 자문 기구와 봉사회를 구성하다

성 신부는 백동에 부임하여 8년이 되는 시점에서 본당 운영을 위한 도움과 나눔의 모임을 결성하게 된다. 지성인과 의사들의 후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본당 유지 위원회는 본당신부를 돕는 자문 기구로서 1947년 양조장을 경영하던 김봉학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위원들은 장면, 박병래, 우재봉, 이선길, 김정희, 김옥운으로 하였다.

가톨릭 의사회는 1948년, 교우 의사들이 전교를 하면서 중환자들에게 대세를 줄 수 있도록 창설한 단체였다. 성모병원장 박병래의 발기로 서울대학병원과 성모병원, 경성여자 의학 전문학교 및 기타 개인 병원의 의사들을 총망라한 초본 당적 성격을 띤 본당 가톨릭 의사회로 시작되었고 서울 대교구 가톨릭 의사회로 발전하였다. 초대회장은 성모병원장 박병래, 회원은 김응규, 김현규 형제들로 구성되었다.

8. 구원하고자 하는 성 신부의 한국 사랑

성 신부는 대구에서 서울로 오는 순간부터 이 나라를 제2의 조국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산과들의 농촌 풍경은 서서히 그의 관심을 끌었고 마음을 기울이게 하였다. "한국의 산천을 말하면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빼놓을 수 있으랴!" 할 만큼 눈여겨보았다.

서울에 도착한 이래 그는 파견 선교사로서 자신의 할 일을 꾸준히 실현하였다. 합덕에서 답동에서 백동에서 그의 열정은 햇불이 되어 밝게 타올랐다, 어린이에서부터 여성과 노인들, 부자들, 가난이들,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려고 변함없이 일해 온 날들이었다. 그 모든 일들은 마음의 기쁨, 수확을 거둘 때의 그 기쁨에 감히 비할 것이 아니었다. 여기 한국에서 선교사의 삶은 진정으로 아름답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그는 체득하였다.

사제관에 주방시설이 없어서 신학교에 올라 다니며 하루 세 끼를 해결해야 했던 때가 있었다. 한국 땅에 발을 디딘지 12년 7개월, 백동에 온 지 9년 차. 성 신부는 오랜 기간 맵고 짠 식사에 담배를 피우다 보니 혀가 몹시 아프다고 호소하였다. 이 또한 해외파견 선교사가 감당해야 할 만만치 않은 몫이었다. 그는 김치를 정의하여 한국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소금물에 절여 고춧가루와 함께 버무린 생 배추 잎 토막이라고 하였다.

그는 자기의 지병 스푸루와 설염과 그 밖의 험오스러운 것들을 감내하면서 약자의 편을 들어주시는 정의로우신 하느님의 자비하신 마음으로 선교지의 사람들을 옹호하고 도우려 했다.

그는 한국에 적십자 병원이 있고 간호사도 있는데 그 병원들은 국·공립 병원들이지만 지나치게 불결하다고 한다. 구내식당이 없고 환자들이 자체적으로 각자 자기 병실에서 취사를 하기 때문에 조리에서 사용하는 석유곤로와 함께 악취가 병동에 가득하고 그나마 음악소리를 들으면서 죽기를 바란다는 비신자들이 틀어대는 라디오 소리에 시끄럽고... 프랑스 병원과 비교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성 신부는 그 비신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컸다.

서구식 의학 교육을 받은 의사들은 물약과 가루약의 두 가지 처방을 해주는데 한의사들의 처방은 별의 별 기괴하고 끔찍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구역질 날것도 없고, 난 그들을 포용해 주었다” 하였다.

아마도 이런 마음 때문에 구원사업이 가능한 것이며 성 신부는 가장 좋아하는 것을 구령(救靈)으로 설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확신이 든다.

숨은 봉사로 돕는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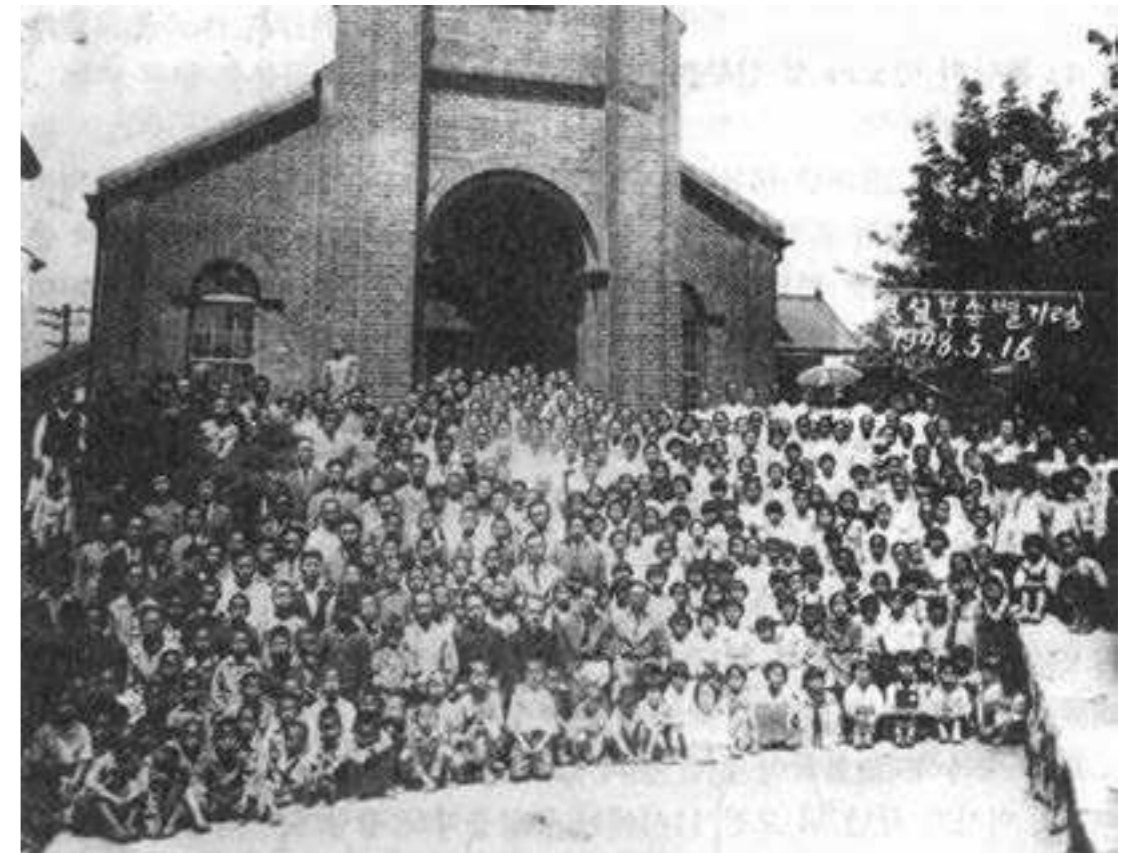
성 신부는 휴가차 프랑스에 가서도 한국을 돕는 일을 했다. 1948년 9월 파리에서는 마침 유엔 총회가 개최되고 있었다. 8.15 해방 후 우리나라는 신생 대한민국의 독립 승인을 얻기 위하여 그 회의에 수석대표로 장면 박사를 파견하였다. 성 신부는 거기서 백동 본당 유지 위원이었던 장면 박사를 만나게 되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절묘한 만남이었다. 그때가 마침 성탄절이 다가오는 시기여서 각국의 대표들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나려는 참이었으므로 과반수의 동의를 얻기에는 역부족이 예상되는 때였다.

두 사람은 합심하여 여론을 모으기에 전력을 다하였다. 성 신부는 자기 친구들을 동원하여 호텔에 머물고 있는 각국 대사들에게 승용차를 제공함으로써 그들 거의가 회의석상에 참석하도록 배려한 결과 많은 숫자가 참석하여 마침내 승인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일조한 사람은 당시 호주 출신 유엔 대표단 인솔자였던 브라운 대주교였다. 그는 한국이 유엔의 승인을 받는데 대한 여론을 모아주었다. 특히 대영제국의 열여섯 표가 다 찬성을 하여 독립이 승인되었다.

그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 외에는 여념이 없었다. 백동에서는 지성인들이 협조하였고 본당 운영을 위한 소통이 가능했다. 하느님의 보편적 구세 의지를 지닌 마음자세와 지향으로 일관하였다. 기회가 좋든 나쁘든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려 한다는 사도 바오로처럼 성 신부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선교

파견지 한국인의 종교적 정체성과 한국 사람을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뜨거운 열기로부터 우리나라는 그의 에너지는 무엇보다 한국교회를 위한 사랑의 강물이 되어 흘러내리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한국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의 내림이며 강생이었다.

1943년 서울 성가소비녀회라는 수도회를 설립하게 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송별 기념 (둘째 줄 중앙: 성 신부)

제3장 _ 성재덕 베드로 신부 서울 성가소비녀회를 설립하다

사람을 돕고 구원하고자 하는 성 신부의 열정과 연민의 에너지는 참담한 한국 상황에서 더욱 힘차게 작동하고 있었다. 그는 일본의 적국인 프랑스의 선교사로서 경찰서에 호출되어 조사를 받으며 감시를 당했다. 성당 안에 연금되어 미사 집전만 허용되었고 외부 출입이나 일반인들과의 접촉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1910년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이래 일본의 전쟁 놀이와 치부와 경제 수탈로 인하여 농어촌과 노동자들의 생활은 나날이 궁핍해 갔다. 쌀겨도 없을 지경이 되어 이름 모를 잡풀을 뜯어 먹고 병들기가 비일비재였다. 이농자와 공장노동자들은 도시빈민으로 전락하였고 공장지대인 목포, 군산, 인천 등지로 떠나간 농촌 처녀들 중 무려 20만 명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

이농자들은 점차 유랑민으로 변하여 갔다. 고달픈 발자취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하나둘씩 모여서 부락을 형성하게 된 사람들; 갈 곳 없는 이, 병들어 일할 수 없는 이, 늙어도 부양해줄 사람이 없는 이, 나이 어려 부모를 잃고 의탁할 곳 없는 이, 범죄 하여 형을 마치고 나왔으나 갈 곳 없는 이, 시골에서 도회지로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올라왔다가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한 곳에 부락을 만들게 된 사람들.

썩은 나무토막으로 집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거적이나 짚북데기를 깔고 아내는 밥을 얻으러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남편은 지게 품이나 어디 일용직 노동을 찾아 돌아다닌다. 토지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토막민(土幕民)이라 하였는데 요즘 말하는 노숙자 다름 아니었다. 그들은 후암동 일대와 신당동, 북아현동, 홍제동, 돈암동, 길음동, 창신동, 동대문 밖 용두동, 신설동, 제기동, 충신동, 금호동, 청량리 일대, 영등포 등으로 퍼져 나갔다.

그러한 상황에서 '본당 신부들은 자기 본당에만 박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디선가 읽었던 글귀를 기억해 낸 성 신부는 결코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다.

참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실존이 무색하다 못해 체념에 이를 지경이 되었어도 백동 본당 주임 성재덕 베드로 신부는 사람들의 구령을 위하여 수도회 설립의 호기를 결코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영적 시각으로 새로운 삶의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한국 사회 참상

1. 수도회 설립 동기

성가소비녀회를 설립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1940년대 한국 사회의 비참한 상황에서 기인한다. 러일 전쟁,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이라는 전쟁의 다중 구도 안에서, 일제의 식민 탄압 정치로 인한 인간 생명이 파괴되어가는 현장을 바라보는 성 신부의 마음은 빛과 어두움이 교차하는 고속도로와도 같았다.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1939년 한국인에 대한 탄압을 더욱 고조화하여 조선인 말살정책으로 돌입하였다. 1940년부터 개개인의 성명을 일본식으로 개칭하게 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학교에서는 일어를 가르치고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외국인 가톨릭 성직자 수도자들의 여행을 제한, 연금하기까지 하였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평양교구의 미국인 주교를 위시하여 35명의 사제, 광주와 춘천의 아일랜드 신부와 주교 32명을 구금하였으며 그 이듬해에는 미국인 신부들을 추방하고, 모든 주교들을 일본인 주교로 대치하려 하였다.

1942년 용산, 덕원의 신학교들을 폐쇄 점령하는 일이 일어났다. 1944년 신부나 신학생들을 노무자로 징발하고 평양의 대성당을 비롯한 곳곳의 성당들이 군용으로 대치되었다. 샬트르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용산 고아원도 일본 군대에 의해 점령당하고 경향잡지를 폐간시키고 고해소에도 침입하고 온갖 쇠붙이를 공출하며 성당 종을 빼앗아 갔다.

고국 프랑스는 나치의 손에 들어가고 가족들과의 연락도 두절된 채 곧 강제수용소로 끌려가게 될지도 모르는 전운 앞에서 30대의 청년 성재덕 신부는 슬펐다.

슬픈 시대. 성가소비녀회 시작할 때, 참으로 슬픈 시대였다. 어디서나 전쟁 얘기뿐. 그때 전쟁의 공기 속에 있었다. 가족은 해체되고 생계는 막막하였다.

식량문제, 자녀 교육문제, 군인이나 징용으로 끌려 나간 이들.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시골로,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 가고 오고, 정든 고향 가정을 등져야 하는 현실, 미래가 불확실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일해야 할지 막연하였다. 미사 하고 고해성사 주고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 일 외에는 정말 다른 일이 없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감금된 생활이 지속될 것인가? 하는 의문들 속에서 그는 기도하였다.

본당신부나 선교사가 되겠다던 애초의 다짐이 떠올랐다. “본당신부는 파견 선교사이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내 발이 닿는 데까지 가야 한다. 그렇다, 그들을 도와야 한다.”

그것은 깨달음이며 주님으로부터의 응답이었다.

당시 백동 성당에 나오는 신자들 중에는 농촌을 떠나 공장의 임시 직공으로, 품팔이, 파출부로 또는 장사일 등으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처녀들이 여러 명 있었다. 이들은 성 신부에게 영적 지도를 받으며 수도회 입회를 열망하였다. 그러나 학력의 부족이나 정월 초과로 샬트르 성 바오로회나 갈멜 수녀회에는 입회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설립 초창기를 회상하며 성 신부는 “많은 고해자 중에 젊은 여자, 조금 나이가 있었어. 결혼 안 하고 시골서 왔는데 내가 알아보니 결혼하기 싫어서 피했기 때문에 여기 서울에 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돈 조금 벌었어요. 빨래하고 모든 집의 세간 도와드리고 장사하기도 하고 수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노기남 주교

수녀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라고 했다.

그는 전사자, 부상자, 굶주리고 헐벗은 고아가 생길 것을 예측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누구보다도 먼저 성교회가 예수님의 인자한 얼굴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때 서울에는 샬트르 성바로 수녀회와 관상 갈멜 수녀회가 있었다. 이 두 수도회에 대한 그의 견해는 이러하였다.

“샬트르 성 바로로 수녀회 하나만으로는 일손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 수녀회는 현재까지 수도생활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선의의 경쟁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그 수녀들의 사도직은 전문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합당하지 않을뿐더러 성소 발굴에도 해롭다. 그 이유는 그 수도회에 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또 수도 성소가 있어도 수도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어 성소자를 다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기 자신들에게나 교회에게나 다 해로운 일이다.”

이러저러한 생각 끝에 성 신부는 활동 수도회가 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는 노기남 주교(1902~1984년)에게 타국 수도회가 들어오도록 주선해 주시기를 청해 보았으나 전쟁 중이어서 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기회가 오기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백동 성당 바로 옆에 있는 대신학교 교수 공 안또니오(Gombert) 신부(1875~1950년)와 이재현 신부(1909~1950년)들을 만나 의견을 제시하고 대화를 나누어 가면서 그 시대에 수녀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할 얻게 되었다.

성 신부는 우선적으로 성가 소비녀회의 참 설립자는 공안또니오 신부와 이재현 요셉 신부라 생각하였다. 성 신부 자신은 너무 젊어서 경험도 없었고 경륜이 높은 선배 신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성가회를 세우신 분은 바로 천주님이라 굳게 믿고 자주 그렇게 말하던 성 신부 자신은 설립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천주의 영광을 흠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천주만이 이런 영광을 받으심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성 신부는 자신이 수도회 창립자가 되어야 함을 의식하였으나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오직 성령의 영감에 응답하



이재현 신부



공 안또니오 신부

여 구원사업에 몸 바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예수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본분을 어서 하고자 했을 뿐이다.

그리고 서울에서 수도회를 세우는 일은 한국인보다 유럽인이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였다. 한국 신부는 샬트르 성 바로로 수녀회만 보아 왔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성 신부는 이제 백동 본당 신자들만이 아니라 한 국민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전망의 그물을 펼친다. 참으로 막막하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가운데 성가소비녀회는 태동하였다. 그것은 시대의 요청이며 성령의 요청이었다.

2. 서울 성가소비녀회(聖家小婢女會) 탄생

Little Servants of the Holy Family of Seoul, LSHF

수도회 설립 과정

성 신부, 그의 사목 전략의 센스는 곧바로 새 수도회 설립을 위한 지지자를 찾아 나서게 하였다. 서울 교구 노기남 주교가 있었다. 그는 1942년 일제 치하에서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주교로 수품된 인물이다. 그는 노 주교와 수도회 창설을 의논하고 결정하였다. 노 주교는 성가회 설립 이후 성소자를 보내는데 일조하면서 성가소비녀회를 당신의 맏딸이라고 불렀다.

수도회 설립의 다음 단계는 수도회를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성 신부는 숙고하며 기도하였다. 서울에 있는 네 곳의 성당 중에서 그는 백동(혜화동)을 선택하였다. 약현에는 본당 신부 혼자 있고 명동에는 이미 바로로 수녀회가 있고 영등포는 새로 시작하는 본당이라고 그렇고... 백동은 신학교가 있고 갈멜 수녀원이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생각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백동에 조그만 옛날 집을 마련했다. 새로운 수도회 창립 준비 첫 단계는 성신부의 목요강좌로 시작하였다. 1943년 9월부터 그 처녀들은 모여서 설립자가 될 신부님의 교리 강의를 들었다. 그렇게 4개월간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는 1943년 성모무염시태 축일(12월 8일)이 가까운 어느 날 그는 수도회에 가고 싶어 하는 그 처녀들을 불러서 이르기를 “천주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성교회하고 갈라지면 꿈뿐이요, 쓸 데 없어. 혼자 일 많이 못한다. 또 혼자 있으면 유감에 빠지고 성소 버리기 쉽다. 성성(成聖) 하고 싶으면 다 함께 해야지. 그러면 함께 살아야 되겠어. 천주께서 우리에게 조금씩 조금씩 갈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당신 집에 도로 가시오, 잘 생각하시오, 또 한 보름 지냈어, 승낙이나 싫다고 하거나 함께 살아야겠다. 우리는 힘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원에 갈 수 없으니 그러면 수도원 하나 시작하자.”라고 하였다.

성 신부는 그 때 모였던 여자들이 8명이라고 거명한다. 김 루시아(엠마누엘 수녀), 장 바올라(마리아 수녀), 이 구두라(그다음에 나갔어. 요셉 수녀), 이 테레사(말파 수녀), 남 안나(가밀라 수녀), 이 릿다(베드로 수녀), 김 마리아(바오로 수녀), 김 발바라.

그 처녀들 중 하나였던 김 루시아(엠마누엘 수녀)는 그때 일을 이렇게 회고한다.

“신부님은 내가 매일 미사에 다니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시고는 하루는 창으로 내다보시며 손짓으로 나를 부르셨다. ‘루시아! 수녀원 갈래?’ 하셔서 얼른 ‘예’ 하고 대답하니 ‘어떤 수녀원 가고 싶으냐?’ 하신다. 나는 ‘갈멜 수녀원’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신부님께서 ‘내가 언제 편지 써 줄 테니 가지고 가’ 하시는 것이었다. 아주 기뻐다.”

그리고 어느 날 성 신부는 정말 루시아에게 편지(추천서)를 써서 갈멜 수녀원에 들려 보내었고 루시아가 갈멜은 아니라는 확답을 받는 절차를 치르게 하였다고 한다. 그 시절 수녀원이라면 아마도 갈멜 수녀원을 생각해보지 않은 이가 드물었을 것이다. 성 신부는 나름 본인들로 하여금 확실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려고 그리하셨던 것 같다. 루시아는 성 신부님의 그런 의도를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신부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언제 시작 할래?” 하셔서 깜짝 놀랐다고 한다.

두 명의 약속으로 탄생하다

그 해 12월 25일 성탄 축일 미사 후 백동 성당 성모상 앞에서 두 명의 지원자 김청자 루시아와 김충순 발바라가 성 신부께 순명을 약속함으로써 수녀회는 창설되었다. 이때의 약속은 성교회 앞에서 하는 공식적인 서약은 아니었다. 자기 개인적인 양심대로만 하는 보통 약속으로서 하느님께 드리는 절대적인 순명의 약속이었다.

수도회 명칭은 서울 성가소비녀회(聖家小婢女會)라 하였다. 성 마리아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응답하신 말씀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그리고 성녀(당시에는 복녀) 김 골롬바 아네스 자매가 박해 때 체포되어 재판관 앞에서 심문 받을 때 대답한 소저(小姐)라는 뜻과 말을 합하여 소비녀, 작은 여종이라 이름 하여 주었다.

공동생활은 그 이듬해인 1944년 3월부터 백동 성당 방복사 집 건너 방에서 시작하였다.

공동체 생활이 시작된 3월 8일 이후, 입회자는 김청자 엠마누엘과 김충순 발바라를 선두로 장복레 마리아, 이금녀 구두라, 이성덕 말파, 남원녀 가밀라, 김연숙 바오로, 1945년에는 이용자 베드로, 권희 집 요왕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들의 공동생활은 전쟁의 와중이라



공동생활을 시작한 옛날 집 (아래 기와집)

먹고사는 일이 우선이었다. 온 세계가 전쟁으로 곤란을 당하고 있던 때였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형편이어서 로마에서나 프랑스에서나 수도원 설립을 위한 자금을 단 한 푼도 구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녀들도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수녀원 입회 전에 일하던 곳에서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했다. 말파 수녀는 병원에서 병자들을 돌보고, 가밀라 수녀는 어느 집에서 일했고, 엠마누엘 수녀는 비단 장사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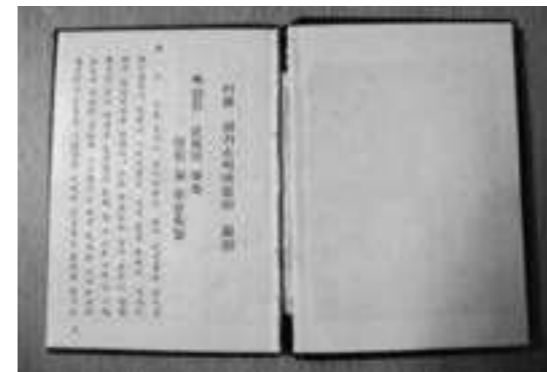
날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각자가 일해서 받은 품값이나 이익금을 다 내놓고 공동생활을 꾸려갔다. 빨감도 사다 써야 하고 먹을거리도 장만해야 하는 모두를 그 돈으로 충당하였다. 먹고사는 일 이외의 시간에는 조금씩 수도자들이 하는 기도 생활을 하였다. 날마다 성경책을 마치 문답처럼 죽죽 읽어가며 배웠다.

수련과 회칙서

창설자로서 성 신부는 교회법적인 면을 간과할 수 없었다. 신생 수도회인 성가소비녀회의 회원들을 합법적으로 수련시키기 위해 1945년 6월 1일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의 강 떼끌라 수녀를 초대 명예 원장으로 김 아델라 수녀를 수련장으로 모시게 되었다.

전쟁이 점점 치열해짐에 따라 성 신부는 자신이 포로수용소에 수감되더라도 소비녀들이 흩어지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로마로부터 샘플로 받은 규칙서(아우구스티누스 회 계통)를 가지고 신학교 이재현 요셉 신부와 함께 성가소비녀회의 회헌과 규칙서를 만들었고 1945년 7월 노기남 주교가 인준하였다. 1949년 2월에는 로마 성청으로부터 본회 규칙서를 정식으로 승인받게 되었다.

회칙서는 ‘서울 성가소비녀회의 회헌’이라는 제하에 5개의 제○○장으로 나누고 제○○항목과 ○○조별로 전개하여 총 197개 조로 되어있다. 제3장 제8항목에서 신빈(청빈) 허원 정결 허원 순명 허원에 이어 가난한 이들을 섬김이라는 주제를 제 107조로 하여 별도로 명기하고 있다. 이것은 설립자 성 신부가 세 가지 단식 공적 허원(삼대 서원)에 가난한 이들을 위한 허원을 첨부하여 4대 허원으로 기록했지만 교황청에서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수정 첨부한 것이다. (이하 조 표시 생략)



초대 회칙서



서울 성가소비녀회 설립 초기의 건물

서울 성가소비녀회의 회헌

제 一 장 본회의 목적 명칭 및 주보 축일

제 二 장 본회의 총 관리

- 제 一 항목 본회의 최상권
- 제 二 항목 참사회
- 제 三 항목 총 원장의 선거
- 제 四 항목 기타의 선거
- 제 五 항목 참사원에서 취급할 사무
- 제 六 항목 총 원장
- 제 七 항목 공회(참사회)
- 제 八 항목 본부 비서
- 제 九 항목 본부 경리와 재정관리

제 三 장 제 一 항목 수도회 회원

- 제 二 항목 입원 허가
- 제 三 항목 견습기간과 지원기간
- 제 四 항목 수련기간
- 제 五 항목 수련수녀 선생
- 제 六 항목 첫 허원
- 제 七 항목 수도회의 종신 가입
- 제 八 항목 허원(제 92~106조 : 신빈 정결 순명 허원, 제 107조 : 가난한 이들을 섬김)
- 제 九 항목 규율
- 제 十 항목 성당지기와 문지기 소비녀

제 四 장 사업

- 제 一 항목 자선사업
- 제 二 항목 빈민 취급 및 그들의 구제
- 제 三 항목 자선사업의 관리

제 五 장 각 수녀원의 규칙

- 제 一 항목 분원의 창설
- 제 二 항목 분원 원장
- 제 三 항목 수녀원의 자산

제 四 항목 소비녀들의 일상생활

제 五 항목 소비녀들의 병과 별세

제 六 항목 퇴원

제 七 항목 수도회 법칙을 지킬 의무

1943년 9월부터 1948년 5월까지 5년 동안 설립자는 백동 성당 주임 사제로 소비녀들 곁에 있었다. 1947년 6명의 첫 허원자를, 1949년 7월에 두 명의 첫 허원자를 배출하게 된다. 1952년 김청자 엠마누엘 수녀가 원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샬트르 성바로 수녀회의 두 분 수녀님들, 강 떼끌라 원장 수녀와 김 아텔라 수련장 수녀들은 떠나고 성가소비녀회는 독립하였다. 1954년 1월 10일 창립 10주년을 기하여 제1회 종신 서원식을 거행하였다.

그 이후 매년 12월 25일 예수 탄생일은 서울 성가소비녀회 창립기념일이 되었다. 성가의 소비녀들은 성가정 축일에 서원을 갱신하며 축제를 지낸다.



눈 치우기



제회 첫 서원 소식



제2회 첫 서원식



제회 종신서원

3. 서울 성가소비녀회의 영성과 사명

성가소비녀의 영성과 사명은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느님 영의 움직임에서 비롯하였다. 소비녀는 예수그리스도와 설립자 성재덕 베드로 신부를 통하여, 그리고 초창기 수녀들로부터 이어받은 영적 유산을 지니고 수도생활을 영위한다.

예수그리스도의 강생 사건은 하느님 사랑의 대현장이며 전무후무한 케노시스(Kenosis)의 사건이다. 하느님이 낮춤과 비움과 가난의 모습을 취하시고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신비의 표시이다. 베들레헴 구유는 강생의 현장이며 성탄절의 의미는 임마누엘 곧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심이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진정한 겸손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꽃을 피워내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

강생의 목적은 모든 가난과 소외와 폭력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려는 하느님의 정의 실현이다. 성가 소비녀는 사도적 관상 생활을 통한 일치와 합심, 가난과 노동, 신비체 가족에 대한 연민과 연대로 움직여간다.

강생의 영성을 살다

1943년 12월 25일 성탄 축일 미사 후 설립자 성 신부에게 순명하기로 약속한 두 명의 소비녀들은 그 이듬해 3월부터 공동체 생활로 들어갔다. 그들의 삶은 그 자체로 가난하였다.

실질적으로 그들의 집안이나 배움이 가난하였고 수녀원에 와서도 정말로 가난하게 살았다. 밖에 나가 그들의 손으로 일하여 그 품값을 공동체에 가지고 왔다. 그런 중에도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여 가난 자체를 나누었으며 방 하나에서 불쌍한 노파와 함께 살다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기도 하였다.

쌀 배급을 받아먹고 살아야 했던 일제 치하에서 김청자 루시아(임마누엘 수녀)는 입회와 함께 집에서 쌀표를 옮겨왔는데 그때 아버지가 너무도 섭섭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고 한다. 공동생활을 시작하고부터 루시아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밖으로 다녔다.

그들은 가장 어려웠던 게 우선 시장기를 참기 어려웠다고 회고한다. 새까만 보리밥에 무청 김치 하나라도 있으면 최상이었다. 하루 두 끼니를 죽으로 연명하면서 저녁은 나물죽으로 때우거나 콩깻묵과 도토리를 밥 대신으로 할 때도 많았다.

배고플 때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집 생각이 많이 났지만 모두 함께 겪는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천주님을 위해 참아 견딜 수 있었다. 남의 집 일을 하고 돌아와 피곤해도 저녁엔 성 신부님께 가서 성경 문답 외우고 하는 것이 즐겁기만 하였다.

게다가 그들은 신비체 가족과 함께 살았다.

“수녀원에서는 할머니 두 분을 모시고 살았는데 우리와 한 밥상에서 식사를 했다. 우리는 감자 도토리를 삶아서 먹고 할머니들은 쌀밥을 골라가며 퍼 드렸다. 또 유치원 뒤쪽 방에다가 할아버지 한 분을 모셔 밥을 먹여 드리곤 했는데 그 밥이 그렇게도 먹고 싶었다.”

그들의 사랑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 한 사랑이었다. 내가 먼저 먹고 그다음에 이웃을 돌보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먼저 더 좋은 것으로 섬기고, 그다음에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밥술가락이었다. 먼저 하느님 나라와 그 정의를 구하라고 하신 예수 말씀을 글자 그대로 실행하였다. 배불리 먹고 입고 등이 따뜻했으면 그렇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삶의 모든 측면의 가난을 전인적으로 감내하였다. 감탄고토(甘呑苦吐)의 피부 감각적 욕망이 아닌 고진감래(苦盡甘來)의 쓴 사랑. 그것을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지고 간 사랑이었기에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강생의 영성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낮에는 각각 헤어져 일하다가 저녁에 모이면 웃음꽃을 피우고 성 신부님께 가서 성경 문답을 외우는 것이 즐거웠다고 하지 않는가? 부자가 아닌 가난한 이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체험적 사랑의 사람들이 바로 초대 소비녀들이었다. 그들은 하느님을 사랑했을 뿐 아니라 참으로 가난하게 살았다.

초대 회칙서 회헌 제 一 장 제 二 조에는 수도회의 명칭과 함께 성가소비녀의 영적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

“회의 명칭은 서울 성가소비녀회라 일컫나니 회의 명칭이 의미함과 같이 회원들은 타인의 비녀가 되어 겸덕과 신빈과 노동을 숭상하여 성가의 일가족과 같이 애주애인의 덕을 지키며 침묵의 관상 생활을 하며 서로 지극한 친목을 도모할 것이다.”

지금은 작고한 성가소비녀회 명 마리아 수녀는 성 신부님이 샬트르 성 바오로회의 떼끌라 수녀가 성가 소비녀회의 초대 원장수녀로 오게 되었을 때 그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성 신부 : “어이, 떼끌라 수녀! 당신이 소비녀들 맡아 가르치시오!”

떼끌라 수녀 : “제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성 신부 : “겸손한 소비녀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 시기에 떼끌라 수녀가 ‘소비녀’라는 말의 깊은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했을 법하지는 않다. 겸손한 소비녀로 양성하라는 단 한 마디의 말씀이 그리스도교적인 덕행의 일반적인 의미로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좋았다. 소비녀들은 그 겸손의 의미를 진심으로 깊이깊이 받아들였을 뿐이다.

설립자는 1943년 12월 25일 성탄 축일 미사 강론에서 예수 강생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예수께서 하늘에서 세상에 내리셨다. 그러면 오늘 천주께서 신자를 통해 특히 수도자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내리신다. 우리 성가소비녀들이 할 일은 바로 예수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이다.”

매년 이 날에 성가소비녀회의 모든 소비녀들은 서약을 갱신하며 삶을 새롭게 쇄신하고 계획하는 축제를 연다.

겸손은 주님의 종 소비녀의 마음 자세를 가리킨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나자렛 성가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종이 지녀야 할 마음 자세이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임마누엘 잉태를 고지하였을 때의 응답 ‘주님의 종이오니’에서나 성녀 김 골롬바 아녜스 자매의 대답 소저(小姐)라고 했을 때나 모두 그리스도교적 겸손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소비녀의 겸손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小婢女, 소비녀의 한자풀이로부터 나오는 해석은 사뭇 생애 여성신학적 의미를 보여준다. 비(婢)는 일하는 여인의 모습으로서 강생의 의미인 강(降)의 부분이 담겨있다. 전(田), 땅의 의미도 들어있다. 이는 아이를 업고 일하는 여인이 아니라 땅을 일구어 겸손의 씨를 뿌리고 거기서부터 영적 생명을 태동시키는 힘을 지닌 여인으로서 하느님을 섬기고 인간에 봉사하는 주님의 여종이 된다.

성가소비녀는 복음적 기쁨을 간직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가는 사도적 존재이다.

소비녀는 인류의 어머니 하와로 태어난다. 우주적인 시대의 표징을 숙고하고 연민하며 연대하고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사회적 모성의 존재, 더 나아가 고통을 치유하라고 외치는 예언자의 소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인간의 종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다.

사도적 사명을 수행하다

일치와 합심, 가난과 노동, 신비체 가족에 대한 연민과 연대

초대 회칙서 서울 성가소비녀회의 회헌 제1장 제1조에는 수도회의 사회적 정체성과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서울 성가의 소비녀회는 한국 여성들로 조직된 교구 관하의 단체니 그 회원들은 신빈, 정결, 순명의 세 가지 단식 공적 허원을 받는다. 모든 수도회와 같이 본회의 일반 목적은 주의 영광을 현양함과 허원 및 수도회 규칙을 지키므로써 자신의 성화를 도모함이고 특수 목적은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적인 봉사를 함이니 즉, 빈약한 자, 병자, 불구자, 무의무탁한 자들을 수용하여 보육하고 간호하며 치료함으로써 성교회의 좋은 명성을 일반사회에 인식시키며 또한 웃어른의 관점으로 교구 유익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사업 등을 실시함이다.’

정결과 청빈과 순명의 삼대 서원 생활은 공동체적 삶을 필수로 한다. 사도직을 위한 에너지 원천이 되는 공동생활은 제일 큰 보속이라고 할 만큼 어려운 것이지만 항상 서로 화목하기를 힘쓰고 복음삼덕을 지키며 일의 필요성을 깨달아 이것 또한 천주의 큰 은혜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 중에 지내라고 설립자는 당부한다.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면 성가회의 힘도 커질 것이라고 격려했다.

삼대 서원의 공동체 삶은 하느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서야 가능하다.

사랑은 성부께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 오신다. 우리들은 그 사랑을 다른 이들의 마음속으로 보내주어야 한다. 이렇게 강물처럼 흘러가는 사랑은 우리 성가회의 생명이 아닐 수 없다. 그 사랑의 강을 막으면 우리에게 헛되다고 설립자는 덧붙였다. “너희는 내 사랑 속에 머무르라.” 요한 15, 9.

성가소비녀들이 하는 일은 사랑으로 하는 일이어야 한다. 20세기에 아니 지금 21세기에 와서 그 사랑을 받아야 할 버려진 영혼들은 누구인가?

전쟁 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졌다. 굶어 죽어가고 버려지고 있는 세상, 부당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세상, 생명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세상이다. 세상의 어두움을 뚫고 들어갈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소비녀들은 나서야 한다. 무의무탁 노인들, 불치병 환자들, 정신질환자, 지적장애자, 품

팔이 노동자들, 해고노동자들, 이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연대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해야 한다. 예언자적 감수성과 비판의식을 가지고 그들의 마비된 감각을 살려내도록 이 세대를 향하여 외쳐야 하는 것이 바로 성가소비녀의 사명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을 선포하여야 한다.

가난한 이들은 우리 사명의 대상이며 사랑의 대상이다. 애주애인, 공동생활, 봉사 준비의 삶은 그들을 위한 준비과정이며 공동체의 삶터를 이룬다.

수도회 설립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설립자 성 신부는 “이 수도회의 목적은 자선사업이다. 수녀들은 일반 신도들처럼 미사에 참석할 것이며 오로지 자신들의 자선사업에만 전념한다. 수도원은 본당 영역 밖에 있어야 한다. 이는 모든 마찰을 피하기 위함이고 비신자들 사이에서 빛이 되기 위함이다. 수녀들은 한 수도원에 적어도 7명이 있어야 하고 자급자족할 것이며, 자신들의 힘으로 구제민을 도와야 한다.”라고 하였다.



설립자 성 신부

서울 성가소비녀회의 본보기

설립자 성 신부는 프랑스의 성모승천 수녀원(Assumption)을 모델로 하여 서울 성가소비녀회를 시작했다. 소비녀 두 명씩 가난한 집에 가서 가난한 가족을 도우라고 하였다. 각 분원에서 날마다 적어도 두 명씩 가야 한다. 설립자는 소비녀들에게 본당에서 틀어 짜인 안정된 일에 매여 안주하지 말고 직접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로 가서 그들과 함께 있으라고 한다. 한국 사회에서 성직자 수도자는 존경을 받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소비녀는 가장 끝자리를 지켜야 한다. 벼랑 끝 최전선은 위험을 수반하는 경계지역이지 안전을 보장하는 울타리가 아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 가는 것은 제 1선이라고 가르쳤다.

더 나아가 설립자는 1961년 분원 신설 계약조건을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분원) 시작할 때에 주교님한테나 본당 신부한테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시오. 저희가 가는 목적은 앞으로 우리 마음대로 자선사업 시작하기 위하여 갑니다. 그러나 금방 시작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한 5년간 신부한테 있고 월급 받고, 일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돈을 벌다가 형편 봐서 땅 사서 따로 자선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 물론 그 자선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우리 소비녀들은 온전히 본당을 내버리지 않겠

습니다. 그때에도 힘닿는 대로 신부님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5년 후에는 목적이 바뀌겠습니다.”

‘베에르 썬제의 설립 카리스마에 따른 강생의 신학적 관점’에서 강신숙은 채플화에 관하여 비판적인 설명을 더해주고 있다. 설립자는 왜 설립 장소를 대신학교 옆으로 택했는가?라는 질문 속에 그 평가의 핵심이 들어있다.

채플화는 수녀들의 성직화 혹은 떠받들림이나 권력화 같은 것이다. 성직화가 안정된 교회 제도권 내에 형성된 권력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 된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사제성소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수도자의 성소는 보다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이다. 성직은 교계제도를 구성하는 상위권의 층을 형성하고 수도자는 카리스마의 예언적 측면을 살아야 하는 신분이다. 이 두 측면은 갈등과 대립을 통하여 균형을 유지하고 하느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교회 역할의 두 개의 축을 이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970년대 이후 한국수도자들의 특권의식, 곧 성직화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이 문제는 견잡을 수 없이 심화되었고 이천년 대희년을 전후한 교구 시노드와 각종 설문 통계는 수도자의 성직화 문제를 이전 어느 시대보다 거세게 비판하였다.’

이외에도 우리가 탈 성직화 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채플화는 반드시 교계제도와 연결된 본당이라는 장소를 가리키지 않더라도 소비녀들이 현존하는 장소가 권력화된 시스템이나 안정 위주로 고착된 곳이면 바로 그곳을 채플화로 볼 수 있다.

설립자가 우려한 채플화의 또 다른 일면은 성가소비녀회의 고유성을 일반화 시킬 것에 대한 우려이다. 설립자는 창립 25주년에서 밝히고 있듯이 1943년도의 채플화를 1968년에 와서 누구나가 일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병원, 학교, 양로원 등의 시설화라는 말로 대체하고 있다.’

설립자 성 신부는 수도자 양성을 제1차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우리의 고유 설립 카리스마를 지켜내는 깨어있는 종이 되도록 채플화를 방지하고 보편적인 시각을 길러주는 기도와 신학, 영성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 이른바 백동의 대신학교와 갈멜 수녀회가 있는 가운데에 그 자리를 택하였다. 소비녀는 명민한 감각을 단련하고 지켜내어 시대의 긴박성이 무엇인가를 읽어냄으로써 항시적인 우주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그는 가르치고 있다.

4. 설립자 성재덕 베드로 신부의 예언자적 시각

예언자들은 하느님 백성에게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을 실천하라고 촉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시각은 인간의 현실 안에서 정치 사회적인 불의와 부패를 직시하며 그들을 향하여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라고 외친다. 수도회를 창설하는 사람들의 통찰력과 자존감은 성령의 은총으로 통합되어 예리하게 세상 부조리의 측면을 비추어준다.

창설자들은 예언자적 시각을 가지고 독특한 일을 하는 인물들이다. 그들은 정확한 안목으로 복음과 세

계 사이의 간격을 감지한다. 그리고 창의적 사목 전략을 통하여 그 간격을 메우려 움직인다. 그것은 그들이 성령의 영감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그들은 자신의 공동체 회원들을 회개로 부르며 복음 실천을 위하여 회원들과 미지 속으로 들어가려는 통찰력을 나눈다.

현대 신자본주의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의 주류층에서 밀려나고 익명성의 그늘로 사라진다. 그들은 가장 버려진 형제들이 되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하였다. 그 당시의 주류층인 바리사이파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수석 사제들은 가난한 이들을 치유하고 해방을 선포한 예수, 죽어서 무덤에 묻힌 라자로를 부활시키고 성전을 정화시킨 예수를 끝내 십자가에 처형하였다. 예언자는 죽음의 길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성장과정에서 길러진 설립자 성 신부의 통찰력

프랑스인으로 태어난 피에르 썬제 성재덕 베드로 신부는 대혁명의 시각적(時刻的 : Kairos) 역사 개념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이다. 그는 제3공화정 체제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였고 썬 베르맹 중고등학교에서는 귀족 가문의 후예로서 그에 걸맞은 엄격한 학습과정을 거쳤으며 순교 신심의 열망을 타고 파리의방선 교회 신학교를 선택하였다.

형제자매의 서열은 셋째였다. 위로 두 분 형님과 맏 누님은 다섯 여섯 살 차이였다. 아래로는 여동생이 다섯 명 남동생이 한 명, 3년, 4년, 7년, 11년, 13년, 15년 차이를 보이는 동생들을 돌보며 피에르는 여동생들과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 열한 살 차이인 여동생 엘리사벳 일명 리제뜨는 피에르의 초상화라 할 만큼 닮은 용모를 지녔다. 어머니는 가사 운영만 아니라 부인회 회장으로서 교회 봉사에도 열중하였다. 피에르는 바쁜 어머니를 도와 시장에도 따라다니며 잔심부름을 하고 집안일을 익숙하게 처리할 줄 알게 되었다. 그만큼 어머니와 여동생들에 대한 애정이 돈독하였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종교교육을 철저히 시켰다. 가족 전체가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매일 묵주기도로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을 몸소 가르쳤고 특히 주일학교 교리 반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게 하였다. 성 신부는 한국에서 어느 연중 제31주일 강론을 이렇게 시작한다.

“나도 어렸을 때 교리 반에 다녔습니다. 그때 나는 율법학자처럼 정신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본당 신부님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치셨거든요. 삼위일체, 천당, 지옥, 연옥, 임보(림보), 강생, 구속, 부활, 승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천사들, 원죄, 대죄, 소죄, 칠성사, 향주덕, 윤리덕, 성화은총, 상존은총, 교회, 하느님 나라, 미사성제, 기도 등 마치 수풀처럼 너무나 많은 의문이 나에게 있었고 이해할 수 없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성 신부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예나 지금이나 본질과 비 본질을 혼동하는 사례는 다반사로 일어난다. 성 신부는 어려서부터 정신이 나갈 지경으로 많은 것을 배웠으나 하느님의 사랑만이 본질적인 것임을 놓치지 않고 분별하여 배워 익혔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두 계명에 달려 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유다

인 사제들은 248개의 법령과 365개의 금령을 지키면서 사람들도 그렇게 지키기를 요구하였다. 하느님과 이웃사랑의 두 계명 외의 것들은 그 본질적인 것을 더 잘 실천하게 하려는 부차적인 것일 뿐이다. 그 당시 바리사이들은 하느님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들을 구별 못 한채 기본적인 것보다는 부차적인 것들에 더 정신을 쓰다가 정말로 거룩한 것과는 점점 멀어져 갔던 사람들이다.

성 신부의 통찰력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본당신부나 전교 사제가 되면 되지 않겠어요?”

라는 단답 속에서 투명한 빛을 방사한다. “어머니 저는 꼭 본당신부나 전교 사제가 되어서 하느님과 이웃을 많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어요!”라는 말이 아니겠는가? 아메리칸드림을 실현하려고 집을 떠났다가 하루 만에 돌아온 해프닝 이후, 식구들은 그냥 애교로 보아 넘겼을지 모르지만 피에르 자신의 속마음은 부끄러움과 당위성에 대한 숙고로 이어졌다. 피에르는 사유하며 실천하는 인간의 책임성에 대해 깨우치며 성장하였다. 주변 환경과 자기 자신의 입장이라는 토양 안에서 감지하는 상황들을 통해 그의 감성과 의지력은 긍정적으로 분화되어 나갔다.

그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다 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여자 친구 테레즈가 보는 앞에서 어머니에게 한 그 약속의 말을 지키고 이루기 위해 하느님 현존 의식과 함께 한걸음 한걸음 어른이 되어 걸어갔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결정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자 했다.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강화 말씀은 피에르의 마음 안에서 조화롭게 융화되어 분별력을 키우고 자기 성소의 길을 가게 하였다. 피에르는 그러한 훈련과정을 통하여 물가에 심어진 싱싱한 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났다.

성 신부는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신 까닭은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함이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일찍부터 체득하였다. 기도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며 그의 미사는 사람들이 정의롭고 평화롭게 일하고 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을 섬기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백동 본당 주임 성재덕 베드로 신부는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 사랑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는 시각(視覺)과 혜안을 지니게 되었다. 그에게 예수님은 영적 투쟁에 능하신 용감한 전사요 영웅이었다. 법과 규칙에 매어 강생하신 하느님 뜻을 그르치는 일은 없었다. 엄격한 파리외방선교회 파견 사제 성재덕 베드로의 매력 또한 거기에 있었다.

“예수님의 싸움은 의미가 없는 소규모의 교전이 아니라 아주 큰 전투입니다. 세상 어디서나 남자가 여자고 악의 공격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대항해 주시니 이는 우주적 전투인 것입니다.”

우주적 전투!

“청빈과 노동 그리고 투쟁, 죽음. 바로 이것이 하느님께서 그분의 병사들에게 약속하신 찬란한 미래”이며 바로 이것이 성재덕 베드로의 충만한 사도적 역할일진대 그의 통찰력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투쟁하며 정의로움과 평화로움을 향하여 회개하고 일하게 하는 예언자적 통찰력이다.

성재덕 베드로 신부의 자존감

성 신부의 카리스마적 통찰력은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파악하고 복음적인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의 참된 자존감으로 육화하였다. 부모님의 교육과 프랑스인의 역사적 전통 그리고 파리외방선교회의 순교자 영성으로부터 육성된 그는 아버지 네스토르 썩제의 유언을 평생의 가르침으로 수용 실천하였다.

“서로서로 도와라. 일치만이 힘과 행복의 비결이다. 서로 서로 사랑하라. 가족의 기쁨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머무르라. 선행을 쌓아라.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일이다. 교회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교회를 위해 시간을 바치고 힘을 바치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얻은 진리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 또 전해주어야 한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훌륭한 군인과 같다.”

그러한 아버지는 활동적인 분이였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협심증으로 숨이 막혀오고 가슴 부위가 아픈 증세를 보였어도 집안에서나 어디서나 그냥 당신이 해야 할 일을 계속하는 분이였다. 토요일에는 하루 종일 피야벌에서 앞마당을 거닐며 다음날 주일미사에 갈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곤 했던 아버지. 그런데 3월 5일 주일에 돌아가셨다. 그날 선친은 룩셈부르크 라디오 방송을 따라 병자를 위한 미사를 하시고는 면도를 하고 아주 정갈하게 단장을 하고 아래층 부엌에 혼자 있던 어머니에게 내려갔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포도주 말라가를 한 잔 드렸고 아버지는 그것을 마셨다. 그리고 잠시 어머니의 식사 준비를 도와 함께 하기까지 하였는데 이층에 올라가서 당고를 먹은 후에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고 그냥 쓰러졌다. 아버지는 일생을 통해 그토록 사랑해 온 어머니 품에 안겨 하늘나라로 여행을 떠났다. 성 신부는 선친의 임종 이야기에 감동하였다.

성 신부는 “저에게 남은 기억이라고는 다만 그분의 착한 행동뿐입니다.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아버지에게 대해서 느끼는 긍지는 아주 순수하고 맑은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들을 양육하고 교육해 주시기 위해서 애쓰신 분이십니다. 저의 언행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끔 아프게 해드린 것이 참으로 후회스럽습니다.” “부전자전이란 말같이 내 삶을 통하여 아버지를 본받으려 합니다.” 라고 편지에 썼다.

착하신 아버지. 나름대로 성스럽고 무척 용감한 분.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는 못 견디시던 좋으신 아버지였다. 그러한 아버지를 본받으려 하는 성 신부 또한 거룩하고 용감하고 활동적인 사람이라 해서 틀리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는 늘 “남자의 자존심보다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된 사람의 자존심”이라고 말했다. 참된 사람의 자존심! 그것 때문에 혁명으로 쟁취한 자유를 참된 자유로 향유할 수 있음이다. 진정한 프랑스인의 자존심으로 귀중한 자유를 수호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인이여, 고결한 전사여, 주먹을 날리고 또 참아라!

거룩한 조국애여, 복수를 위한 우리의 팔을 이끌고 들어 올려라!

자유여, 귀중한 자유여, 너의 수호자와 함께 싸워라!”

성 신부의 자존감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며 해방자이신 예수님의 정의와 평화로 일구어진 좋은 땅. 그 믿음의 마음 받으로부터 솟아 나왔다.

“청빈과 노동, 그리고 투쟁, 죽음. 바로 이것이 충만케 하는 사도의 역할이라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저들 “가련한 사람들! 저들이 무엇을 알겠는가...” 성 신부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여 주고 있다.

5.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

설립자는 초대 회헌에서 빈약한 자, 병자, 불구자, 무의무탁한 자들을 가난한 사람들로 거론하였다. 인간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도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고 사도 바오로가 언급한 이래 가난의 범주 또한 예수께서 선포하신 진복 선언과 함께 우주적으로 확대되어왔다.

가난과 고통의 지구적 차원

오늘날 현대 세계의 가난은 단지 물질의 결핍만이 아니라 산업화, 세계화, 기후 온난화, 정보산업, 매스컴 등의 모든 영역들 안에서 익명화하는 악의 문제를 담고 있다. 소외되고 억눌리고 짓밟혀도 아무도 모를 피조물. 그들은 이름 없는 얼굴이 되어 번두리로 밀려나가고 철저히 어둠 속에 묻혀버리는 존재로 전환한다.

성 신부는 1940년대 세계적인 전쟁의 소용돌이 한국의 서울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 가난한 이들에 대한 고통을 꿰뚫어 보았다.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은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더욱 심각하다. 그는 그들을 구하는 손길을 얻고자 성가소비녀회를 설립하였다. 창조주 하느님께서 당신 자녀들 곧 모든 피조물의 이름들을 찬란한 빛 가운데로 하나하나 불러내어주시기를, 그들의 해방적인 미래를 갈망하였다.

설립자는 “이 수도회의 목적은 자선사업이다.”라고 못 박았다.

“신문과 뉴스를 듣고, 읽어보십시오. 오늘도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가족적 분위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이들은 더욱 고통을 받고 그 수도 많아집니다.”

고통은 깨어지는 아픔이다. 포도주를 만들 때 우선 포도 알을 으스러뜨려야 하듯이 아름다운 영혼으로 부활하기 위해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인간이기에 고통을 통하여 축복을 받는다. 그것은 평화와 조명과 일치와 축복이다. 이 십자가의 역설적 가치를 수용하는 사람은 진리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받는 사람은 사랑을 배우게 된다.

지성과 자유를 가진 인간은 고통의 가치를 안다. 고통의 가치는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과 함께 함에서 나온다. 고통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이탈하게 하고 하느님을 갈망하게 한다. 예수님은 아무 죄

도 없이 고통을 당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통받으신 그분을 닮게 하는 것이니 고통은 구원의 담보이다. 그분과 함께 고통을 받고 그분과 함께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수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예수그리스도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에 동참하는 이들만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부활한 생명, 그것은 부패를 가로막으며 세상 구원에 이바지하고 천국의 기쁨을 준비하고 맛보게 하는 가치이다.

최후의 심판 기준은 고통당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였는가? 익명의 예수를 어떻게 대하였는가?이다.

설립자는 소비녀들이 그 익명의 고통받는 모든 생명체들과 실제적으로 고통받는 작은 예수들을 찾아 나서기를 바란다. 그들은 왜 그렇게 되었나? 어떻게 하면 그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는 성찰과 함께.

소비녀는 자기 존재와 행위로서 그들의 고통이 하느님 나라를 위한 고통이 되도록 돕는다. 그들 스스로 빛을 향하여 걸어 나오게 하고 맛을 돋우는 소금으로 생기를 찾도록 말이다. 이것이 서울 성가소비녀회의 목적이며 자선사업이다.

연민하고 나누며 연대하는 정의(正義)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절규를 일으켰듯이 예언자들은 절규를 일으킨다. 세상의 파라오들을 향하여 고발의 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들이 선전하는 거짓 세계를 폭로하고 죽음의 문화에 저항하게 하여야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자하신 얼굴을 보여주기 위한 전초기지이다.

성탄절 메시지는 춥고 어두운 세상 속으로 내려오신 위대한 예언자의 출현에 관한 메시지이다. 그를 보는 것은 하느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며 이 사건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목적은 말씀과 빵을 나누며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는 사람'이 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됨에 있다. 우리는 먼저 이들에 대한 연대의식을 가져야 한다. 불구자들, 노인들, 고독한 이들, 친구가 없는 이들, 고통과 근심을 지닌 이들. 이들을 찾아가 예수그리스도의 말씀과 빵을 나누어야 한다.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여 그들이 주님의 영을 받고 기쁜 소식을 받고 모든 구속의 상태에서 해방되도록 한다.

예언자적인 그리스도인의 연민은 고통받는 생명들에 대한 연민이다.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때, 병든 사람들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방문할 때, 부당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방문할 때, 보이지 않는 하느님 자비하심의 얼굴을 보여준다. 그는 그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수행한다.

강생하신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연민은 곧 동일시함이다.

가난한 이들과 같이 가난하시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멸시받고 드러나지 못하고 권력자들 가운데 끼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박해를 받는 이들과 같은 처지로 내려오심이다. 그래서 그 모든 가난함은 흠이 아니며 오히려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고귀한 신분이 되게 한다. 부당하게 고통 받는 모든 이들의 긴 행렬 맨 앞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있다고 하느님은 인간을 위로하신다. 하느님의 예언자, 고난 받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는 익명화된 사람들 덕분에 부를 누리고 평화를 구가하는 가짜 예언자들을 경고한다.

우리의 설립자 성 신부는 남아메리카 교회가 박해를 받는 상황에 대하여 언급할 때, 그 시대에 교회가 하느님에 대해 가르치고 성사를 집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정의와 평화,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 등에 대해 관여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런 것들이 교회의 고유 업무이며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예수님이 병자들, 나병환자들을 고쳐주고 군중을 먹여 주는데 누가 감히 비난하겠느냐고?

오늘날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가난한 사람 편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때문이며 기쁜 소식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기쁜 소식이며 신자 각자, 수도자 각자는 이 기쁜 소식을 운반하는 사람으로 각인되어야 한다. 나와 너 모두는 생명과 행복을 누릴 권한이 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닌 실재이다.

“하느님은 사랑과 정의와 자유에 굶주린 이들의 외침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가난한 이들을 만날 때마다 하느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도 무관심해서는 안 되며 우리 또한 이런 일들을 위해 투신합시다.”

소비녀는 손님을 초대할 때 사심 없이 극빈자, 불구자와 같이 예외로 답례를 할 수 없는 사람들,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초대하자! 끊임없이 사람들을 사랑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며 연대하고 연민하는 사람들이 되자! 이것이 하느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정의이며 소비녀들의 정의이다.

“이사야 예언자처럼, 가파르나움의 예수님처럼, 주저하지 말고 정의와 평화를 외칩시다.”

설립자 성 신부는 서울 성가소비녀회 소비녀들로 하여금 해방신학적인 동기와 시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나누고 연대하도록 행동의 문을 열었다. 지배적인 문화인식으로 무너진 사람들의 감각을 일깨우고자 가난과 고통과 모든 억압들을 사회 공동체 앞으로 가져간다. 그것은 생각을 멈추게 하는 게으름과 거짓이라는 악을 규명해내는 지속적인 시도이며 대안이다.

우리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시간 안에서 시각(時刻)에 대한 투명한 시각(視覺)을 방사함으로써 신비체 가족들의 매장된 한 달란트의 선의와 사랑을 깨어내려는 소통의 연대를 꿈꾼다. 성탄! 그것은 고립과 무관심을 넘는, 하느님 연대의 손길이기 때문이다.

6. 설립자 성재덕 신부 첫 번째 휴가를 가다

1948년 6월 1일~1949년 5월 5일

백동 성당에 와서 사목자의 일을 다하며 서울 성가소비녀회를 설립한 피에르 썩제 성재덕 베드로 신부는 한국에 온지 13년 만에 휴가를 떠나게 되었다. 그것은 새 파견 선교사 피에르 성 신부가 처음으로 떠나는 1년간의 휴식기간이었으며 사실상 서울을 이주 떠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 해 1948년은 한국이 해방을 맞은지 이미 3년을 경과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초등학교와 중고등 교육으로 새로 나고 천주교회에서는 「경향잡지」, 「가톨릭 청년」이 속간되었고 「경향신문」이 창간되었다.

1946년 한국 천주교 순교자 현양회가 창설되었고 서울교구 청소년 연합회와 여청년 연합회를 재편 결성하였다.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가 개성에서 창설되었고 연길 교구의 올리베타노 수녀들이 청주에 진출하였다.

일제의 감시에서 풀려난 후, 그리고 서울 성가소비녀회를 설립한 5년 후,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독자적 활동이 활발해져 가는 시기였다.

1948년 6월 대전 지목구가 설립되고 파리 외방선교회 신부들이 그 지목구를 맡게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성 신부는 고국 프랑스로 첫 번째 휴가를 떠나게 되었다.

73세의 공 안토니오(큰 Gombert) 신부님은 성 신부 부재 기간에 성가소비녀들을 돌보아 주었다. 설립 5주년을 맞는 서울 성가소비녀회는 교구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창설 단계를 이미 지나고 있었다. 그래서 보다 겸손하고 보다 어려움이 뒤따르리라는 생각이 든다고 설립자는 피력한다. 파리외방선교회 별명(Bulletin) 잡지는 38세의 성 신부가 휴가 중이라며 성가소비녀회는 그가 몇 년 전에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Petites Soeurs des pauvres)를 모델로 하여 창설한 수도회라고 소개하였다.

성 신부는 자신이 설립한 서울 성가소비녀회를 처음으로 떠나와 파리 신학교 기숙사 방 안에서 일본으로 떠나는 동생 수녀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울적한 자신의 심중을 전하며 일본 수녀들의 귀감이 되는 수도자가 되라고 동생 수녀의 소명을 격려하고 지지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나는 죄의식 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구나. 사실 나는 아직도 수녀회의 초창기 단계에 너무 집착하고 있으니 그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지.”라고 썼다.



1948년 휴가 때 가족과



1948년 휴가 때 조키들과



1948년 휴가 때 정원에서 성 신부 대가족

그는 용서를 청하며 많은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기를 다짐하였다.

그의 울적함은 인간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떠나는 여동생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득 안고 떠나라고, 또 명랑함을 잃지 말고 청빈한 수녀의 본을 보여야 한다고 권고하면서도 휴가 기간 동안 내내 함께 하지 못하고 떠나보내야만 하는 서운함, 그리고 성가소비녀회 설립자의 존재감을 잃고 싶지 않은 소망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의 마음은 성가소비녀회에 대한 풋풋한 애정으로 가득하였다.

휴가를 마치면서

성 신부는 3월 22일 여객선 상뿔리옹호를 타고 홍해와 사이공을 지나 홍콩에서 한국 배로 갈아타고 제물포 항으로 들어왔다. 사이공에서 써 보낸 듯한 그의 편지에는 매우 심각한 어머니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성 신부 자신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격분한 어조로 항의하는 부분이 있다.

“이곳 사이공에 도착하면서 어머니의 편지와 마들렌느의 편지, 뿔의 편지를 받았는데, 하지만 어머니의 수술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것을 숨기셨습니까?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저는 부모님의 자식이 아닙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멀리 떠나가는 저에게는 그 사실을 알 권리가 더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일을 감추셨다는 것은 잘 하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셔도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은 들었지만 정작 그러한 사실은 집을 떠난 후인, 파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8일 금요일 어머니를 위해서 미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인자하신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어머니를 위해 미사를 드린 것으로 일단 만족해야 했지만 휴가를 마치고 파견지로 돌아가는 성신부의 감회는 새로웠다. 사제 수품을 받고 선교 파견지로 향하던 그 첫 번째의 항해 여행과는 전혀 달랐다. 여행 그 자체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과는 거리가 먼 차원의 회한 같은 것이라고 할까? 가장 먼저 알았어야 할 어머니 건강상의 문제를 뒤늦게 알게 된 자신의 위치가 어쩐지 어색하게만 느껴졌다. 가족들로부터 무언가 소외되는 그런 기분이었다. 그는 이제 그 전과 같은 가족의 일원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것도 같았다.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려면 부모 형제자매를 모두 떠나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그러한 것이었던가’라는 의식과 함께 성직자의 신분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홍콩에서 9일을 머무른 다음 한국 선적의 배를 타게 된 성 신부는 가족들에게 선상에서 마지막 편지를 보냈다.

“모두가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좋아졌으리라 믿어집니다. 모두가 잘 지내고 계시지요. 모두를 대단히 사랑합니다. 본당 주임 신부님께 안부를 전해주시고 새로 수품된 사제에게 내가 축하한다는 말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안녕하시길... 모두가 잘... 모두를 대단히...”

성 신부는 가족들과 헤어지는 아쉬움이 컸다.

이러한 아쉬움을 증명해주듯 발신처와 날짜 미상의 1949년도의 한 엽서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더욱 애절하게 고백하고 있다.

“이제 저는 또다시 고아가 되었군요! 아니, 저는 부모님의 사랑 이외에 인간적인 사랑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영원한 아들입니다. 좋은 휴가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용기를 보여주시고 무조건적인 수고를 해주시니 이 모든 본보기를 보여주는 두 분의 삶에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지금껏 부모님들께 은총을 베풀어 주셨듯이 앞으로도 많은 은총을 베풀어주실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온 마음으로 부모님과 또 부모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포용합니다. - 피에르”

그는 부모님의 또 다른 아들, 영원한 아들로 새롭게 태어난 것 같았다.

착한 목자 성재덕 베드로 신부



논산 성당에서 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성 신부

피에르 썬제 신부는 고향에서 꿈같은 첫 휴가 기간을 보냈다. 해외 선교 파견지 한국에서의 사목 경험담을 부모님과 가족 친지들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 옛날 어린 시절 동생들과 미사 놀이를 하던 기억도 새로웠다. 지금은 조카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 주고 있지 않은가? 세대는 바뀌어가고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은 너무도 빨리 닥쳐왔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하직하며 혼연히 돌아온 성 신부 앞에 논산과 홍산 이라는 본당 사목의 두루마리가 속도감 있게 펼쳐지고 있었다.

제1장 _ 성 신부 논산 본당 주임으로 가다

1949년 5월 7일~1962년 1월

1949년 5월 5일 휴가에서 돌아온 성 신부는 인천 제물포에서 배를 내리고 이틀간 세관 일을 보며 짐을 찾았다. 성 신부는 이제 처음 신학교를 떠나올 그때 스물다섯 살의 애송이 신부도, 서울 백동에서의 짧은 젊은 본당 주임 신부도 아니다. 그는 어느덧 신선한 의식을 소유한 장년의 중견 사제가 되어 있었다.

5월 7일 대전 지목구장 대리 원형근 라리보 주교는 노기남 주교와 함께 자동차 편으로 성 신부를 마중 나왔다. 성 신부는 두 분 주교님의 환영을 받으며 돌아오다니 영광스러운 일이라 생각하였다. 그런데 성 신부에게 대전 주교좌 성당으로 가야 하니 곧 짐을 꾸리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주교좌 성당 주임 신부! 그러니까 젊은 성 신부가 높은신 분 옆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때 그는 에델 성당 주임 신부님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한다. “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편하다.”라는 말씀이다. 별이란 높은 곳에서 빛나는 존재이다. 고위 성직자를 가까이 모셔야 하는 직책은 힘들고 편안할 수가 없다는 뜻이 분명하다. 두 분 주교님의 환영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 것은 한순간이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상황은 반전되었다. 그로부터 한 달 사이, 성 신부는 논산 성당 주임 신부로 재 파견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는 그 자리에 부임하기도 전에 이미 고위 성직자로부터 약간의 번거로운 괴롭힘을 당하고야 말았다. 그러나 성 신부는 이번이야말로 “나에게 할당된 주님의 포도밭”이라며 기뻐하였다.

1. 첫 번째로 부딪친 문제

성 신부는 1949년 제8대 논산 본당 주임으로 부임하여 1961년까지 그곳에서 사목활동을 전개한다. 논산군 전체는 20만 명, 논산은 약 2만 명 인구의 군청 소재지 도시였다. 성당은 들판 한가운데 있고 날마다 몇 차례씩 기차가 지나간다. 공기가 맑고 평온한 고요함이 깃들여 있는 곳이다. 멀리는 산들이 가까이



논산 구 성당

는 논들이 펼쳐져 있다. 성당 부지는 매우 넓어서 얼마간 농지로 빌려주고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이 지역 신자 수는 1,500명 정도, 그중 800명은 논산 시내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14개 공소에 분포되어 있다.

성 신부는 76세 되신 김명제 신부님과 함께 잠시 생활하였다. 가장 중요하고도 고된스러운 일은 가톨릭계 중학교를 운영하는 일이었다. 공베르 신부가 논산에 거주하였을 당시(1923~1942) 그는 성당과 사제관과 수녀들의 주택 그리고 작은 유치원을 지었다. 그리고 해방 후, 어느 한국 신부가 그 유치원을 남자 중학교로 바꾸기로 하고 서울 교구의 노 주교님 동의를 얻어내었다고 한다. 지금 그 운영 문제를 성 신부가 고스란히 떠맡게 된 셈이다.



논산 대건 중고등학교 교사를 배경으로



논산 성당 제대

남자 중학교 상황

1947년에 설립된 이 남자 중학교는 매년 100명의 학생을 뽑기로 되어있고, 입학금은 1천 원이며 학비는 매월 500원이다. 현재 학생 수는 400명에 불과하지만 곧 700명에 이를 것이다. 교실은 부족한 형편이고 교장은 외교인이며 15명의 교사 중에 12명이 외교인이다. 유리창은 모두 깨져 있고 유치원 건물을 제외한 교실들은 짙은 섞은 흙으로 된 것인데 곧 무너져버릴 것 같은 상태이다. 학교 재정은 25만 원의 빚이 있는 데다가 다음 학기를 맞이하려면 당장 두 개의 교실을 신축해야 하고 인건비 3백만 원이 있어야 할 상황이다. 교사들 가운데 결핵에 걸린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학교를 떠나겠다고 보상을 요청하고 있다.

더구나 이 나라에서는 학교를 설립하려면 인가를 얻어야 함은 물론, 은행에 5백만 원을 예치해야 하는

법인데 아직까지 예치금은 한 푼도 없다. 그럴 경우 국가가 학교와 부지를 몰수하고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신자들은 지원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학교를 세운 한국인 신부를 원망하기만 한다. 현재 가장 큰 고민거리는 바로 이것, 몰수당할 염려이다. 성 신부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진짜 함정에 빠져 버렸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성 신부는 또 그 선생들 대신 한 주간에 7시간의 수업을 해야 한다면서 갑자기 자신이 한 마리의 속죄양이 될 각오를 하는 듯한 뉘앙스를 엿보인다.

“내 청춘시절에 범한 죄 때문에 톡톡히 벌을 받게 될 모양입니다...”라고 편지에 썼다. 청춘시절이라 해서 무슨 사춘기 기출이나 연애사건과 같은 일이 아니다. 그것은 성신부의 유머감각으로 보아 썩 베르탱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장난을 치거나 떠들어서 벌을 서고 나머지 학습을 해야 했던 일을 두고 자책감에서 하는 비약적인 단언일 뿐이다. 이와 같이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성 신부는 주교님의 당부 말씀을 잊을 수 없었다. “우리 신설 교구에서는 중학교란 하나 뿐이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를 지키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너무 짠 수프와 타버린 고기를 먹으면서도 성 신부는 차츰 안정을 되찾아갔다.

좁지만 아담한 성당이 있고 착실한 신자들도 있고 해서 그해 8월에는 그러저럭 마음의 평정을 좀 찾은 듯싶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중학교 문제가 해결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주교님은 이 일을 전혀 도와줄 수 없다 하는 데다가 15일 전에는 경찰이 학교를 수색하러 와서 30명의 학생과 교사 한 명을 연행해 갔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이란다. 신자 교사들은 아무도 없고 10일 전에는 입학시험을 치렀다. 응시자가 400명이나 되어서 300명을 낙방시켜야 했는데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나마 뽑힌 신입생 100명이 들어갈 교실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 교실 신축비를 150만 원이라 한다면 신입생 각자가 3만 원씩 내니까 되기는 할 텐데 빚은 80만 원이나 되고, 그나마 잘 내지는 않고... 아이고 이 골칫거리!이다. 그는 9월에도 중학교 문제와 계속 싸웠다. 학생은 5백 명이 되었고 새 학기는 시작되었다. 며칠 안으로 교실 건축에 착수하겠다는 청부업자는 아직도 오지 않고 있다. 성 신부는 그래도 그가 꼭 오리라 믿었다.

1949년 11월 24일 공소 방문을 마치고 본당으로 돌아온 성 신부는 즉시 학교일에 정신을 쏟아야 했다. 교사들이 봉급을 올려주지 않으면 파업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그는 대전으로 달려가서 라리보 주교님과 상의하였다. 결국 교사들의 월급을 4천 원씩 올려주기로 하였다. 1년에 추가 지출이 96만 원이 되었다.

1950년 3월 28일에도 그는 학교를 위해서 두 개의 교실을 신축해야 하는데 건축비 6백만 원의 문제를 고심하고 있었다. 동년 4월에 와서야 교실 신축 보조금을 주교님으로부터 받았다. 6월 개학 전에 공사를 마쳐야 한다. 내년부터는 신입생들이 3월에 입학하게 될 것이다.

100명의 신입생 중에 신자는 겨우 2명뿐이다. 신자 학생들에게 고해성사를 주었는데 학생 전체 600명 중에서 성사를 받으려 나온 학생은 27명에 불과했다.

교사들은 돈을 내줄 때에만 미소를 보내 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싫은 표정을 짓거나 사표를 내겠다면서 위협했다. 성 신부 자신은 돈을 대는 사람일 뿐, 교회가 운영하는 이 학교는 사실상 교회와 무관한 학교일 뿐이니 허망하기 짝이 없었다.

교실을 신축하는 문제는 계속되고 있었다. 2개의 교실 신축비가 약 2천 불, 등록금과 교복, 책값 합하여 일 인당 3만 3천 원, 건축비로 사용되는 4만 원의 찬조금과 그 외에도 10만 원의 기증금, 교사 월급을 위해 매월 1천5백 원의 월사금이 있다.

3개월 전에 수학교사 한 사람이 나가 버렸다. 후임자 확보를 위해 교장이 문교부를 찾아가야 할 것이다. 그래도 신입생을 받아야 폐교하지 않을 수 있다. 쌀값은 1천5백 원에서 2천5백 원으로 올라가고 학생들이 내는 학비는 너무도 미미하다.

성 신부는 돈 문제만이 아니라 신앙심이 없고 사명감이 결여된 교사들과 열악한 환경 안에서 학교를 간신히 꾸려나갈 뿐이었다. 신앙 강의마저 할 수 없고 무엇 하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궁여지책으로 성 신부는 전학자들의 이동 때마다 선생들로 하여금 학생들이 오고 가는 전학 기부금을 받도록 하였다. 교구청에서는 이 학교를 맹렬히 비난하고 심지어는 학교 설립자를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성 신부는 이 일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며 그들이 왜 나를 이곳으로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마침 성 신부가 교구 참사 위원으로 임명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주교 총 대리가 그 커다란 손으로 탁자를 두드릴 때 성 신부 자신은 더 큰 소리를 질러서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리라 베풀고 있었다.

2. 성 신부 논산 대건 중고등학교를 탄생시키다

성 신부가 논산 본당 주임으로 부임하면서부터 고심하던 그 가톨릭계 중학교는 1951년 8월 30일에 고등학교 설립 인가를 받게 되었다. 1952년 6월에 학교 이름을 대건이라 칭함으로써 논산 대건 중고등학교는 새로이 탄생하였다.

그때까지 대건 학교는 사실 이름만 가톨릭 학교 일 뿐 일반학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었다고 할 정도였다. 건물도 가구도, 선생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만들어졌고 성직자 측의 배려도 아주 요원한 상태였다. 100% 비신자인 지역에서 주위 분위기로나 비신자들의 몰이해로 방해를 받았으며 운영자의 자유도 보장되지 못한 상태였다. 교사들도



논산 대건 중고등학교 교정

모두 평신도 혹은 비신자들로 구성되었다. 학생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가 아니므로 이교도적이고 국수주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창설자는 눈에 띄지 않는 감독자의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 정부는 나라 안에 평화를 되찾은 기쁨에 취해 쉽사리 승낙했던 학교 승인을 법적으로 재검토하자고 하거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시기였다. 전쟁, 재정난, 인력 문제, 정부 모두가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있었다. 성 신부는 하느님께만 매달렸다. 하느님의 도우심은 라리보 주교를 통해서 왔다. 그는 “용기를 잃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당신을 도와줄 거요” 하며 성 신부를 격려했다.

1956년 성 신부는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 미연합 재건사(UNKRA)로부터 시멘트와 목재 등의 미제 자재들을 받았다. 교황청 포교성으로부터는 막대한 지원금을 받아서 견고하고도 아름다운 다층 건물을 지었다. 전통양식의 교사는 남향을 향하고 있고 마치 산허리에 심어진 나무처럼 보였다. 6개의 큰 교실은 6백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것은 설계도 완성판의 1/4에 불과한 것이라고 한다. 벽은 벽돌 두 겹에 반장을 더한 두께의 시멘트를 발랐다. 이 건물은 마치 영구 보존이 가능하다 할 만큼 견고하였다.

10월 15일 라리보 주교는 대건 중고등학교 신축 교사 축복식을 거행하였다.

그 5년 후인 1961년 7월 5일 김대건 안드레아 축일에는 900명 학생과 30명 교사를 수용할 학교 건물을 증축하여 한 주교가 축복식을 거행하였다.

구 건물은 1961년 12월 29일 해성 여자고등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고 교사로 사용되었다.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성 신부는 여학교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샬트르 성 바오로회 수녀들에게 운영을 의뢰하였다. 그들은 쉐벨 여자 중고등학교로 개칭하여 개교하였다.

제 2 장 _ 성 신부 논산 본당을 운영하다

1. 사목자 성 신부 본당 수녀와 함께 일하다

성 신부는 논산에 부임하자마자 전임자가 시작해 놓은 가톨릭계 중학교 문제에 부딪혀서 함정에 빠진 기분으로 투쟁과 갈등 속에서 대건 학교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와 병행하여 본당의 일은 파견 선교사에게 큰 보람과 위안을 주는 대사였다.

당시의 논산 본당의 상황에 따라 그는 우선 본당 수녀들이 해야 할 일과 주임 사제가 할 일을 구분하였다. 그의 사목 방침은 소규모의 시약소와 교리 학교, 유치원, 사목과 선교, 그리고 중고등학교 운영이다. 시약소와 교리 학교, 유치원 운영은 본당 수녀들에게 맡겼다.

시약소를 설치하게 된 실제적인 동기는 이러하다.

논산 본당에는 샬트르 성 바오로회 수녀들이 있었다. 그들은 200명의 어린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어느 전임 한국 신부가 그 유치원을 남자 중학교로 바꾸어버리자 그들은 일터를 빼앗긴 셈이 되었다. 더 이상 그곳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그들은 그곳을 떠나겠다고 했다. 성 신부는 관구장 수녀에게 요청하여 한 명의 간호사 수녀가 왔다. 그 수녀에게 10만 원을 주면서 작은 시약소를 시작하라고 하였다.

적합한 집도, 의사도, 인건비도 없었지만 그 수녀는 말 그대로 9월 1일부터 작은 시약소 일을 시작하였다. 성 신부는 가족들에게서 도움을 받았다. 무엇보다 구충제가 필요하였다. 또 그 약은 단 한 병에 10만 원 이상이 되었다. 그는 프랑스제 산토닌 가루약 한 병을 청하여 받았다.

간호사 수녀는 집집이 환자들을 방문하였고 1만 5천 원어치의 약을 팔았다.

외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미소하나마 의료혜택을 주고 외인들에게 전교가 되었다.

1950년 이 시약소 덕분에 몇몇 사람들에게 임종 대세를 줄 수 있었다. 성 신부는 세상을 깜빡 놀라게



시약소



유치원

할 만한 성과는 아닐지라도 이 사업에 투자한 보람을 느꼈다.

시약소를 설치한지 일 년 만에 수녀들은 본격적인 진료소를 지어달라고 요청하였다.

교리 학교를 시작한 동기도 실업자가 된 수녀들의 철수 위협 때문이었다. 성당 옆에 두 개의 교실이 있는 작은 학교를 짓기로 하였다. 경제문제로 우선은 교실 한 칸만 20만 원을 들여서 지었다. 그 나머지는 돈이 생긴 다음에 지을 생각이다. 교리문답과 함께 수녀들은 한글을 가르칠 것이다. 교회 구내에 교리 강의를 하는 건물이 있는 것은 국법상으로 허용되는 일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들과 가난하여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두 개의 반으로 운영하였다. 그들은 이 교리 학교에서 읽기와 쓰기도 배우고 교리도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좋은 목적으로 성 신부는 수녀들에게 그들의 사도직 장을 마련해 주었다. 1950년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리 학교 교실 한 칸을 더 지어 완성하였고 1953년 대건 유치원을 건립하여 운영하였다

2. 신자 사목과 선교

1949년 논산

신자 사목은 먼저 기성 신자들의 신앙심의 척도를 진단하고 그에 맞추어 신심을 고취하는 일이었다. 성 신부는 신자들이 미사 때 신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참석할 뿐이라는 것을 파악했다. 영성체를 하는 사람이 얼마 없었고 고해성사를 받는 사람의 수도 별로 많지 않았다. 생각 끝에 그는 본당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어린이 미사 책자(합송 미사 - 부제 : 그레고리오 성가)를 번역하여 인쇄하였다. 그리고 청년 미사라는 제목으로 된 책 50권을 사서 사용하기로 하였다.

미사 때 신자들은 특히 연세 많은 어떤 회장은 항상 똑같은 답답한 목소리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이 항상 똑같은 기도문을 외울 뿐이다. 그래서 때때로라도 미사 때에 남녀 청년들로 하여금 기도를 계응식으로 하도록 하였다. 한 쪽에서 '나는 천주의 제대로 나아가리다.' 하면 다른 한 쪽에서는 '나의 즐거움이요 기쁨이신...' 하고 응답하였다.

1950년 3월이 되어서야 미사 참석자들도 많아지고 집전이 잘 이루어졌다. 성당 비치용 미사통상문을 구입하여 성당에 두었다. 한 사람이 낭송하는 부분과 남녀 교우들이 계응으로 주고받는 부분을 구분하여 미사를 진행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 당시, 성 신부는 라틴어 미사를 할 때 신자들이 가능한 한 잘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다.

가톨릭 사제로서 성 신부는 성당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는 개신교 교회와 다소 싸워야 했다. 마음 아픈 일이었지만 그것도 성 신부가 당면한 하나의 현실이었다. 자신의 양들을 혼란시키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는 나쁜 목자들을 대항하여 그는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양심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성당 마당에서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성 신부



성 신부와 아이들

1949년 공소 방문

11월 2일부터 11개의 마을을 순회하였다. 은진공소로 시작하여 상마루공소, 하마루공소, 돌분리공소, 연산 읍내 웅기공장공소, 양산공소, 갈매울 마을, 쇠목공소, 말목 마을, 태틀 마을, 태밀공소 등이 성 신부가 돌보아야 할 논산 본당 관할이었다.

공소 순회 시 하는 일은 미사, 고해성사, 교리참고, 영적 지도, 면담 등이다.

은진공소는 작은 성당과 사제를 위한 방을 따로 짓기로 결정하였다. 신자 수가 점점 많아져서 그동안 공소집 주인이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신자들의 수에 따라서 하루만 머무는 마을도 있고 2~3일 동안 머물러야 하는 마을도 있었다. 온돌 바닥에 누워서 자고 신자들이 갖다 주는 밥을 먹으니 피곤하여 영 멈추지 않는 설사병이 재발하여 고통스러웠어도 그는 즐거웠다. 좋으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가 누리는 최상의 행복이었다.

상마루공소에서는 25명에게 고해성사를 주고 교리 참고를 했다. 웅기장이 동네여서 발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다. 그들은 너무 유동적이어서 술을 많이 마시고 말다툼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리를 아주 잘 알고 있다.

하마루공소 역시 웅기장이 동네이다. 공소를 방문하면 묘하게도 제대 밑에 설치된 아주 좁은 골방과 비슷한 곳에서 잠을 자야 했다. 품행이 좋지 않은 몇몇 집들이 있어서 성 신부의 걱정거리였다.

돌분리공소는 대부분 구 교우 농가 촌이어서 교회 발전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었다. 고해성사는 30명 정도. 재산이 약간 모이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도 있다.

연산 읍내에도 웅기 공장이 있는 동네에 공소가 있다. 여기 신자들은 교리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서 성 신부는 화가 났다.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는 금식을 선포하고 쉬었더니 저녁에 공소 회장이 용서를 청하면서 다음 번 공소 방문까지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로 약속했다. 사실은 며칠 동안 계속 쌀밥만 먹다 보니 그것에 싫증이 나기도 해서 한 끼의 단식이 성 신부에게는 일종의 휴식이 되었지만 솔직히 신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낸 것에 성 신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갈매울공소 방문 (자전거 타고 오는 성 신부 · 마중 나온 공소 신자들)

산속 깊이 파묻혀있는 양산공소에서는 고해성사 자가 15명뿐이었지만 아주 마음에 드는 작은 마을이었다. 서둘러서 교리 찰고를 끝내고 식사 후에 가장 높은 산마루에 올라가 보았다. 저 멀리 눈산이 보였다.

갈매울에서는 4일이나 머물러야 했다. 고해성사 120명, 웅기장자들이 많이 사는 큰 동네이다. 성 신부가 그 동네 가까이 다다랐을 때 2~3킬로미터 앞까지 마중 나온 아이들이 있었다. 신부님의 자전거를 붙잡는 한 무리의 아이들에게 둘러싸여서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공소에 도착하였다. 선교사의 인생에 있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아이들은 교리 공부도 잘하였다. 성 신부는 그들에게 봄이 되면 장엄한 영성체식에 참가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저녁 식후에는 강당 제대 앞의 바다에 둘러앉아 어른과 아이 모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미있는 한두 시간을 보냈다. 그는 그날 저녁 고향집에서 하던 기도보다 더 긴 저녁기도를 바치고 잤다.

쇠목공소 신자들은 단순 소박한 농민들이어서 그런지 외교인들의 입교와 구원에는 무관심하였다. 25명에게 고해성사를 주고 점심 식후 옛날 '되재 성당'을 찾아가 보았다. 5~6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인데 꽤 가파른 고개를 올라가야 했다.

지금은 폐허가 되다시피 하였지만 되재 성당은 박해시대에 신자들이 숨어살다가 고개 넘어 다른 행정

구역으로 단 시간 내에 다시 피난 갈 수 있는 장소에 있었다.

저녁에는 두 분의 할머니를 방문하여 고해성사를 주고 이튿날에는 성체성사와 중부성사를 주었다.

말목과 태틀 마을은 농사를 짓는 구 교우촌이다. 이들 역시 외교인들에 대한 전교에는 무관심했다. 신자들이 모이는 집의 주인이 아파서 식사도 변변치 못한 형편이었다. 날씨가 추웠지만 자전거로 두 시간을 달려 본당에 돌아왔다.

태틀 마을에는 몇 명의 예비신자들이 있었고 50명의 고해자가 있었다. 거기서 지낸 이튿날 첫 새벽에 은진으로 장례미사를 지내러 갔다. 면장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 집에서 미사를 지내고 태틀로 돌아갔다.

태밀공소에는 25명의 가난한 신자들이 마을 안에 분산되어 살고 있었다. 비신자들 가운데 살면서 일년에 단 두 번 밖에 사제를 만나보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들.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이 가련한 신자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성 신부는 고향 식구들에게 청했다.

공소 순회 방문을 마친 성 신부는 곧바로 12월 8일에 있을 견진식을 준비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200명 이상의 견진자를 예상하고 있다. 현재 110명의 교리 찰고를 받았다. 아직은 5일간의 여유가 있지만 견진 희망자들은 그날이 임박해서야 서두르기 시작한다는 것을 성 신부는 알고 있었다. 성 신부는 견진이 끝나면 성탄 축일 준비를 해야 하니 살맛이 났다.

성 신부는 교회 운영을 신자들에게 맡겼다. 교회는 본당 신부의 교회가 아니라 신자들의 교회이므로 교회 운영은 신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통용시켰다. 회장단에서는 재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였다. 본당 신부는 성사 집전과 강론 준비만으로도 충분히 바쁘다. 신부는 감독하고 격려하며 지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삶과 말씀의 양치기 성재덕 베드로 신부

전쟁 시기의 생활과 사목

1950년은 성 신부에게 수난의 해였다. 그해 3월 5일에 부친 네스토르 쟁제가 세상을 떠났다. 그 해 6월 24일까지는 그나마 정상대로 돌아가는 생활이었다. 그리고는 곧이어 발발한 6·25전쟁으로 피난생활의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부활 후 첫 주일 4월 14일 논산 성당에서는 첫 본당 출신 사제(박노열)의 첫 미사 봉헌이 있었다. 그 사제는 공베르 신부님이 신학교에 보낸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는 성 신부가 학교에서 도덕 강의를 맡아하게 되었다.

부활 때 예비자가 40명이었지만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새 영세자는 10명 뿐이었다. 성 신부는 교리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수 없었다.



피난 길에서

신자들의 생활이나 본당의 생활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다. 본당 신부의 생활비는 미사예물에서 충당하였다. 그런데다가 도둑이 많아서 경찰이 하듯이 순찰도 해야 하고 집단 속도 해야 했다. 4월 어느 날 밤중에 학교 안으로 도둑이 들어와서 창문 유리를 70개나 훔쳐 갔다.

6월 25일부터 불안한 전쟁 소식이 들려왔다. 서울 가는 길에 들린 몰리마르 신부가 기차 길이 끊겼다는 소식을 듣고 한밤중에 다시

돌아왔다. 이튿날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의정부가 점령되었고 29일에 서울을 점령했다는 소식과 함께 트루먼 대통령이 미군의 도착을 알리는 뉴스를 들었다. 그리고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선발대가 도착하여 북한군이 강릉에서 대패하였다고 하였다.

서울이 다시 수복되었다는 라디오 방송과는 달리 피난민들의 행렬이 줄을 잇고 여기저기서 피난 오는 가족들이 성당으로 찾아왔다. 서울에서 신부와 신학생들이 와서 묵어갔다. 성 신부는 강경에 가서 말라리아를 앓고 있는 베르몽 신부를 돌보고 오니 미군들이 탱크를 몰고 와서 성당 뒤편 학교에 진을 치고 있었다.

7월 13일 시잘레 신부가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전하는 소식을 듣고 최후의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대전에서 가까운 공주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한다. 그 이튿날 7월 14일에는 심상치 않은 소식에 성 신부는 제1 순위의 물건들을 땅에 묻고 불필요한 종이들을 태웠다. 편찮으신 베르몽 신부에게 가서 중부성사를 주고 그곳 성당의 성체를 모두 영했다. 신자들도 피난을 가라 하고 시잘레 신부도 베르몽 신부도 피난을 가라고 하여 결국 저녁 7시경에 두 명의 신학생을 데리고 자전거를 타고 떠났다. 피난을 가지 않겠다는 김명제 베드로 신부에게 성당과 모든 소지품을 맡겨두고 떠났다. 피난 가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비겁한 짓은 아닌지? 의문과 함께 아무튼 커다란 모험이 시작되었다. 길모퉁이에서 성당 종탑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다가 논산에서 약 30리 거리에 있는 태틀공소로 갔다. 미사를 봉헌하지 못 했다.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청하였다. 아침 식사 후, 그곳을 떠나 여산~익산~삼례를 거쳐 전주로 갔다. 전주 성당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거기서 세 시간을 쉬고 원평리 어느 신자 집에서 묵었다. 미사 성무일도를 바치지 못한 채 여행은 계속되었다.

7월 19일에 정읍을 떠나 장성을 거쳐 광주로 갔다. 북동 성당 신부님은 부산으로 가라 하셨다. 거기까지 함께 온 두 신학생들과 헤어져야 했다. 성 신부는 자전거를 조 안토니오 신학생에게 주고 신학생 각자에게 2천 원씩 주었다. 그리고 성당 신부님 차로 달려가다 보니 어느 본당에 도착하였는데 아무도 없었다.

거기서 박창래 씨를 비롯하여 논산의 몇몇 신자들을 만났다. 다른 피난민들도 많았다. 7월 21일 진주 성당 사제관에서 점심을 먹고 아일랜드 출신의 신부님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떠나서 그날 저녁 7시 30분에 부산에 도착하였다.

보드뱅, 샤보, 조제, 프와요, 시잘레 신부들이 와 있었다. 비는 오고 모기들은 극성을 부리는데 모기장도 없다. 상자들, 보따리들, 가방들이 쌓여 있는 좁은 방에서 공동체 생활은 그리 유쾌하지 않았다.

7명의 아일랜드 신부들도 있었다. 그들이 언어나 주는 미제 통조림을 먹으며 식사는 그저 만족하였다. 밤에는 서늘해지는데 이불도 옷도 없다. 가끔 군인병원에 가보았다. 끔찍한 상처를 입고 수천 명의 불쌍한 군인들이 맨땅에 누워있었다.

북한 포로들이 있는 수용소를 가보았다.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한 17~8세의 젊은이들이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다수의 힘으로 남쪽을 점령하는 것뿐이다. 무기도 없이 어린 군인들을 내려보내 사상자가 많이 나와도 그것에 대해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 그들이었다. 더구나 이 사상자들이 진짜 공산주의자가 아닐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할 것이다.

부산 근처의 북한군들은 병력도 없고 사기도 떨어졌다고 한다. 이 전쟁은 곧 끝날 것으로 보였다. 중공군의 기세가 좀 꺾이고 위험이 가시자 성 신부는 10월 5일 부뜨 신부차로 논산 본당으로 돌아왔다. 피난지 부산에서 돌아와 성탄 전에 2백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고해성사를 주었다.

몰리마르 신부는 대전에서 공산당에게 총살을 당하였고 페랭 신부는 실종되었으며 공베르 신부와 82세의 빌모 신부는 납치되어 북한에서 선종하였다.

1951년 6·25전쟁 상황은 곧 반전되었다. 1·4 후퇴였다. 1월 5일 단체로 트럭을 타고 다시 부산으로 피난을 떠나서 이튿날 저녁에 도착하였다. 다행히 요와 이불 등의 침구를 가지고 갈 수 있었다.

지난번에 당한 피해는 너무도 엄청난 것이었다. 자기 임지에 그대로 남은 이들은 모두 피살되거나 포로로 잡혀갔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미리 피난을 갔다. 평양교구, 서울교구, 전주교구 신부들이 몽땅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

이번 공동체 생활은 작년의 그것과는 다르다. 일본식 구조를 가진 집에서 매일 미제 통조림을 먹고살았다. 할 일이 없고 무료해서 사목활동을 찾아 나서야 할 상황이었다. 남쪽이라서 밤에는 서울보다 덜 춥기는 하지만 포로나, 군인이나, 피난민이나 모두 추위에 고생이 많았다. 작년 여름보다 훨씬 많은 피난민이 와있었다. 성 신부는 베르몽 신부님과 함께 근처에 여러 번 산책을 나갔는데 너무 추워서 귀에 동상이 날 뻔했다. 바다와 산의 경치는 매우 아름다웠다.

성 신부는 평양교구의 한국인 사제 2명과 함께 메리놀회의 크레그 신부가 하는 일을 도왔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1만여 명의 한국인들을 포함한 15만 명의 포로들에게 정신교육, 종교교육을 하였다.

성가회와 샬트르회의 수녀들이 부지런히 간호하고 헌신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호감을 얻었다. 그 보답으로 많은 세례자들이 나오고 여러 명의 한국인 사제들이 군병원의 사목을 보고 있었다.



군인 교리반



졸업생과

전시상황은 또다시 반전되어 3월 14일 11시 경에 프로망투 신부와 트럭을 타고 부산을 떠났다. 김해~삼랑진~밀양~경산의 경로를 거쳐 대구에 도착하였다. 저녁에 겨우 2시간을 쉬고 최 주교님과 타케 신부, 튀가 신부들을 만난 후 다시 길을 떠났다. 밤중에 왜관을 지나면서 운전수가 산에서 공산당들을 보았노라고 하며 몹시 놀랐다.

3월 15일 새벽 4시에 논산 본당에 돌아와 보니 사제관은 불에 타있었고 본당의 집 두 채를 하나는 미군이 하나는 경찰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터키군들은 사제관의 가구들이며 학교 책상들까지 닥치는 대로 빨감으로 써버렸다. 거기에 피난민들까지 합세한 모양이다. 울타리도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 우선 도미니코네 집을 얻었다. 아침나절 세 차레나 동사무소에 가서 미군들을 사제관에서 철수 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불탄 사제관에 남은 것은 소파 2개, 책상 1개, 장롱 1개, 큰 탁자 1개, 작은 탁자 1개, 책 몇 권이 고작이다. 오후부터 저녁까지 고해성사를 주었다. 주일미사는 7시 30분에 했는데 교우들이 성당에 가득 차다. 성지 축성을 하고 교우들을 만나 그동안 쌓인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3일간 불탄 집 수리를 했다. 5명의 일꾼을 채용하여 목수가 문을 고치고 길 포장을 끝내고 쌓아놓은 흙을 치웠다. 전교회장이 이 일을 맡아해주었는데 인사차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방해가 되었다. 이날 성 신부는 두 차례의 피난살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에 우울하고 불평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보내준 씨앗들을 심고 땅을 고르고 보리밭에 불을 놓았다.

17일에는 많은 교우들이 와서 미사에 참석하며 기뻐하였다. 성 신부는 수녀들의 집에서 머물기로 하고 수녀들은 남아있던 김 신부의 식복사 방을 쓰기로 하였다.

그날 오후에는 저녁때까지 고해성사를 주었다.

제 3 장 _ 6 · 25 수복 후의 성무 집행

수복 후라 하지만 지역에 따라 게릴라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중공군과 유엔군이 맞서 싸우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논산에서 11Km 떨어진 여산에서는 5일 전에 북한군(속칭 빨갱이)이 쳐들어와 8명을 죽이고 가옥 여러 채를 불살랐다고 한다.

성당 안에 심지어 경찰들이 진을 치고 있기도 했으나 성 신부는 성당의 주인임을 보여주기 위해 굳이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였다.

1. 부활 시기

3월 22일 성목요일에 영성체자는 150명이었다. 몹시 추운 날이었지만 거금을 들인 야외 임시 제단에서 미사를 봉헌하였다. 혼인성사 1건이 있었고 온종일 고해성사를 주었다. 추위로 배앓이를 얻었다. 무너져 내리게 생긴 헛간을 고쳤다. 그러나 여전히 우울한 감정에 휩싸였다. 고통과 시련이 필요한 것이라고 알면서도 스스로를 속이는 것만 같아서 하느님의 선하심과 섭리를 더 이상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했다. 하느님께 용서와 평화와 겸손을 주십사고 기도했다.

성금요일에 또 지난 주일부터 성토요일까지 모두 약 800명에게 고해성사를 주었다.

3월 25일 부활 대축일에는 종일 비가 내렸다. 9시 30분에 대미사를 드렸는데 700명의 영성체자가 있었고 9명의 영성자가 있었다. 11시 30분에 배급소에서 밥을 먹었다.

미사 때 진정한 기쁨에 대하여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은 영혼의 휴식이며 이는 사실이라는 증거들이 있다고 하는 강론을 하였는데 어떤 이들은 입을 벌리고 들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아! 하며 감탄했다. 부활 대축일의 점심 식사를 성 신부는 배급소에서 해결했다.

부활 주간을 더욱 바쁘게 지내다. 3월 6일~4월 1일

26일에는 강경에 베르몽 신부와 나바위에서 앓고 있는 김 신부를 방문하고 고해성사를 보았다. 엄마가 보내주신 꽃씨를 심고 책 몇 권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은 매우 포근한 날인 듯싶었다.

성 신부는 본당에서 일상적으로 미사를 집전하고 지내면서 이틀간의 공소 방문과 멀리 떨어진 인근 지역으로 찾아가 개별적인 성사 집행에 분주하였다. 종부성사 2건이 있었다.

은진공소에서는 55명의 고해자가 있었다. 병자성사 1건. 어린이 세례 7명.

타 지역을 방문하여 병자와 장애자 6명을 방문하여 영성체를 주고 신체 부자유 노인에게 견진성사, 성



구제회 활동



구제회 활동



빈민 어린이



빈민 어린이



구제회 활동 현장에서



구제회 봉사활동



고해성사



첫 영성체

체성사를 주었다. 맹인 노인에게 견진과 영성체, 그리고 12세 냉담 소녀에게 첫 고해성사를 주고 첫 영성체를 주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을 방문하여 견진성사와 영성체를 주었다. 그의 며느리 산모에게도 견진과 영성체 그리고 그 신생아에게 세례성사를 주었다.

29일은 바람이 불고 소나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자전거를 타고 논산으로 돌아왔다.

그 이튿날은 화창한 날이 되었다. 성 신부는 그날도 감자를 심고 또 엄마가 보내주신 꽃씨를 심으며 하느님께 평화를 빌었다. 백리향과 사리엣(sariette)을 심고 딸기를 모종하고, 그렇게 흙을 만지는 일들은 그에게 휴식이 되었으리라.

2. 공소 방문 4월 2~22일

부활 시기가 끝나자 성 신부는 즉시 공소 방문을 시작했다(4월 2~4일, 4월 8~22일). 전쟁으로 상처 입은 백성들, 신앙에 목마른 이들을 찾아 길을 나섰다. 그 자신도 전쟁으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을 겪고 있었지만 자신을 돌볼 겨를 없이 양들을 찾아 재촉하는 목자의 발걸음이었다.

4월 2~8일

돌분리, 하마리, 장마루에서는 고해자 137명, 영성체자 56명, 영세자 다수.

교우 자녀들과 한 가정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돌분리에서는 저녁기도 후, 다른 집으로 숨어 피신하여 잠을 자야 했다. 공산당들을 염려하여 6명의 교우가 그 옆방에서 성 신부를 지켜주었다. 그들은 빨갱이들이 판을 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켜 나갔다. 전쟁으로 인하여 아이들은 교리교육이 거의 불가능했다.

4월 5일에 논산으로 돌아온 성 신부는 그 이튿날 강경의 베르몽 신부 집에 가서 반나절을 보내고 돌아와 다알리아를 몇 그루 심었다. 그리고 7일에는 어머니가 보내주신 콩을 심었다. 작은 흰콩, 붉은 콩, 굵은 흰콩.

4월 8~17일 금사리 본당 공소 방문

8일은 주일이였다. 성 신부는 아침 미사 때 공산주의자들에게 일침을 놓는 강론을 하였다고 한다. 그것은 소유권에 대한 것이였다.

오후에는 돌아가신 몰리마르 신부의 공소를 방문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그 본당으로 갔다. 험한 자갈길을 달려 오후 다섯 시가 되어서야 도착했다.

고니암, 대양, 상고리, 고칠리, 도화담, 무수리, 금지, 가덕리, 몽산읍, 고당리.

고해자 345명, 9명의 세례. 관면혼배성사.

대양공소에서는 한 나병환자를 위해 그의 방으로 직접 들어가 고해성사를 주었다. 상고리에서 오는 교우들을 기다리며 이틀을 머물렀다.

고칠리공소는 너무나 가파른 산을 올라야 했으므로 자전거를 들고 따라올 사람을 하나 구할 수밖에 없었다. 미사 후 임종 노인에게 성체를 모셔갔다. 점심 식후 도화담에 가서 교우들을 만나고 옹기 촌 무수리 교우들도 만났다. 교리문답, 담소 시간, 묵주기도를 연속적으로 치르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녹초가 되어 잠에 들었다.

금지공소는 작은 새 교우 촌이였다. 공산군이 쳐들어왔을 때 몰리마르 신부는 그곳에서 8일간 숨어 지냈다. 가덕리공소에서는 관면혼배가 있었는데 신랑은 69세였다. 그들은 40년을 함께 살았다. 몽산읍 교우들은 옹기장이들뿐이다. 그들은 종종 술을 마시고 쉽게 처를 바꾼다. 4월 17일에는 선하고 착한 농민들의 마을인 고당리로 갔다.

4월 18~22일 금사리 성당에서

물미와 방죽의 교우들이 금사리로 오기로 되어 있어서 그리로 갔다. 한낮을 쉬고 20명에게 고해성사를 주었다. 부인네들에게 성사를 주고 소녀들과 고해자들에게 양심 성찰을 받게 했다. 남정네들에게도 성사를 주고 양심 성찰을 받게 하였다.

연락을 받고 홍산에 가서 종부성사와 노자성체를 주었다. 성사를 받은 그 병자는 2시간 후에 임종하였다. 성당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교리 시험을 치르게 하고 고해성사를 받게 하였다.

금사리 성당에서 3건의 혼인성사가 있었다. 신랑들이 신부들 옆에 서기를 꺼리는 바람에 신랑은 신랑대로 신부는 신부대로 따로 모아 놓을 수밖에...! 오후엔 고해성사를 주었다.

22일 주일에 15명의 아이들에게 세례성사를 주었다. 몇 명에게 고해성사를 주고 성 신부는 몰리마르 신부의 옷가지와 가구들을 챙겨 달구지에 실었다.

3. 4월 23일~5월 14일

4월 23~30일

4월 23일 미사 후 논산으로 돌아왔다. 날씨가 추워서인지 심은 야채들은 그동안 자라지 않았다. 라디오에서는 중공군의 침입과 유엔군 후퇴 소식을 들려주었다. 강경에 가서 베르몽 신부를 만나고 휴식을 취하였다.

성 신부는 고향 생각이 나면 야채 밭에서 조금 일하고 쉬었다.

공주의 시잘레 신부가 와서 논산을 안내해 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새로 온 식복사에게 유럽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었다.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시잘레 신부는 떠나갔다.

토요일에는 강론 준비를 하고 고해성사를 주었다. 주일에는 미사 참석자도 많고 고해자도 많았다. 계약에 관한 강론을 했다. 혼인성사 신청자들의 상당수는 조당에 걸려있는 상태로 왔다. 성 신부는 너무 많은 걱정거리를 알게 되어 불안하였다.

남자아이들 시험을 치렀는데 전쟁 통에 배운 걸 모두 잊어버린 것 같았다. 말일 저녁에는 평화를 지향하며 성모성월을 시작하였다.

5월 1~14일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 교리 시험을 치렀다.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 보다 좀 아는 게 있지만 전쟁 때문에 많이 잊어버려서 아쉬움이 있다. 외조모 선종 소식을 들었다.

고해성사를 주고 장날 오후에 강경에 갔다.

지발공소와 들머리공소를 방문하여 양심 성찰을 시켰다.

6일 아침에 주일 미사 두 대를 드렸다. 많은 신입교우들이 참석하였다. 전교회장과 함께 나바위로 가서 김 바오로 신부 은경축에 참석하였다. 전주의 이 신부가 소책자 합송 미사를 다시 인쇄했다. 군산의 박 베



어느 공소에서



은진공소에서



자전거 방문 중



양산리공소



신도안공소 창설



공소의 새 신자들



갈매울공소



돌분리공소

네덕또 신부를 만났다. 그는 베르나르 신부와 전주의 김 보좌 신부와 함께 수많은 공덕을 쌓는 사람이다. 교우들은 순수한 한국식으로 지극하게 그들의 목자를 축하해 주었다. 유쾌한 하루였다.

7일에 은진미륵과 지밭의 두 병자를 방문. 혼인성사를 준비하였는데 신랑신부가 제시간에 오지 않아서 동화동 공소로 가서 아이들을 만났다. 저녁 7시에 돌아와 보니 신랑, 신부 될 사람들이 정오부터 와서 기

다리고 있었다. 증인들을 세우고 제의실에서 혼인성사를 주었다.

8일에는 날씨가 화창하여 작물들을 심었다.

5월 9~12일까지 성령강림 대축일 준비는 주로 고해성사를 주는 일이다.

5월 13일 성령강림 대축일에는 두 차례의 미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비신자들과 신입교우들이 감탄할 정도로 많았다. 11시 30분까지 고해성사를 주고 3명의 어린이에게 세례를 주었다.

성 신부는 올해 성체 거동을 하기로 작정했다. 혹독한 시련을 겪은 교우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다져주고, 외교인들과 개신교 신자들의 관심도 끌 겸 지닌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이 모자라지만 강행하기로 하였다. 그 결정을 확인해 주는 듯 저녁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오래전부터 기다리던 단비였다.

4. 성체거동. 쉼뿔 양로원

논산과 합덕에서는 5월 성체 성혈 대축일에 성체거동을 실시하였다. 그것은 교회의 위력을 과시하는 대외적인 행사로 주목받았다. 성 신부는 가톨릭교회가 지하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입증해 보이고 싶었다.

그는 경찰의 허가를 받고 시내 한복판에서 성체거동을 벌였다. 논산 본당 교우들과 이웃 본당 교우들을 합하여 2천5백 명의 열심한 신자들이 거동 행렬에 참가하였다. 경찰 측에서는 경찰들에게 종교 강의를 해 줄 것을 부탁했고 성 신부는 그 자리에서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유월 중순이 되자 단비가 내렸다. 성 신부는 당근, 상추 모종을 심고 배추와 순무, 무를 차례대로 심었다. 그는 화단에 꽃을 심거나 밭에 채소들을 심고 나서는 그것을 도표로 그려두었다. 화단, 콩밭, 채소밭 등의 그림에서 성 신부의 자상하고 꼼꼼한 솜씨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엿보인다.

1952년 영세자 총 4백 명.

외교인 영세자 130명, 교우자 녀 영세자 130명, 성인 대세자 140명.

견진자 500명, 고해자 1만 명, 영성체자 3만 명, 혼배자 35명, 종부성사 60명.

금사리 성당의 몰리마르 신부는 공산당에게 죽음을 당하였다. 성 신부는 그의 본당을 추가로 맡아서 교리 공부, 찰고, 성사, 견진 공부 등의 일을 더 해야 했다. 11월 26일에는 비가 억수로 쏟아졌다. 주교님과 함께 프로망투 신부 본당으로 가서 152명에게 견진성사를 주었다.

당년 논산에서는 3천 명의 군중이 성체행렬을 이루었다. 성 신부는 5천 명 정도의 군중을 기대했다가 “더러는 모내기 때문에, 더러는 먹을 것을 가져올 수 없어서, 또 더러는 여기까지 올 육체적 힘이 없기 때문에 많이 오지 못했다.”라고 그 현상에 대해서 대변했다. 어쨌든 성체 행렬은 시내 거리 거리로 이어지며 아름답게 이루어졌고 마침 날씨가 아주 좋아서 더욱 행사를 빛나게 해주었다.



쌍뿔 양로원

성 신부는 공산당 앞에서 목숨을 바쳐서 믿음을 증명한 조관호 스테파노의 장례를 교우들과 함께 장엄하게 치러주었다.

12월 2일에는 30년 전부터 외교인들 속에서 사는 냉담한 환자 집에 가서 종부성사를 주고 왔다. 진눈깨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치는 매서운 날씨였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차가운 바람 때문에 뱃사공이 이 편으로 건너오지를 못하는 지경이 되었다. 길까지 잘못 들어 두 시간을 헤맨

후에 환자의 집에 도착해서 성사를 주고 돌아왔다. 피곤한 몸이지만 뿌듯하였다.

12월은 매우 바빴다. 공소 방문(11월 3~19일, 12월 3, 4, 5, 9, 10일). 본당의 성무집행(교리참고), 고해성사, 종부성사, 성탄절 준비 등등...

총 4백 명의 영세자를 내느라고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쁘게 일을 했다.

성 신부는 물을 찾은 물고기처럼 행복하며 이러한 영예와 훌륭한 일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할 뿐이었다. 좀 고역스러울 때도 있었으나 예수님께서도 학대를 참고 견디셨음을 생각하며 바로 그것으로 인해 영광의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며 그것을 곧 선교사의 기쁨으로 삼았다. 그 기쁨은 성 신부에게 마치 정신세계와 작품이 더욱더 완벽함에 이르는 것을 바라보는 예술가의 기쁨이나, '보시니 좋더라...' 하신 창조주 하느님의 기쁨,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곳에 있는 기쁨,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며 그분과 함께 있는 기쁨, 무궁무진한 기쁨이었다.

이러한 기쁨은 전쟁의 후유증에서 성 신부를 완전히 회복시켰다.

1950년과 1952년, 삼년 내에 부친과 모친 두 분이 모두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성 신부는 얼마나 슬퍼했는지 며칠 동안 계속하여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그는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부모님의 중재로 하느님의 도우심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하였다. 그는 아직도 개신교 신자인 논산 시장의 기적적인 개종을 희망하고 있었다.

1952년은 쌍뿔 양로원의 시발점이 되는 해였다.

논산 본당의 오채경 말지나 수녀는 성 신부의 지시로 성당 문전에 쓰러져 있는 한 걸인 노파에게 대세를 주었다. 그 노파는 성당의 부엌방에서 간호를 받고 일주일 만에 선종하였으며 성당에서 장례를 치러 주었다.

이때부터 성 신부는 길가에 쓰러져있는 걸인들과 계룡산 가사의 보살이라고 하는 걸인 노파를 데려다가 수녀들로 하여금 보살피게 하였다. 이 일을 계기로 사방에서 무의무탁한 노인들이 모여오기 시작하였다. 이듬해에 10여 명의 할머니들이 모이게 되자 구 사제관 뒤편의 창고를 개조하여 부양하기에 이른다.

1955년에 성 신부는 UN 연합군으로부터 한국 재건을 위한 양로원 건축비 2천 불을 받아 내었다. 이렇게 하여 라리보 주교의 지지와 함께 양로원 건축 공사는 본격화되었고 1956년 10월 완공하였다.

5. 사람 낚는 어부 성재덕 베드로 신부

1953~1958년

6·25 전쟁과 1·4후퇴로 인하여 성 신부는 매우 큰 고생을 겪었다. 피난살이와 그 후유증과 춥고 덥고 복잡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두렵기까지 한 고난 가운데서도 영혼 구령을 위한 그의 기쁨과 열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동료 신부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머니가 보내준 씨앗들을 심으면서 그리고 신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는 곳곳한 사목자로 일어서게 되었다.

1953년 대전 교세 통계표에 의하면 영세자 403명(성인 134명, 어린이 165명 - 금사리 성당의 종부성사 성인 39명, 어린이 65명 포함), 신자 수는 5천 명에 달한다. 성 신부는 생애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선교사들의 꿈인 한국 만세를 부르며 환호하였다. 봄 공소를 치르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자전거로 약 450Km를 달렸다.

예비자 중에는 부지사 부인과 그의 자녀 3명이 있다. 불평 잡지에서는 “쌍계 신부는 성 베드로의 그물에 잡힌 대어들을 알리며 즐거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대어들이란 다름 아닌 부지사 부인과 그의 3명의 자녀들이며 대건 학교의 2명의 학생들입니다. 일반 학교에서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예비자들을 배출하는 데 비해 선교사 학교치고는 너무나 빈약한 숫자이기는 합니다.”라고 한다.

대건 학교에서는 4학급에 각각 1시간씩 1주일에 여러 시간을 교리 시간으로 배당하였다. 그것은 분명 앞으로의 세례자 수확량을 기대해 볼 만한 일이었다.

성 신부는 본당의 일 외에도 피정 강의를 종종 하게 되었다. 성가회만이 아니라 본당 회장들 피정, 아일랜드 사제 피정, 대구 쌍뿔 수녀원 피정, 대구 텔랑드 신부 본당 피정, 동경의 쌍 모르 수녀들 피정, 서울 갈멜회 수녀들 피정 강론 등이다.

1953년에는 전주에서 18명의 사제와 김헌배 바르톨로메오 주교가 참석한 피정을 지도하였다. 성 신부는 자신이 피정 지도를 성과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깊은 침묵을 지키면서도 현재 이 도시의 5천 명이나 되는 열심한 신자 수의 증가에 대해서는 서슴없이 공개하였다.

대건 고등학교는 교장을 새로 임명한 후로 전보다 나아졌다. 그런데 학교 옆에 있는 대건 유치원에 한 밤중에 도둑이 들어 유리를 80장이나 훔쳐 간 사건이 발생했다. 성 신부는 학생들을 비상소집하여 학교 유리창마다 지워지지 않게 글자를 새겨 넣었다. 각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길에 나가서 흰 석회석을 주워다가 유리 한 장 한 장마다 마름모꼴로 ‘대’자를 적어 놓은 것이다. 이 대(大)는 ‘크다’라는 뜻으로 대건의 첫 자이며 대건은 학교의 주보성인이신 한국 수선탁덕(首先鐸德) 순교자 김대건의 함자(銜字)이다. 이렇게 해서 이후로 도난 사건은 없었다.

1954년 영세자 186명, 교우수 2,371명

교황대사 퀴란(Quinlan) 주교의 방문이 6월에 있었다. 라리보 주교는 성 신부에게 공연한 폐를 끼치게

될 것 같아 일부러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정보를 뒤늦게 입수한 성 신부는 대사가 타고 오는 지프차 소리를 듣고 황급히 비상소집을 내려 8백 명 학생들과 교사들을 운동장으로 집합시켰다. 퀴란 주교는 “열심히 공부하세요. 정치 문제들은 아직 여러분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니 여러분은 공부에만 전념하세요. 평화롭게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은 복이 많은 겁니다. 나는 북쪽에서 중고등학교라곤 하나도 못 봤어요.”라고 했는데 그것은 한국의 남쪽 논산 본당 성 신부를 간접적으로 칭찬하는 말처럼 들렸다.

퀴란 주교는 교사들과 따로 대화의 시간을 나누고 성당을 방문했다. 교장은 전송길에 환영 인파를 준비하여 퀴란 주교는 팡파레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구경꾼들의 시선을 받으며 행렬 사이로 걸어서 돌아갔다.

성 신부는 순발력 있게 대처하여 위기를 모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라리보 주교가 성 신부를 아끼고 지지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 주었음에 성 신부는 용기와 힘을 내어 더욱 성실하게 난관을 헤쳐 나갔다.

1951년 1월 터키군의 부주의로 불타버린 구 사제관을 보수하는 데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미군들은 학교 책상과 의자를 땔감으로 사용하였고 교실 창문도 깬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벌써 몇 해째 터키군과 미군 사이에서 그 책임 부담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렇게 3년여를 끌다가 결국 성 신부는 1955년 부활 주간 화요일에 새 사제관으로 입주할 수 있었다.

성 신부는 7월 5일 김대건 안드레아 복자 축일을 기념하여 라리보 주교를 초청하였다. 주교는 810명의 학생들에게 훈화를, 교사 1명과 11명의 학생들, 그리고 몇 명의 청년들을 합하여 총 21명에게 견진성사를 집행하였다.

주교 방문의 보다 실용적인 목적은 학교 증축금 전달에 있었다. 계약에 서명을 하고 포교성성에서 전해 온 2천 불 상당의 원화를 접수하였다. 그것은 4개의 교실을 신축할 비용이었다. 전체를 다층 목조건물로 하고 길에 벽돌 벽에는 흙을 바르기로 하였다.

1955년은 마리아의 해였다. 성탄 축일 성인 영세자는 138명(어린이 영세와 대세자들을 제외한 올해의 총 영세자 수는 115명). 올해 영세자 수는 260명. 11월에 가을 공소 방문은 제세구 신부와 시에라장 신부가 각각 6개의 공소를 방문하였다.

파리외방선교회의 르메르 총장 주교의 대전교구 순방에 이어 성 신부는 합덕 본당 부설 고아원이 있는 당진으로 갔다. 성가회 수녀들은 크고 아름다운 한국식 건물 안에서 40여 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있었다.

성 신부는 총장 주교에게 허락을 받고 도쿄의 썬 모르 수녀원에 있는 누이동생 테레즈 수녀를 방문하고 새로 발령받은 사제들을 데리고 오는 일을 완수하였다.



성 신부와 복사단



복사단 물놀이 가다



넷가에서



논산 성당 루르드 성모 동굴에서



성모 동굴에서



성모 동굴에서

논산에서 또 한 번의 성체거동은 장관을 이루었다. 신자와 비신자를 합하여 참석자는 5천 명으로 추정되었다. 6만 명의 신병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소의 길이 한 시간 동안이나 통제될 정도였다. 9명의 사제들이 참석하여 행렬을 주도하였다.

그들은 성 신부를 비롯하여 두 명의 새 사제, 대전 주교 대리, 이웃의 신부, 교구 북동지구 신부, 금사리 신부 등 파리외방선교회 소속

사제들과 전주교구 대표로는 나바위의 김 신부와 안태동의 송 신부, 그 외에 이리 대표단 1명이었다.

어느 사회단체나 종교단체도 행렬에 그만큼의 인원을 동원시키지는 못했을 정도로 그러한 광경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장관이었다.

성 신부는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 신자 학생들로부터 어느 선생님이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학생들에게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선생은 개신교 신자로서 ‘하나님’이라고 발음하는 사람이었다.

성 신부는 다음 주일 어린이 미사 강론에서 나이 어린 성인들, 아녜스 성녀와 브낭성인, 유 베드로 복



목 신부 금경축 1955년 6월 29일



논산 성당 첫 영성체

자와 공산 정권하에 있는 중국의 어린이들을 예로 들면서 “만일 어느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자인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물었다. 한 학생이 대답하기를 “하느님은 계시다고 말해야 합니다” 하고 대답했다. 성 신부는 그렇다고 말하며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고도 침묵한다는 것은 비겁한 행위이며 하느님께 욕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성 신부는 여기저기 초청을 받아 종교 강의를 하였다.

모 학교에 가서 1천 명의 학생들에게 천주교에 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은 끝까지 주의 깊게 성 신부의 강의를 들었다. 며칠 후에는 두 군데 본당의 회장들 피정에 가서 강론하였다.

마리아의 해에 어느 한국인 대령이 기부한 5만 환과 교우들이 내놓은 50만 환을 가지고 성 신부는 루르드 동굴의 성모상 건립을 신속하게 진행하였다. 성모상 위에는 ‘하늘과 땅의 여왕’이라고 새겨 넣었으며 기념비에는 ‘착한 목자는 그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다. 이 성모상은 논산 성당을 건립하였으며 공산군의 총살에 순교하신 줄리앵 공베르 신부를 기념하였다.

1956년 견진자는 110명

교세 통계표에 의하면 논산의 성 신부는 115명의 영세자를 내었다. 영성체자 수는 33,123명. 고해성사자 수는 12,900명.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라리보 주교는 논산, 금사리, 장항, 구암, 강경 본당들을 순방하였다. 논산에서는 양로원과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성신부의 신축 교사를 강복하였다. 무염시대 축일에는 루르드 동굴과 성모상을 강복했다.

성체 성혈 축일이 첫 주일에 걸리게 되어 인근 부대에서 매일 한 번씩 일반인에게 부대를 공개하는 날이라 수천 명에 달하는 인파가 버스, 지프, 트럭 등을 이용하여 몰려와서 도로를 꽉 메웠음에도 불구하고 성 신부는 어김없이 성체행렬을 거행하였다. 어떻게 경찰에게 도로 통제를 부탁하여 가능하게 되었는지 그건 아직도 신비로 남아 있다고 한다. 행렬은 5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을 이루었다. 오후에는 전례대로 배구 시합이 있었다.

이제는 논산 성당이 너무 비좁아 꾸준히 미사에 참석하는 신자 4백 명이 앉을 자리가 없게 되었다. 예비자들은 본당 구역 내 주민들만이 아니라 신도안 주민들도 와서 예비자가 되겠다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 따라서 1천6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바실리카 양식의 대성당을 지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양생원 신축 기념

양생원(성광원)을 신축하다

당시 논산에는 결식하며 소외되어 사는 10여 세대의 나환우들이 있었다. 성 신부는 라 다두라는 환우 어머니의 요청을 듣고 관심을 기울였다. 우선 그들을 도울 기성회를 조직하고 가톨릭 구제회의 도움을 받게 하였으며 이동진료 병원의 순회 치료를 받게 하면서 그 명칭을 양생원으로 하여 발족하였다.

미국 천주교 전쟁 부흥위원회(NCWC)로부터 밀가루와 옥수수 등의 식품과 구호품도 받게 하였다.

성 신부 자신은 황무지인 그곳에 흙벽돌집 7채와 우사 1채를 지어주고 복숭아나무도 심어주었다. 판공 성사 때는 자전거를 타고 가서 성사를 주곤 하였다.

동년 5월에는 1956년에 시작한 양생원을 성광원이라 개칭하고 논산군 광석면 울리 산 49-2번지에 나환우 59명의 정착지로 책정되어 현재에 이른다.

1957년 영세자 300여 명

성 신부는 이 해 사순시기에 공소를 방문하였다.

현재 26개의 공소. 3월에는 27개로 늘어날 것이다. 눈에 덮인 도로와 산길을 보좌 블랑 신부에게 맡긴다면 두 배로 빨리 진척되리라 예상하였다.

성 신부는 갈매울 교우촌을 위해 큰 성당을 건축하였고 신도안에도 건축할 계획이다. 그곳 50명의 신입교우와 수많은 예비자가 모일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논산 성당의 건축부지로 군부대의 못 쓰는 넓은 땅을 싼값으로 매입하였다.

성 신부는 또한 파리외방선교회 한국 부지부장으로 무췌 주교의 장례미사에서 대표로 강론을 하였고 고인에게 마지막 예의를 표하였다.

1958년 영세자 323명

성 신부는 레지오 마리아를 도입하였다.

그는 광주 세나투스에 직접 연락하여 명칭은 천주의 모후 브레시디움으로 하였다. 대전 교구에서는



가톨릭 교리 옹호론 : 성 신부의 글 (1957년 교황청 발행 선교잡지 140~148쪽)

처음으로 논산에서 시작되어 각 성당으로 파급된 것이다.

김 바오로는 순교복자의 증손이며 성 신부가 백동 본당 신부 시절 신학교에 보낸 사람이다. 3월 19일 성 신부는 서울 명동 대성당에 가서 그의 수품식에 참석하였다.

제 4 장 _ 성전을 건립하고 봉헌하는 성재덕 베드로 신부

1. 마산 성전 1959년

마산은 논산 부대에 인접한 지역이어서 도시의 주민들이 몰려와 신항도시를 이루어가고 있었다. 성 신부는 그곳에 성전을 세웠다. 이 성당은 새 본당들의 중심지가 되고 근처의 10군데 공소를 갖게 되었다. 성 신부의 공소는 20개로 줄어들었다.

교우 수가 1천 명을 넘으면 본당으로 승격되고 새로운 본당 신부를 맞아 성 신부의 일을 덜어줄 것이다. 군사목으로 발령된 새 사제들이 새 본당의 기초를 닦을 것이다.

8월 14일에는 28명에게 영세를 주었다.

성 신부는 혼자 1천2백 명의 고해를 들었고 예비자들의 교리 문답을 치렀다. 성탄절에 47명의 영세자를 내어 총 395명의 성인 영세자가 나온 셈이다.



연무대 사제관



마산 견진기념

대건 학교 대학 합격률

대건 학교 학생들의 대학 합격률은 평균 50%이며 25명의 학생 전원이 대학에 합격했다. 한 명은 대전에서 수석으로 한국 전체에서는 3등을 하는 영광을 차지하였다.

성 신부는 이웃 학교인 농업 국립학교가 입학금을 내리는 바람에 대건 학교도 내렸다. 중등부에 225명, 고등부에 110명의 입학생이 들어와서 중등부는 총 465명, 고등부는 330명의 학생이 되었다. 그들이 매달 기성회비를 제대로 납부해주어야 하는 것이 경제운영의 관건이다.



감사장



감사장

시청각 교육

8월 14일과 15일에는 저녁시간에 영사기를 돌렸다. 대건 학교 교리교사 김태오가 해설을 작성하여 녹음을 했다. 로마와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 관한 필름 2편과, 칼라로 된 그림 동화 3편을 돌렸다. 효과는 엄청났다. 첫날 저녁에는 예비자 교리반에서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자리가 비좁았다. 다음날은 운동장에서 돌렸는데 그때 역시 운동장이 비좁을 정도였다.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기와가 깨질 정도였다. 성 신부는 이렇게 대단한 호응을 보고 모든 공소에도 이것을 보여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시청각 교리교육

성 신부 피정 지도

성 신부는 여름휴가 기간을 두 번에 걸친 피정 강론으로 대치하기도 하였다. 한 번은 성가회 수녀들에게, 다른 한 번은 한국의 남쪽에 있는 포항에서였다. 들랑드 신부가 창설한 수녀회(포항 예수성심회)는 해변에 있었다. 힘든 것은 그 강론 준비라고 하였다. 그는 서울에 있을 때 피정 강론을 준비하느라 보름 동안이나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머리를



교육주간 기념식



성가대 성탄절 1960년



꾸리아 창립 기념

짜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 외에도 9월 14일 성 신부는 대구의 델랑드 신부 본당에 가서 8일간의 피정을 지도하였다.

2. 성 신부 은경축



까데 루셀몽의 노래 가사 1A



까데 루셀몽의 노래 가사 5A



은경축

은경축 기념사진

1960년 성 신부 은경축 (7월 7일)

6월 29일 논산 성당에서는 성 신부 사제 수품 25주년을 기념하는 미사가 봉헌되었다. 많은 동료 신부들이 참석했다. 현 지부장 알레르 신부가 부재중이어서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성 신부를 축하해 주려고 모두 모였다. 이제까지 성 신부의 곁을 거쳐 간 보좌 신부는 13명에 이른다.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이는 주교님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며 신부의 성격이 까다롭지 않다는 증거이다. 백동 본당 시절 성 신부의 신자들 가운데 고위 관료층도 여럿 있었다. 장면 요한은 국무총리였으며 후에 부통령이 되어서도 성 신부의 각별한 친구로 남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밖에 성 신부의 어렸을 적 이야기며 논산 본당에 와서 이룩한 사목활동이며 성가소비녀회 설립에 관한 이야기며, 현재 논산 본당은 교우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초창기에는 1천8백 명이던 것이 지금은 3천8백 명에 이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자 평소에 칭찬에 인색한 라리보 주교도 “진정으로 성 신부야말로 좋은 목사입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다. 목베르몽 신부는 성 신부의 첫인상을 ‘아침 태양빛의 짧은 턱수염에 미소를 담은 옛된 얼굴’로 기억한다고 하였다.

그 자리에 참석한 동료 신부들은 성 신부를 위하여 은경 축가를 불렀다. 까데 루셀 풍의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는 예부터 전래되는 곡조를 가지고 있었다. 1790년 당시의 원문은 프랑스의 오쎬르(Auxerre)에 살던 버릇이 이상한 기욤 루셀(Guillaume Rousselle)이라는 한 지방관리를 풍자하는 이야기였다. 재미있고 활발한 리듬 때문에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군인들도 행진곡으로 노래하게 되었다.

예산 성당의 정도파(Beaudevin) 에밀리오 신부는 그 대중가요의 주인공 이름과 내용을 피에르 신부로 바꾸어 개사하였고 그들은 무려 36개의 절이나 되는 노래를 불러주었다 ; 후렴은 ‘아, 아, 아, 그레 정말, 썩제 신부는 좋은 아이야.’를 두 번 반복한다. 이하 각 절은 두 번씩 반복하는 구절로 시작된다.

이 노래의 내용은 성 신부의 공덕을 기리며 그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주는 것 같다.

3. 성 신부 논산 부창동 성당을 건립하다

1961년 10월 11일 237평의 논산 성당 준공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6·25전쟁을 치러 낸 성 신부는 매해 꾸준히 영세자를 내고 부지런히 공소를 방문한 결과 공소도 늘고 신자 수도 증가하였다. 마산과 갈매울 성당을 각각 신축하였으나 신도안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대축일 미사 집전을 위해서도 현재의 성당으로는 그들 모두를 수용하기란 역부족이었다.

성 신부는 성당 건립을 위하여 교황청에 원조금을 청하여 받은 것으로 충당하였다. 1959년에 땅고르기 기초공사에 이어 1960년 2월 16일 라리보 주교는 논산을 방문하여 새 성전 초석을 축성, 성전 건립의 기초공사가 시작되었으며 이듬해 10월 11일 준공하기에 이른다. 신축 성당은 내부에 기둥을 심지 않고



논산 신축 부랑동 성당 내부



신축 성당

20미터 폭의 큰 성당으로 설계하였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에 라리보 주교는 성 신부가 루르드 성모님께 봉헌하며 지은 새 성전을 장엄하게 축성하였다. 전날에는 2시간 반에 걸쳐 맑게 빛나는 화강암 제대 세 개를 축성하였다. 중앙 제대는 성당 중앙으로부터 화강암 계단 세 개를 올린 높이에 놓였다. 양측 성가대석 바닥에 놓인 소 제대는 단순하고 조촐한 모양의 돌 제대이다. 사제석은 빨간 벽돌로 세 개를 만들었다. 중앙석은 주교석으로 더 넓고 높게 만들었다. 성 신부가 기증 받은 프랑스 그르노블의 색유리는 성가대석 뒤쪽으로 난 공간 벽에 끼워졌다.

라리보 주교와 한공열 주교 두 명의 주교와 45명의 사제가 참석하였다. 축성 후 장엄미사가 있었다. 논산 성당의 로페페 보좌 신부의 지도 아래 한 달간 연습한 성가대의 성가와 보좌 신부가 부른 맑

고 섬세한 그레고리안 미사곡으로 미사는 한결 더 성과를 거두었다. 1천 명이 넘는 교우가 성체를 모셨고 두 사제가 주교의 손을 도왔다.

미사 후에는 공식적인 축하연이 있었다.

이렇게 훌륭한 성당을 짓기 위하여 성 신부는 5개년 계획을 단행한 것이다. 신자들에게는 별도로 성당 건립기금을 받지 않고 교무금으로 대처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겨울에 연탄 한 장을 아끼고 그 좋아하는 담배마저 끊고 지냈다. 반듯한 돌이 있으면 주위 모아서 성당 건립에 보태어 썼다.

신도안 마을의 한 신입교우 여인이 10만 원을 성 신부에게 내놓으며 “신부님, 이 봉헌금으로 성당 문을 다십시오. 대신 주님께서 저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하며 익명으로 해줄 것을 부탁했다고 한다.

새 성전 축성의 해 성탄 대축일 고해성사 자 수는 1천3백 명, 영세자 수는 19명, 1년 총 영세자 수는 123명이다.

제 5 장 _ 논산의 선교사 성재덕 베드로 신부

논산에 와서 은경축을 지내고 새 성전 축성까지 마무리 한 성 신부는 안팎으로 신임을 받는 가톨릭 사제로서 파견 선교사의 일에 더욱 열중하게 되었다. 그는 경찰들과 이교인들에게 하느님을 알리고 해외에 후원금을 청하였다. 그는 논산을 떠나기 전 논산에서의 지난날을 돌아보며 자신의 한국 사랑을 재점검하고 있었다.

1. 성 신부 강경 경찰서에서 종교 강의를 하다

강경 성당의 베르몽 신부는 성모승천 대축일 후 8일째 되는 날 본당의 백여 명의 열심한 신자들을 이끌고 논산 성당으로 순례를 떠나왔다. 그가 성모께 봉헌하는 미사를 드리는 동안 논산 성당 성가대는 성가를 불렀다. 모두들 경건하게 성체를 모셨고 성체강복으로 순례를 마쳤다.

강경의 경찰서장은 베르몽 신부에게 강의를 청하였는데 그는 자신의 연로함을 구실로 그 일을 논산의 성 신부에게 의뢰하였다.

직원 경찰들에게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에 대하여 1개월간 매주 한 번씩 강의를 하는 것이다. 9월 8일 목요일에 성 신부는 학교 교감을 동반하고 강경 경찰서를 방문하였다. 거기에는 70여 명의 경찰들과 목사 몇 명을 비롯한 일반인 12명이 모여 있었다.

성 신부와 교감이 각각 30분씩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에 성 신부는 호교론을 펼치며 브라만교, 불교, 기독교 등 주요 종교들을 비교하는 강론을 들려주었다. 유교는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므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 다음 주에는 교감이 개신교에 관하여 성 신부는 교황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베드로 성인은 주님께서 유일하게 성교회를 맡긴 장본인이며 교황은 그 후계자임을 알려주었다.

2. 가난해도 이웃을 사랑하는 한국인들이 있다

1960년 11월 15일 자 편지에서 성 신부는 프랑스에 있는 후원회원들에게 한국인의 삶을 가난과 굶주림에서 허덕이는 딱한 양상으로 전하며 명년의 새해 인사를 나누고 축복을 빌어주면서 후원을 청하였다.

성 신부는 자기의 직책과 임무, 처해있는 한국의 상황에 관하여,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선교사는 일한다는 것과 그에 따른 어려움들을 그들에게 일깨워 줌으로써 후원자들의 후원에 대한 보답을 드리고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움직이게 하고 있다. 그는 특히 “제가 있는 논산의 주민은 약 3만 명이 됩니다. 저는 극빈자들을 먹이기 위해 미국인들로부터 옥수수가루를 배급받아 수녀님들이 그것으로 죽을 끓여 2천5백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만 그것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상당수 있습니다. 2천5백 명! 전 주민의 1할이 염치 불고하고 죽을 얻어먹으러 온다는 말입니다. 수녀님들이 쉬느라 하루라도 손을 놓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 한 끼로 견뎌야 합니다.”

“배가 불러야 설교도 귀에 들어온다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극빈의 상황 속에서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돌을 던지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못해 자녀들에게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맹물 몇 모금으로, 혹은 먹지 못하는 과일들로 배를 채우는 그들의 사정을 참작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또한 가난하다고 이웃사랑에 게으르지만은 않다는 실례를 들어 한국인들이 신앙의 역설적 가치를 깨달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였다.

“한 번은 두 여교우가 길을 가다가 들것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가는 거의 죽어가는 한 여자를 보고는 그 환자 뒤를 따라갔습니다. 한 시간을 따라가며 기회를 엿보다 교우들은 급기야 환자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대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 그 환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한 여교우는 중풍에 걸려 꼼짝도 못하는 한 여인에게 6개월 동안 교리를 가르쳐 영세를 받게 했습니다...”

3. 기쁘고 행복한 사목자 성재덕 베드로 신부

성 신부는 공소 방문과 함께 하는 신자 사목과 성무 집행, 이교인들과의 투쟁, 가톨릭계 중고등학교 운영, 성전 건립, 양로원, 성광원, 종교 강의 등 가시적인 업적을 통하여 그 모든 인간관계를 구축하여 나갔다. 어려서부터 가족과 함께 어우러진 삶의 자율성을 체득하고 동등한 친구관계 역시 막힘없는 친교적 삶을 여기까지 영위하여 온 보람 또한 그의 업적이 되었음을 본다.

성 신부는 미래의 성전 건축 부지로 군부대의 못 쓰는 넓은 땅을 싼값으로 매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UN 연합군으로부터 한국 재건을 위한 명분으로 양로원 건축비를 보조받는가 하면 교황청 포교성과 한미 연합 재건사로부터는 대건 학교 교사 신축을 위한 물자를 얻어내는 등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했다.

그는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미리 해두면 좋을 것이 무엇인지 다각적으로 조망하며 또한 미래를 내다보는 전체적인 비전을 지닌 사목자였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아보았고 방법이 있으면 즉시 실천에 옮겼다. 그 일이 복음 선포와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이기에 주변으로부터의 도움을 당당히 요청하는 호기로운도 있었다. 이 호기는 하느님의 은총으로부터 기인하였다.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신자들을 돌보는 그는 순수하고 진지하고 지혜로운 면모를 지닌 참 목자였다.

“땅 끝까지 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는 거기에 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저를 행복하게 하니 이상한 일입니다. 저의 허다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무한하신 자비로 저의 일

을 축복해 주시나 봅니다!”

“오, 저는 그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르쳤고, 얼마나 많이 어려웠고, 얼마나 많이 글씨를 썼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산과 평원을 삼복더위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전거로 달렸는지요! 그러나 그 끝에는 이렇게 행복하니...”

“이제는 마을마다 10여 명의 외교인들의 서명이 담긴 요청 편지를 통해 저를 부릅니다! 예전엔 한 명씩 찾아왔었는데... 아, 골짜기에 버려진 이 마을들을 찾아가 불심지를 밝힌 저녁, 방 안 가득히 채운(방문까지 열어 놓아야 할 정도로 아래에서 위쪽까지 저를 바라보고 있는 머리들과 눈들만 보입니다.) 새로운 영혼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그 행복을 여러분이 알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기쁨은 없으니 정말이지 저는 제 자리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이 최상의 기쁨이며 행복임을 그는 체험으로 느끼는 동시에 그 체험한 것을 전해주었다. 선교 파견지 한국의 문화 여건이 자신의 고국 프랑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음에도 그는 변함없이 한국인을 사랑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사랑한다고 하였다.

“알겠지, 내 나라(한국)는 아직 문명화 되기에는 요원하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든 또 다른 나라들을 아주 높이 평가하든 간에 나는 여기 사람들을 아주 사랑한다.”라고 썩 모르 수녀회의 동생 수녀에게 편지를 썼다.

성재덕 베드로 썩제 신부는 불그스레한 턱수염 때문에 무서운 인상을 주기도 하였다.



부청동 성당 밖 계단에서



논산을 떠날 때

자기 휘하에 6만 명의 신병들을 두고 있는 논산 훈련소의 군 검열관이 예비자 찰고를 받으러 성 신부 앞에 섰을 때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되어 마치 재판장 앞에서처럼 덜덜 떨었다고 한다.

한국의 충청남도 대전이라는 지역에서 성 신부는 하느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불철주야 그토록 박력 있게 파견 선교사의 길을 질주하여 왔다. 이사야서 말씀대로 그는 언덕을 넘어 달려와 서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50대의 아름다운 발이 되어 있었다.

4. 신병 치료차 휴가를 가다. 1962년 2월 6일~1964년 6월 13일

두 번째 휴가를 떠나기까지

12년간(1949년 5월 7일~1962년 1월)이나 논산 본당에서 활약한 성 신부는 보람 가득한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충만하였지만 6·25전쟁과 1·4후퇴를 겪고 난 이후 중고등학교 운영과 성전 건립을 위한 노력으로 그는 지쳐있었다.

그런데다가 보좌 마르탱 신부는 부임한지 일 년 만에 신경쇠약에 걸려 한 달 이상 바다 근처 포항으로 휴양을 가버리고 나니 더욱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본국에 있는 여동생들은 1959년부터 성 신부에게 언제 휴가를 오느냐고 독려했다. 그때마다 성 신부는 이곳은 사제들이 부족하고 새 예비자들이 몰려들어 가득이나 모자란 일손을 더 바쁘게 하여 주교님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자신이 본국으로 휴가를 가겠다고 한다면 난처하신 주교님을 더욱 난처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을 염려하였고 게다가 성당 신축공사를 시작했으니 우선은 그 일을 끝마치고 봐야 한다고 설명하곤 하였다. 그러면서 성 신부는 성당 건립을 위한 후원자 모집과 기도를 부탁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저는 항상 건강해서 작은 병도 앓지 않으니 단 며칠도 쉬지를 못 합니다! 저는 늘 저의 운명에 만족하며 착한 사람들 속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와 공로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애쓰고 있습니다.”라고 쓰고 있다.

지금 부족에 시달리면서 성 신부는 만일 라리보 주교께서 돈을 충분히 갖다 주시면 성당을 짓고 그렇지 않으면 프랑스로 떠나겠다고도 했다. 모금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쉬러 갈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꼭 건축기금이 모아져서 성당 축성 후에 휴가를 떠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한때 성당 공사가 진척이 되지 않아 약간의 실망이 되기도 하였지만 그의 소원대로 성당 공사는 진행되고 있었다. 성 신부는 이제 휴가비에 대한 염려를 내비치면서 어서 성당 공사를 마쳤으면 좋겠다고 제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달라고 하였다.

이제까지 논산의 성 신부는 신자 사목과 선교를 위하여 분투하였다.

신자들의 성사 생활을 돕고 교리교육, 영적 지도, 신심행사와 공소 방문, 예비자 교리, 세례식, 대사회

적 관계, 행사, 개신교 투쟁 그리고 중학교 운영과 사제관, 수녀원, 성전 건립, 학교 건물, 양로원 등. 건축 관계의 일이며 그 외에 교구 관계의 일, 파리의방선교회와 관련된 임무, 경조사 참석, 외부 피정 강의 등. 쫓자고 들면 열 손가락이 모자랄 만큼 많은 일들을 열정적으로 해내었다. 자기 자신의 건강을 챙길 여유는 없었다. 그런데 지금 성전 건립을 성공적으로 해낸 성 신부는 개운하고 흥겨운 기분이 되었다. 그는 시메온의 노래를 부르며 영육으로 쉬어야 할 때가 왔음을 감지하였다. 참으로 때맞춘 귀향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프랑스로 가서 병원에 입원하다

성 신부의 소원대로 성당은 신축되었고 축성식까지 마쳤다. 사제 수품 25주년을 기념하는 은경 축하도 풍성히 받아 낸 그는 1961년부터 허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1962년 2월에 병고 치료차 프랑스로 귀국하였다.

5월 10일 성 신부는 파리의 한 병원에서 자신이 설립한 서울 성가소비녀회 고시몬 원장 소비녀에게 편지를 썼다. 몇 가지 검사와 사진을 찍고 진찰을 받고 보니 허리에 큰 병이 있어서 현재 입원 중이라는 소식이었다.

그는 파리에 있는 집 주소와 병원 주소를 알려 주고 누워서 기도하였다. 성가수녀들 거룩한 소비녀 되라고, 천주의 연장이 되라고 침대에서 강복을 내리며 기도한다고 하였다. 병을 낫게 해달라는 것보다 천주의 뜻을 잘 이행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해 12월 바 또랑(Bas Thorenc) 병원으로 이동 입원하였다. 거기 외팔고 높은 산중에서도 허리병 치료를 위해 장시간 누워있어야 했다.

“... 눈이 많이 내려서 밖에 나가지 못 합니다. 날마다 16시간을 누워있습니다. 조금씩 낫는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 국가를 위하여 상이군인이 된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듯이 나도 천주와 영혼을 위하여 다니느라 허리를 다쳤으니 한편으로는 매우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심판 날에 천주께 많은 공로를 드릴 수가 없으니 적어도 나의 다친 허리를 바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약을 많이 복용하다 보니 자주 구토를 느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모든 것에서 멀리 떠나와 있어야 하는 외로움에 종종 향수에 젖기 일쑤였다. 다만 성가회 수녀들로부터 편지를 받아보는 것을 위로로 삼으며 그것을 천주께 순명하는 시간으로 봉헌하였다.

1963년 1월이 되었다. 그의 건강은 호전되었다. 좀 더 오래 서 있거나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니스(Nice)까지 장을 보러 가기는 이른 상태였다.

성 신부는 설립자로서 소비녀들의 영신 생활을 도와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담아 그들의 축하와 위로에 감사하였다.

1963년 10월 중순경 성 신부는 퇴원한 것으로 보인다. 고향 에맹의 자끄 형님 집에서 8일간 머물렀고 24일에 파리의 집으로 돌아갔다.

선교주일에는 미사 3대를 바치며 강론을 하였다. 미사 후에는 연회실에서 에맹 주민들에게 한국에 관한 강연을 하였다. 에맹 시장 장례미사에서는 부제 역을 맡아하였다. 무엇보다 성 신부에게는 곳곳에 스

며있는 엄마 아빠의 추억을 확인하며 보낸 시간이기도 하였다.

그는 최근 선교회지에 실린 기사를 따로 뽑아서 마르그리뜨에게 편지와 함께 보내주었다. 그 기사 제목은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는가!'였다. 그 밑에는 배가 고파 울고 있는 한 아이의 사진과 함께 '한국은 배가 고프다/1953년 대전'이라는 설명이 있다. 그 하단에는 '한국에 있는 쌍제(SINGER) 신부에게 후원금을 보냅니다'라는 글과 파리외방선교회 주소와 사서함 박스 주소가 적혀있었다.

그는 이번 기회에 프랑스 북부 지방을 한 바퀴 도는 여행을 할 생각이었다. 덩케르크 쪽으로 해서 카셀, 릴 그리고 루배를 도는 것이다. 건강은 그럭저럭 버티고 있지만 좀 지치고 기운도 없는 상태였다.

완쾌하여 한국으로 돌아오다

1964년 1월 21일 성 신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짐을 쌀 준비를 하면서 성가회 원장 스펀라스티카 수녀에게 소식을 알렸다. 4월 7일에 마르세이유 항구를 떠나서 동경을 경유하여 5월 10~12일 경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MEP 잡지 에피파니에서는 실제로 그가 한국에 돌아온 날은 휴가를 떠난 지 2년 반 만인 6월 13일이라고 전해주고 있다.

이때 설립자 성 신부는 시간을 알릴 때마다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려주는 루르드 시계 두 개를 소비녀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었다.

배편과 항공편을 번갈아 타면서 5월 8일 페낭 섬에 도착한 성 신부는 거기서 두 주간을 머물렀다. 쌍모르 성모 수녀회에서 두 번의 미사를 드리고 작은 자매회의 11명 수련자들에게 4일간, 18일에서 22일까지 공동체 전원에게 피정을 지도하였다.

싱가포르에서는 비낭 섬에 가서 1개월간 피정 강론을 하였다. 베트남 배를 타고 6월 1일에 홍콩에 도착하여 파리외방선교회에서 머물렀고 그 목요일에 고베에 상륙하여 동생 수녀 테레즈를 만났다. 페낭에서 동생들의 편지를 받아 보고 성 신부는 기뻐하며 한국으로 돌아왔다. 예정보다 1개월 늦은 일정이었다.

제 6 장 _ 성 신부 홍산 본당 주임으로 가다

1964년 7월 1일~1969년 12월 28일

논산 본당을 떠나 지병 치료차 프랑스에 갔다가 돌아온 성 신부는 7월 1일 홍산 본당 주임으로 이동하였다. 50세가 훌쩍 넘은 성 신부는 이제부터는 좀 더 육신의 건강을 보살펴야 하는 시기에 당도한 것 같았다.

1. 홍산 본당의 상황

홍산 성당은 금사리, 규암과 함께 부여 군내에 있는 세 개의 본당 가운데 하나이다. 처음에는 금사리 본당의 관할 공소였다. 가난한 농민이 대부분이었으며 인원수로도 열세였다. 6·25 이후 성당에 구호물자가 나오자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모여들어 영세자가 늘었다. 1950년대 중반기에는 5백여 명의 신자를 확보하게 되었고 1955년 최세구 신부가 대지를 매입, 성전을 건립함으로써 대전교구 소속 본당으로 승격하였다. 1961년 사제관을 건립하였고 제2대 김동익 신부까지는 금사리 본당 주임을 겸임하면서 그 본당의 공소 격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홍산의 젊은이들은 도시로 일하러 나갔고 나머지 신자들은 생계유지마저 힘든 상황이었다. 밀가루 옥수수 등의 구호물품이 떨어지면 그들은 냉담자가 되고 말았다.

12개의 관할 공소는 넓은 지역에 산재해 있어서 어려움을 주었다. 주일미사 참여자는 2백 명 정도, 평일에는 6~7명 정도였다. 학생들은 진학을 위해 큰 도시로 나갔고 그 지역의 조그만 중고등학교는 텅 비게 되었다.



홍산 성당



홍산 성당에서

그 해 8월 아직 시원찮은 건강을 챙기며 성 신부는 보좌 없이 혼자서 살고 일했다. 혜화동 시절 제2차 대전의 와중에서 얻은 질환 스프루 때문에 혀와 소화관이 신통치 않아서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을 먹으면 배탈이 자주 났다.

홍산에 와서 성 신부는 외로움을 느꼈다. 9월 13일은 성신부가 만 54세가 되는 날이었다. 주일날이라 방에서는 몇몇 아이들이 그림 토막 맞추기 놀이, 나뭇조각 맞추기 놀이 등등 끈기를 요하는 놀이를 하고 있다. 그들의 지껄이는 소리를 들으며 성 신부는 동생들에게 아이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을 거라며 편지를 썼다.

성 신부를 돕는 이는 세 사람이 있었지만 이렇다 할 본당의 사목 방침은 확립되어있지 않았다. 안살림을 돌보는 한 엘리사벳이라는 독신녀는 영세 예비자들과 교우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환자들을 방문하는 임무도 맡았다. 열네 살짜리 여자아이는 빨래를 하고 엘리사벳의 지도로 식사 준비를 한다. 또 역시 같은 또래의 남자아이가 있는데 불쌍한 언청이로 밖에 나가지만 하면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어 버린다. 그 아이는 베드로라고 하는데 정원을 손질하고 성당 앞마당을 청소하며 신부님의 차가 고장 날 때 도와주는 일을 한다.

2. 성 신부 본당의 일을 시작하다

성 신부는 성탄 전에 6개 마을을 방문하였다. 주민 일만 명이 되는 3개의 면에 총 60여 개의 마을이 있다. 신자들에게 성사를 주고 냉담자들이 적지 않음을 알았다.

성탄절 영세자가 두 명뿐이었다. 지금에 와서 소위 구호 밀가루 신자들은 정말 밀가루처럼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래도 그는 성탄을 준비하고 있었다. 구유를 사 오고 양탄자도 사 왔다.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신자들은 구유가 뭘지 보게 될 것이다. 양탄자를 맨바닥에 깔고 미사를 드린다. 자정미사 전 독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고 젊은이들, 소녀들, 부인들, 아이들이 손수 제대를 차리게 할 것이다. 그다음에 사제가 나와서 미사를 시작한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여기에 오신다는 것. 예수님은 백만 프랑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시고 나머지는 일 프랑도 안 되는 것임을 알아들으리라!

우선 이미 있는 교우들을 교육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성 신부는 미사 강론을 통하여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좋은 표양을 내도록 권고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냉담 교우들과 배교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했다.

개신교 교회들은 많다. 비교적 작은 지역 안에 7개의 교회가 있다. 게시판을 이용하여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들을 유인하는 작전을 썼다. 교우들의 글을 게시하고 호교 포스터도 붙이고 본당 신부의 질문도 작성하여 붙이고 컬러 사진도 설명을 달아 붙였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읽고 하면서 조금씩 눈치채지 않게 가톨릭 바이러스를 집중시키는 방법이었다. 그는 편지로 자신이 이러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톨릭 학교 교사인 여동생 마르그리트 수녀에게 협조와 도움을 청하였다.

행복한 도약

홍산 본당에 와서 해가 바뀌었다. 1965년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성 신부는 논산에서와 같은 주일신부의 일상을 되찾아 갔다. 미래의 성당 건립을 위한 부지를 이용하여 약간의 작물을 심어 먹을 수 있기도 하였다.

그는 8일간 교우 촌을 방문하며 그들과 먹고 자고 지냈다. 부활 대축일 예식 준비를 거의 혼자 하다시피 하였다. 성인 영세자는 5명이었고 성령강림절에 2명을 더 얻게 될 것이다. 성당에 나오는 신자들은 차츰 성 신부를 알기 시작했다.

개신교 교회로 가버린 냉담자들도 많았다. 그 교회들은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설교하면서 종종 가톨릭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다. 홍산 성당 근처에 2개의 교회가 있는데 매일 새벽 4시 30분과 저녁 9시에 노래를 부르고 주일이면 그 횃수가 더 잦아져서 성 신부는 더욱 화가 날 지경이었다.

8월 한 달은 방학 기간에 네 명의 신학생이 본당에 와서 25명의 어린이 교리 교실을 담당해 주었다. 이들은 방학만 되면 성 신부의 사제관에 와서 지냈다. 그는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어린이가 오도록 시간을 조절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성탄 때부터는 냉담자들을 권면하고 예비자들을 데려와야 한다. 농사를 지어줄 유급 회장과 복사를 겸할 기사를 한 명 채용할 것이다.

더위가 지나고 잘 먹고 잘 잔다고 할 만큼 성 신부의 건강은 좋아졌다. 음력 8월 보름 한가위 풍속은 성 신부를 놀라게 하고 또 찬사를 보내게 했다. 조상의 묘 앞에 햅쌀밥을 바치는 풍속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날 미사에는 주일만큼이나 많은 교우가 나와서 먼저 가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9월 10일 주일에는 세 대의 미사를 드렸다. 약 270명의 신자가 참석하였다. 아이들 떼가 놀러 왔고 주일은 그렇게 지나갔다. 가르쳐야 할 예비자도, 병자 방문도, 장례도, 혼인도 없었다. 홍산에서는 그저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성 신부를 행복하게 하였다.

살림 이외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다. 건강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아졌다.

성 신부는 차로 가끔 외출도 하고 종부성사를 주러 가기도 하였다. 농사도 잘 되었다. 언젠가 또다시 건축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다짐하며 그때를 고대하였다.



개신교 신자들에게 알리는 벽보

개신교 예배당 대책

4개 교회의 개신교도들은 틈만 있으면 성모마리아를 흠송한다느니, 사제가 독신이라느니 하면서 가톨릭을 헐뜯고 있었다. 성 신부가 이에 응수하기에는 사실 교우수가 너무 적고 분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출자들이 속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비자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혼인성사



혼인성사 기념

가을 공소 방문을 다 치르고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성탄 준비에 들어갈 것이다.

성 신부는 이번 성탄에 천주교에 관한 8쪽 분량의 소책자를 인쇄하여 4개의 면에 있는 모든 집에 배포할 계획을 세웠다. 성당 사진과 소개의 글, 그리스도의 성상과 그분이 누구신가? 교황을 알리는 사진과 설명, 한국 주교 사진과 하는 일, 본당 신부의 사진과 사제에 대한 설명, 권고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넣기로 하였다.

그것은 에댕 본당에서 전교주일에 헌금을 해서 보내준 돈으로 만들 것이다. 마지막 심판 날에 초대받은 적이 없다고 핑계를 댈 수 없도록 그들을 잔치에 초대한다는 말이다.

논산 성당의 규모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홍산이었지만 성 신부는 나름 열 배 분발하고 투쟁하는 기상으로 매일을 최고의 날로 만들어갔다.

3. 홍산의 성 신부 서울 성가소비녀회 수녀를 초청하다 1966년

황혼기 해바라기

성 신부는 56세를 맞이하며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고 있음을 의식하였다. 장미나무를 자르다가 가시에 찔린 손가락이 아프고 부어오르는데 참고 기다리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든지, 올리비에 신부가 규암 본당으로 와서 불어로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좋아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들. 반면 성 신부 자신은 6개의 공소를 맡았을 뿐인데 그 신부는 2개의 본당과 27개의 공소, 4천 명의 신자와 셀 수 없이 많은 입교 예비자들을 돌보는 본당 신부로 부임해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비교가 되어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부활절을 기해서 적어도 10명의 영세자를 기대하고 있는 성 신부였다.

성 신부는 칠팔월 짐통더위에 매일 오륙십 명 아이들에게 영사기를 돌리며 교리를 가르쳤다. 바닷가로 나갔는데 목과 팔 다리에 화상을 입고 돌아왔다. 곧 나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성가소비녀회 수녀 두 명이 홍산 본당에 왔다. 사제관과 식복사집, 그리고 임시 강당으로 지은 집을 성당으로 쓰고 있었는데 성 신부는 식복사 집 방 한 칸을 수녀들이 쓰게 하였다. 성 신부는 11월에 들어서 3주 만에 수녀원을 지었다. 에댕의 수도원장 신부의 도움으로 7천5백 프랑의 공사비가 들었다.

곧 움직임이 일어났다. 수녀들은 나름대로 전교 방식을 세웠다.

먼저 병자들을 찾아 사귀고 임종자에게 대세를 주며 그 가족을 성당으로 인도하였다. 제의실과 어린이 교리반은 물론 본당 구역을 방문하며 아이들과 예비자들을 교육하였다. 다음으로는 냉담자를 찾아 회개를 권장하고 교리를 가르쳤다. 종교에 호감을 갖고 있는 외교인들을 권고하기도 잊지 않았다.

그 방법은 그런대로 그곳 주민들에게 수용이 되었다.

간호사 경험이 있는 명 마리아 수녀는 환자들에게 직접 주사도 놓아주고 치료를 해주었다. 성 신부의 배려로 자전거를 구입하여 장거리도 마다않고 다니며 전교하고 돌보았다. 성 신부는 “소비녀들, 침단을 걸어야 합니다. 나 역시도 뒤떨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며 바로 서울에 올라가서 자전거 2대를 사다 주었다.

본당 근처에는 영양실조로 부스럼과 중이염을 앓는 아이들이 많았다. 수녀들은 안 주교님께 가서 간유와 비타민을 많이 얻어다가 그 아이들에게 먹였다. 그들의 병은 곧 깨끗이 나았다. 수녀들은 가능한 한 환자들에게 주사도 놓아주고 불편을 덜어 주려고 노력했다.

선교사의 전환점에 들어서다.

1965년 대전교구장 원형근 라리보 주교는 현직에서 물러나고 한국인 주교가 들어섰다. 이 시점에서 프랑스인 선교사들은 새로운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집처럼 여겼던 주교관에 별로 가고 싶지 않게 되었다. 새 주교님은 언제나 한국인 사제들을 감싸고도는 것 같았고 성 신부는 마치 옛날 제자들의 제자가 되어버린 느낌이었다. 그래서 점점 선교사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것에 대한 성 신부의 생각은 해외 선교사들을 현지인 재량 하에 두어서는 안 되고 독립된 영역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만한 마음에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불편한 점이 너무 많고 한 마디로 팔을 잘라 놓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불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정신적으로 일종의 배신감 같은 것을 느끼면서도 올해에는 50명 정도, 내년에는 최소한 100명 정도 영세시키려는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였다. 토요일에는 젊은이처럼 7곳의 공소를 향해 방문을 떠났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결정에 따라 새로 바뀐 전례를 적용하여야 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평만 일삼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 성 신부는 난감함을 금할 수 없었다. 자신이 무능한 사람들에게서 교육을 받았고 속았다는 느낌도 들었다. 그러나 본당 일을 위하여서는 그 모든 고초를 돌파해야겠기에 그는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였다.

4. 신앙의 힘으로 버티나가다 1967년

6월 29일 성 신부는 영명축일에 홍산 교우들의 성대한 축하를 받았다. 미사와 축하식 그리고 축제 마당을 벌이도록 그 모든 준비는 수녀들의 몫이었다. 오후 4시 미사에 이어 감사와 선물 증정이 있었고 아동들의 춤과 노래의 향연이 펼쳐졌다. 교우들은 동료 사제 6명의 식사를 위해 돈을 썼다. 담배와 바지, 라이터 등 개인 선물도 잊지 않았다. 성 신부는 교우들과 함께 모여 가족처럼 지내는 이런 시간이 매우 좋았다. 그는 만족하였다.

주교님의 뜻에 따라 한국인 성직자와 함께 피정을 했다. 그에 대한 성 신부의 평가는 완전히 망쳤다고 하였다. 한국말로 하는 강론은 졸렸고 침묵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도 성무일도, 목주기도, 미사 등을 같이 바쳤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했다. 그 나머지는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해주시리라고 성 신부는 믿었다.

올해에도 여름방학(7월 24일부터 1개월)이 오면 네 명의 신학생이 와서 어린이들 교리반을 하게 된다. 학교 다닐 때는 수업시간이 있어서 이부제 수업을 하게 되어 아이들을 한 번에 모으기가 어려웠다. 성 신부는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성 신부는 가난한 신학생들을 지극히 사랑하였다. 개학이 되면 구두와 양복을 사서 보냈고 알사탕을 사서 면회도 갔다. “너희 내가 죽으면 나 대신 미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자주 말씀하셨다. 그중 윤중학, 윤중관, 윤중수 등 세 명의 신부는 대전교구이다.

성모승천 대축일에 몇 명이라도 영세자를 얻기를 바라는 성 신부는 훌륭한 교우들을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서 농촌 교우들의 상황을 타타하기도 하였다. 맨 먼저 섬겨야 할 분은 하느님이지만 농번기에는 번번이 그 순서가 반대로 되는 것을 말이다.

성 신부는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선교활동으로 도서관을 설치하였다. 300권의 책을 갖추었는데 주말마다 아이들이 적어도 50권의 책을 빌려 갔다가 다음 주일에 그것을 다시 가져온다.

13세 소년이 그해 소신 학교에 입학하였다. 홍산 본당에는 이제 5명의 소신 학생이 있는 셈이다. 그는

8남매 중에 둘째 아들이며 건강하고 열심히 하여 추위에도 불구하고 3년 전부터 매일 미사 복사를 해왔다. 반장이고 공부도 매우 잘하는 학생인데 그의 아버지는 웅기장이어서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직업이라 그것이 좀 유감일 뿐이다.

성 신부는 양 떼들과 군중들 가운데서 사는 것을 자신의 천직으로 삼아왔다. 그것은 주님 사랑의 현존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일이었다. 그의 사도직은 그렇게 해서 감동을 주는 돌봄의 사도직이 되었다.



영세기념

5. 병고의 시련을 뚫고 나가다 1968년

인내와 격려함으로

겨울 추위에 성 신부는 허리 통증이 재발하였다. 감감한 터널 속을 지나는 것 같은 시간에 마르그리트 수녀가 파리에서 보낸 100프랑을 받아들고 마음이 훈훈해졌다.

그러면서 지난 성탄 때 30명의 영세자가 나왔음을 하느님께 감사하였다.

본당의 영세자 수를 성적의 기준으로 삼는 성 신부는 부활 때에도 그저 그만큼의 영세자를 기대하고 있었다.

한편 그는 교구의 한국인 주교 자문의 일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 이유는 그 자문단이라는 것이 항상 깨끗하지만은 않을뿐더러 거기에는 음모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선교사들이 그런 것에서 완전히 떠나 있어야 한다는 철칙을 고수하고 싶었다. 총회 때에는 프랑스인 선교사들의 입지가 투명해질 것임을 그는 믿고 있었다.

금전적으로는 수지가 맞지 않아 걱정이 많았지만 140명이 넘는 영세자와 191명의 견진자들을 준비시켰다. 서울의 성가소비녀회는 창설 25주년을 맞이하여 일본에 있는 동생 테레즈 수녀도



견진 기념



교리실 앞에서 수녀와 아이들



토끼와 토끼 집



가마니틀



홍산 아이들 (사제관에서)

오게 할 것이다.

휴가 계획은 일단 1970년에 가는 것으로 하였다. 8년마다 6개월씩 하던 것이 이제 6년마다 5개월의 휴가로 그 규율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10월에 들어서 성 신부는 58세라는 세월의 무게를 다시금 느끼며 스프루 질환 때문에 종종 피곤하다고 호소하였다. 늙었다는 느낌, 구세대라는 느낌을 받는 것, 그것이 힘겨워졌음이었다.

10월 6일 로마에서 24명의 한국 순교복자 시복식이 있었다. 거기에 참석하기 위하여 교구 사제 3명과 132명을 태운 특별기가 떠났다. 성 신부는 순교 복자들이 시련 속에서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주기를 바라마지 않았다.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를 업신여기는 시련을 견디어 내야 하는 참이었다. 그는 그들이 한데 뭉쳐있을 때는 한 소쿠리의 너절한 녀석들이라고 애써 폄하하기도 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성 신부는 자기 자신이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아비뇽 근처의 로리 혹은 풀루즈 근처의 몽베퐁 같은 양로원으로 물러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소견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것은 성 신부가 한국이라는 선교지에 올 때는 자기 한 몸을 이 땅에 묻을 의향으로 왔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재고해야 할 것 같다는 것일 게

다. 한국을 사랑하고 설립수도회를 사랑하는 성 신부였기에 오히려 당시의 시련을 이겨내기 위하여 자존적인 합리화를 그렇게 시도해 본 게 아닐까?

6. 성 신부 주님의 섭리에 순응하다 1969년

59세의 해가 저물 무렵 성 신부는 가난한 한국의 생활양식에서 오는 불편함을 감내하여야 하였다. 집안에 물이 부족하고 화장실이 밖에 있기 때문에 겪는 추위와 고생은 혹독하였다.

사제관 문이 잠기지 않았을 때는 35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들어와 같이 앉아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겉옷 속옷 할 것 없이 해진 옷을 입었고 때가 타서 새까만 양말은 다 떨어져 입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성 신부는 그 아이들이 깨끗하게 먹는 법, 밥과 김치 말고도 다른 것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쳤다.

일본의 쌍 모리 수녀회의 여동생 테레즈 수녀는 연말연시를 기하여 만 8일간 홍산본당 주임인 오빠 성 신부를 방문하였다. 그녀는 오빠인 성 신부가 평생을 저렇게 고생하며 살아왔다는 생각에 자기 자신의 부르주아적 생활이 부끄럽게 느껴진다고 할 정도였다.

홍산 본당 신자들은 본당 신부님의 가르침을 따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현장의 정신대로 미사를 봉헌하였다. 그들은 새로 배워서 한다기보다는 마치 핏속에 흐르는 선율을 따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성가를 부르고 기도하였다.

당시 홍산 성당 주변에는 개신교 예배당 종탑이 다섯 개나 보였고 천주교는 단 한 개였지만 신자 수는 그 다섯 개의 예배당보다 훨씬 더 많았다. 작년에 성 신부는 홍산에 와서 100명이 넘는 세례자와 견진자를 내었다. 가난한 하느님 자녀들의 축복이 수백 배 더 많다는 것을 성 신부는 테레즈 수녀에게 당당하게 일



가마니를 찢다



홍산 신행 창립



홍산 신행



성 신부님 자전거



성 신부 송별 기념식



성 신부 송별 기념식장에서



성 신부 송별 기념식장에서

깨워주었다.

성 신부 서울 성가소비녀회로 이동하다

1969년 12월 29일, 성 신부는 드디어 성가소비녀회의 지도사제로 부임하게 되었다.

당시 서울 성가소비녀회는 약 200명의 회원과 50명의 수련자, 청원자, 지원자들을 거느리고 나날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가고 있었다. 학교, 병원, 보육원, 미망인 양재소 등지에서, 그리고 수개의 본당에 파견되어 일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서울 성가소비녀회 수녀들을 사실상 예수님의 사도로 인정하고 있었다. 사도를 돕는 사람은 사도가 받을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명목으로 그는 소비녀들의 후원자를 구하고 있었다. 성 신부는 동생 마르그리트 수녀에게서 10대의 미사 봉헌금을 받고 감사의 편지를 썼다. 그 공동체 원장수녀에게도 최근에 서울에 있는 성가회 수녀원 지도신부로 임명되었음을 알리며 기도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그 이유는 오늘날 참으로 힘겨운 임무를 띠고 있는 사도들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예외 없이 바쁘기만 한 12월 성탄 시기에 그것도 한 해의 마지막 이틀 전에 적어도 5년 동안 짐을 풀고 살던 터를 떠나야 했으니 정신적으로 더욱 혼란스러웠으리라. 그때의 정황을 성 신부는 이렇게 전한다.

“그로 인해 나의 생활은 뒤죽박죽이 되었고, 아직도 나는 향수를 느낀다. 성탄 전에 나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모든 교우들을 만나서 성사를 주었고 아이들과 예비자들에게는 교리 시험을 치르게 했고, 그리고 성탄 축일에는 마지막으로 26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리고 나서 가방을 꾸려 트럭 한 대를 빌려서 12월 29일에 이곳 수녀원에(홍산에서 250Km의 거리) 도착했다. 너는 웃겠지만, 홍산을 떠나는 날 교우들은 초상이라도 난 듯이 한국식으로 소리 내어 대성통곡을 한 것은 물론이고 나도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침체되어 있던 홍산 본당을 새롭게 일으켜 보려고 애쓴 5년여의 시점에서 그는 아쉬움을 남기고 떠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본당 신부의 일을 신나게 치르고 떠날 수 있었던 성 신부였다. 본당과는 판이하게 다른 새로운 직분으로 이동해야 함을 주님의 구원적 섭리로 받아들였다. 그는 이번에도 기쁘게 순명하였다. 그는 여한이 없었다.

제Ⅳ부

서울 성가소비녀회 설립자 성재덕 베드로 신부



사제관에서 집필하시는 성 신부

제4부는 피에르 생제 성재덕 베드로 신부 생애의 마지막 단계를 기술한다.

회갑과 금경축, 투병과 죽음이라는 연대기적인 채널이 소비녀 양성의 날줄과 씨줄의 무늬를 엮어갔다.

설립자 강생과 소비녀 강생을 위한 예수그리스도 강생의 파노라마를 펼쳐게 한다.

해외파견 선교사로서 수도회를 설립해놓고 이십 년 넘도록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온 설립자.

그 일이 성령과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결과였다고는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찌 보면 그의 진정성에

금이 가게 하는 요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앞선다. 성 신부가 설립수도회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적

사연을 간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그는 수도회로 회귀하여 이십 년 넘도록 회원들 곁에 함

께 있었다. 그가 소비녀들과 함께 한 시간은 창설 직후 5년을 합하여 모두 25년이 되는 셈이다.

그리고 보면 오히려 놓칠 뻔했던 설립자의 사실적이고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을 좀 더 깊이 포착하게

된다. 그의 생애와 귀천(歸天)의 역사는 성가소비녀들의 삶과 죽음을 깨우쳐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쓸모 있는 봉사자 하느님의 종, 막을 수 없는 사랑의 강물!

제1장 _ 성 신부 서울 성가소비녀회 설립자로 돌아오다 1969년 12월 29일~1992년 2월 26일

1. 설립 수도회로 귀환하기까지

설립자로서 설립 수도회를 떠나있는 기간에(1948년 6월~1969년 12월) 성 신부의 고통은 늘 그와 함께 하였다.

백동 본당에서 임기를 마치고 첫 휴가를 다녀온 성 신부는 1949년 5월 7일 논산 본당 주임신부가 되어 그 후 설립자는 21년간을 설립 수도회 곁을 떠나 있게 된다. 그는 파리외방선교회의 파견 선교사로서 당시 한국 사회의 요청에 따라 우선적으로 사람 낚는 사도 베드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서울교구장 노기남 주교와 대전교구장 원형근 라리보 주교는 성 신부에게 서울 성가소비녀회를 계속 잘 돌보아 주라는 권고를 잊지 않았다.

이때부터 설립자 성 신부는 자신이 설립한 수도회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시발적인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물가에 나와 앉은 딸자식을 두고 온 심정으로 몸은 비록 소비녀들과 떨어져 있게 되었어도 그의 마음은 군불 땀 아궁이처럼 더욱 뜨거워지기만 하였다.

초기 설립 수도회에 대한 설립자의 관심과 개입

1949년 5월 첫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성가소비녀회의 수련장 수녀의 자리가 비어있음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 그 수녀회에서 질투가 나서 그런지 하여튼 성가소비녀회의 예비 수녀들을 그렇게도 잘 교육해 온 수련장 수녀를 갑자기 소환해 버리고 연세가 많은 원장 수녀만 그대로 두었습니다. 제가 본국에 가고 이곳에 없는 동안(첫 휴가 기간 : 1948년 6월 1일~1949년 5월 1일) 주교는 로마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돌아온 저는 다만... 그 장래에 대해서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무슨 일로 로마에 소송을 제기했는지 모르지만 좀 심각한 일이었을 게다.

성 신부가 아직 혜화동 본당에 있었을 때(1947년 7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말 슬픈 일이 일어났었다. 샬트르 성 바오로회 수녀들이 살고 있는 수원 성당에 소비녀들이 파견되었을 당시의 이야기이다. 주임 사제 심 신부(Desideratus Polly, MEP)는 소비녀들에게 성당 청소를 시키고 성당에 출입시 겸손의 표시로 현관에 친구하라고 할 정도로 시련을 주었다. 소비녀들은 생활비를 벌어서 먹고살아야 하는데 마땅한 일거리가 없어서 배가 고팠다. 그래서 프랑스분이신 심 신부님이 드시는 빵을 구워드리는 일을 소비녀들이 맡아하게 되었는데 서울 본원에 있는 샬트르회 수녀들(원장, 수련장)이 전화로 그 일을 금지시켰다.

신부님 빵 굽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성소자가 있다고 본원에 전화를 하니 수원 파견 두 달 밖에 안된 시점에서 갑자기 선생 수녀가 내려와서는 짐을 싸라고 하여 그들이 시키는 대로 본당 주임 심 신부께는 ‘생활비도 안 주고 곤란해서 더 이상 못 살겠으니 가야 하겠다’고 거짓 고백을 하고 그 이튿날로 와 버렸다는 사연이다.

이러한 일로 해서 샬트르 수녀회에서는 성가소비녀회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을 것이고 교회법적으로 송사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한 일의 원인은 물론 다른 수도회의 수녀가 이미 있는 본당에 소비녀를 파견한 설립자 성 신부의 카리스마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대로 따라주지를 못하였다. 더구나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의 수녀들이 먼저 파견되어 있는 본당에 성가회 수녀들이 추가로 파견된 그 자체로 상당한 무리수를 두는 일이었음을 간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초기의 눈물겨운 실패에도 불구하고 설립자의 의지는 점점 더 철석같은 믿음으로 성가소비녀회를 지켜 보게 하였다. 논산 본당 주임 신부로서 서울을 자주 왕래하기는 쉽지 않았다. 대건 학교 운영 문제로 고심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욱 그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신부는 피정 지도를 위해 서울에 있는 성가소비녀회에 부지런히 출입하였다.

“내일(1949년 6월 26일) 성가 수녀회 피정 지도를 위해서 서울로 갑니다. 기차로 8시간이나 걸리지요. 성가회를 떠날 때는 마음이 아주 슬펍습니다. 그 수녀회는 잘 되어 가는 주님의 사업입니다. 로마에서는 수정된 회헌을 보내왔습니다. 입회 신청서는 34장이나 들어왔습니다.”

설립자 부친의 선종 소식을 들은 성가소비녀회 수녀들은 그를 위해 미사를 봉헌하였고 9일간 영성체를 하였다.

6·25전쟁 시에 합덕 본당 수녀들은 전쟁의 여파로 인하여 모든 가구들을 손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림을 다시 시작하였고 그곳에서 4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고 있다는 보도를 성 신부는 듣고 있었다.

1952년에는 또 어머니가 돌아가심으로써 애통하여 마지않았으며 수녀들에 대한 소식도 암울하기만 한 시절이었다. 성 신부는 거처할 곳도, 돈도, 직업도 없는 수녀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성모무염시대 축일에는 그녀들을 위해 미사를 올렸다. 수녀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다.

성가소비녀회 수녀들이 드디어 자립을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샬트르 성 바오로회 수녀들이 성가회 수녀들을 이끌었는데 이제 그들이 떠나고 설립 당시 백동에서 성 신부와 함께 수도회를 시작한 수녀가 장상으로 임명되었다. 불행하게도 그 일로 하여 수녀들 사이에 약간의 마찰이 있었겠지만, 곧 원만히 해결되리라 그는 믿고 있었다.

서울 성가소비녀회가 자립하게 된 배경에는 부산 피난시절부터 노 주교의 개입으로 진행된 일이 있다. 6·25동란 시기에 성가소비녀회 수녀들도 피난을 갔다. 부산에서 수녀들은 김은주 씨 댁에 방을 얻어 거처하며 10명 정도는 부산에서 또 10명 정도는 제주도로 가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다. 수녀 2명은 행방불명이 되었고 다른 2명은 공산군들에게 감금되었다가 무사히 풀려났다. 그때 부산에서 소비녀들은 노기남 주교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성 신부는 설립자의 입장에서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으나 하느님의 일이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

고 기다렸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해결이 잘 되었다.

김 엠마누엘 수녀가 제2대 원장으로 당선된 것은 1952년 11월 21일이었고 샬트르 성바오로회 원장 수녀와 수련장 수녀가 실제로 성가소비녀회를 떠난 것은 12월 8일이었다. 그리고 숨 돌리는 1953년을 맞이 하였다.

성 신부는 소비녀들을 우리 성가회의 수녀들이라 부르면서 백여 명에 이르는 그들의 생활고를 돕고자 고심하였다.

1958년 1월 3일 자 편지에 성 신부는 "... 문제는 그들의 생활난인데 수녀들이 잘 알아서 해가고 있지만 그래도 손을 도와야 할 텐데. 수녀들은 거의 4백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먹이고 재우며 노인들을 돌본다." 라고 여동생 마르그리트 수녀에게 썼다.

고아원은 소사의 성가보육원을 비롯하여 당진, 제천, 평택, 합덕 등지의 보육 시설을 망라한 모든 보육 원을 말한다. 1953년 1월 23일에 인수한 후암동 양로원이 부천으로 이사한 것은 1958년 4월이었다.

1957년부터 1969년 지도사제로 부임하기까지 설립자 성 신부는 서울 성가소비녀회 원장수녀들과 서신을 교환하면서 행정과 영성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고 실제적인 친분을 이루어 나갔다.

설립자 성 신부의 고통과 기도

1962년 5월 신병 치료차 파리 눈제세(Nungesser)가의 집에 가서 성직자 병원(Hopital Pasteur, Pavillon Louis Martin 205 Rue Vaugirard, Paris 15e)에 입원하였을 당시 성 신부는 암담한 생각에 젖어있었다. 허리병 때문에 미사도 못 드리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 년 이상 그렇게 쉬어야 했다. 한국에 다시 가더라도 많이 걸여 다니지도, 본당 신부 노릇도 못하고 주교님이 허락하신다면 수녀원 지도신부가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고 시몬 원장수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편지를 썼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바 토랑(Bas-Thorenc) 휴양소로 옮겨갔다. 거기서 그는 장시간 누워서 책 보고, 신공하고, 약과 밥을 먹고, 자고, 매일 '베아네스' 혈관주사를 2시간씩 맞으며 '스트랩토', '레비퐁' 같은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를 받았다. 한국에 갈 시간은 기약할 수가 없던 시기였다. 그래서 그는 슬픔 중에 울고 싶은 나날이었다고 한다.

해발 1,200미터 고지대의 한 휴양소에서 그것도 장애인 사제들을 위한 휴양소에서 성 신부는 소외감에 휩싸였다. 백동에 있을 때 성가소비녀회 설립 초기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치는 가운데 하느님 현존 의식은 더욱 깊어져갔다. 그는 한국을 그리워하며 막연히 자신의 앞날을 그려보게 되었다.

"엠마누엘 수녀가 성모 노래 나오는 시계를 원했지만 내가 지금 보낼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가소비녀회를 저버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가끔(자주) 생각합니다. 신공 중에도 소비녀 위해서 강복해 달라고 합니다."

그는 휴양이 끝나고 바로 성가소비녀회 지도신부로 임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성 신부의 뜻과 주님의 응답

프랑스에서의 휴양 기간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홍산 본당이 성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논산 본당 임기를 마치고 홍산으로 이동하여 1년이 지난 1965년 성 신부는 뜻밖의 소식을 듣고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다고 하였다.

"지금 한 가지 이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나는 그 문제에 대하여 조금도 교섭한 적도 없고 청한 적도 없으며 더욱이 원의도 없었습니다. 맹세할 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홍산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포항 예수성심 시녀회!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유(Lucas) 신부 대신



창립 25주년 기념식



창립 25주년 기념 축제

영적 지도 신부를 맡으라고 갑자기 임명을 받았습니다.”

성 신부는 이 일이 대구교구의 서정길 대주교님의 요청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성가소비녀회를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한다. 성가회 설립 이후로는 오직 성가수녀회에만 생각이 있고 포항 성심회에 갈 마음은 추후도 없었는데 도대체 이게 웬 날벼락 같은 일인가! 하는 말이다.

그러나 어쩔 것인가? 천주의 뜻만을 시행하려는 성 신부는 마음속으로는 싫어도 임명 받은 그곳으로 가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그가 막상 떠나기도 전, 같은 해 그의 운명은 바뀌었다. 부주교의 명으로 홍산에 더 있게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성가소비녀회 고 시몬 원장수녀는 1969년 서울 대교구 김수환 추기경에게 성 신부를 영적 지도 사제로 모시게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성 신부는 대전 참의원 회의에 참석하여 그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성 신부는 대전교구 소속 사제였으므로 그 회의에서 황 주교는 여전히 반대하였



창립 25주년 기념촬영

다. 동시에 파리의방선교회 지구장 최(Jézégou) 신부는 확실한 계약을 원하였으므로 결정적 시기는 좀 더 지연되었다. 그러다가 11월 중에 성가회 지도신부로 임명되었고 마침내 성 신부는 그 해가 넘어가기 직전 12월 29일 홍산을 떠나 오매불망 그리고 그리던 서울 성가소비녀회로 옮겨 오으로써 그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성 신부는 논산 본당 소임을 받을 때에도 그랬다. 처음에는 대전 주교좌 성당으로 발령을 받았다가 한 달 이내에 논산으로 바뀌었다.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설립 수도회 지도신부로 오게 된 것이다.

성 신부는 그만큼 희소가치가 있는 인물이었나 보다. 어쨌든 그가 자신이 설립한 서울 성가소비녀회로 돌아오기까지 만만치 않은 세월을 보내야 했다. 성가소비녀회는 바로 지난해 1968년에 설립 25주년을 맞이하였고 그는 그 기념식 자리(1969년 1월 10일)에 참석하여 설립자의 격려사를 내려주지 않았던가!

주님의 뜻에 순명하기 위하여 흘린 성 신부의 눈물을 보시고 주님은 그의 인간적인 소원을 들어주셨다.

제 2 장 _ 성 신부 서울 성가소비녀회의 지도사제가 되다 영성 강의, 미사 강론, 기타 훈화 가르침

1. 수도공동체로 돌아온 성 신부의 감회

논산이나 홍산에 있을 때 성 신부는 성가소비녀회를 떠나 있는 설립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소비녀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위로해주며 외부에게 소개하면서 후원자를 구하여 왔었다. 이제는 서울 성가소비녀회의 현장에 자리매김한 최상의 권위자이며 지도자로서 공동체와 함께 매일을 살아야 하는 몸이 되었다. 그는 지금 60세가 된 원로사제이다. 소비녀들이 자신을 설립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었다는 사실과 함께 이러한 소임과 직분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편 개인적인 부담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도 않은 실정이었다.

“... 홍산에 있을 땐 비록 불편해도 나는 주임 신부요, 대장이요, 농사꾼으로 지내며 어린아이들에서부터 노인들까지 두루두루 살펴보고 또 매일 식사를 할 때면 언제나 열 명에서 스무 명에 이르는 아이들이 내 식탁을 둘러싸고 나를 바라보며 재잘거리곤 했는데, 이제 여기는 전혀 달라서 공간도 없고 전담도 없고 자유도 없고, 물론 도시 한복판에 내가 창설한 커다란 수도원을 바라보면 위로는 되지만 그래도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곳에 갇혀 있고 이제는 주인도 아니라서 총장 수녀가 정해진 시간에 미사도 드리고 기도도 바쳐야 하고, 보이는 건 여자들뿐이고, 여자들이 시시때때로 내 방 안에 들어와서 곳곳을 뒤지고 이것저것 만지고 내가 정리해 놓은 것을 다른 곳에도 갖다 놓고, 내 물건을 내가 찾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루는 화를 내버렸다. 온종일 내 시중만 드는 수녀가 한 명 있는가 하면 또 한 수녀는 아침마다 청소를 해주고, 나는 마치 딸들한테 떠받들려 사는 아빠 같구나. 시골이나 베트남에서 고역을 참고 견디는 동료들을 생각할 때면 나는 내가 창피하다!”

이렇게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기도 하는 우리의 설립자 성 신부는 서울 성가소비녀회 25주년 기념 책자(1968년 12월 25일)의 기고문을 통하여 성가소비녀들에게 적극 권장하였던 그 공동체 생활의 어려움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견디어 내어야 하는 상황에 부딪친 셈이 되었다.

“천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생활



설립자 성 신부 미사



정릉 수녀원 본원 구 사제관



홍산 제막



새 사제관



구 사제관 앞에서



설립자 흉상

양상은 공동생활입니다. 공동생활이 어렵다 말고 항상 서로 화목하고 복음삼덕을 지키며 일의 필요성을 깨달아 이것 또한 하느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십시오.”라고 하였건만 지금은, 보이는 게 여자들뿐이고, 마치 딸들한테 떠받들려 사는 아빠 같으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고역을 참고 견디는 동료들을 생각할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성 신부였다.

여성들의 수도 공동체 옆에 있어주어야 하는 그의 소임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수녀들이 당신 눈에 거슬리는 것들을 할 때 그들은 여자들일 뿐 더 이상 수녀로 보이지 않는 자기 자신의 시각에 스스로 충격을 받으며 그것을 합리화하는 성 신부,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평범한 인간 성 신부였다.

한 편 성가소비녀회로 돌아온 후, 약 9개월의 시점에서 설립자 성 신부가 파악한 수녀들의 이미지는 그



구 수도복

의 기대에 온전히 부응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는 마르그리프 수녀에게 소비녀들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나는 선의로 가득 차 있는 수녀들과 지내고 있다. 하지만 수녀들은 네가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적 격세유전(隔世遺傳) 같은 것은 지니지 못한 어린아이들 같아서 어떤 의미로는 옛날식의 수녀 생활을 고집하여 의복도 바꾸려 하지 않는다.”라고 피력하였다.

격세유전이라면 ‘생물의 성질이나 체질 등

의 열성형질이 일대 또는 수 대를 걸러서 나타나는 유전’이라는 뜻인데 소비녀들이 그와 같은 생리적 열성형질을 지니지 못했다 해서 무슨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역사적으로 성가소비녀회 수녀들의 수도복에 대한 성 신부의 견해는 때때로 살짝살짝 비쳐 왔다. 1966년 구 수도복이 현재의 수도복으로 바뀌었을 때에 그는 이미 “나는 성의(聖衣)를 입어야 하는 수도원을 세운 것이 아닌데...” 하며 불만을 내비쳐 보였다.

설립자 성 신부 자신은 사도적 수도회를 세웠는데 정작 수녀들은 봉쇄 관상 갈멜회 같은 수도복을 만들어 입었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다. 설립 초기에는 규격을 갖춘 수도복이 아니라 일하기에 간편한 복장에 모자를 쓰면 그것으로 그만이었다. 설립자는 처음부터 정식 수도복보다는 봉사하기에 간편한 복장이나 사복을 더 선호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1979년 12월 5일 자 편지에서도 한국 성가회 수녀들은 청원자부터 모두 복장이 비슷한데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수녀들 자신이라고 한다.

당시의 성가소비녀들이 지니지 못했던 그리스도적 격세유전이라고 할 때 그것은 아마도 그리스도교 역사가 오래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서 치렁치렁한 수도복을 걸치고 중세풍의 수도생활을 동경하는 소아적 경향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어쨌든 설립자 성 신부는 지금 설립 수도회의 수녀들한테 불러 와서 생활이 뒤죽박죽되었고 아직도 본당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소비녀들의 아버지 성 신부가 되었음을 확실하게 체감하며 그것을 또한 풍자적으로 즐기고 있었다 하여 틀리지 않을 것이다.

2. 소비녀 양성을 위하여

성 신부가 설립 수도회로 돌아온 것은 1970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폐막한 지 5년여의 시점이었다. 그는 서울 성가소비녀회 수녀들을 성가소비녀로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자 하였다.



수련소 강의



열강하는 설립자 성 신부



악보들





성신부 강의



미사 노래 책자



교안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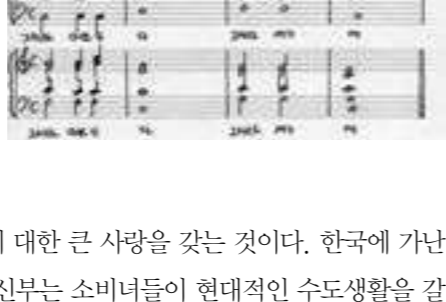
교안 자료



교리 교수 자료



악보들



시청각 교재 (성경, 교의 신학, 교리 등 다수)



시청각 교재



신학서적

녀회 설립 취지와 온전히 부합하였다. 성가소비녀회의 카리스마는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시대상황에 발맞추어 실현되어나가도록 설정되었다. 때마침 한창 진행 중이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교부들이 가난한 덕행에 관하여 거론하고 있었다.

사제 수품 25주년을 맞은 1960년 그는 일본에 동생 테레즈 수녀가 있는 수도원에 가서 처음으로 TV를 보고 시네라마 영화 구경도 했다. 그는 시대가 변하였다는 것을 감지하였다. 논산에서는 이제까지 적대감을 느끼게 하던 경찰들이 호의적으로 성 신부에게 천주교에 관한 강론을 청해 왔다는 사실 또한 시대의 변화이며 요청으로 수용되었다. 그의 시대감각은 활발하게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1957년에 벌써 동생 마르그리트 수녀에게 프랑스 신문 “라 크로아”지를 보고 싶으니 항공우편으로 보내달라는 원의를 표명 한 적이 있었다.

1964년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재개되는 해였다. 성 신부는 사랑하는 여동생들에게 여전히 프랑스 신문 “라 크로아”지를 보내달라고 구독신청을 하였다. 이제까지 그 신문을 6부밖에 받지 못하였으니 공의회 토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두 달간 항공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때만 해도 저렴한 값의 선편으로 소포를 받아야 했기에 신속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았다. 여동생 리제프가 보내주는 ‘맷치(Match)’라는 주간지도 여러 권 받아보았다. 1967년에도 그것들을 다시 받아보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1969년 4월에는 그것을 받아 보면서 그중에 우주의 천체 중 하나인 달(月) 사진이 들어 있는 책자가 제일 좋다고 하였다.

“다음 번 아폴로 10호, 11호가 달나라에 발사되면 그 사진을 구해서 보내다오. 정말 믿기지 않는 그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나!” 하였다. 만 60세를 목전에 둔 어르신 성 신부는 젊은 기운에 넘쳐있었다.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났다. 역사 이래 공의회라면 경쟁하고 싸우는 분위기를 떠올리는 것

이 상례였으나 이번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처음으로 그렇지 않았다. 그는 공의회가 유럽인만이 아니고 평신도들을 비롯한 전 세계의 대표들이 골고루 참석한 가운데 징계함 없이 서로 평화를 조성하려고 애썼으며 모두를 위한 유익을 추구하는 공의회였다는 점을 들어 말하기를 “오늘 신문에서 교황이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의 파문을 풀어주었다는 소식을 보았는데 이 소식은 그야말로 속을 시원하게 해주었고 커다란 영향을 미치겠지” 하였다.

성 신부는 가톨릭 교회 정신의 폭이 훨씬 넓어졌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분명 전 세기의 가장 위대한 공의회로 남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하느님께 감사하였다.

1970년 1월 5일 자 서한에서 우리의 설립자는 여동생 마르그리트 수녀에게 한국에서 분당, 병원, 학교, 애덕 사업, 사회사업 등의 소임을 맡고 있는 200여 명의 수녀들(50명의 노비스들과 청원자, 지원자까지)을 지도하는데 도움받을 최근 자료들, 곧 지난해에 보내 준 ‘교육 사목/분당 사목’ 이외의 프랑스 잡지들을 찾아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9월 23일 자 서한에서는 최근 잡지들에서 읽을 만한 기사를 보면 그 잡지를 보내주든지 아니면 복사해서 보내달라고까지 하였다.

설립자 성 신부는 설립 수도회로 돌아오기 훨씬 전부터 빠르게 발전하는 문명과 문화의 시대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비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이미 수년 전 논산이나 홍산에 있을 때부터 성가와 계응으로 구성된 소 미사 책을 출간하여 큰 성과를 얻은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성가회에 와서도 성 신부는 3년 전 1만 권을 발행하여 시중에 내놓았던 성가집 재출간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수녀들에게 성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녀들로 하여금 시청각 교육 방법과 기타와 같은 악기를 사용하도록 주도하였다.

그는 실제로 분당 사제로 있을 때부터 프랑스에서 가져온 갖가지 도구와 교재들을 이용하여 주일학교 어린이와 신자들에게 만화와 환등기, 영화 등의 영상 수업을 제공하여 왔다는 것을 소비녀들에게 상기시키며 교육의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3. 설립자 성 신부의 가르침

설립자 성 신부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1869년) 시대에 프랑스 전통 신학을 공부하고 20세기 초반까지 순교 영성으로 다져진 삶을 살아왔다. 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소식을 홍산 분당에서 접하였으며 1970년부터 설립 수도회에서 생활하였다. 그는 비록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사람으로 육성되었으나 유동적인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것을 시대의 징표로 읽어내는 예언자적 민감성을 발휘하는데 손색이 없었다.

소비녀 양성을 위한 성 신부 자신의 연구 학습과 함께 그는 소비녀들에게 강의와 피정 지도, 서한과 기고문들 그리고 일상 대화를 통해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꾸준히 가르침을 폈다. 강생의 영성과 사명에 따

른 사도적 기도와 활동에 대한 그의 열정은 점차 소비녀들에게 내면화되어갔다.

1969년과 1971년에 수녀들에게 하신 강의록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제목(금일화 쇠신, 강의록 A030021)이 붙어있다. 그는 당시 20세기의 세상을 인본주의 시대로 규정하고 사람들은 기술의 발전으로 그 모든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면서 즐기기 위해 자기의 재물을 소비하기를 원하는 세상임을 천명하였다.

세상의 변화에 대한 그의 개념은 ‘새로운 규범’이며 그에 대한 사고는 매우 긍정적이다. 우리 수녀들은 그 새로움을 배우고 익혀서 삶의 목적에 대해 질문하는 인간에게 답을 주는 수도생활을 하여야 한다.

복음적 가난은 거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동등하고 평범하게 생활하는 삶을 전제로 한다. 수도자는 결코 우월한 사람(장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성 프란치스코도 이 시대에는 아마 청빈에 대한 생각을 바꾸려 할 것이다. 편리한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되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너무 신경정신과적으로 피곤하게 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관한 이야기는 곧 부자와 가난한 이들의 주거문제, 공장 노동자들, 가난한 이들, 죄인들, 노약자들, 힘없는 이들의 인간 존엄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들은 곧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장 작은 이들이며 미소한 이들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

사람들은 변함없이 인간은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물으며 종교적 권위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들과 토론하고 하느님 말씀을 재고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수녀들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 예수님은 계명에 관하여서는 적게 말씀하시고 정의와 자비에 관하여 비유 이야기로 가르치셨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잘못을 피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다. 교회는 길에 서서 검문하는 헌병이 아니고 구원의 법이다. 교회는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즉시 삶으로 이어지고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사랑의 종교이다. 갈라. 6,1-6. 그러기 위해 우리는 진정 학습해야 한다.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을 사용하기 위해 항상 준비해야 한다.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여 가는 수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설립자의 마음은 구구절절이 배여 있다.

능동적인 사도직 활동은 신심을 변모시킨다. 기도는 사도직에 맞추어 해야 한다. 수녀들은 이제껏 해오던 규칙 안에서 더 큰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소비녀들은 확 트인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성 도미니꼬 회원들은 일할 수 있는 복장들을 하고 단순함을 서원한다. 들판이나 어디서나 일하는 그 장소에서 성무 일도를 한다. 분당 사제들을 도와 작업을 하거나 농부의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며 그들과 함께한다. 수녀들도 특별한 복장이 없이 전례적인 기도를 드리고 일한다. 시온의 노트담의 앙셀르(Ancelles)는 유태인을 위한 사도직이다. 평신도처럼 옷을 입고 주변 환경에 따라 사도직은 다양화한다. 관상 이외에 공부하고 사회적인 일도 한다. 어떤 이들은 특별한 복장도 없이 수도자로 살기를 서약하고 자기 고장에서 산다. 수녀들은 선택하여야 한다.

수녀들은 사목자들이며 예수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이들이다. 하느님의 양태이며 하느님 앞에



경청하는 소비녀들

어린이지만 본당 수녀는 어른이어야 한다. 그저 남의 말을 잘 듣는 양이 아니다. 열심한 본당 신부와 웃음 짓는 수녀가 있을 때 벗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 예수님은 빌라도, 바리사이들, 유대인들 모두 다 사랑하셨다.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면 그것이 곧 성인이다. 성인들의 행동을 닮으려 하지 말고 그들의 사랑을 닮아라. 열렬한 사랑을, 사람들을 마주 대하고 그들의 애덕을 본받아라. 성장해야 한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파견되었듯이

수도자도 더 충만하게 하기 위해 파견되었음을 잊지 말 것이다. 맡겨진 사람들을 더욱 성장하게 하고 충만하게 해야 한다. 겸손함은 소심함이 아니다. 겁 많고 수동적이지 않다. 그들의 기를 죽이지 말고 의욕이 솟아나도록 하라. 성장의 열기를 불 붙여야 한다.

성장의 열기를 지닌 소비녀는 수도자로서 하느님의 증인이 된다. 피의 순교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거룩한 증인, 자기 삶을 만족하게 생각하는 증인, 열심히 선교하는 증인, 고통을 당하면서 증인이 된다.

수도자는 영상매체를 너무 좋아하거나 일시적인 인락함 혹은 찰나적인 행복에 빠져서 남의 사정에 무감각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느님과 삶에 관하여 말하되 그들이 권위를 부여해주시기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21세기에도 그 이후에도 성가소비녀는 먼저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

성 신부는 하느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은 사람들을 사랑하시어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점을 들어 말하였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은 하느님과 인간이 상통하는 사랑이다. 소비녀들의 사명은 다른 이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그들이 바라는 그대로 해주는 정의와 자비의 사명임을 위와 같이 말씀하셨다.

4. 설립자 성 신부의 영성 강의

수도자 피정과 영성 강의. 서울 성가소비녀회편. 2006년

설립자 성 신부는 ‘수도자 피정과 영성 강의록’을 남겼다.

II. 영성 강의 편은 성 신부가 1970년부터 실시한 성가소비녀회 수련소 강의를 포함한다. 1972년 새 청원자들에게 하신 수도생활에 대한 말씀과 수도 성소, 프란치스코 수도회 피정 자료, 바오로 6세의 기도

관한 10교령에 대한 설명, 내적 생활과 하느님 현존, 기도 정신, 성체성사 생활, 삼위일체, 끝으로 내적 생활의 이상 상으로 성모님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생활 특히 수도자의 내적 생활을 수덕 신비 신학적으로 기술하였다.

5. 설립자 성 신부의 기고문

성인 대상 연말 참고. 에피파니 1963년 MEP 성재덕 신부(한국 대전교구) 기고

- 독창적 교육 방법
- 신앙을 우선으로 함
- 글자와 영
- 상호 교화 작용
- 사제의 부성에

복음화에 대한 설문조사. 에피파니 1969년(190쪽)

- I. 공소
- II. 본당

에피파니 1971년(193쪽)

서울(한국)의 쌍제 신부가 설문지에 응해 보내온 내용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하여 1976년 MEP 기고문

설립자 성 신부는 30여 년간의 본당 사목을 마치고 설립 수도회로 돌아와 성가소비녀회 수녀들을 가르치고 영적 지도를 맡게 된지 7년째 되는 해에 파리외방 선교회 잡지(MEP)에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자신의 설립 수도회를 소개하는 글을 내었다.

해방 31주년을 맞는 당시 한국 내에는 약 40개의 수도회가 있었다. 그중 하나인 서울 성가소비녀회는 40여 명의 수련수녀들을 포함한 220명의 여성 수도회이다.

그들은 설립자 지도신부의 강의(영성, 성서, 전례 등)를 경청한다. 본당에 파견된 수녀들은 주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며, 교리교사의 일을 하는 수녀들은 설립자가 제공한 영사기나

슬라이드를 이용하여 신자들을 가르친다. 그밖에 성소자 모임을 주관하는 일 또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성가소비녀회 수녀들은 엘리트 신자들이며 말씀의 전파자 들이고 한국교회의 삶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성 신부는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 한국 사회에서의 전망적인 소견을 개괄적으로 피력하였다.

수도회 책자 기고문

- 서울 성가소비녀회 25주년 기념 특집 1968년
- 서울성가소비녀회 창립 40주년 기념 특집 기고문 1983년
- 성가정의 벗 기고문 : 창간호 1976년 3월 19일, 2~7호, 11호, 1976년, 1977년, 1984년
제7호 1976년 3월 26일, 5월 1일~7월 20일, 제2호 1976년 8월 1일
제3호 1977년 1월 15일, 제4호 1977년 4월 10일, 제5호 1977년, 제6호 1977년 12월 25일
제11호 1984년 12월

6. 수련소 강의와 방문 일지. 훈화

수련소 강의

- 1983년 3월 26일, 5월 4일, 6월 8일, 6월 15일 수련자들이 강의를 요약 기록하였다
- 3월 26일 : 참된 종교
- 5월 4일 : 성경, 죄
- 6월 8일 : 지옥론
- 6월 15일 : 성경과 창조

신부님 댁 방문 일지

수련자들은 주일이나 축일에 사제관을 곤잘 방문하였다. 성 신부님과 함께 하는 시간은 즐겁기도 하고 또 때마다 느끼고 숙고하게 하는 것들이 많았다. 설립자 신부님을 만나고 기억하는 좋은 기회였다.

- 1984년 8월 22일 외 8일간의 일지 기록. 성 신부님이 병원에서 퇴원하신 후
- 1985년 9월 1일~12월 25일
- 1986년 1월 1일~12월 25일

- 1987년 1월 1일~5월 8일

훈화

1983년도 미사 강론과 영성체 후 묵상 중에 또는 평상시 말씀.
3월

4월 4~9일, 12일, 14일, 17~30일

5월 1~15일, 17일, 19일, 20~23일, 25일, 29~30일

6월 2~3일, 6~7일, 9~13일, 15~17일, 20~23일, 25일, 30일

7월 1~2일, 4~5일, 9일, 11일, 13일, 16일, 18일, 20일

십자가의 의미로부터 시작되는 단편적인 말씀들은 예수 부활로 이어지면서 하느님 사랑의 삶을 살며 기도하는 소비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남아있다.

십자가의 길 : 1969년 설립자가 지은 기도문

1차~14차로 된 이 기도문의 형식은 매우 간단하게 되어있다.

제○○차. 각처의 제목.

그리스도를 위하여 : ...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 ...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 ... 합니다. ㅅ

성 신부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모든 행위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겠다는 지향을 가지고 기도하였다. 순교영성과 선교사의 영성이 통합된 설립자의 '사랑의 기도'로 느껴진다. 소비녀들은 지금도 사순절 금요일에 이 기도를 바친다.

7. 성 마리아와 성 요셉에 관한 말씀 1953년, 1965~68년, 1971~79년, 1981년

성모 마리아

- 원죄 없으신 잉태 1976년, 1979년

- 성모 영보 1979년, 1981년

- 정결례(주의 봉헌 축일) 1973년

- 마리아, 엘리사벳을 방문하시다 1977년 5월 31일

- 성모 승천(루카 1, 39~56) 1968년, 1974년, 1976년 8월 15일, 1975년, 1981년
- 모든 성인의 어머니 마리아 1981년 10월 21일

성 요셉 1963~1971~1974~1981년, 1966~1967~1977년, 1976, 홍산 1966년, 1975년

- 요셉 성인을 공경하는 이유 1972년, 1978년
- 성 요셉의 전구 홍산 1966년
- 성요셉과 노동 부활 후 제4주일

1970년부터 설립 수도회에 영성지도신부로 있으면서 성 신부는 1981년까지 강의와 강론 말씀으로 소비녀 양성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위의 기고문들은 말해주고 있다.



영명축일 이모저모



영명축일 이모저모



테레즈 수녀와 함께

8. 성 신부의 피정 지도

1949년부터 성 신부는 논산에 내려간 그 해 7월부터 서울 성가소비녀회 수녀들에게 피정 지도를 하기 위해 내왕하기 시작하였다. 기차로 6시간 거리이고 본당에서 매우 바쁘고 힘든 일들이 줄지어 있기 때문에 한때는 망설여지기도 하는 일이었다.

1950년에는 3월 중순경에, 1953년에는 1월에, 그리고 1957년 1월 초에 성 신부는 그가 창설한 성가회 수녀들에게 피정을 지도하였다.

그런데 그 수녀원에 하루는 밤중에 수녀원에 도둑이 들었다. 수녀들은 즉시 비상종을 쳐서 수녀원 전체가 전투태세를 갖추고 경찰에 알렸다.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수녀들은 도둑이 도망을 못 가도록 길을 막고 포위하였다. 복도에 있던 의자며 뭐며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서 도둑을 때려눕혔다. 경찰은 거의 반죽음이 되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도둑을 그저 데려가기만 하면 되었던 일이 있었다.

수녀들은 죄책감에 시달려서 지도 신부에게 도둑을 때린 것이 죄가 되는냐는 질문을 할 정도였다. 그러

고 보니 성 신부는 수녀들에게 피정 지도를 함으로써 천상의 보물을 얻게 하기 위해 새로운 열정에 불을 댕겨주는 데는 성공했으나 지상의 보물을 완전히 포기하는 법은 성공시키지 못한 결과가 되지 않았는가? 라는 해학적인 질문이 나올 법도 한 일이었다.

1959년 8월, 1968년 8월(14~24일)에도 성 신부는 피정 지도를 위해 서울 성가소비녀회에 다녀왔다. 연례 피정을 지도하면서 그는 22회의 강론을 하였다.

다양한 대상에게

1953년 전주교구 18명 사제 피정 지도, 1955년 두 곳 본당 회장들 피정, 1956년 6월 12일 춘천교구 아일랜드 사제들에게 피정 지도, 1958년 9월 8일 대구 쌍 뿔 수녀원 피정 지도, 1959년 대구 텔랑드 신부 본당 신자 피정 지도, 1960년 동경의 쌍 모르(Saint Maur) 자매 수녀들에게 20회의 피정 강론과 성시간을 함께 했다. 성 신부는 그때 처음으로 TV를 보면서 시대가 변했음을 실감하였다.

1963년 프랑스 휴양 중에 건강이 회복되면서 어느 수녀원에 상주 신부(Chapelain)로 일하였다. 1964년 병고 차 휴가를 마치고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무렵 원장 신부님의 명을 받고 한 달 동안 싱가포르 페낭 섬에 가서 피정 강론을 하는 기회를 가졌다. 쌍 모르 성모 수녀회에서 두 번의 미사를 드리고 작은 자매회의 11명 수련자들에게 4일간, 18일에서 22일까지 공동체 전원에게 피정을 지도하였다.

성 신부는 홍산 본당 주임으로 파견되어 있는 동안에도 이곳저곳으로 다니며 피정 지도를 계속하였다. 1965년 포항 수녀원에서 10일간 3백 명의 수녀와 수련자들 피정을, 그곳 본당 교우들과 회장들에게 2일간 피정지도, 1968년 8월 6일에서 8일까지 교구 수녀들 모임에서 강의, 19일부터 24일까지 성가회 수녀들에게 피정 지도, 1969년에도 성가수녀회 수녀 피정을 지도하였다.

1971년 성가소비녀회 수녀들에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주제로 피정 지도를 하였다.

동년 8월 7일부터 15일까지 부산의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회(FMM) 수녀들에게 피정 강론을 하였다. 하루 3회 강론이며 오전에는 덕에 관하여 2회 오후에는 시사적인 주제에 관한 1회 강론이었다.

제1일 : 우리의 목적 - 성화, 우리의 모델- 예수/현재의 세상

제2일 : 믿음 - 믿음이란 무엇이며 그 실천은.../인간의 의미 상실

제3일 : 희망 - 희망이란 무엇이며 그 실천은.../교회의 의미 상실

제4일 : 사랑 - 사랑이란 무엇이며 그 실천은.../하느님 의미 상실

제5일 : 가난 - 가난이란 무엇이며 그 실천은.../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제6일 : 정결 - 정결이란 무엇이며 그 실천은.../

제7일 : 순명 - 순명이란 무엇이며 그 실천은.../수녀가 바치는 것은...

제8일 : 위의 6가지 덕행의 모델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

성 신부는 당대 한국 사회에서 서울 성가소비녀회는 물론 그 외에도 교구 성직자 수도자 본당 교우들의 피정과 해외에서도 기회가 닿는 대로 마다하지 않고 피정 강론을 맡아서 하게 된 역사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9. 서한문을 통한 소비녀 영성 지도

소비녀들에게, 성재덕 신부 서간 모음집, 서울성가소비녀회 편 2003년

서울 성가소비녀회가 아직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의 지도를 받고 있을 때 1950년 4월 20일에 하신 설립자의 다음과 같은 말씀은 소비녀 각자의 존재감을 형성함에 필수적으로 지녀야 할 하느님의 뜻으로 비추어졌다.

천주께서 이것을 원하시도다.

1. 원망 없이 즉시 순명하라.
2. 부지런히 일하라.
3. 억지로 말고 관심으로 침묵하라.
4. 보통으로 몸을 단정히 가지고 온화한 얼굴을 가지라.
5.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도와줄 기회를 피하지 마라.
6. 마음을 흔탁케 하고 시간을 헛되이 쓰는 온갖 생각을 쫓아내라.
7. 무슨 과실이 있을 때마다 즉시 천주께로 달아들라.

기뻐하라

1. 만일 너를 몰라주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도 기뻐해라
2. 만일 네 정신과 네 육신이 못생겨도 기뻐해라
3. 만일 다른 사람들이 네 뜻을 반대해도 기뻐해라
4. 만일 네게 천한 일을 시켜도 기뻐해라
5. 너를 쓰지 않아도 기뻐해라
6. 만일 네 뜻을 정하지 않아도 기뻐해라
7. 만일 너를 믿어주지 않아도 기뻐해라
8. 만일 너를 말재로 두어도 기뻐해라
9. 만일 너를 한 번도 찬양 안 해도 기뻐해라

설립자 성 신부는 1950년부터 1970년대까지 성가소비녀들에 대한 각별한 배려심을 가지고 소비녀 정신과 사도직 방향에 대한 지시, 수련소에 대한 권고들을 진지하고도 긴요한 제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수녀회 행정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영적 상황과 사도직을 고려하여 원장수녀들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을 주었다.

제2대, 4대 원장 고 시몬 수녀에게 1957~1962년, 1968~1971년

제3대 원장 김 스킨라스티카 수녀에게 1963~1967년

연대 미상의 편지에서

기타 다른 수녀들에게 : 수련장 김 돌로로사 수녀에게 하신 말씀

김 올리바 수녀와 윤 노엘라 수녀에게 1976년

1957년 1월 21일 서울 성가소비녀회는 제2대 원장 고 시몬 수녀를 선출하였다.

설립자 성 신부는 원장수녀에게 서한을 통하여 소비녀들이 거룩한 생활을 하고 성녀가 되도록 원장 소비녀가 먼저 성가 규칙을 잘 지키고 바른 표양을 내고 분원 방문 다니면서 열심을 촉구하라고 당부하였다. 금전 사용, 본당 분원 신설시 유의할 점, 소비녀의 선교 장소 등에 대한 가르침과 지시사항이 있다.

설립자 성 신부는 ‘수녀’와 ‘소비녀’를 구분하여 가르쳤다. 수녀라는 호칭은 사람들이 듣기에 이미 성직화(채플화) 되어버린 호칭이다.

“나는 수녀님”이다. 절대로 그런 정신없어야 된다고 하였다. “나는 소비녀, 가난한 자의 하녀”라 생각하고 서로 ‘소비녀’라 부르라 하였다.

자선사업은 애공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소비녀들의 손으로 일해서 얻는 것으로 해야 한다. 수련기간에 하루에 몇 시간씩, 적어도 두세 시간 일해야 하며 기도하고 영적 독서와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침묵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설립자였다.

그는 소비녀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봐 주러 간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쁘다면서 성경 말씀을 들어 가르쳤다. 예수께서 ‘세상에 가서 전교하라’고 하셨다. 집에 머물러서 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성가회’ 성가의 소비녀는 예수 마리아 요셉을 위하여 일하는 단체이며 회이다. 마태오 복음 25장 40절에서 “나 진실히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 미소한 형제 중에 하나에게 베풀 때마다 곧 내게 베풀 셈이니라” 루카 22, 26 : 너희 중에 높은 자는 낮은 자와 같이 되어야 할 것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인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 말씀을 인용하여 가르쳤다.

1963년 1월 13일 제3대 원장으로 김 스킨라스티카 수녀가 피선되었을 때 설립자는 아버지 마음 같은 당신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몇 가지를 당부하였다.

좋은 표양, 겸손, 가난, 지식 등에 대한 가르침과 아홉씨옹 수녀회 책자들을 수련소에 비치하고 소비녀회 정신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라는 말씀. 그리고 성인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 성독(Lectio Divina), 묵상(Meditatio), 기도(Oratio), 관상 생활(Contemplatio)

“성가회는 성탄 날에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에 예수 하늘에서 땅에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소비녀들도 앞으로 더욱 예수님과 같이 지극히 가난한 사람 중에 내리시기를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부잣집에까지 올라가는 것보다 공로가 더 많습니다.”

설립자는 스킨라스티카 원장수녀에게 성가회의 목적은 가난한 자의 소비녀 노릇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소비녀들은 두 명씩 짝을 지어 가난한 집이나 개인 집에 가서 손으로 일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소비녀 잡지를 발간하여 수녀들이 하는 일을 널리 알리고 특히 일반 교우들과 수녀들이 함께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도록 마련하라고 하였다.

1965년 8월 성 신부는 홍산 본당에 있으면서 소비녀들의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문제점에 (영육간의 병

고와 퇴회, 재입회, 권면, 경고, 표양 등) 관하여 권고 말씀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식별하도록 원장 수녀를 도왔다.

김 돌로로사 소비녀가 수련장이 되어 성 신부님께 가르침을 구하였을 때 20세기에 와서 집에서만 일하고 자선사업 한다면 부족하다. 집이나 벽돌장이나 사업 자체가 커지는 것보다 수녀의 내적 정신이 커져야 한다. 소비녀들 마음속에 불쌍한 자에 대하여 큰 사랑 생기도록 하는 것이 수련 프로그램이니 예수와 같이 밖에 나가서 불쌍한 자의 집을 찾아가서 거기 방문하고 일하고 돌보아 드려야 한다.

소비녀회의 영신적 본 참례는 예수 성탄이다. 윗사람, 부자들 쳐다보지 말고 아랫사람, 불쌍한 사람에게까지 내려가 주시고 그들의 구속을 완성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프로그램이다. 내리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미소한 자들을 사랑하시오. 그 정신을 가지고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하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종신 서약을 하는 수녀들에게는 청빈과 정결과 순명 허원으로써 속마음 재산(지력과 의지)까지 다 바치셨으니... ‘앞으로 나는 어디 가면 좋겠다. 나는 이런 일 맡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없어야 된다. 나의 본 뜻 아니고 천주의 본뜻만 원해야 한다.’ 고 권고하였다.

‘일을 많이 하려면 첫째로 열심히 있어야 되니 아침묵상, 영성체, 후송, 성경공부 등 유식하게 잘하시오.

둘째 수도생활이 있어야 된다. 책임 소비녀는 천주 대전에 잘 생각해서 동료 소비녀들과 함께 의논한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와드리고 서로 공경하며 서로 규칙 잘 지키도록 권하여야 된다’고 하였다.

성가회 소비녀는 예수처럼 ‘봉사의 박사’라는 말씀으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었다.

이 모든 가르침을 통하여 설립자 성 신부는 서울 성가소비녀회를 창설한 이후 그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정신적으로 설립 수도회를 한시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여 주었음을 소비녀들에게 알려준다.

제3장 _ 설립자 성 신부 결실의 시기를 맞이하다

1. 탄생 60주년



서울 성가소비녀회 설립자 성 신부 회갑 미사

본당에서 선교와 신자 사목에 전념하던 성 신부는 성가소비녀회로 돌아와 점차 수도공동체라는 환경에 적응하며 안정감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설립 수도회 복귀 9개월 만에 환갑을 맞게 되었다. 사람이 60세를 넘기면 세월의 한 주기를 돌아온 것이라 한 평생 인생살이의 결산을 축하하기 마련이다. 출가한 자녀들이 예복으로 차려 입고 아버지 앞에서 큰절을 올리고 복을 기원하는 뜻에서 소주 한 잔을 올린 다음 아버지가 그 잔을 받아 마시면 그다음

에 또 큰절을 올린다. 부모는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부터는 자녀들이 부모를 편안히 모셔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한국인 효성 심의 발로이다.

1970년 9월 2일, 서울 성가소비녀회 강당에서는 피에르 썬제 성제덕 신부의 61세 생일잔치가 열렸다. 성 신부는 동생 수녀 마르그리트에게 회갑잔치는 한국의 유교적 풍속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그날의 사진을 큰형님 자끄와 누이동생들과 막냇동생 폴에게 다 보여주라고 당부하면서 우편으로 보냈다.

에밀 보드웁(Beaudevin) 신부는 이 기회에 성 신부를 축하하는 짙막한 축시를 보내왔다. 그는 성 신부의 열정적인 삶을 칭송하였다.

이 특별한 날에 썬제 신부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름다운 애덕을 찬양하는 분이요,
하늘궁전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모범이 되는 용감한 동정녀의 무리를 봉헌하는 분입니다.

사회의 쓰레기 같은
가난한 이들 속에 숨어 있는 [그들의] 남편을 섬기기 위해
그들은 세속의 허무를 버리고
종신토록 서원하고 침묵 속에 자신을 봉헌합니다.

피투성이 어린 양에게 바치는 그들의 전적인 희생과
고통당하는 당신(주님)의 지체들에게 바치는 전적인 헌신은
그들의 이마를 아름다운 빛의 후광으로 장식합니다.
하늘에는 그들의 영광, 그들의 행복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에 이끌려 이 대담한 기도(企圖)를 구상한
대장(大將)을 무슨 말로 격찬할 수 있겠습니까?



에밀 보드웁 신부의 축시



축수연 이모저모



축수연 이모저모

[그들의] 그들은 소비녀들을 가리키며 [주님]의 지체들은 사도직 대상인 신비체 가족을, 기도(企圖)는 성 신부가 성가소비녀회를 세운 것을 말한다. 보드웁 신부는 성 신부를 대장이라며 그의 공적을 들어 높이는 말로 격려하고 축하하였다.

소비녀들을 '내 딸들'이라 부르는 성 신부

소비녀는 성가소비녀회의 회원으로서 설립자 성제덕 베드로 신부의 영적 자녀의 자리를 채워준다. 소비녀들이 베풀어준 성대한 회갑 축하를 받은 성 신부는 버스를 대절하여 수녀원에서 1백여 킬로 거리에 있는 야외의 순교자 무덤을 찾아 수녀들과 함께 성지순례의 시간을 가졌다.

육순을 넘긴 설립자 성 신부의 믿음은 하느님으로부터, 저 위에서 오는 것이라는 철석같은 믿음이었다. 공부와 지식만으로 얻는 것이 아닌 겸손의 정신, 어린이의 마음으로부터 가능한 것임을 믿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살고 있었다. 설립자 성 신부는 이러한 믿음으로 소비녀들을 내 딸들이라 부르며 기뻐하였다. 동생 마르그리프 수녀도 소비녀와 다를 게 없는 믿음의 딸이라 생각하고 그에게만 늘 흥금을 털어놓는 긴 편지를 써 보내는 터였다. 성 신부는 그 밖에도 상호 소통이 가능한 이야기 친구가 있었다. 그는 그해 10월 한국인 주교가 지도하는 피정의 기회를 이용하여 동료들을 만나러 갔다.

그러면서도 성 신부는 무엇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분부하지 못하고 소비녀들의 의지를 통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파리의방선교회 동료들 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수도생활을 알잡아 보는 말들을 내뱉었다. 그렇게 쓸쓸한 우울함을 주는 일들을 이미 여러 번 겪어왔다. 그런데다가 세상을 떠난 친구들이 많았고 젊은이들과는 거리감이 있고 해서 더욱 그랬다. 한 번은 텔리에(Tellier)라는 신부가 성 신부를 찾아와서 같이 미사를 집전했을 때 그런 거리감을 폭발시키는 일이 터졌다. 그 젊은 신부는 미사가 끝난 후에 성 신부가 수녀들 앞에서 미사 드리는 방식을 비평하였다. 그래서 성 신부는 웃으며 "누가 오라고 했소. 다른 곳에 가서 미사를 드리면 되잖소..."라고 응수해 주었더니 그는 성 신부에게 욕을 한 바가지 퍼붓고는 가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성 신부는 그가 조만간에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연령적으로 아들 같은 신부에게 그렇게 당하고 나서 허망하고 아픈 가슴을 안고 그는 이틀 후에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회로 피정을 하러 떠났다. 8박 9일의 피정기간 동안 성 신부는 거기서도 9개 국적의 수도자들이 모여 사는 그들의 콤플렉스를 감지하였다.

시대의 변천에 민감한 성 신부 1971~1974년

성가소비녀회는 번성하고 있었다. 14명의 착복식이 있었고 13명의 첫 서원, 30명의 유기서원, 6명의 종신서원이 있었다. 그는 설립자로서 수도 서울에 버스안내원 아가씨들을 돕는 사도직과 장애인을 위한 병원을 수녀들에게 제안하였다.

그 시대의 우리나라 수도 서울은 인구 6백만의 메갈로폴리스(거대도시)가 되어있었지만 판잣집과 도시빈민 또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가난하였다. 서울 시내 버스안내원 아가씨들은 아침 5시 반부터 자정까지 일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쉬는 곳은 질 나쁜 남자들 때문에 종종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곳이기도 하였다. 수녀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돌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함께 한다면 그들은 보다 좋은 공간에서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좋은 일이 될 것이었다. 성 신부는 그 일을 위해 미국에 많은 편지를 써 보내기도 하였다.

설립자 성 신부는 세상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점점 진보되어



안내원 교육



서원 25주년 기념



계속 수련 기념

가고 있음 또한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다. 그는 교회에서도 그 진보에 상응하는 좀 더 활력 있는 선교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았다.

1973년 휴가(7월 1일~9월 30일)에서 돌아온 성 신부는 성가소비녀회가 설립 30년 만에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수녀원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특히, 거의 50여 명에 이르는, 정확히 말해 44명의 수련자들이 생활하며 일하고 투덜거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생기 있는 수녀원이 되었다며 기뻐하였다.

7명 수녀의 은경축을 지냈고 수련자들이 '모이세'라는 주제로 연극을 공연하였는데 성 신부 제의실의 제의를 몽땅 가져다가 그것들을 공연의상으로 입고 연극을 했다. 그것을

관람한 성 신부는 “특히 파라오의 변장은 끔찍했었다! 하지만 우울한 모습의 수녀들을 보는 것보다는 밝은 모습이 훨씬 나왔지.” 하였다.

설립자는 그저 상상을 초월하는 수녀들의 분장술에 놀라워하며 시대가 변했음을 실감하며 ‘내 딸들’, ‘믿음의 딸들’의 밝고 당당한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그의 보람은 오직 성가소비녀회가 변창하여 가는 것뿐인 것 같았다.

2. 수녀들의 시위 참여를 목인하는 설립자 성 신부 1975~1977년

1975년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권의 억압정치 한가운데 있었다. 그는 3선 개헌에 의해 1971년 7월 제7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마침내 1972년 국회 및 정당 해산을 발표하고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한 후 ‘통일주체국



촛불시위



사목을 위한 기도 모임

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유신헌법을 제정해 제8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이른바 ‘유신시대’라 불리는 제4공화국이 시작되었다. 그 당시 국민들은 유신이라는 자체를 별로 깊이 있게 알지도 못한 채 정부의 일방적인 선전공세를 따랐고 사실상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하지도 못하는 실정이었다.

성 신부는 이러한 한국의 정치사회 상황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선거 분위기는 정말 야릇하다고 하며 프랑스인들은 생각도 못할 일이지만 여기 아시아 한국에서는 정상적인 일들이라고 하였다. 유신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에서 유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곧장 쫓겨나는 국민투표의 위협성을 고발하는가 하면 베트남이나 필리핀, 기타 아시아의 사제들은 다소 자국의 정부에 대하여 인권 보호라는 명목하에 정치투쟁에 참여하기도 한다며 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권력을 잡은 당은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부정직하고 페어플레이가 아닌 방법을 다 동원한다. 언론을 구속하고 죽은 이들을 산 이로 둔갑시켜 그들의 투표권을 이용하기도 한다. 여당 사람들이 모든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야당은 아무것도 감시를 할 수 없다. 게다가 여당은 반대편 사람들을 멀리 떼어놓느라고 갖은 애를 쓰며 자기네에게 편리한 대로 예산을 삭제 첨가하여 어떤 마을은 유리하게 만들고 또 어떤 마을은 불리하게 만드는 등... 어쨌든 아시아에서의 선거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성직자들조차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 그들을 두둔하는 마음이었을 게다.

당시 원주교구 초대 교구장 지학순 주교는 1970년대부터 한국의 사회정의 및 인권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그는 1971년 10월 원주에서 가진 ‘사회정의 구현과 부정부패 규탄대회’, 1974년 내란 선동 및 양심선언 사건에 관련, 긴급조치 위반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10개월 만에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결성되었다. 이때 마침 성가소비녀회는 명동에 분원을 두고 가톨릭 출판사 소임을 맡고 있던 터라 그곳을 거점으로 신부들과 연대하여 사회정의의 회복을 위한 모임과 기도회, 시위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성 신부는 우리의 주교님이 야당을 도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있으며 천주교인들의 불만이 점점 증폭되어 아마도 주교단에서 어떤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성 신부 자신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거기에 휘말리지 않을 수도 없다. 수녀들에게 불만이 있을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 증거로 주님의 양떼가 250명이나 되고 지금은 수녀들

을 위해서, 수녀들하고만 살고 있으니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변명 아닌 변명으로 호소하였다.

성 신부는 한국 사회의 정의 회복을 위한 모임, 기도회와 시위에까지 수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정치적인 난관 속에서도 행복해할 줄 알았다. 그러한 근심과 불안을 의도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그만큼이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거기에는 우리가 요청받는 많은 것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신앙인의 영성적인 낭만주의가 작용하고 있었다.

3. 교회의 권위 안에서 호응적인 성 신부

서울 성가소비녀회 수도원 총원은 도시 한복판에 꽤 큰 정원을 포함하는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성 신부는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 부유하구나!” 하는 탄식을 연발하면서도 로마에서 온 포교성성의 로씨(Rossi) 추기경의 방문을 받았을 때 그 자체로 진정한 용인을 받는 것이라며 매우 큰 자부심을 보였다. 그는 수도회의 모든 어려움을 차라리 옆으로 비켜놓고서라도 “그날은 모든 것이 밝아 보였지!” 할 정도였다.

그뿐만 아니라 성 신부는 신·구약과 다양한 교리들을 비롯한 종교적인 거의 모든 주제에 관한 슬라이드 필름을 90통이나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만족하였다.

일본에 있는 동생 테레즈 수녀가 보내준 후원금으로 영사기를 구입한 그는 그것을 보는 수녀들과 신자들의 호응도에 흡족함을 금치 못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지출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다고 하였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대부분의 슬라이드용 필름을 직접 만들어야 했는데, 가게에서는 보통 필름만 팔고 슬라이드용을 팔지 않는다는 것뿐이었다.

1975년 11월, 물가는 오르고 석유파동에 생활비는 매우 올라갔다. 성 신부는 마르그리프 수녀에게 한 달이나 일찍 신년인사를 보내면서 그 달 말에 우편요금도 오를 거라는 소식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였다.

성가회 수녀들은 본당에서 수백 명의 예비자들을 가르쳐서 영세자를 내었고 서울에서는 1만 명이 넘는 영세자를 얻었다. (인구가 약 칠팔백만이 되는 서울에는 83개의 본당이 있다). 본당을 떠나 있는 성 신부는 수녀들에게서 대리만족을 찾았다.

“어쨌든 이제는 내가 백여 명에 이르는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지 않지만 수녀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수천에 이른다.”

“며칠 전 이곳에서는 12명의 새 지원자들이 청원자 수건을 받았고 7명의 청원자들은 수련자가 되었다. 현재 수련자 수는 모두 25명인



계속 수련 기념 1975년



허원 기념



종신 첫 허원 기념



청원자와 함께 1976년



종신 허원 기념



안나의 집 기공식



종신 허원 기념

데 내년 3월에는 이 가운데 10명이 첫 서원을 한다. 그들이 어찌나 행복해하는지 그 모습을 보니 귀엽더구나.” 하며 설립자의 부성애를 그렇게 표현하였다.

호스피스 안나의 집과 함께 하는 설립자 성 신부 1976~1979년

성 신부는 1976년 공사 중에 있는 호스피스 건물(길음 안나의 집)과 요셉의 집의 신축 비용에 대하여



안나의 집 앞에서



안나의 집 할머니 산책



안나의 집 세례식

이야기하였다. 아시아(한국)에서는 미사를 무척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장례 때나 시험 때, 각종 기념일마다 미사를 봉헌한다고 하면서 성 신부 자신도 미사예물을 안 받아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12월 5일에는 어느 부잣집 할머니가 칠순 잔치를 수녀원에서 치르는데 미사예물은 물론 수녀원 전체 저녁 식사 비용을 대고 길음 안나의 집 신축 건물을 위해 5만 프랑을 회사했다고 한다. 그리고 성 신부 자신은 예뎡으로부터 3만 프랑을 받았는데 그것은 독일로부터의 원조금이며 그 신축기금의 반이나 된다고 하였다.

1977년 호스피스 건물(길음 안나의 집 신축)은 완공되었다.

“내가 있는 사제관 뒤에 있는 호스피스 건물에는 앓을 못 보거나 중풍에 걸린 노인들이 거주하고 사제관 앞에는 유치원이 있어서 아침마다 80명의 아이들이 재잘거리고 외치고 뛰어다니고 오늘 같은 날에는 눈사람을 만들곤 한다. 호스피스 쪽을 바라다보면 젊은 수녀들이 노인들을 산책시키는 일에서부터 식사며 옷 입는 것, 심지어 역겨운 일까지도 보살피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감동을 받아 내가 기적을 이루었구나 하고 혼자 중얼거릴 때도 있다. 어쨌든 하느님께서 어느 여왕들보다 더 그들(수녀들)을 사랑하실 것이 틀림없을 거야...” 하며 소비녀들을 칭찬하였다.

게다가 더욱 기쁜 소식은 11월 1일에 16명의 청원식이 있었고, 2년 만에 수련자 수가 30명이 넘는다는 사실, 그중 십여 명은 이듬해 2월 28일에는 첫 서원을 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성 신부 한국의 어두운 이면을 보다

성 신부는 한국 국민들에 대한 감탄과 함께 그 예리한 평가의 시선도 늦추지 않았다. 6·25전쟁을 함께 겪은 성 신부이기에 더욱 그럴지도 몰랐다. 한국 국민은 전쟁 상태에서도 항상 힘을 잃지 않았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졌으며 오늘날 나라가 분단된 채로 있으면서도 무엇이든 못 만드는 것이 없이 다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그 모습, 9월에는 한 무리의 등반대원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했다는 사실 등등. 프랑스인들도 아직 해보지 못한 일을 해냈으며,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의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은 너무 보잘것없으면서도 하루 12시간에서 15시간 노동을 하며 일요일도 없을 때가 태반이고 여자아이들도 그와 똑같은 조건으로 일하며 심지어 그보다 더 심하게 일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역동적인 한국 국민은 불행한 희망을 키워가고 있음을 성 신부는 이미 보았다.

4. 일상의 성 신부

슬픈 회상과 향수 속에서

성 신부는 1978년 6월 30일부터 1979년 2월 12일까지 병고 치료차 휴가를 갔다. 그때 신장 요로 결석 수술을 하고 돌아왔다. 그는 안느와 리제프가 배려한 덕분에 파리의 집에 머물렀다. 성 신부의 말대로 그 아이들(두 여동생 안느와 리제프)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세탁도 해 주었다. 덩케르크와 썬트 오메르에도 다녀왔다. 마르그리트 수녀를 만나지 못한 것은 유감이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즈느비에브 형수는 마르그리트 수녀와 테레즈 수녀의 사도직을 위해서 마치 엄마처럼 돕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식구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거의 매일같이 교회의 온갖 잘못을 비판하였다.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는 이 원칙은 여전히 존재하건만 그 아이들은 거의 매일 나를 통해서 또 내 안에 있는 그 원칙에 대해 독기를 품고 신랄하게 공격하여 나를 무척 슬프게 하기에...”

더구나 성 신부의 누님 마들렌느는 마지막 가정 미사 때에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거의 비아냥대듯 읽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마들렌느와 안느마리 그리고 마리끌레르는 공손하고 순명하며 사랑스러운 교회의 딸들이 아니고 또 그들 스스로 그러기를 원하지도 않는다는 그것이 성 신부를 무척 힘들게 하는 것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도쿄 공항에서는 겨우 한 시간 정도 테레즈를 만나 이야기하였다. 서울로 돌아온 성 신부는 바로 그 이튿날 아침 유치원 원아 80명에게 졸업장과 상장을 수여해야 했



성 신부 대가족과 함께

다. 갑자기 바빠진 일상 속에서 그는 향수를 느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한국이지만 그는 더 이상 프랑스에 가고 싶지 않았다. 종교가 육신을 떠나 관념화 되어버리고 인간성을 상실한 그곳에서는 당황함뿐이었다. 성소자가 많은데도 성소자를 위해 애를 쓰는 이곳 한국의 서울이 더 좋다. 성소주일에 세미나, 전사회, 여러 수도회의 회합, 그리고 심지어는 라디오, TV에서 강연까지 있는 이 나라가 훨씬 좋다는 말이다!

봄이 되어 성 신부는 고향에서 가져온 꽃씨를 심었다. 꽃시계덩굴(예수수난 꽃)과 마리아의 심장 모양을 닮은 것 같은 꽃들이 피어나고 그 꽃 이름을 번역하여 주면 수녀들이 좋아 하는 것을 보며 성 신부는 위안을 삼았다.

1979년 부활축일에 성 신부는 빨간 튜립 꽃병이 놓인 사제관 책상에 앉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의 서재에는 오색 계란들과 노란 솜으로 만든 병아리들이 작은 등지에서 부활 성가를 부르는 듯 성 신부를 향하여 입을 벌리고 있었다. 이튿날은 프랑스 신부들의 모임이 성 신부 사제관에서 열릴 것이다. 한국의 덩퍽정치상황은 여전한 것 같다. 달러 시세는 5년째 5백원으로 늘 같은데 생활비는 매일 겁나게 오르고 있다. 수녀들이 하는 병원은 점점 커지고 잘되고 있어서 신축을 생각할 정도이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은 괜찮다. 귀가 좀 어두워질 것이며 가끔 숨이 찰 때가 있긴 하지만 잘 먹고 잘 잔다 하는 내 용이었다.

안나의 집에서는 두 명의 영세자가 있었다. 성 신부 부재 기간에 미사를 드려 준 한국인 신부와 공동 미사를 집전했다. 아주 멋진 미사였는데 끝 부분에서 '자, 미사가 끝났으니... 알렐루야'를 한국말로 부를 줄 몰라 혼자 잔뜩 겁을 먹었더니 모두들 웃었다.

9월 24일, 일본에 있는 테레즈 수녀가 와서 2박 3일을 보내고 갔다. 성 신부는 동생 수녀와 모국어로 이야기하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테레즈 수녀는 지청원자 수련자 학생 모두 80명이 노래 부르며 기도드린 미사에 참석하고 풍성한 결실이 기대되는 멋진 대 미사라고 찬사를 보냈다.

성 신부는 15명의 청원자들이 수련 기간에 들어가기 전 3주의 휴가를 마치고 한 명도 빠짐없이 돌아왔음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성가소비녀들은 갈 수 없는 고향을 두고 마음이 산란해지는 설립자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성 신부 고혈압으로 흔들리다

1979년 한국의 정치 상황은 경찰 체제로 돌변했고 외국인들은 감시당하고 있었다. 정부와 관련된 그 무엇(JOC : 가톨릭노동청년회나 JAC : 청년 농민동맹)에 관여하게 되면 그들은 즉시 공산주의자 딱지가 붙는 판국이었다. 교우들은 겁내지 않고 자주 시위를 벌이고 성 신부의 동료 사제 주교는 추방의 협박을 받고 있었다.

시국은 정말 뒤숭숭하였다. 대통령이 살해된 사건은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교회는 그 대통령과 여러 차례 다투는 바람에 아직 3명의 사제가 투옥되어 있다.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며 단지 대통령이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뿐인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대역 죄가 된단다. 12월 6일은 새 대통령

선출일이다. 그 뒤에 또 한바탕 무슨 소동이 일어날 것 같았다.

성 신부의 혈압은 2백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베아트릭스 수녀가 매번 약 먹을 시간을 챙겨주어서 140 정도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으나 앉았다가 일어서려면 잠깐씩 휘청거리기도 하고 나이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였다. 모국어가 아닌 한국어로 강의를 계속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독서도 적게 하게 되고 착상도 잘 떠오르지 않는다.

베아트릭스 수녀는 여전히 헌신적으로 성 신부를 돌봐 드리고 있었다.

잘 자고 잘 먹는다고는 하지만 성 신부는 수술 이후 숨 차는 증세가 잦아졌고 머리 쓰는 일을 하거나 강론 준비를 할 때면 머리가 무겁고 두뇌 회전이 잘 안 된다고 호소하였다. 좋은 친구 구인덕(Coyos) 신부를 자주 만나러 가고 또 그가 오곤 하였다.

9월 10일, 성 신부는 자신의 사제관에서 동료 신부 8명과 함께 70회 생일을 보냈다.

이런 와중에서도 성가소비녀회는 회원이 3백 명이 되었다. 명년 1월에 새 총장 선거가 있을 것이다. 날씨는 춥고 중앙난방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성 신부는 현 총장이 바뀌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었다. 그는 성가회 총장 수녀가 세계 총장 수녀 회합에 참석하기 위하여 로마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다 준 노르망디 산 까망베르 치즈를 맛있게 먹고 있는 중이라며 국가 사회와 수도회 돌아가는 일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위협적으로 오르내리는 혈압 증상에 시달리면서도 미식가의 취미를 포기하지 않는 성 신부는 과연 풍부한 인간성의 면모를 보여주는 소비녀들의 아버지였다.

5. 칠순의 원로 사제가 되어 1980~1984년

프랑스 대사관에서 1등 공로 훈장을 받다

1980년 12월 9일 저녁 6시 30분, 프랑스 대사관에서 수여하는 1등 공로 훈장을 받게 된 성 신부는 그것을 빅뉴스로 전하고 있다. 진짜 보석이 박힌 훈장 값은 새 프랑으로 5백 프랑. 대사가 직접 상훈국(프랑스)에 돈을 내고 사서 주는 거라고 한다.

파리외방선교회 기념일에는 에맹의 수도회 원장님으로부터 5천 프랑이나 되는 큰돈을 받았다. 성 신부는 그게 다 엄마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며 신기해 하지않았다. 그것은 수녀원 건물이 낡아 비가 새어서 전체를 다시 짓다시피 하는 그 공사비에 보탬이 될 것이다. 그와 함께 성 신부는 명년 3월 19일에 들어올 입회자들이 20여 명이나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벌써부터 기대가 컸다. 주일마다 오후 2시와 7시에 수련자들과 청원자들이 성 신부를 방문하여 함께 TV 시청을 하는 것도 매우 기대되는 일종의 하나였다.

난방과 세탁용 기름을 병원 덕분에 하루에 한 통씩 얻어 쓸 수 있고 또 베아트릭스 수녀의 보살핌으로 성 신부는 행복하였다. 이제 70세가 되었으니 명이 짧다고는 할 수 없으나 오래 살기를 바라지는 말자고 마르그리트 동생 수녀에게 다짐하는 성 신부의 모습은 갓난 아이처럼 자유로웠다.



프랑스 공로훈장



공로훈장 상장

1981년

9월 초에 여동생 리제뜨가 친구와 함께 와서 3박 4일 보내고 갔다. 성 신부는 7월 초부터 그들의 방문을 위하여 입출국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한국 내에서의 관광 일정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느라고 매우 바빴다. 그는 사제관의 침대와 손님방을 내어주기로 하였다. 성 신부가 지난번 휴가를 갔을 때 리제뜨의 침대를 사용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짜 놓은 스케줄대로 착착 진행된 그들과의 일정에 대해서 경탄하였다. 공항 도착시간에 맞추어 수녀원 차로 데려온 일, 근사한 저녁식사, 수련자들의 환영식, 병원과 양로원, 학교 등의 주요 사도직 현장을 둘러보고 논산 성당 방문, 명동 성당과 순교자 성당 방문, 백화점 쇼핑 등의 일정이었다. 그리고는 일본으로 떠나갔다. 그들은 성가소비녀회 수녀들에게 레이스 뜨기 책과 재봉에 관한 책들을 선물하였다.

성 신부는 한국이 비록 부족한 점들이 있어도 후진국가가 아니라 유럽에 비해 어느 것 하나 뒤지지 않는 아주 현대적인 국가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음에 만족해하였다. 리제뜨와 함께 한 사흘은 번개처럼 지나갔다. 한국에 와서 그렇게 즐거운 적은 없었다고 할만하였다. 성 신부는 물세탁이 가능한 예쁜 이불을 누이들에게 선물로 보냈다.

성 신부는 마르그리뜨 동생 수녀가 교직을 떠나 노인들을 돌보는 소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을 그녀와 동일시하는 말을 들려준다.

“이곳의 나도 역시 어린 수녀들과 함께 140여 명의 노인들을 돌보는데 그중에 어떤 이들은 지체부자유이고 맹인이고 불쌍한 행려자 들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나의 누이일 뿐만 아니라 동료인 셈이구나!”

“절대로 그들이 하는 말에 맞서서는 안 된다. 만일 그들이 억울하니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하겠다고 하면 ‘잘소, 경찰서로 같이 갑시다’ 하거라. 그래야 그들의 입이 다물어질 테니까!” 여기서 성 신부는 정신적 장애인들을 대하는 현명한 태도를 보여준다.

성 신부는 마르그리뜨의 수녀의 소임 이동을 축하하며 그녀의 죽일 또한 축하하며 한 말씀을 남기셨다.

“우리가 서원을 할 때엔 백지 수표에 서명을 하는 것이고 좋으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그분께서는 조금씩 조금씩 밝혀주시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건네시는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사랑이란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야말로 모든 것이 은총이고 사랑이니까. 그러니 축하한다. 새로운 시기를 향해 전진하거라. 하느님, 감사합니다.”

71세의 원로사제 성 신부는 동정녀 누이동생들에게 큰 오빠이며 부모다운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는 든든한 팔이 되어 주었다.

1982년 성 신부 건강상 강의와 강론을 중지하다

성 신부는 혈압이 다시 오를까 봐 강론 준비를 포기했다. 그 대신 8월에 수품을 받기로 되어 있는 한국 부제가 주일 미사 때마다 와서 강론을 해주었다.

다리의 관절통이 잠시 사라진 것 같더니 떨림은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총장 수녀에게 허락을 얻어 차를 빌려 타고 외출을 해야만 하는 상태가 되었다.

주치의는 성 신부에게 집에서 음식을 조절하라고 하였다. 담배, 소금, 설탕, 버터는 더 이상 입에 대지 말라고 하였다. 그 맛있는 것들을 끊기가 어려워서 그는 하느님의 은총이 한국 땅 위로 지나가 버리셨나 하였다.

성 신부는 강의와 강론을 하지 않게 되었어도 편지 쓰는 일은 계속하였다.

5월과 9월, 12월에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로 한 쪽 다리를 저는 막내 여동생 마리끌레르에게, 사랑하는 형제 누이들에게, 마르그리뜨 수녀에게 각각 편지를 썼다.

성 신부는 특별히 애정이 가는 여동생 마리끌레르로부터 8쪽에 걸쳐 뽀뽀하게 적은 편지와 책 한 상자를 받았다. 그는 어안이 병병할 정도로 감동이 되었다.

성 신부는 ‘층층이 부채 꽃’씨 이야기, 남동생 폴 이야기, 조카 손자들 이야기며 정치에 대한 이야기며 교황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체스토코바의 성모님 이야기며 여러 가지를 말해주면서 세 쪽 짜리 답신을 마감하였다.

9월에 일본에 있는 테레즈 수녀가 왔다가 하루 만에 갔다. 고요하고 평온한 저녁시간에 성 신부는 누이동생 테레즈 수녀와 오랜만에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성가소비녀회의 수녀들은 꾸준히 늘어가고 안나의 집 증축공사는 거의 끝나가고 이튿날엔 유치원 원아들이 개학하는 날이다. 성 신부는 그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는 게 즐거웠다.

성 신부는 종종 자신이 성가소비녀 수녀회 외에 소사 양로원과 총원 구내에 있는 안나의 집 두 개의 양로원을 경영하는 주체라고 생각하였다.

“나 역시 수녀원 외에도 2개의 양로원을 경영하고 있는데, 한 곳에는 110명이 있고 또 한 곳에는 40명이 있다. 그들 중에서도 가장 보기에 딱하고 처지가 안 된 이들은 나이 많은 이들과 맹인들이다. 우리 집에는 그런 사람이 8명이나 있다.”

한국에 대한 관심도 여전하였다. 그들이 기회를 잘 이용한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한국인들은 너무 성급하게 세례자들을 많이 만들기도 하지만 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이용한다. 모든 자원을 끌어들이서 물건을 신속하게 만들고 대통령은 한국 물건들을 사줄 만한 나라들을 순방한다. 특히 옛날 프랑스 식민지 나라들에게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이 붙은 물건을 판매한다. 서울역 앞에는 32층이나 되는 거대한 빌딩이 있는데 그것은 파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들 중 하나이다.

학교에는 학생이 많아서 교사 한 명당 70명의 학생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 수녀들도 침대가 480개나 되는 큰 병원을 짓고 있는 중이다. 그들은 배운 경험을 잘도 이용한다며 성 신부는 이번에도 프랑스와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1983년 성 신부 육신의 쇠약함을 체험하다

성 신부는 8월에 타자기를 부서뜨리고 손이 떨려서 글씨를 제대로 쓸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짝막하게나마 편지를 썼다. 9월 편지에서는 “너희가 지난번 내 편지를 받고 놀랐을 거다. 놀랄 것 없다. 그건 화가 나서, 실망해서 한 번 그렇게 해본 거니까. 나 가끔 그러잖나.” 하고 변명을 해서 보냈다.

힘겹게 미사를 드리고는 있으나 기억이 뒤죽박죽이어서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다.

그런 데다가 전에 직접 영세를 준 35세의 꼽추 처녀의 장례미사에 가다가 운수 사납게도 두 번이나 넘어지는 바람에 오른쪽 눈을 약간 다치고 엉덩방아를 찧었다.

성가병원은 진료실 14개에 침대 4백 개가 드는 대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10월 말에 개원할 예정에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도 성 신부는 신경이 쓰졌다.

9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성가소비녀회 설립 40주년 행사가 열렸다. 추기경 집전 미사는 물론 한국 사제들이 60명 정도, 신자들도 2백 명이나 참석하는 대축제였다. 추기경님은 성가소비녀라는 이름에 대하여 풀이를 해주었다.

성 신부는 이 행사에 참석한 지 주교님을 알아보았다. 그분은 공산당을 도와주었다고 옥살이를 하신 분이라며 지금은 매우 편찮으셔서 몸이 많이 여위었다고 하였다. 수녀가 짜서 만든 레이스들은 바자회에서



40주년 바자회 행사 1983년 9월 10~11일



종신 서약 기념 촬영



마더 테레사 방문



아버이 날



어느 날 본원 정원에서



어느 날 본원 정원에서

104만 원어치가 팔려 나갔다.

최근에 성 신부는 구인덕(Coyos) 신부를 만나러 가던 길에 갑자기 코를 땅에 박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그 후 보름 후에는 또 가파른 길을 내려오다가 땅이 꺼지는 듯하더니 쓰러져 버렸다. 그는 곧장 병원으로 실려 가서 코 윗부분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제 성 신부는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한다. 미사 때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서 지극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했다. 빵만 축성하고 포도주는 못하는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더 이상 강론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 일련의 일을 겪고 난 성 신부는 자신이 고물이 되어간다는 걸 깨달았다.

성 신부는 프랑스에 있는 여동생들에게 형제와 다름없는 친구 구 신부를 위해 그를 잘 대접하라고 부탁하였다. 그는 거기 가서 암 진료를 받을 것이다. 그가 떠나고 성 신부는 당분간이나마 자기의 속사정 이야기를 할 친구가 한 명도 없음을 못내 아쉬워하였다.

1983년 12월 어느 날, 성 신부는 에맹의 수도원 원장 신부님에게서 받은 6천 프랑을 그날 아침 총장 수녀에게 건네주었다. 한국 돈으로는 60만 원이 되는 금액이었다. 성가병원 신축비로 지원될 것이었다.

“작년엔 거대한 병원 건물을 짓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설계가...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만 아직도 지불해야 할 액수가 환상적이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수녀회의 총책임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디서 오지도 않는 돈에 신경 쓰는 것이 이제는 지겹다고 덧붙였다.

그의 건강도 그랬다. 성당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지팡이를 짚어야 하고 성체강복을 할 때면 복사 아이와 부제가 부족해서 일으켜 주어야 하는 상태였다. 그것이 모두 젊은 날 자전거로 수천 킬로를 달린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성 신부는 동료들이 방문했을 때 쓸 고기 파이 통조림을 더 보내주기를 안드마리에게 청하였다. “테레즈 말대로 우리가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무사하게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경이로운 일이 아니겠니. 좋으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무척 사랑하신다.”라는 축복의 말과 함께.

6. 고혈압으로 신음하는 설립자 성 신부

1984년 103위 시성식에 참여하다

성 신부는 3월부터 고혈압 증세로 바짝 긴장하며 고통스러웠다. 그는 교황 성하의 방한 시 103위 시성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다.

5월 6일 우리나라 순교자 103위의 시성식이 거행된 날 성 신부는 여의도 광장에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성하를 뵈었다. 자끄 형님과 형수 즈느비에브도 와서 만났다. 그래서 그는 에댕에서나 혹은 이 지구 상 어떤 곳에서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였다.

그러나 그는 혈압이 높아져서 글씨를 제대로 쓸 수 없었다. 타이프라이터의 자판을 자꾸 틀리게 쳐서 편지가 낙서장같이 되어버렸다. 미사도 서울 추기경의 허락을 받고 앉아서 드려야 했다. 베아트릭스 수녀는 복사를 썼다. 그러다가 성 신부는 약 2주간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고 퇴원 이후로는 짧은 편지만을 쓸 수 있게 되었다. 37도의 더위 속에서 그의 혈압은 130에서 140을 오갔다. 코요스 신부와 뒤랑(Durand) 신부가 다녀갔다.

성 신부는 나무가 있는 수녀원 정원을 휠체어로 산책하며 야외 공기를 호흡하였다. 그것은 매일 제대위로 내려오시는 사랑의 하느님과 함께하는 산책이었다.

고혈압과 싸우며

7월이 되었다. 의사는 성 신부에게 백여 개나 되는 약을 처방하였고 그것을 복용한 성 신부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되자,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억지로 백여 킬로를 걸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정신 간간 성 신부가 아닌가 하고 의아해하였다. 혈압도 없고 열도 없어서 잘 자고 잘 먹는데 밤새 자고 일어나면 여전히 피로하고 의식은 뿌연 상태가 되었다. 리제프의 권고대로 활기 있게 지내려 하지만 성체 분배도 못하고 고해 성사만 겨우 줄 정도가 되었다.

미사는 베아트릭스 수녀의 도움으로 드리는데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성 신부는 마음고생이 무척



수련자들과 한때



유치원 아이들과

크면서도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자 했다. 하느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룰루 숙모님께 기도를 청했다.

8월에는 입원했다가 18일에 퇴원하였다. 평균혈압 130~140/80~90. 하루 진료자가 7백 명이 되는 매우 큰 그 병원에는 넓은 마당과 나무들이 있고 매일 아침 의사, 간호사, 레지던트, 인턴 모두가 모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매우 활기찬 곳이었다.

고장 난 타자기로 편지를 쓰려다가 잘 되지 않아서 공연히 리제프의 건강을 부러워하며 투정을 부리기도 하였다. 이제는 매우 짧은 편지 한 장 쓰는 것도 정신력을 너무나 많이 소모하는 일이 되어버렸다.

10월 8일 성 신부는 40년째 파리와방선교회 신부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있는 의사 쉬로(Sureau)의 방문을 받았다. 혈압은 140/80이 되었다. 어느 수녀의 혈압은 190까지 올라가기도 한다면서 자신의 것과 비교해 보기도 하였다. 그날은 폭염이 계속되었고 코요 신부와 뒤랑 신부가 와서 같이 점심을 먹기로 한 날이었다.

정서불안의 시기를 넘어

그즈음 성 신부는 미사를 집전하기는 하지만 성당 안에서 지팡이를 짚고 조금씩 걷고 잠을 많이 자고 혈압도 점차 내리기 시작하여 희망적이 되었다. 오는 12월 1일에는 20명도 넘는 수련자들이 착복식을 하게 된다. 언제나 재잘거리를 잘 하는 수련자들은 재미있었다.

11월이 되었다. 어떤 날에는 ○○○수녀에게 무척 엄격하게 대하고 또 어떤 날에는 무척 개방적으로 대하고... 그는 병으로 인한 정서불안증을 겪어야 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에 성 신부는 화가 치미는 것을 느꼈다.

그는 50여 명이 참석하는 안나의 집 성당에 앉아서 미사를 드렸다.

성 신부는 늙음과 죽음에 대하여

“나는 이제 겁나는 것이 없다. 출발도 좋았고 이제 지원자가 약 90명이나 되는 겁나는 숫자이지만 난 앞날에 대해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 뜻은 성실함으로 일관해 온 생애에 대한 마음의 평화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았다.

제 4 장 _ 설립자 성 신부 금경축을 맞이하다 1985년

1. 성 신부 눈물과 설렘의 시간을 만끽하다

금경축일을 지내기 전에 수개월을 성 신부는 기대감과 울적함을 동시에 겪어가면서 준비하고 기도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다.

새해를 맞아 하루 일과표를 짰다. 아침 식후 정원을 산책하고 큰 형님이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라 크루 아 지를 읽는다. 점심 식후에는 낮잠을 잔다. 저녁 식후에는 성무 일과를 바친 다음 TV를 좀 보다가 일찍, 대개 7시 30분쯤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다.

그는 낮잠 자는 것에 대하여 나이가 먹을수록 잠이 늘기 때문이라고 합리화했다. 의사가 처방해 주는 특효약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것은 매일 쏟아내는 설사 때문이다. 어지간히 힘겨운 일이지만 그리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

성 신부는 총 원장 수녀와 이야기를 나눈 끝에 9월에 있을 금경축에 안느 마리와 리제뜨를 초청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안느 마리아에게 필요한 한국말 몇 마디를 적어 보냈다.

MERCI - Kamsa hamnida. 감사합니다.

BONSOIR - Angniong i tjou mou siyo. 안녕히 주무시오.

MANGEZ BEACOUP - Man hi tjapsousio. 많이 잡수시오.

누이동생 마르그리뜨 수녀도 금경축에 초대하였다. 테레즈 수녀처럼 과감하게 허가를 신청하여 아시아를 보고 싶어 하는 소망을 달성하라고 권장하였다. “수련자들에 의해서만 전승되는 노래와 춤, 그것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노력해 보라. 결코 후회하지는 않을 테니까.”

성 신부는 특별 손님을 위하여 삼페인 두 병을 갖다 달라고 청하고 누이들에게 비행기 시간표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었다 : 914-2078, 4811

룰루 숙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첫 미사 때 성작을 사주셨고 매년 에댕 수도원을 방문하시며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다. 여동생 안느 마리가 숙모님의 간병을 들어드렸다. 친숙한 숙모님. 성 신부는 그 숙모님께 늘 기도를 청하곤 했었는데 이제 돌아가셨단다. 또 한 분의 지지자를 잃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울적해짐을 어쩔 수 없었다. 33년 전에 벌써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을 하며 눈물이 나왔다.

2월에는 몸보다 마음 상태가 좋지 않았다. 자끄 형님에게 간단한 안부 편지를 썼다. 누이들에게는 한국의 큰 명절 음력 설을 소개하여 이르기를 아이들은 형형색색 아리따운 옷을 차려입고 노래하고 떠들며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어른들은 집에서 조상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 제사를 올린다. 과자도 먹고 집에서 마련한 음식을 가지고 조상들의 묘지를 찾는다. 며느리들은 이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것은 시험을 치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셈이라고 하였다.

구 신부가 와서 저녁을 먹었고 다음 주에는 성 신부가 그의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 차례이다. 추위는 가



성체거동 본원



성체거동



성체거동 꽃 소녀



성체강복



교황대사 프란치스코 문메리시 방문 때



수녀들의 행렬

시고 봄이 오는 걸 느끼며 성 신부는 고향에 있는 가족 친척들과 함께 모여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성가소비녀회 식구는 24명이 늘었다. 본당에 나가 있는 수녀들이 영세자를 얼마나 얻었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 상상해본다.

6월 9일에 있을 성체거동 때 교황 대사를 초청하였으므로 성 신부는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했다. 금경축에 올 세 누이들(테레즈, 마르그리뜨, 리제뜨)에게는 항공사 이름과 도착일, 시간 등을 알려달라고 하였다. 성 신부 선물은 까망베르 치즈를, 수녀들을 위해서는 진단 의료 기구를 청하였다.

칠월이 왔다. 금경축을 준비하며 기대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였다. 그는 초청한 가족들의 도착 일시를 알려달라고 촉구하였다. 가능하면 9월 13일 전에 오라는 거였다. 7월 22일에는 오랫동안 기다리던 답장을 받았다. 마르그리트만 빼고 안느마리와 리제프와 테레즈 수녀 3명이 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성 신부 사제 수품 50주년 축일을 지내다. 1985년 9월 13일

드디어 성 신부의 금경축일이 왔다. 그의 수품 날짜는 7월 7일이지만 그는 자신의 탄생일을 기념일로 택하였다. 그는 다행히도 축일을 잘 보낼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다.

금경축 미사는 9월 13일 탄생 75주년 기념일에 김음동 성당에서 김수환 추기경 집전으로 오전 10시 30분에 이어서 축하식이 있었다.

축사에 따른 성 신부의 답사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반세기 동안 사제직을 수행하여 오늘에 이르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이었다.

성가대는 사제 찬가를 불렀다.



금경을 맞는 성 신부



성 신부 영성체



금경축 미사



금경축 미사 성가대



성 신부의 여동생들



성 신부 여동생들 영성체



절 올리기



축하 코사지



축사



수녀들이 절을 올리다



지청원자들의 절



꽃다발



축하연



고전무용



지원자들



부축을 받으며 강당으로



김 추기경과 인사



정원자들



지원자들



케익 자르기



건배하다



서원 수녀들



뮤지컬



축하연이 시작되다



합창



마지막 축하



마당에서



금경 기념사진



금경 공로패

금경축 상본 사진

추기경과 교황 대사, 9명의 주교, 50명의 사제, 옛 본당 교우들, 350명의 수녀 등등. 300명이 훨씬 넘는 인파였다. 성 신부를 비롯한 그의 누이들 모두 한복 차림이었다.

총원 강당에서 축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합창 '주의 동산'에 이어 부채춤과 함께 십여 가지의 순서가 진행되었다.

누이동생 테레즈 수녀는 그날의

축제 광경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삼페인에 쇠고기... 우리는 프랑스식 당과를 만들었지. 그리고 수련자들이 한국 무용과 노래를 선사했는데 그토록 전형적이고 그림 같은 한국적인 잔치에 우리가 또 참석할 기회는 영영 없을 거야... 그리고 총장 수녀님께서 하루에도 열 번은 피에르 오빠를 찾아와 말을 하지. 모두들 우리에게 선물을 한 아름 안겨주었으니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금경축일을 지내고 나서

성 신부는 금경축을 몇 개월 앞두고부터 심한 두통에 시달렸었던 것 같다. 금경축 당일 아마도 너무 피곤한 탓으로 정신을 잃고 몇 마디 비상식적인 실언을 했다고 한다. 성 신부는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그것은 전혀 책망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편지 한 통에 보름을 쉬어야 하는 상태여서 성 신부의 주치의는 그에게 글 쓰는 일을 일체 금지시켰다는 것이다.

금경축일을 성 신부와 함께 지내고 며칠을 더 머물렀던 테레즈 수녀는 “피에르 오빠는 여전히 미사를 집전하고 여전히 좋으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오빠를 떠나려니 마음이 무겁지만, 오빠의 삶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 청원자, 수련자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노래도 부르고 재미있게 해주고 옷케 만들어 주고, 또 파리외방선교회 신부님들도 방문해 주고, 구 신부님은 일주일에 두 번 방문하고 테레즈를 공항에 데려다줄 때도 그가 같이 갔고 오빠도 같이 갔어.” 하였다.

안느 마리와 리제뜨는 성 신부가 이루어 놓은 일들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 부천 성가병원과 성 신부가 전에 있던 본당에도 가보고 한국 관광코스도 둘러 보고 온 그들의 입이 닫혀 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아울러 한국에는 생각보다 산이 많고 서울은 교통이 문제이며 낙후된 구역과 나란히 65층의 건물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름다운 도시는 못된다고, 그런데 많은 한국인들이 옷은 화려하게 입고 다닌다고 평하였다 한다.

금경을 지낸 성 신부 건강을 호전시키다 11월

성 신부는 큰 형수 즈느비에브와 조카딸 폴레뜨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회복하였다. 그는 소변을 보지 못하는 바람에 민감한 부분에 수술을 받고 살아서 집으로 돌아왔다. 수술은 5분 만에 끝났고 그의 건강은 약간 호전되었다. 베아트릭스 수녀가 만들어준 프랑스 요리 라파뚜이유를 먹을 정도였다.

그는 여전히 살아 있고 건강하며 잘 자고 여러모로 다른 건강한 사람들과 같은 상태라고 자부하면서도 자주 불평을 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근심을 안겨 주는 자신을 스스로 의식하였다. 그 불평이라는 것들은 리제뜨가 서울에 왔을 때 따뜻한 실내화와 넓은 바스크 베레모를 보내준다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거나 총장 수녀가 6월에 프랑스에 갔다 오라고 했다거나 하는 것들이었다.

3. 성 신부 초조해지다 1986년 2~4월

어린이처럼 일상사에서 부딪히는 일들에 상심하는 성 신부는 1986년 1월 형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울적하였다. 즈느비에브 형수님께 위로의 편지를 쓰며 그는 물을 쏟아내듯 울고 싶었다. 그는 형님이 바로 자기 앞에 계시는 듯한 느낌으로 온유함을 남겨주고 떠난 형님의 죽음을 축하한다고 하



산책하는 성 신부



휠체어를 타고



어느 부활 시기에



교육관 앞에서



노년의 성 신부 1965년

였다. 그는 형님이 의사인 큰 아들 장 피에르의 처방 약 덕분에 그동안 잘 견디어 냈다고 믿었다.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것임을 말하며 형수님께 밝은 마음 주시라고 기도하였다.

성 신부는 돌아가신 형님을 위해 5대의 미사를 봉헌하였고 교우들은 수십 차례나 연도를 바쳤다.

성 신부는 벌써 일 년이 넘도록 그렇게 많은 약을 챙겨 먹는데도 하룻밤에 서너 번씩 쏟아지는 설사병을 막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편지를 읽는 일도, 미사경본을 읽는 일도 어려워졌다. 입원과 퇴원을 거듭해가며 앞으로 50년은 더 살 희망을 가져보기도 하고 야크 형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성탄 때 수많은 카드를 받아도 마음이 아프고, 수련자들이 환호하며 눈싸움을 벌이며 설립자 성 신부를 끌어들이려 해도 심란하기만 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살지도 못한 주제에 축복만 받으려 하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한다.

이제는 더 이상 고향 집안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도 없이 되었다. 그는 리제프에게 식구들 모두의 건강



선교사제 피에르 생제 1935년 7월 7일



장년의 성 신부 1960년대



1983년 아버지 날 독사진



베레모의 성 신부

을 부탁하며 평화롭게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청하였다.

4월의 화창한 날 성 신부는 두 명의 한국 사람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며 구 신부가 프랑스에 가고 나면 좀 더 울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누이들 모두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50년을 더 살 희망과 이미 돌아가신 형님처럼 되고 싶다는 모순적인 실언을 역설적인 유머 감각이라고 할까? 성 신부는 오후에 구 신부가 와서 타이핑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 5 장 _ 성 신부 투병에 빠지다

1. 생의 마지막 시기에

금경을 지낸 성 신부 무기력 상태가 되다 1986년

성 신부는 50일 동안 부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6월 28일 토요일에 퇴원해서 집으로 왔다. 7월 7일 성 신부의 사제 수품 기념일을 성대한 잔치로 기념했다. 수녀들은 성 신부가 작곡한 노래를 부르고 무용도 했다. 그는 선물을 받고 마지막에 강복을 주었다.

아르멜 뒤랑 신부와 케르모알(Kermoal) 신부가 성 신부 편지를 대필했다. 성 신부는 꾸준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류머티즘 약을 청했다.

10월 19일, 가족 모두에게 5시간이 걸려 서너 줄의 짧은 편지를 썼다.

성 신부는 가족들이 보내주는 긴 편지에 감사하며 서재에 아빠, 엄마 사진, 삼촌들 사진, 모리스와 아실르 사진, 동생들 사진들을 놓고 보며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전한다.

10월 30일, 마르그리프 수녀의 긴 편지는 성 신부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그는 가족의 소식을 더 들었으면 좋겠다면서 교황께서 프랑스를 방문하신 소식을 가끔씩 듣고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서너 줄의 짧은 편지였다.

11월 10일, 성 신부의 건강은 좋지 않았다. 그는 즈느비에브 형수님께 “저는 침을 흘리고, 세상에서 단절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저는 배추만 간신히 먹어요. 많은 수녀들이 저에게 안부를 물으러 옵니다. 형수님과 조카 손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금경축을 지낸지 일 년이 넘었다. 성 신부는 생기를 잃은 듯 감각기능과 수족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가고 있음을 자각하였다.

1987년

1월 30일, 눈이 내리지는 않았어도 밖의 날씨는 추웠다. 성 신부는 따뜻한 방에 있지만 손을 떨어서 편지를 쓸 수 없고 식구 모두를 생각한다. 배세영(마르셀 Pelisse) 신부가 편지를 대신 써 준다. 동료들과 수녀들이 최선을 다 해 도와주고 있음을 의식하며 기도를 청하였다.

그는 방에 앉아서 베아트릭스 수녀와 미사를 드린다. 일요일에는 안나의 집에서 미사를 드린다.

테레즈 수녀는 3월 25일 저녁에 와서 4월 8일에 돌아갔다. 성 신부는 테레즈 수녀가 온 다음날 마르그리프 수녀에게 답장을 쓰게 하였다.

“그토록 다정하고 그토록 경건한 마음을 일으키는 너의 편지에 감사한다. 그건 나를 유익하게 하는구

나. 우울한 성인은 보잘것없는 성인이라는 말은 성직자들의 토론에서 가장 유평파적인 주제이다.”

성 신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였다. 그의 건강은 악화되어 있었다. 식욕이 좋아져서 전에 빠졌던 10Kg이 다시 찼고 잠도 잘 자고 그런데도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다리 한 쪽을 들어 올리려면 큰일이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는데 오전에 테레즈 수녀와 산책을 다녀왔다.

그녀는

“오늘 아침에는 피에르 오빠는 방에서 미사를 드렸고 거기에는 물론 베아트릭스 수녀와 또 다른 수녀 두 명이 함께 미사에 참석했지. 언니가 그 모습을 보았다면...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 오빠는 기운이 없어서 이따금 입술만 움직였는데 아니 그건 움직였다고 할 수가 없겠지. 베아트릭스 수녀가 오빠를 대신 해서 읽었어. 오빠가 라틴어로 읽은 축성문마저도 너무나 작아서 들리지를 않았고, 오빠는 성체를 들지 못해서 베아트릭스 수녀와 함께 성체와 성작을 거양하는데 그때에도 오빠는 모든 힘을 다 모아서 하는 것 같았어... 오늘 구 신부가 오기로 되어 있으니 그에게 가끔 와서 오빠와 함께 미사를 드려달라고 청해도 별문제가 되지는 않겠지.”

“나는 온종일 오빠 곁에서 지내고 오빠는 즐기고, 우리는 성무일도를 읽고 אני 내가 오빠한테 읽어주는 편이고 묵주기도를 2단 정도 바치고 등등... 오빠는 의무를 다하는 데는 빈틈이 없어서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성무일도를 바치러 오는 데 책을 들고는 아무 쪽이나 펴서 읽는 거야. 딱한 피에르 오빠...”

성 신부의 성무일도는 묵주기도로 대신하기에 이르렀다.

2. 성 신부 집에서 쓰러지다 1987년 6월 8일

그날 성 신부는 성 바오로 수도회 유성식 수사의 종신 서약식에 갔다가 김포 공항에 가서 리제프를 수녀원 승용차로 데리고 왔다. 파리외방선교회 지부장 배세영 신부의 권고로 성 신부는 여동생 리제프에게 1개월만 와 있다 가라고 요청하였다. 베아트릭스 수녀를 쉬어주기 위해서였다.

사제관으로 돌아온 리제프는 베아트릭스 수녀를 보고 자기가 왔으니 이제 빨리 바깥을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성 신부가 리제프에게 왜 그리 서두르느냐고 말하는 순간 그는 ‘쿵~’ 소리를 내며 침방 문지방에 쓰러졌다. 그들은 성 신부를 모시고 부천 성가병원(현 부천성모병원)으로 가서 입원시켰다.

그로부터 성 신부는 방광에 홀리(14-24K 고무호스)를 끼고 사는 고통을 감수하여야 했다. 리제프는 열흘간 눈물을 주체치 못하고 10일 만에 돌아가고 말았다. 그리고 베아트릭스 수녀는 성 신부 간호하는 일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다.

1988년 1월 26일

성 신부는 일주일에 1000cc씩 혈관주사를 맞고 식사를 조금 한다. 혈액순환은 잘 되고 있으며 조금 마

르기는 했으나 혈색은 좋다. 사람을 알아보고 몇 마디 말도 한다. 운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화장실에는 4~5일 만에 한 번씩 간다. 방에는 간호사 수녀들이 교대해서 지킨다. 베아트릭스 수녀와 테클라 수녀는 성 신부가 어떤 작은 반응 하나라도 보이기만 하면 곧장 달려온다.

큰 조각 끌로드 뽀제의 편지를 읽어드리니 좋아하며 들었다. 겨울이지만 방이 따듯하다. 매일 오후 1시 경에 총 원장 도미나 수녀가 봉성체를 해드리며 성 신부님이 인내롭게 견디고 고통을 주께 봉헌하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앞으로는 모든 편지 쓰기를 대필자가 하게 되었다. 배세영 신부, 구인덕(Coyos) 신부, 익명인, 서울 갈멜의 아르멜 뒤랑 등이 여동생 엘리사벳(리제프), 요한 마리 뽀제(마르그리트) 수녀들에게 썼다.

화창한 봄날 성 신부는 서재에서 일어나 앉아 텔레비전을 본다. 말하기도 수월해졌고 기분도 괜찮다. 오전에 두봉 주교님이 오셔서 천상의 모후 노래를 함께 불렀다. 지난 금요일에는 임진각에 갔었는데 거기서도 노래를 불렀다. 4월에는 스카이웨이로 드라이브를 하면서 진달래, 개나리 등 봄꽃들을 구경하고 왔다. 매일 마당과 수녀원을 한 바퀴 돌곤 한다. 그는 편지를 동봉한 소포를 받고 감사하며 기도 안에서 일치를 발견한다. 성 신부는 나름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다.

11월 10일, 구 신부는 매주 목요일 빠짐없이 피에르 신부를 찾았다. 아침에 와서 성 신부와 점심을 같이 하고 오후에나 집으로 돌아갔다.

성 신부의 건강 상태는 안정된 듯하다. 11시경에 자리에서 일으켜져서 휠체어나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텔레비전을 보고 지치면 침대로 돌아가 쉰다. 기온 변화가 있을 때를 제외하면 오랫동안 잘 잔다. 식욕도 좋아졌다.

간호 수녀들은 피로한 기색이 역력하다. 테클라 수녀는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며칠 동안 입원했다가 돌아왔다. 베아트릭스 수녀도 나이가 많아져서 성 신부를 일으켜 세울 때나 걷게 할 때는 무척 힘이 든다. 그렇다고 성 신부는 남자 간호사를 두고 싶어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1989년 1월 12일

성 신부의 건강 상태가 더 이상 호전되지 않게 되자 성가회는 배세영 신부(MEP)를 새로운 지도사제로 맞게 되었다. 덕분에 성 신부는 매일 파리외방선교회 사제의 방문을 받을 수 있었다.

베아트릭스 수녀와 함께 성 신부를 간호하던 테클라 수녀는 심장마비 증세가 재발하여 공동체 내에서 휴식을 할 예정이었다. 그 후임으로 알벨도 수녀가 왔다. 성 신부는 아름다운 미소와 몇 마디 말씀으로 구 신부를 맞이하고 바라본다.

작년 9월부터 라 크루아 잡지를 끊었다.

구 신부는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프랑스에서 엘리사벳 자매들이 베풀어준 조출한 잔치를 기억하며 감사하였다.

3월 13일

성 신부는 식사를 거르지 않고 잘 하였지만 몸이 여위어서 매일 영양 주사를 맞고 살았다. 마르그리프 수녀의 편지를 읽어주면 귀 기울여 들으며 묻는 말에 억지로 대답을 하곤 하였다.

구 신부는 일전에 지독한 감기로 기침을 심하게 하면서도 성 신부를 만나보러 온다. 배 신부는 매일 성 신부를 찾아보고 간다. 두봉 주교와 드네스 신부도 가끔 방문해 주었다. 성 신부 방에는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새 텔레비전이 생겼다.

벌써 봄이 온 것 같다. 방문 사제가 없는 날에는 원장수녀가 매일 봉성체를 해드렸다. 성 신부는 읽어 주는 편지에 감사를 전하며 직접 답장을 쓰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하였다.

3. 성 신부 존재부동(存在不動)의 사도직을 체험하다

온 마음과 힘과 정신으로

구 신부는 5월 8일 오후 2시경 성 신부를 방문하였다. 그때는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것 같아 보였다. 성 신부는 밤새 잠을 못 이루었고 두 간호 수녀들은 혹시 마지막 시간이 왔나 싶어 그의 곁을 일본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잠옷 한 벌, 세수수건 3장, 바스크 베레 모자 한 개, 초콜릿 두 판, 세수 비누들, 목주 다섯 개, 기적의 메달 한 개 등이 진열되어 있었다.

구 신부가 오후 3시경 성 신부 곁을 떠나려 할 때 성 신부는 다시 종전의 상태로 돌아왔다. 영양주사 덕분인 것 같았다. 그는 구 신부를 알아보았고 리제프가 보내준 그 초콜릿을 함께 맛보았다.

배 신부는 성 신부가 간밤에 잘 주무신 것 같다고 구 신부에게 알려주었다.

구 신부는 안심하고 이 최근의 소식을 리제프에게 알리는 편지를 썼다.

성 신부는 의식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 같았다.

1990년 12월 28일

구 신부는 12월 27일 오후에 성 신부를 방문하였다. 성 신부는 예의 아름다운 미소로 구 신부를 맞이해 주었다. 16일 자 마르그리프 수녀의 편지를 읽어드렸더니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셨다. 구 신부는 성 신부에게 이 편지를 보낸 마르그리프 수녀는 당신의 대너라는 것을 힘주어 말씀드렸는데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성 신부는 구 신부의 말을 알아들은 것만은 확실하였다. 성 신부는 일전에 구 신부가 준 성화 두 장을 간병하는 두 수녀에게 주었다.

성 신부가 집에서 쓰러진 게 벌써 3년 반 전의 일이다. 그때 성 신부가 당장이라도 세상을 떠날 것만 같아서 장례준비를 서둘러 해놓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주께서는 성 신부가 움직이지 않음의 사도직과 고

통의 사도직을 오래오래 체험하기를 기다려 주신 것이라고 구 신부는 마르그리프 수녀에게 썼다.

구 신부 자신은 고혈압 때문에 한 달간 입원을 했고 많은 약을 먹었지만, 진전이 없었는데 그럴 경우 유일한 치료책은 음식에서 소금을 금하는 것이라 하여 지금 그것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어제부터 온도계가 영하 8도까지 내려갔다. 불쌍한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니 안타깝다. 복되고 거룩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구 신부와 함께

1991년 2월 23일

구 신부는 2월 22일에 성 신부를 방문하였다. 성 신부는 지난번 쓰러진 이후로 틀니를 끼우지 못하므로 수녀들은 비타민이 풍부한 유동식을 만들어 드린다. 살이 많이 빠지고 뼈와 살가죽만 남았는데도 몸은



여동생의 간호



김 베아트릭스 수녀와 함께



성 신부의 식사



수련자들의 방문



김 엠마누엘 수녀의 방문

여동생 테레즈 수녀가 왔다

두 수녀의 방문

여전히 무겁다. 신부님을 매일같이 소파로 옮겨 드리는 일이 너무도 힘겨운 일이 되었다. 베아트릭스 수녀도 몸이 쇠약해져서 4개월을 쉬어야 했다. 그러나 수녀들은 성 신부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구 신부는 성가소비녀회 수녀들이 성 신부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알고 싶어 하며 그의 사제관을 기념관으로 만들어 창설자 신부의 기념물들과 추억을 소중히 간직할 의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성 신부의 여동생들 엘리사벳과 안느마리에게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구 신부 자신은 190이나 되는 고혈압 때문에 병원에 4주간 입원한 덕분에 지금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성 신부의 식구들에게 감사하며 편지를 끝맺었다.

성 신부가 가족에게 보내는 연중 기간의 서한은 여기까지이다.

4. 가족에게 보내는 유언

연대 미상의 편지글이 하나 남아있다. 성 신부의 필체가 불안정하고 또 그 내용으로 보아 생의 마지막 시기에 가족에게 보내는 마지막 글인 것 같다.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저는 주님 앞에 제 삶을 보고하러 왔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평생 가족 모두를 사랑해왔고 지금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지 못한 것에 제 자신을 책망합니다! 인생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요. 우리는 얼마 안 가서 영원히 다시 모이게 되겠지요.

저는 제 일생 동안 선교사였고 그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요! 저와 함께 주님께 감사드리 주세요. 모범적 삶으로 저에게 이 길을 가르쳐 주신 아빠 엄마께도 감사드립니다. 물론 제가 떠날 때 부모님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부모님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비록 제가 선교사의 본보기는 못되었을지라도 오늘 부모님께서 영광과 복락을 상급으로 받으시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의 믿음은 어린 시절의 믿음이며 로마 가톨릭교회의 믿음입니다.

제가 해온 모든 것은 지극히 불완전하고 지극히 미흡한 것이나 가난한 인간이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의 많은 결점과 실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와 하느님께 용서를 청합니다. 오로지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희망할 뿐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성실하게 사제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당신의 마지막 말씀을 저도 가족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되풀이하렵니다. “서로 도와십시오. 일치만이 힘과 행복의 비결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가정의 기쁨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남으십시오. 선행만이 영원토록 남는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자신의 시간과 힘을 보태십시오.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소유하고 있는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십시오.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훌륭한 병사와도 같습니다. 방어에만 그치지 말고 공격으로 넘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이제 저를 심판하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듀! 너무나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사랑스런 조카들이여 영원히 작별을 고합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다시 모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항상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살아 있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온 마음으로 가족 모두를 포옹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안에서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피에르

제 6 장 _ 성 신부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다

1. 1987년 6월 8일부터 육신을 떠나기까지

1987년 6월 8일, 여동생 리제뜨를 상봉하던 날, 그날은 성 신부에게 재앙을 가져왔다. 방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쓰러지는 그의 몸은 더 이상 스스로 가눌 수 있는 자신의 몸이 아니었다. 두 팔을 벌리고 서서 허리띠를 매어달라고, 어디로든 데려가 달라고 통째로 내어 맡겨야 하는 몸. 그 속에 갇들어 사는 영혼은 안갯속에서 맴돌았다. 가장 좋아했던 친구 구 신부가 대필해 준 그 마지막 편지 이후 성 신부의 한 해는 그냥 그렇게 지나갔다.

틀니를 끼우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녀들이 만들어주는 비타민 유동식을 받아먹으며 뼈와 살가죽만 남았는데도 몸은 여전히 무거웠다. 더구나 방광에서는 피가 섞여 나오는 아픔 속에서 매일같이 소파로 옮겨 앉고 누워야 하는 일이 너무도 힘겨운 일상사가 되어버렸다.

1992년 정월이 지나 성 신부의 건강은 더욱 쇠잔함의 일로를 걷고 있었다. 2월에 들어서면서 식사를 거부하는 날이 잦았다. 의사소통은 물론 물 한 모금을 넘기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자 수녀들은 교대로 침대 옆에서 밤낮 성 신부를 지켜보았다. 일본의 여동생 테레즈 수녀가 와서 함께 하였다. 그렇게 혼수상태로 일주일이 경과하였다.

그리고 2월 26일 오전 6시를 일기로 그의 호흡은 멎었다. 벽시계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멎었다. 사망진단서는 그의 사인을 패혈증과 폐렴, 뇌졸중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파리외방선교회 고 문서고 기록 메모리알 무쎄(Manuscrits pour le "Memorial Moussay" 3539 SINGER Pierre, Marie, Louis Nestor.)는 썹제 피에르 마리루이 네스토 성재덕 베드로 신부의 죽음을 이렇게 전해 준다.

“1985년 9월 13일에 사제 수품 50주년을 경축한 그는, 자신이 설립한 수녀회 회원이 350명을 헤아리는 것을 본다. 그러나 그의 근력은 점차 쇠약해져 갔다. 1989년에 그는 점점 코마 상태로 떨어졌다. 그의 딸들은 그가 무의식으로 있던 오랜 기간 동안 그를 위하여 그들



정지된 벽 시계



본원 빈소

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였다. 1992년 2월 26일 마침내 그는 세상을 떠났다. 그의 시신은 북서에서 60Km 떨어진 포천 부근의 성가소비녀 수녀들의 묘지에 매장되었다.”

20여 년을 한결같이 성 신부를 자신의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돌보아드린 베아트릭스 수녀는 평소 성 신부님 말씀이 ‘한 일 주간 동안만 아프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그 일주일은 실제로 3년 반이라는 긴 시간으로 확장되었다. 그 시간은 그가 최후의 영적 고통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그 끔찍한 한 주간의 코마 상태에서 그는 아마도 자신의 사도적 관상기도를 마무리했을지도 모른다. 정화와 조명의 과정을 거쳐서 그는 지금 하느님과의 일치 과정으로 들어갔다. 속눈썹 하나 깜박일 수 없는 깊은 무의식 속에서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하신 십자가상 예수의 절규와도 같았으리라.

구 신부 말씀대로 성 신부는 참으로 ‘움직이지 않음의 사도직과 고통의 사도직’을 오래오래 체험하였다. 50여 년간 움직이는 사도직 활동에 몸 바쳐왔다면 나머지 3년여의 세월 동안 자신의 몸을 타의에 맡

긴 상태에서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했다. 50년과 3년. 그것은 양적인 공간의 대비(對比)가 아니라 질적인 시간의 대비였다. 시간은 공간보다 위대하다고 누가 말했던가? 그의 권력에의 의지는 공간 속에서 희석되었고 자신의 시간을 통하여 그것을 성화하였다. 그를 아는 모든 이는 아낌없는 애도를 바쳤다.

2. 故 성재덕 피에르 썬제 신부를 영결하다



장례미사

1992년 2월 28일 오전 10 시 길음동 성당에서

향년 82세의 사제 성재덕 피에르 썬제 신부의 영결식은 장례미사와 사도 예절로 이루어졌다. 김수환 추기경이 집전하였다. 파리외방 선교회 두봉 주교를 비롯한 사제들, 한국인 신부들과 수도자, 지인 등 다수가 참석하였다. 고별식에서는 최승룡 신부의 강론이 있었고 성 신부의 유언서가 낭독되었다.

최승룡 신부의 고별 강론에서

“우리는 지금 한 성자의 죽음을 눈앞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으니 틀림없이 주님의 약속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주님의 어부가 되어 선배이신 성인 선교사들의 뒤를 따라 50년 이상을 이 땅의 어린 양들을 위해 일하셨고 또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딸년에 보내셔야 했던 병상생활, 그 5년간의 긴 투병 생활 역시 거의 초인적이셨습니다. 수녀님들도 정성껏 모셨겠지만 신부님은 무의식중에도 언제나 평화롭고 어린이 같은 모습이셨습니다. 강복을 드릴 때마다 ‘이대로 빨리 돌아가십시오.’ 하고 빌었습니다.”

“신부님이 뿌리신 사랑의 씨는 사방에서 그리고 영원히 꽃 피고 열매 맺을 것입니다. 혜화동에서, 미아리, 논산, 홍산, 수녀원, 양로원, 자선병원, 신부님의 사랑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수도회 설립자는 대부분 성인품에 오르셨



최승룡 신부

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 베드로,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아멘.”

영적 유언서

성가회 소비녀들에게 일동!

여러 가지 전조로서 내가 오래 동안 살지 못할 것과 같고 마지막 큰 여행길을 떠나기 전에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무슨 병 무슨 고통 주실까 물론 내가 모르나 결정하신대로 내가 미리 모든 경우를 다 받아들입니다. 다만 그의 성총의 도움을 겸손히 청합니다.

주님이 내려주신 무수한 은혜에 대하여 부모님과 나의 성소부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1935년 7월 7일 신품성사 받는 날 천주께서 옷사람 통하여 그날로 한국에 보내시고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계속되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으로써 내가 이보다 사랑의 더 큰 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나의 무수한 죄에 대하여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희망 다만 주님의 인자하신 마음뿐입니다. 나의 신덕은 다만 교황 믿는 것뿐입니다.

성가회 소비녀들 여러분. 나의 영적 딸들이! 너희와 함께 살아 있는 동안에 나의 잘못을, 나의 죄악의 유혹을 다 용서해주십시오. 주님만 완전하시니 사람뿐인 나는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기구해주시기를 애원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함께 살아 있는 동안에 나는 행복스럽게 잘 지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인내하여 참아주셨고 수십 가지 방법으로 잘 지내도록 뭇 마련하셨고 효성까지 바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냐시오 수녀와 베아트릭스 수녀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성가회 창립 문제에 대하여 25주년에 인쇄한 조그만 책에 할 말을 기록하였으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시 읽어보시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탁하겠습니까? 할 말이 많으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열심 중에 살으시오. 마음속부터 열심치 않으시면 수도생활 절대 헛된 일이며 또 위선한 일입니다. 열심이라는 것은 주님과 항상 친하게 지내는 일이니 날마다 묵상 시간에 천주님과 대화 합시다. 그때에 수십 번 주님께 사랑하시는 말씀을 올려드리시고 그의 본뜻을 더 잘 알게 연구하십시오. 수도원에 온 목적은 일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오직 다만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러 왔습니다. 물론 수도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가시가 있지만 신성의 유일한 길은 그것 하나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여야만 양심평화, 직분의 완성된 만족, 자유의 취미를 잘 알겠습니다. 일할 때보다 묵상하다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2. 서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도와주시오. 다들 착한 수도자 되게 노력하신 것 내가 직접 봤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자주 기쁨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큰 행복은 가족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너희 본 가족은 지금 성가수녀들입니다. 서로 사랑 하시면 천당 같고 서로 미워하시면 지옥 같겠습니다!



친필 유언서 곁장 친필 유언서 1쪽 친필 유언서 2쪽

누구나 다 어려운 난사를 당합니다. 더구나 요새 시기가 어려운 것과 같으니 다같이 서로 손을 마주 잡고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언니 자매 수녀들 사랑하며 서로 도와 드립시다. “합심”은 너희 문장입니다. 이것만 우리의 힘이며 우리 행복입니다. 받는 자보다, 바치는 자에게 기쁨이 더 큼니다.


3. 가난함과 가난한 자 미소한 자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소비녀 본 생활이며 또 특히 우리 사랑하온 예수의 본 모범과 원의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특히 총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예수의 신비한 몸인데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물리치면 예수의 신비한 몸이 아닐 뿐 아니라 또한 성교도 아니다. 왜냐면 성교회는 가난한 이들의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우리의 재산이십니다. 돈을 너무 좇다 보면 그만큼 주님의 사랑이 주립니다. 돈만 욕심 많은 자중에서 일부러 자유로이 가난함을 선택하신 수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주실만큼 주님의 강복을 더 받고 더 많은 결과를 거둘 것이며 일반 사회의 사랑과 인심을 얻을 것입니다.

소비녀들이! 해보시오! 주님의 안배를 꼭 믿어주시오.

주님의 강생을 계속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가난한 자들에게 까지 내려야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항상 교만한 자와 악한 부자들을 싫어 하셨습니다.

4. 교회의 지도자들을 모범적으로 잘 공경하십시오. 저들에게 순명하십시오. 특히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자주 거룩한 성직자들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극기 희생 많이 바치시오. 신자들의 열심은 대개 항상 성직자들의 열심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천주님 앞에 다시 만나보자. 안녕.

아버지 성 신부 싸인  1972. 12. 25일
성가회 시작한지 29년 후

※ 설립자의 자필 영적 유언서의 어색한 단어나 문장을 수정하지 않았음.



사도예절



유언서 낭독



사도 예절



사도 예절



묘지에서



묘지에서



묘지에서



묘지에서



삼우제



삼우제

3. 성재덕 베드로 신부님을 보내드리고

서울 성가소비녀회 설립자 성재덕 피에르 네스토르 썬제 신부는 포천 수녀원 묘지에 안장되었다. 양옆에는 고인이 된 두 분의 초대 소비녀들이 설립자 신부님을 옹위하고 있다. 그의 영혼은 흰옷의 천사들과 함께 성삼위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끊임없는 찬미와 찬송을 드리며 영원을 살고 있으리라! 성 신부의 누이동생 마리 헬렌(마리 테레스)썬제 수녀는 오빠 피에르 썬제 신부의 장례미사 후 일본으로 떠나면서 서울 성가소비녀회 수녀들에게 1992년 2월 29일 자로 쓴 한 통의 짧은 편지를 남겼다. 하느님께서 하신 모든 아름다운 일들에 대해 감사드리며 성 신부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하였다.

테레즈 수녀는 피에르 오빠 신부를 매우 좋아하였다. 짓궂게 굴고 놀림도 당하며 평범한 아이로 성장한 그가 사제 수품을 받고 해외 선교사로 파견되었기에 더욱 그런지도 모른다. 식구들은 사제 직무에 대한 그의 성실한 태도를 보고 늘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피에르 신부님은 하나의 도구였다고 생각한다. 성 신부가 성가소비녀회 수녀 모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가 제2의 고향인 '한국'을 얼마나 마음 깊이 사랑했는지... 그의 마음, 그의 생각, 그의 능력 등 한 마디로 그의 온 생애는 한국과 성가소비녀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테레즈 수녀는 너무도 잘 알게 되었다. 그녀의 오빠 신부는 단지 심기만 했을 뿐이라고 한다. 그것이 전부이다. 꽃과 결실을 내는 것은 바로 성가회 수녀들이라고 믿는 테레즈 수녀였다.

그녀는 가족을 대신해서 성가소비녀회 모든 수녀에게 감사드렸다. 설립자 신부님께 대한 충실, 친절, 인내 그리고 그의 마지막 여러 해 동안 긴 고난의 길에서 그를 간호하고 동반한 수녀들의 효심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는 메시지였다.

마리헬렌 테레즈 썬제 수녀는 향년 79세로 일본에서 47년을 살았다. 1993년 7월 15일 뇌종양 수술을 받고 입원 요양 중 일 년간 의식을 잃었고 1996년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갔다. 3년 2개월간 모든 정성을 다



기일 참배



수시로 묘지를 찾는 소비녀들



시월 성묘 (2014)



시월 성묘 (2014)

해 간호하였으나 회복이 불가능하였다. 헬렌 수녀는 선교사로서 참된 삶을 살았다. 성 신부와 가까이 있으면서 수차례 오빠 신부를 방문했던 그 수녀는 지금쯤 하늘나라에서 피에르 신부와 함께 살아있을 것 같다.

성 신부, 막을 수 없는 사랑의 강물

피에르 썬제 성재덕 신부는 막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강줄기를 따라서 예수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 그는 결혼하지 않은 누이동생들을 가장 가까운 친척들로 여겼다. 편지를 쓸 때 동정녀로 살고 있는 누이동생 안느 마리와 엘리사벳에게는 따로 편지를 쓴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다른 결혼한 형제자매 친척들은 모두 자기들 나름 걱정거리가 있으니 성직자인 성 신부 자신과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기 때문이란단다. 그래서 편지를 공동의 이름으로 쓰지 않고 직접 썼다는 것이다.

성 신부는 낮설고 물 설은 한국 땅에 와서 아쉬운 것이 많았다. 가난해서도 그랬겠지만 무엇보다도 본당의 선교 사목에 집중하다 보니 개인 신앙을 돌볼 여유는 더욱 찾기가 어려웠다. 신자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얻어 해결할 일은 더욱더 아니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그는 누이동생 안느 마리와 리제뜨에게 거의 모든 것을 의탁하다시피 하였다. 잡지책이나 신문, 문구류와 식품, 때로는 식기나 주방 기기까지 선편으로 항공편으로 주고받으며 살아갔다.

교사직을 소임으로 하고 있던 누이동생 마르그리트 수녀는 그에게 영적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었다. 테레즈(마리헬렌) 수녀는 가까운 일본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오빠 성 신부를 찾아와 즐거운 한때를 함께 하는 신선함을 남겨주었다.

성 신부는 형제자매들과의 서신교환을 통하여 그들에게 부모님의 존재와 사랑을 환기시켰다. 그들은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아버지의 유언 말씀을 따라 살게 되었다. 가족적으로 서로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들어 올렸다. 예수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을 떠난 성 신부는 하느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으로 그 가족을 사랑하였다.

쓸모 있는 봉사자 성 신부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움직이는 사람 피에르 쟁제 성재덕 신부는 가톨릭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고 인간 구원을 위한 하느님 나라 건설에 몸 바친 하느님의 사람이며 교회의 사람이었다. 1993년 2월 26일 故 성 재덕 베드로 신부 1주기 미사에서 당시 파리외방선교회 지부장 서봉세 신부는 성 신부가 행복한 사제였다고 한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6·25때 성 신부님이 부산으로 자전거 타고 피난 가셨다가 전쟁이 끝나자 신자들이 걱정되어 가장 먼저 논산으로 오셨던 그때, 성 신부는 선교사가 얼마나 좋고 행복한가를 끝없이 되풀이 했다고 한다. 그는 수중에 돈 한 푼 없었고 근심이 산더미 같았지만 언제나 ‘나는 행복한 선교사다’를 되풀이하며 살았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그것은 언제나 더 많이 일하고 싶은데 시간이 스물네 시간뿐이고 손발,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서 였다고 한다.

주일에 미사 네 대, 어린이 교리, 예비자 교리, 보좌신부 하나 없이 아무리 바빠도 그는 늘 행복하고 쓸모 있는 일꾼이었다.

“원 주교님이 1954년도에 기록하신 글을 보면 성 신부님이 어떻게 생활하셨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 신부님은 행복한 사제였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려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행복하고 쓸모 있는 일꾼’

서봉세 신부는 성가소비녀들에게 당부한다.

“그러니 여러분도 행복하고 쓸모 있는 일꾼이 되십시오. 비록 현대에서 살기가 바쁘고 복잡하지만 여러분의 설립자가 그렇게 살으셨으니 그것이 곧 여러분의 사명이요 부르심입니다.”

하느님 예수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성 신부의 구원적 사랑은 가는 곳마다 반향을 일으켰다. 혜화동에서, 미아리에서, 논산과 홍산에서, 설립 수도회와 양로원, 안나의 집, 복지병원 등지에서 그가 뿌린 구원의 씨는 사방에서 영원히 꽃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의 사랑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메아리쳐 울릴 것이다.

성 신부는 대전교구에서 사목활동을 하던 시기에 여러 번 감사와 표창을 받았다. 부적면 면장의 감사장, 논산 읍장의 감사장, 논산 육군 소장의 감사장, 충남도지사의 감사장, 그리고 논산군 교육 회장의 표창장과 프랑스 정부가 수여한 공로 상장, 공로패 등. 지금 사제관 벽 위에서 그가 걷고 뛰었던 발자취들을 묵묵히 비추어주고 있다.

성 신부는 단순히 업적을 쌓으려는 실천가가 아니었다. 그는 예수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 파견된 선교사제였다. 하느님 나라를 위해 부르심 받은 성재덕 베드로 신부, 그리스도 영이신 예수님을 따라 응답의 길, 자기 십자가의 길을 숨가빠 달려왔다. 지금은 침묵과 부동의 사도직으로 소비녀들을 지켜보며 격려를 보내주고 있다.

소비녀들의 아버지 영적 동반자 성 신부

막을 수 없는 성 신부 사랑의 강물은 성가소비녀들에게 생수의 물줄기가 되어 세세대대로 흘러내린다. 수련자들은 설립자 성 신부의 서한집을 읽으며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뢰를 배웠다. 그것은 철저히 하느님께서 주신 소명에 충실하고자 하는 밝음과 힘으로부터 오는 신뢰이다. 가정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절절히 배어 있음을 느꼈고 그 따스함을 통하여 수도공동체를 가족처럼 여기게 되었다.

수련기에 만난 설립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목자요 아버지였다.

그는 내면 깊은 곳에서 소비녀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였고 특히 자신의 선교지인 한국 사람들을 존중과 애정으로 대하였다.

그의 사랑은 삶과 기도와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넘쳐 나왔다.

선교사 설립자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강인한 마음, 죽을 때까지 자신을 바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소비녀들은 머나먼 이국 땅 한국까지 파견되어 온 설립자의 용기와 믿음을 본받고 싶어졌다.

설립자 성 신부는 평생 예수 말씀을 수행하며 사목하는 착한 목자이며 성인이었다. 그의 모든 강론에는 복음에 비추어 시대를 읽어내고 복음의 시선으로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배어있음을 본다. 그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면모에도 불구하고 설립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감은 소비녀들이 그의 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이다. 강생의 영성을 따라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그의 영은 하느님을 믿는 신앙과 그 뜻을 따르려는 현존과 순명의 영이며 의탁의 영, 비움과 겸허와 섭리에 따르는 영이다. 우리의 설립자는 소비녀들의 영적인 아버지이다. 그는 끊임없는 쇄신의 메시지를 남겨주었다.

내리사랑을 타고 올라간 설립자 성 신부

피에르 쟁제 성재덕 신부는 생애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하느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내려보내주는 일을 성취하고 하느님 품으로 돌아갔다. 책임감과 엄격함과 충실한 아버지 마음과 더불어 어머니의 관대하고 다정다감한 자비의 마음으로 가득했다. 그는 하느님 현존기도 수련을 지속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하느님을 위해 총체적으로 바친 성인이었다. 그는 하느님이 내려주신 내리사랑의 밧줄을 타고 올려진 강생의 영성과 사명의 전문가였다.

서울 성가소비녀회를 설립한 당시 36세의 설립자 성 신부는 매우 신중하게 처신하였다. 스스로 창립자의 자질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꼭 필요했기에 수도회를 설립하였다. 조선의 막후 실력자들이 모두 모여 있다고 할 백동 성당의 주임 사제로서 한 발자국을 옮겨 짊어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조선 전체에 영향을 주는 직책을 맡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는 설립자로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여성들을 선택하여 성가소비녀회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명성을 경계하는 낮은 자세를 지니고 있었다.

수도회를 떠나있을 때나 지도자로 돌아와 있을 때나 한결같이 소비녀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였다. 매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소비녀들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만을 바라고 가르치고 기도하였다. 그것은 오히려 수녀들 스스로가 하느님 뜻을 식별하며

살아가도록 양성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설립자는 다만 성가소비녀들이 ‘순명하고 명랑하며 순결하고 다정하며 청빈한 수녀’, ‘봉사의 박사’가 되기만을 소원하였다.

1950년 4월 20일 자로 말씀하신 “천주께서 이것을 원하시도다”와 “기뻐하라 소비녀”는 순명을 선두로 한 소비녀 마음자세를 극명하게 규정해주고 있다.

소비녀들은 ‘아버지 성 신부’ 설립자를 언제까지나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1992년 3월 19일 성가소비녀회 입회자들부터는 더 이상 살아있는 설립자를 실제로 보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

설립 70주년을 넘긴 서울 성가소비녀회는 이제 성가소비녀회가 되었고 하느님 창조질서(JPIC)에 따른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중진의 방인 수도회가 되었다.

성 신부는 참으로 프랑스인의 자존심, 아버지의 그리스도교적 군인정신, 그 시대의 순교정신, 어머니의 관대함과 자상함, 삼위일체 신심, 예수와 성모 신심 등 이 모든 요소들이 통합된 인격의 소산이었다.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대리자 교황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인자하신 은혜를 갈망하며 자신의 선교 사제 성소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지녔던 설립자 故 피에르 네스토르 썩제 성제덕 베드로 신부. 그는 오늘 도 영성과 사명의 말씀으로 성가소비녀들과 함께 한다.

열심 중에 사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도와주시오.
가난함과 가난한 자. 미소한 자들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강생! 그들에게 내려가시오.



묘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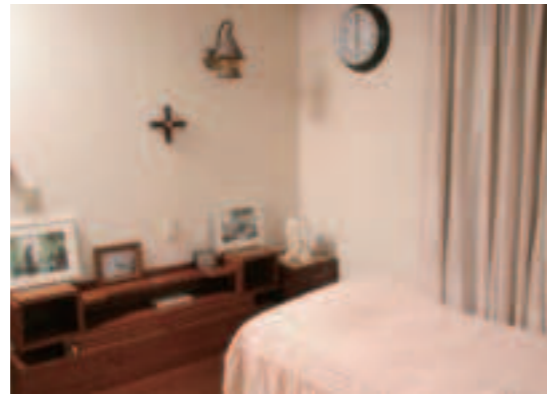
약력



책상 위에 지구仪와 타자기



책상 위의 십자가



침대와 시계

주요참고 문헌

I. 원전

창립 25주년

성가수녀원, 고시문 (1968. 12. 25.)

서울성가소비녀회 창설자 성재덕 신부(成載德 PIERRE SINGER)

서울성가소비녀회 50주년사 기념자료집 제1집, 역사자료실 편 (1993. 10. 3.) 분도인쇄소

서울성가소비녀회 창설자 성재덕 신부(成載德 PIERRE SINGER)서한집

서울성가소비녀회 50주년사 기념자료집 제2집, 역사자료실 편 (1993. 10. 3.) 분도인쇄소

소비녀들에게

성재덕(Pierre Singer) 신부 서간 모음집, 서울성가소비녀회 편, 서울성가소비녀회 (2003. 5. 15.) 기쁜소식

성재덕 신부 제2집

서울 성가소비녀회 창립자 PIERRE SINGER 2003/60주년 서울성가소비녀회 창립 60주년 기념자료집

서울성가소비녀회 편 (2004. 4. 30.) 기쁜소식

PIERRE SINGER 서한집 제2집

2003/60주년 서울성가소비녀회 창립 60주년 기념자료집, 서울 성가소비녀회 편 (2004. 4. 30.) 기쁜소식

초창기 소비녀들의 이야기

회고록, 성가소비녀회 편 (2008. 1. 1.)

삐에르 쎡제(Pierre Singer)의 설립카리스마에 따른 강생의 신학적 관점

강신숙 L.S.H.F. 성가소비녀회 (2011. 12. 15.)

II. 참조 문헌

서울성가소비녀회 창설자 성재덕 신부(成載德 PIERRE SINGER) 강론집 (가해).(나해). (다해).

서울성가소비녀회 창설50주년 기념 강론 번역집, 역사자료실편 (1999. 10. 14.)

가톨릭출판사 (2008. 11. 25.) 기쁜소식 (2000. 1. 20.) 기쁜소식

성재덕 신부 종합강론집

2003/60주년 서울성가소비녀회 창립60주년 기념자료집, 서울성가소비녀회 편 (2004. 4. 30.) 기쁜소식

서울성가소비녀회 설립자 성재덕 신부 수도자 피정과 영성 강의

서울 성가소비녀회편 (2006. 1. 25.) 기쁜소식

초창기 수도생활과 고유사도직

서울성가소비녀회 창설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역사자료실 편 (1994. 4. 3.) 가톨릭 출판사

강생의 삶과 서울성가소비녀회(1970~2002)

서울성가소비녀회 창설 60주년 기념 자료집, 서울성가소비녀회 편 (2004. 3. 15.) 기쁜소식

프랑스 대혁명 1. 2

막스갈로 박상준 옮김 (2003. 6. 28.) 민음사

소비녀 제5호

서울성가소비녀회 (1992. 5. 23.)

회 헌

서울 성가소비녀회 (1958. 1. 20.) 경향잡지사

성가소비녀회 역사자료실 자료

기타 인터넷 공유 자료

Ⅲ. 사진 참조

답동대 성당 100년사

천주교답동교회 (1989. 10. 28.) 분도인쇄

구합덕본당 100년사 자료집

구합덕본당 100년사 자료집 편찬위원회, 한국교회사 연구소 편. 천주교 구합덕 교회 (1990. 9. 10.)

柏洞 半世紀

惠化洞 聖堂 50年史, 1977. 天主教 惠化洞 教會 (1977. 1. 1.) 信一印刷社

서울성가소비녀회, 1943~1993

서울성가소비녀회 (1993. 10. 4.) 분도인쇄소

거룩한 동행 Sacred Journey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한국진출 125주년 기념특별전,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역사박물관 (2012. 11. 1.)

역사자료실 사진 자료

용어 · 약자 사용

서울 성가소비녀회 = 성가소비녀회 = 성가회

피에르 네스토르 생제 신부 = 피에르 생제 신부 = 피에르 신부 = 생제 신부

성 신부 = 성재덕 베드로 신부 = 성재덕 신부

파리외방선교회 = MEP

파리외방선교회 본부소장 문헌

불땡 Bulltin : 파리외방선교회에서 간행한 잡지

에코스 ECHOS : 파리외방선교회에서 간행한 잡지

에피파니 EPIPHANIE : MEP 성재덕 신부 기고문

M · E · P : 파리외방선교회 문서

신빈 = 청빈

허원 = 서약, 서원

쓰고 나서

‘성재덕 생애’를 쓰는 과정에서 나는 많은 것을 느끼고 체험했다. 무엇보다 설립자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표현이 상당 부분 공감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성 신부의 서한집을 읽고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대화를 통해서도 그랬다.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들보다는 적어도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만큼은 성 신부님의 글을 읽는 일에 조금은 더 집중하고 몰두해 왔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소임 상의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면서도 적극 협조해 주려는 공동체 멤버들이 새삼 고마워진다. 그래서 성 신부님의 현존 의식과 함께 나는 안도감을 가지고 숙고하고 기도하면서 작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우리의 설립자 신부님이 새롭게 보인다.

처음부터 프랑스 사람이라는 것이 약간은 부담스러운 적이 있었다. 우선 먹고사는 일이 우리와 사뭇 다를 것이라는 생각부터가 그랬다. 그리고 신부님이 한국어에 서투르셔서 의사소통이 그리 자연스럽지 못한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그것 때문에 성 신부는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소비녀를 그렇게나 맘에 두고 사랑하였음을 느끼게 된다.

서울 성가소비녀회가 처음으로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을 당시는 일제 치하였다. 거주지에서 쌀표를 받아 쌀을 팔아먹던 때였다. 하루는 엠마누엘 수녀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을 때 수녀원 마당에 통나무로 된 장작 한 마차와 무쇠솥 한 개와 국솥, 밥솥, 물 솥 이렇게 몇 개의 솥단지가 있었다는 일화를 독자들은 기억할 것이다. 성 신부님이 그것들을 가져다 놓으시고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단다. 쌀은 없는데 커다란 솥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풍경이었다. 초기 공동체 소비녀들은 생활 자체가 워낙 가난하고 침묵 속에서의 수련이 고난도로 진행되었지만 수도생활에 대한 열정으로 힘겨운 줄 모르고 살았다고 한다. 설립자의 강물 같은 사랑은 처음부터 소비녀들에게 그렇게 수용되었다.

설립자는 본당 사목을 하는 시기에 피정으로 서한으로 소비녀들의 영적 지도를 꾸준히 지속하였고 서로 기도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설립자의 관심을 폭포처럼 쏟아주었다. 그 결과 설립자 성 신부와 성가 소비녀회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인연으로 오늘에 이르렀고 파리외방선교회는 물론 파리의 아솜씨옹 수녀회와도 상호 협력자의 의미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서울 성가소비녀회의 명칭이 성가소비녀회로 바뀐 그 의미는 무엇일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50주년을 지내면서 시대 변천과 지구변화의 지상 속도감을 의식하며 나는 거기 우리 수도회의 미래적 전망이 함축되어 있음을 실감한다. 설립자의 숭한 강론 속에서도 그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970년대 사회정의 구현과 부정부패 규탄 시위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소비녀들을 잠잠히 격려하던 성 신부를 기억한다.

계급과 자본과 종교, 생태환경 등이 글로벌 하게 연계되어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뜻은 그에 따른 예언자적 사명 역할을 침묵하게 지적받고 있음이다. 절박한 고통과 가난의 현장을 찾아 함께 하며 불의에 저항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설립자는 재촉한다.

지난 3월 20일 성가소비녀회는 총원 성재덕관 3층에 ‘정의 평화 창조보전(JPIC)’ 사무국을 열었다. 강생의 영성에 따른 우리의 사도직이 그렇게 새로워져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년에는 JPIC 양성학교를 개설한다고 한다. 타 수도회들과 함께 소비녀 양성 프로그램 전환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성재덕 생애’ 출간과 함께 설립자 성재덕 베드로 신부가 하늘에서 축복을 내릴 일이다. 시시각각 변천해가는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하느님 예수그리스도에게 두고 이 사회의 춥고 어두운 현실을 직시하며 소비녀의 기본 영감을 살아가는 빛의 공동체 되라고 한다. 이제 그는 소비녀들의 영적 동반자이며 애정 가득한 벗이 되었다.

그동안 설립자 성 신부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간간이 이 작업의 진전 상황을 챙겨주며 훈훈한 격려와 위로를 준 회원들과 그 밖의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답례하고 싶다.

하느님이 인류의 보호자가 되어 오셨듯이 무관심이 세계화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소비녀들은 목자 없는 양떼를 측은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지니고 가난하고 힘없고 강도 맞은 사람들을 찾아 밖으로 나가 그들과 연대하며 하느님 나라 실현의 꿈을 향하여 새롭게 출발하자고 다짐하여 본다. 그것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싶다.

글쓴이

성재덕 생애

발행일	2015년 6월 30일
발행처	성가소비녀회
주소	(우) 136-100 서울시 성북구 김음로9길 46
전화	02) 940-5800
홈페이지	http://www.holyfamily.or.kr
편집·인쇄	(주)광고연합 서울 중구 퇴계로36길 37 (필동2가, 4층) Tel. 02) 2264-7306~8

여기에 실린 사진과 글은 발행처의 공식적인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 매 품

